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 책임연구원 :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광호(경기대 교수)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Ⅱ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 책임연구원 :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광호(경기대 교수)
- ▶ 집필진 : 김종성(한국고용정보원·청년위원회 전문관)
- ▶ 연구보조원 :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발 간 사 ■ ■ ■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대상은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청소년 정책은 주로 13세~18세의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집중되어 왔으며, 19세 이상 24세 미만의 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인 우리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20대 초반 청년 정책의 이슈와 담론에서도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은 사회·정책적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정책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것은 과잉 학력사회의 그늘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 위치에 있으며, 대학 진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적은 비중의 소수자로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여러 범주와 층위로 구분될 수 있는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 여부와 같은 단일 기준만으로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껏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청소년 정책 또는 20대 청년 정책의 주요 목표 집단으로 고려된 바 없으며, 이들의 특성과 욕구 등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시도한 정책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정책대상으로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19세부터 24세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을 높여 정책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아울러 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에서는 19세부터 24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및 의식 실태를 조사하고,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주요문제와 정책욕구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기초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본 정책 방향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기본정책과제 및 하위집단별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정책과제 수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대상(9세~24세)으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청소년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19세~24세 후기청소년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정책대상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고찰과 2차 자료 분석을 통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심화하였다. 또 일상생활 및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를 도출하였으며, 파악된 문제와 정책욕구에 기초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과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 욕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고졸’ 학력으로 인하여 일상에서 기회의 제한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저학력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들은 진로선택에 있어 ‘자기결정’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보통 이하의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사회적 위축감을 느끼고 있고, 일상의 근로활동에서 잦은 노동권 침해의 부당행위를 경험하고 있다.

둘째, 취업 및 구직청소년의 경우 군복무, 기초 직무역량의 부족, 사회적응력 부족 등으로 취업 후 단기퇴사 및 잦은 이직의 문제를 안고 있고,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직장 내 학력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고 업무를 통한 비전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셋째, 준비청소년은 진로목표 설정에 있어 자기주도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으며, 현실 인식과 직무개념의 부재로 막연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지속되는 취업준비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넷째, 니트청소년은 무엇을 하던지 적응력이 부족하며, 일상의 실패와 부정적 경험의 누적으로 자존감은 생성되지 않거나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소비지출을 위한 근로활

동을 하기는 하나, 짧은 근로와 니트 상태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상당 비율은 취업과 사회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이상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문제와 정책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세 가지 정책 방향, 즉 통합적 정책, 권리기반의 접근, 하위집단별 맞춤형 정책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 정책방향 하에서 추진될 일곱 개의 기본 추진과제와 세 가지의 하위집단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고졸, 비진학 청소년, 생활 및 의식 실태, 정책 욕구, 정책 방향, 추진과제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19세~24세에 해당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자가 절대 다수인 우리사회에서 고졸자로서 당면한 현실과 욕구의 사실(fact)을 발견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검토를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음.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데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접근 이론을 고찰하였으며,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하고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하였음.

○ 전문가 자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던 학계 전문가와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책연구를 해왔던 연구기관의 연구자,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현장전문가 등에게 연구방향 설정 및 내용 구성, 실태조사 설문 문항에 대한 검토를 받았으며,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관계부처의 관련 정책 전문가에게 정책자문도 구하였음.

○ 2차 자료 분석

고졸 비진학 청소년집단의 추이 변화 및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통계연보, 경제활동인

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자료,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실태조사 설문문항 개발을 위하여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교육종단연구 원자료를 부분적으로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 설문조사

2012년 현재 전국의 19세~24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을 취업자, 구직자, 준비자(진학·취업·창업), 니트(NEET)로 나누어 설문조사하였으며, 표본의 선정은 비확률 표집방법을, 조사방법은 온라인 자기기입과 거점 자기기입, 그리고 면접조사를 병행하였음. 분석에 사용된 총 표본수는 983명임.

○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례들을 포착하기 위하여 하위집단별로 할당된 총 16명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심층면접조사 하였으며, 정책의 당사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정책욕구를 이들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15명의 현장전문가를 심층면접해서 파악하였음. 또한 생애과정의 시점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문제와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 16명을 심층면접 하였음.

○ 콜로키움 및 워크숍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기본 이해를 확장·심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강연 또는 대담 방식의 콜로키움을 총 3회 개최하였음. 또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1회 개최하였음.

○ 정책협의회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정책협의회를 총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음. 먼저 첫 번째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난정부에서 추진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관련 정책들을 파악하였고, 두 번째 정책협의회에서는 현 정부 추진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 정책협의회에서는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정책방향 및 제안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타진하였음.

3. 주요결과

1) 고졸 비진학 청소년집단의 규모와 현황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변화 추이

2000년~2008년 사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3년간 매년 1만 5천명 정도의 고졸 비진학자가 증가, 특히 인문계고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고교 졸업 후 현재 상태

고졸 비진학자 전체 중 취업자(68.7%)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진학·취업준비(12.9%)>니트(12.3%)>구직자(6.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지난 10년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순수 고졸자가 취업 가능성이 높고, 졸업 후 다소 시간이 경과한 이들이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 비진학 사유 및 회고적 경험

- 표면적 비진학 사유로는 돈을 벌고 싶다거나(33.2%) 성적이 부족하다(28.1%)는 사유에 높은 응답률을 보이나, 비진학을 결정하는데 있어 단지 이들 사유만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의사 결정에 작용됨을 심층면접에서 발견함. 대학 비진학 사유는 고졸 비진학자의 현재 상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경제적 사유의 경우 진학준비자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거나 진로 목표나 계획이 없었던 이들은 현재 니트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중·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과 고교생활만족도(+)가 고졸 비진학자의 현재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진학준비나 니트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고, 고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이들은 취업자나 진학준비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졸업 후 경험의 경우 대학 중퇴 유무(-)와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대학 중퇴 경험이 있을 경우 취업자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졸업 후 일자리 경험이 많을수록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니트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생활 및 의식 실태

- 하위집단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일상생활 환경 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 니트와 취업준비자 집단이 가장 취약함.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일상생활 활동 중 근로활동은 취업청소년 뿐만 아니라 준비청소년과 구직청소년 집단에서도 일정시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로 다양한 부당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나, 대처방법의 인지와 노동권 인지 수준이 매우 낮음.
- 의식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보통 수준이하의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특히 니트청소년의 자존감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임. 뿐만 아니라 다른 하위집단과 현격하게 차이를 보일 만큼 부정적인 미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하위집단별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집단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존감으로 밝혀짐.

3)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 욕구

○ 고졸 비진학 청소년 공통의 주요 문제 및 정책 욕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학력으로 인하여 일자리 선택 시, 청소년활동과 공모전 등에서의 배제, 창업운영에서의 진입장벽과 네트워크 한계 등 기회의 제한을 일상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또한 저학력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들은 진로선택에 있어 자기 결정을 강요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위축감을 느끼고 있음. 또한 일 경험에서 잦은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

○ 하위집단별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 취업 및 구직청소년의 경우 군복무, 기초 직무역량 및 사회적응력 부족 등으로 취업 후 단기퇴사 및 잦은 이직의 문제를 안고 있고,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고졸

- 학력으로 인하여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하고 업무를 통한 비전이 부재한 상황에 놓여 있음.
- 진학·취업·창업 준비청소년의 경우 진로목표 설정에 있어서 스스로가 결정하고 주도하지 못하는, 즉 자기주도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으며, 현실인식과 직무개념의 부재로 막연한 진로목표의 설정과 준비의 문제가 있음.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취약계층에서 발견됨.
- 니트청소년들은 무엇을 하든지 적응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며, 일상의 실패와 부정적 경험의 누적으로 자존감은 생성되지 않거나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음. 소비지출을 위한 근로활동을 하기는 하나, 필요 소득만을 위한 짧은 근로와 니트상태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임. 그러나 니트청소년의 상당 비율은 취업과 사회활동을 희망하고 있음.

4. 정책제언

1)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

○ 정책의 세 가지 기본 방향

통합적 정책(integrated policy), 권리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 하위집단별 맞춤형 정책(Subgroup-specific Policy)

2) 추진 과제

○ 기본 추진 과제

- **통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개발 차원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현행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정책사업 전달체계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포함하는 등의 추진체계 정비
- **청년고용촉진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칙에 청소년기관 및 단체 포함:**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직업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청소년 개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제공(제8조의 3) 관련 기관에

청소년기관·단체를 포함하고,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제9조)에 반영

- **청년고용촉진법위원회에 청소년정책 관련자 포함:**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개발,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등 세 분야의 통합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구성에 청소년개발 내용을 반영 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관련 중앙부서와 청소년기관·단체대표가 포함 될 수 있도록 개정
- **고졸 비진학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 추진체계의 이원화:** 현행 10대 청소년(15세~19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중심의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은 20~24세 후기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부당행위 대처방법에 대한 청소년의 낮은 인지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 대상을 청소년기본법 기준으로 24세까지 확대하고 현행 고용노동부 중심의 근로보호정책 추진 체계를 사업장 대응 감독 및 규제체계와 청소년 대응 교육·상담 및 지원체계로 이원화하여 실효성을 높임.
- **고졸 비진학 청소년 종합정보서비스센터 운영:**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보 및 각종 사회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으며 전문 지원기관을 연계해주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종합정보서비스센터(가칭 Youth Support Station)를 운영
-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 특화된 ‘3업(3業, 3-up) 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일환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 특화된 ‘3업[(3業, 3-up): 취업-전업(轉業 혹은 재취업)-창업] 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 하위집단 맞춤형 추진 과제

- **취업 및 구직청소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과제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 욕구 반영 모니터링
- **진학·취업·창업 준비청소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직업훈련 소핑 예방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통합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 **니트청소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NPO 및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니트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구성	6
1) 연구 내용의 구성	6
2) 연구 방법	9
3. 연구추진 체계 및 절차	17

제1부 정책 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이해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3
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범위	25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방식	34
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대사적 관점 및 시각	34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접근	37
3. 고졸 비진학 청소년 관련 연구의 동향	45
III. 고졸 비진학 청소년관련 정책 현황	51
1. 지난 정부의 추진 정책(2008~2012)	53
1) 추진 과정	53
2) 주요 추진 정책	55
2. 박근혜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2013~)	63
1) 관련 국정과제	63
2) 주요 정책 현황	66

IV.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추이 및 현황 분석	73
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및 특성별 추이	75
1) 인구 규모의 추이와 변화	75
2) 고교 졸업 후 상태 및 특성별 추이와 분포	78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졸업 후 현황	88
1) 고교 졸업 후 현재 상태	88
2) 미취업 기간 및 구직 경험	92
3) 첫 일자리 및 현재 일자리	100
4)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 결정 요인	109

제2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V.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조사	115
1. 고졸 비진학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117
1) 조사 설계에서의 쟁점 사항	117
2) 조사 대상 및 방법	119
3) 설문구조 및 조사 내용	121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0
2. 심층면접조사	133
1) 추진절차	133
2) 면접 대상별 조사개요	134
VI.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비진학 사유 및 회고적 경험	143
1. 비진학 사유	145
1) 특성별 비진학 사유	145

2) 하위집단별 비진학 사유	148
3) 특성 및 비진학 사유가 하위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150
2. 재학 중 경험	153
1) 고교선택 사유 및 학업중단 경험	153
2) 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 경험	158
3) 진로 선택 및 고교생활만족도	165
4) 재학 중 경험이 하위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171
3. 졸업 후 경험	175
1) 일 경험	175
2) 대학 진학 및 중퇴 경험	180
3) 군복무 경험	187
4) 졸업 후 경험이 현재 하위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189
 Ⅶ.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생활 및 의식 실태	193
1. 일상생활 환경 특성	195
1) 거주환경	195
2) 부모 및 가족관계 특성	199
3) 사회적 지지	213
2.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및 행태	219
1) 일상생활 시간 사용	219
2) 근로활동	222
3) 소비활동	252
4) 여가활동	258
3. 일상생활에서의 의식 실태 및 향후 계획	261
1) 자존감, 진로성숙도, 미래관	261
2) 생활만족도	266
3) 향후 계획	270

제3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정책욕구 및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

VIII.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277
1. 고졸 비진학 청소년 공통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279
1) 기회의 제한	279
2) 강제된 자기결정	283
3)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위축감	286
4) 노동권의 침해	290
2. 취업 및 구직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295
1) 단기퇴사 및 잦은 이직	295
2) 열악한 근로 여건	299
3) 직장 내 학력 차별과 업무 비전의 부재	302
3. 진학·취업·창업 준비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306
1) 진로목표 설정에서의 자기주도성 상실	306
2) 현실인식과 직무개념의 부재	307
3) 취약계층의 장기간 지속되는 준비 상태	311
4. 니트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314
1) 적응력의 부재	314
2) 생성되지 않는 자존감과 학습된 무기력	317
3) 짧은 근로기간과 니트 상태의 반복	320
IX.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323
1.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	325
1)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325
2) 정책의 세 가지 기본 방향	329

2. 정책 추진 과제	333
1) 기본 추진과제	334
2) 하위집단 맞춤형 세부 추진과제	348
참고문헌	357
부 록	371

표 목 차

<표 I -1> 연구내용의 구성	8
<표 I -2> 자문영역 및 자문진	10
<표 I -3> 양적 조사 방법	11
<표 I -4> 심층면접 조사 방법	13
<표 I -5> 콜로키움 개최 및 주요 내용	14
<표 I -6> 워크숍 개최 및 주요 내용	14
<표 I -7> 정책협의회 개최 및 주요 내용	15
<표 I -8> 연구 추진 방법 총괄표	16
<표 II -1> 교육 분야에서 비진학자 개념과 범주	26
<표 II -2> 노동·고용 분야에서 비진학자 개념과 범주	29
<표 II -3> 청소년 분야에서 비진학자 개념과 범주	32
<표 II -4> 사회계층화에 대한 기능론과 갈등론적 관점	38
<표 II -5> 빈곤, 박탈, 사회적 배제의 차이	40
<표 II -6> 최빈층 청소년(underclass)에 관한 개인주의자, 구조주의자 모델 비교	42
<표 II -7> 고졸 비진학 청소년 관련 주요 선행연구	49
<표 III -1> 고졸자 관련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64
<표 III -2> 고졸자관련 박근혜정부 정책: 교육단계	67
<표 III -3> 고졸자관련 박근혜정부 정책: 졸업 및 취업단계	69
<표 III -4> 고졸자관련 박근혜정부 정책: 취업 후 단계	71
<표 III -5> 고졸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 서울특별시	72
<표 IV -1> 고교 졸업자 중 진학자 및 비진학자의 추이(2000~2010)	76
<표 IV -2>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자(2011~2012)	77
<표 IV -3> 고등학교 유형별 비진학자(2011~2012)	78
<표 IV -4>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상태 추이: 취업자 및 입대자(2000~2010) ..	79
<표 IV -5>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상태 추이: 무직자 및 미상자(2000~2010) ..	80
<표 IV -6>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상태 최근 추이: 취업자 및 입대자(2011~2012)	81
<표 IV -7>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상태 최근 추이: 무직자 및 미상자(2011~2012)	81

<표 IV -8> 성별 진학자 및 비진학자 추이: 일반계 고교 졸업자	82
<표 IV -9> 성별 진학자 및 비진학자 추이: 전문계 고교 졸업자	83
<표 IV-10> 고등학교 특성별 졸업자 성별차이(2011~2012)	84
<표 IV-11> 고등학교 유형 및 성별 진학자(2011~2012)	84
<표 IV-12> 고등학교 유형 및 성별 비진학자(2011-2012)	85
<표 IV-13> 일반고와 특수목적고의 졸업자 분포(2012)	85
<표 IV-14> 특성화고와 자율고의 졸업자 분포(2012)	86
<표 IV-15>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현재 상태	88
<표 IV-16> 고졸 비진학자의 성별에 따른 고교 졸업 후 현재 상태	89
<표 IV-17>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현재 상태	90
<표 IV-18> 고졸 비진학자의 미취업기간	92
<표 IV-19> 고졸 비진학자의 미취업기간 활동	94
<표 IV-20> 고졸 비진학자의 지난주 구직 활동 경험	96
<표 IV-21> 고졸 비진학자의 구직 경로	97
<표 IV-22> 고졸 비진학자의 희망 고용 형태	97
<표 IV-23> 고졸 비진학자의 구직방법	98
<표 IV-24> 고졸 비진학자의 졸업 후 취업 횟수	99
<표 IV-25> 고졸 비진학자의 졸업 후 첫 일자리 근로형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101
<표 IV-26> 고졸 비진학자의 졸업 후 첫 일자리 근로형태: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102
<표 IV-27> 고졸 비진학자의 첫 일자리 중단사유	103
<표 IV-28> 고졸 비진학자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	104
<표 IV-29> 고졸 비진학자의 첫 일자리 산업 분포	105
<표 IV-30> 고졸 비진학자의 첫 일자리 직종 분포	106
<표 IV-31> 고졸 비진학자의 첫 일자리 취업 경로	107
<표 IV-32> 고졸 비진학자의 현재 일자리 상태: 근로시간, 사업체 규모 및 종사상지위 ..	108
<표 IV-33> 분석에 사용된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별 표본 규모	110

<표 IV-34>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 결정 요인: Panel Logit Analysis	111
<표 V -1> 조사내용의 구성	122
<표 V -2> 설문문항 및 문항작성의 근거	124
<표 V -3>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30
<표 V -4> 조사대상의 출신고교 및 졸업 후 경험 특성	132
<표 V -5>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현장전문가	134
<표 V -6> 현장전문가대상 심층면접의 주요내용	135
<표 V -7> 심층면접 참여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 모집 할당 기준 및 수	136
<표 V -8>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	137
<표 V -9>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 대상 심층면접 주요내용	138
<표 V-10> 심층면접 참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 모집 할당 기준 및 수	139
<표 V-11>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고졸 비진학 청소년	140
<표 V-12> 고졸 비진학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주요내용	141
<표 VI -1> 고졸 비진학자 특성별 비진학사유	146
<표 VI -2> 사회보호대상 청소년의 비진학사유	148
<표 VI -3>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별 비진학사유	149
<표 VI -4> 대학 비진학 사유가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I: Multinomial Logit Analysis	150
<표 VI -5> 대학 비진학 사유가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II: Multinomial Logit Analysis	152
<표 VI -6>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고교선택 사유	153
<표 VI -7> 중·고교 재학 중 학업중단 경험 유무	155
<표 VI -8> 중·고교 재학 중 학업중단 사유	156
<표 VI -9> 중·고교 재학 중 학업중단 시기: 학업중단 경험자	157
<표 VI-10>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158
<표 VI-11> 고교 재학 중 주요 아르바이트 직종	159
<표 VI-12>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주요 업종: 상위 5개	159
<표 VI-13> 아르바이트 당시 부당행위 경험 및 대응	162

<표 VI-14> 고교 재학 중 현장실습 경험 유무	164
<표 VI-15> 현장실습 당시 부당행위 경험 및 대응	165
<표 VI-16> 고교 재학 중 진로상담 및 지원자 유무	166
<표 VI-17> 고교 재학 중 주된 진로 상담 및 지원자(복수응답)	168
<표 VI-18> 고교생활만족도: 회고적 평가	169
<표 VI-19> 현재 삶에 대한 고교생활의 도움 정도	170
<표 VI-20> 고등학교 재학 중 경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I: Multinomial Logit Analysis	172
<표 VI-21> 고등학교 재학 중 경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II: Multinomial Logit Analysis	174
<표 VI-22> 고교 졸업 후 근로경험 유무	176
<표 VI-23> 고교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수	177
<표 VI-24> 고교 졸업 후 일자리 수 결정요인: Count Model Analysis	178
<표 VI-25>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경험 유무	180
<표 VI-26> 대학 진학 유경험자의 대학 중퇴 여부	182
<표 VI-27> 대학 진학 유경험자의 대학 중퇴 사유	183
<표 VI-28> 대학 진학 및 중퇴 경험의 결정요인: Nested Logit Analysis	186
<표 VI-29>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군복무 완료 여부	187
<표 VI-30> 하위집단별 군복무 경험의 영향정도	188
<표 VI-31> 졸업 후 경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I: Multinomial Logit Analysis	190
<표 VI-32> 졸업 후 경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II: Multinomial Logit Analysis	192
<표 VII-1> 고졸 비진학자의 부모와 동거 여부	196
<표 VII-2> 부모와 비동거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거형태	196
<표 VII-3> 부모와 비동거자 주거형태별 월평균 주거비용(보증금 외)	198
<표 VII-4> 비동거자 주거형태 및 하위집단별 주거비 조달방법	199
<표 VII-5> 고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부모 생존 여부	200
<표 VII-6>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부모 이혼·별거·사별 경험 여부	201
<표 VII-7> 고졸 비진학 청소년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아버지의 교육수준	203

<표 VII-8> 고졸 비진학 청소년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어머니의 교육수준	203
<표 VII-9> 고졸 비진학 청소년 부모의 경제활동: 아버지의 종사상지위	204
<표 VII-10> 고졸 비진학 청소년 부모의 경제활동: 아버지의 종사 직종	205
<표 VII-11> 고졸 비진학 청소년 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	206
<표 VII-1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적 특성: 부모의 관여수준	207
<표 VII-13>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적 특성: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209
<표 VII-14>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적 특성: 부모가 기대하는 경제적 자립	211
<표 VII-15>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적 특성: 가족응집력	212
<표 VII-16>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 어려울 때 의지정도	214
<표 VII-17>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 내 문제에 대한 경청 수준	215
<표 VII-18>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 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	216
<표 VII-19> 고졸 비진학자의 생활시간 사용	219
<표 VII-20>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고교 졸업 후 최장기간 일한 근무지 여부	222
<표 VII-21>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취업경로	223
<표 VII-22>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일의 내용	225
<표 VII-23>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근속기간	227
<표 VII-24>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고용형태	229
<표 VII-25>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231
<표 VII-26>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일의 내용별 종사자 수	233
<표 VII-27>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근로시간형태	234
<표 VII-28>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일의 내용별 주당 근무시간	235
<표 VII-29>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월평균 소득	236
<표 VII-30>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일의 내용별 4대 보험 가입 여부	237
<표 VII-31>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퇴직금 수령여부	238
<표 VII-32>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현재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242
<표 VII-33> 구직자 및 준비자의 현재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활동 여부	244

<표 VII-34> 구직자 및 준비자의 현재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목적	244
<표 VII-35> 구직자 및 준비자의 현재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일의 내용	245
<표 VII-36> 구직자 및 준비자의 현재 아르바이트: 월평균 소득	247
<표 VII-37> 취업자, 구직자 및 준비자의 현재 (일)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경험	249
<표 VII-38> 취업자, 구직자 및 준비자의 현재 (일) 아르바이트: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	250
<표 VII-39>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소비지출: 월평균 총 소비지출금액	253
<표 VII-40>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소비지출: 월소비지출 금액 조달방법(복수응답)	254
<표 VII-4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비소비지출: 저축여부 및 목적(복수응답)	255
<표 VII-4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소비지출: 월평균 저축액	256
<표 VII-43>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소비지출: 부채유무 및 경로(복수응답)	257
<표 VII-44>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소비지출: 부채사유	258
<표 VII-45>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여가활동: 주된 여가활동(1순위)	259
<표 VII-46>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여가활동: 여가활동 상위 5개	260
<표 VII-47>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의식: 자존감	262
<표 VII-48>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의식: 진로성숙도	264
<표 VII-49>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의식: 미래관	265
<표 VII-50>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267
<표 VII-51> 현재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268
<표 VII-52> 취업자의 향후 계획	271
<표 VII-53> 취업청소년의 향후 계획 영향요인: Multinomial Logit Analysis	272
<표 VII-54> 구직자, 준비자, 니트청소년의 향후계획	273
<표 VII-55> 니트청소년의 향후 계획 결정요인: Nested Logit Analysis	274
<표 VIII - 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부당행위 경험: 고교 재학 중 및 현재 일자리 종합	291
<표 VIII -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부당행위 대응: 고교 재학 중 및 현재 일자리 종합	293
<표 IX - 1> 청소년복지지원법: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 근거 조항 신설	335
<표 IX - 2> 청소년복지지원법: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 유스센터 설치 근거 조항 신설	337

<표 IX -3>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중기 로드맵	339
<표 IX -4>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관련 조항 개정 사항	341
<표 IX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 사항	343
<표 IX -6>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관련 조항 개정 사항	343
<표 IX -7>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추진 일정(안)	355

그 림 목 차

【그림 I-1】 연차별 추진 연구내용	17
【그림 I-2】 연구 추진체계	18
【그림 I-3】 연구 추진절차	19
【그림 II-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학력과 이수여부 기준	33
【그림 III-1】 단계별 고졸 비진학자 교육 및 고용정책	54
【그림 III-2】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성장 경로(Career Path) 모형	55
【그림 III-3】 특성화고 체제개편 방향	58
【그림 III-4】 특성화고졸 기능직 입사자들의 성공 경력·경로 형성과정	60
【그림 III-5】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66
【그림 IV-1】 고졸청소년층 진학자와 비진학자 변화추이	78
【그림 V-1】 조사대상자 하위집단구성 및 분류	119
【그림 V-2】 설문 개발 절차	121
【그림 V-3】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	122
【그림 V-4】 심층면접조사 추진 절차	133
【그림 VI-1】 대학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복수응답)	181
【그림 VI-2】 대학 중퇴 시기	185
【그림 VI-3】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영향	188
【그림 VII-1】 부모와 동거 여부	195
【그림 VII-2】 현재 일의 수준	239
【그림 VII-3】 고등학교 학습내용이 현재 업무에 주는 도움 정도	240
【그림 VII-4】 고교시절 학습내용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40
【그림 VII-5】 현재업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241
【그림 VII-6】 아르바이트 주당 평균 근로시간	246
【그림 VII-7】 구직자 및 준비자의 아르바이트 병행에 따른 어려움 정도	248
【그림 VII-8】 자존감 문항별 평균	262
【그림 VII-9】 진로성숙도 문항별 평균	264
【그림 VIII-1】 취업 청소년의 현재일자리 개인 발전가능성 만족도	305

【그림 VIII-2】 창업교육여부	310
【그림 VIII-3】 창업정보를 얻는 방법(복수응답)	310
【그림 VIII-4】 니트청소년의 구직활동 의향	322
【그림 VIII-5】 니트청소년의 구직 외 활동 의향	322
【그림 IX-1】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 추진과제 제안의 네 가지 축	334
【그림 IX-2】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 추진체계 정비 방안	338
【그림 IX-3】 고졸 비진학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 추진체계 개선안	345
【그림 IX-4】 고졸 비진학 청소년 종합정보서비스센터 제안(안)	346
【그림 IX-5】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3업 취업성공패키지	348
【그림 IX-6】 니트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사례	354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구성
3.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2012년에 2개년 연속과제로 설계되어 수행되고 있는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의 2년차 과제이다.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연령이 9세부터 24세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제까지의 청소년 정책 및 연구가 주로 13세~18세의 중·고등학생에 집중되어 왔으며, 19세~24세 연령대에 해당하는 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책대상으로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였다(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2)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 연구이다.

2012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 세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생활·의식 실태를 현안 이슈 중심으로 조사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013년 2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정책대상으로서 주목받지 못해왔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현실과 당면한 주요 문제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2008년 77.0%에 이르렀던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 2012년 71.3%까지 감소하였고, 취업률은 2008년 25.3%에서 2012년 현재 29.3%로 다소 증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a).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감소하였다 할지라도, 그 비율이 여전히 고등학교 졸업자의 7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사회의 정책 이슈와 담론은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이들에 집중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절대 다수인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청소년들은 20대 초반 연령층과 관련된 이슈들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은 사회·정책적인 관심과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정책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한 데에는 우리사회가 과잉 학력사회인 탓이 크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이 필수라는 인식이 팽배한 학벌사회의 그늘에 가려져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위치에 있으며(김민찬, 2013),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학 진학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어 후기청소년세대 구성원으로서도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관심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삶이 공통된 이슈들을 갖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특성을 갖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집단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 이들과 취업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있고, 취업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 중에는 진학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는 이들도 있으며, 자기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학에 진학했다가 자퇴를 했거나 복학을 기약할 수 없는 장기휴학 상태에 있기도 하고, 군 입대를 기다리는 상태에 있기도 하며, 어떠한 일도 교육도 또는 직업훈련도 하지 않는 일명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상태에 있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단지 진학 여부만을 준거로 삼아 하나의 집단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여러 범주와 층위로 구분될 수 있는 다양한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분야에서도 선불리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정책대상으로서 관심 받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로 정부정책의 접근 방식을 들 수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교육지원정책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만성적인 청년실업에 대응하는 고용 및 취업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이미 학력 인플레이 현상이 심화되어 청년실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졸자가 정책대상의 중심이 되어왔기 때문에 소수 집단인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정책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고교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조차도 지난 10여 년 간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대학 진학률은 증가하는 등 노동공급 인력의 고학력화는 가속화되어 온데 반해, 노동시장은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 불일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심화가 국가경쟁력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정부에서는 최근 이에 대응하고자 고교 직업교육의 정상화와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위풍당당 고졸시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마이스터고 육성전략(2008.7)’은 선취업-후진학정책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5)’과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방안(2010.9)’, 그리고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2011.1)’으로 확대 추진되었으며, 2011년 9월부터 ‘열린 고용 정책’으로 이어져 왔다. 이상의 일련의 정책 추진의 과정에 비추어본다면, 이제까지 정책 대상으로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주요 정책 목표 집단으로 고려되고, 이들에게까지 기존 정책의 적용 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의 고용정책은 다양한 삶의 형태를 지닌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2012년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전체의 28.7%를 차지하는 고졸 비진학자 중 취업자는 29.3%로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졸업 후 바로 군입대를 한 0.8%를 제외한, 70%는 취업하지 않았거나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2b),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고용정책만으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집단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기에 역부족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취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 고용정책이 정책대상자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욕구에 기반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제까지는 취업률로 읽혀지는 양 중심의 취업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고학력화 및 학벌중심사회에서 노동시장의 낮은 지위를 점하고 있는 고졸 비진학자의 고용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예컨대 대졸자들과는 달리, 고졸 비진학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군미필로 인하여 사업체에서 채용을 꺼리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군입대 전까지 주로 임시·일용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높고, 대체로 10인 미만의 고용환경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체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으며, 노동시장 진입 초기 자발적 실업이나 이직이 빈번하다(박기현, 2013; 박상현, 2012; 박진희, 2012; 윤형한·신동준, 2012; 채창균·오호영·윤형한·정재호·신동준·이인재, 2012).

이와 같은 사실은 취업기회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고용 유지 및 생애 근로경력 형성을 위한 질(quality) 중심의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일정한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과 이들이 현실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가시화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의 관심은 취업지원 정책에만 국한되어 있어, 정책대상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정책 욕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양적인 공급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후기청소년 중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당면한 현실과 욕구파악을 위한 사실을 발견(fact finding)하고자 한다. 또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기초하여 향후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하위범주의 삶의 형태가 존재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서 갖는 공통된 특성과 각 하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위집단을 유형화하여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졸 비진학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현장전문가 그리고 이미 20대 초반시기를 경험한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정책욕구를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집단을 경제활동여부 및 활동 상태를 기준으로 네 개의 하위집단(취업자, 구직자, 진학·취업·창업준비자, 니트(NEET))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기반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1) 연구 내용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를 바탕으로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현실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부에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구성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과 범위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의하고, 우리사회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시대사적 관점에서 논의하며,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접근 방법들을

사회계층화 관점, 사회적 배제 관점, 노동시장이행 측면에서의 관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고졸 비진학 청소년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 동향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제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 중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과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들의 추진과정과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전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현황을 세 단계, 즉 교육단계-졸업 및 취업단계-취업 후 단계로 나누어 분류·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교육통계연보」,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차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 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및 특성별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고교 졸업 후 현황을 취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실증모델 분석을 통하여 지난 10여 년 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졸업 후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태조사에 앞서 큰 틀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제2부에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내용을 구성하였다.

우선 5장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및 고졸 비진학 청소년뿐만 아니라 현장전문가, 그리고 고졸 3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접조사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으로는 조사 설계 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조사 방법, 그리고 설문의 구조 및 조사대상 하위집단별 설문 내용을 제시하였고, 심층면접조사 내용으로는 면접조사 추진 절차와 방법, 그리고 고졸 비진학 청소년, 현장전문가, 30대 성인 등 조사대상별로 조사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6장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 생활 및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경험을 파악하고자, 대학 비진학 사유와 중·고교 재학 중 및 고교 졸업 후에 대한 회고적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모델분석을 통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비진학 사유와 회고적 경험 요인을 분석하였고, 짧은 기간 내 입직과 퇴직을 반복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근로 패턴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고교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학 중퇴자들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일정 비율을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대학 진학 후 중퇴 경험을 결정하는 요인도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생활 및 의식 실태를 일상생활 환경 특성과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및 행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의식 및 향후 계획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모델분석을 통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재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고, 현재의 생활 및 의식의 어떠한 요인이 미래계획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향후 계획의 영향요인을 하위집단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제3부에는 문헌고찰, 2차 자료 분석,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제8장에서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와 주요 문제를 통해 밝혀진 정책욕구를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전체가 당면한 공통의 것, 그리고 취업청소년, 구직 및 진학·취업·창업 준비청소년, 니트청소년 등 하위집단별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정책과제 제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하위집단별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심층면접조사 자료와 고등학교 졸업 후 10~15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심층면접조사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정책욕구 도출에 현장 전문적 시각과 선경험자의 시각을 더하였다.

표 I-1 연구내용의 구성

구분	해당 장	내용
서론	제1장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내용의 구성 -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제1부 정책 대상으로서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이해	제2장~제4장	- 고졸 비진학 청소년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고찰 - 고졸 비진학 청소년관련 정책 현황 분석 - 고졸 비진학 청소년 추이 및 고교 졸업 후 현황에 관한 2차 자료 분석
제2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제5장~제7장	- 고졸 비진학 청소년 생활 및 의식 실태 조사 개요 - 비진학 사유 및 회고적 경험에 관한 기초 분석 및 현재 상태와 회고적 경험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현재 생활 및 의식 실태, 향후 계획에 관한 기초분석 및 생활만족도, 하위집단별 향후 계획의 영향요인 분석
제3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정책욕구 및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	제8장~제9장	-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 공통 및 하위집단별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 - 정책욕구에 기초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마지막 제9장에서는 제8장에서 도출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정책욕구에 기초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관련 정책이 이들의 정책욕구에 대응하는데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고졸 비진학 청소년과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기본 추진과제와 하위집단별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고졸 비진학 청소년관련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검토를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고,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이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데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을 사회계층화 이론과 사회적 배제 관점, 노동시장 이행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동향과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방향 설정 및 내용구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던 학계 전문가,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책 연구를 해왔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자,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현장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실태조사 설문 초안 검토 및 수정된 설문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가 이루어졌으며,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부처와의 정책실무협의회의도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표 I-2 자문영역 및 자문진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비고
1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 대상 범주화에 대한 자문	• 관계부처 공무원 10여명 • 학계 10여명 • 현장전문가 15여명	
2	설문 및 면접조사 문항 개발을 위한 자문		
3	자료 분석 및 정책 개발 방향 관련 자문		

(3) 양적연구

① 2차자료 분석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집단의 추이 변화 및 졸업 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설문문항 개발 및 내용 구성을 위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의 「2011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종단연구」 원자료를 부분적으로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② 설문조사

설문조사에서는 2012년 현재 전국의 19세~24세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취업자, 구직자, 준비자(취업·창업·진학), 니트(NEET)로 나누어 설문조사 하였다. 표본의 선정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모집단이 명확하지 않고 표본추출의 틀(sampling frame)의 확보가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를 모두 활용하였다.

○ 조사방법

표 I-3 양적 조사 방법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 전국 만19세~24세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																																					
표집틀	• 대상자 특성상 비확률표본조사(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 활용으로 표집틀 없음																																					
표본수	• 고졸 비진학 총 표본 983명 – 경제활동 청소년 440명, 비경제활동 청소년 543명 – 하위집단별 성별 비율 고려 – 창업 및 니트 집단 할당 비적용(최소 표본 수 50명) (단위: 명) <table><tr><th rowspan="3">전체</th><th colspan="2">경제활동자</th><th colspan="4">비경제활동자</th></tr><tr><th rowspan="2">취업자</th><th rowspan="2">구직자 (실업자)</th><th colspan="3">준비자</th><th rowspan="2">니트 (NEET)</th></tr><tr><th>진학</th><th>취업</th><th>창업</th></tr><tr><td>983</td><td>219</td><td>221</td><td>220</td><td>155</td><td>57</td><td>111</td></tr><tr><td>남</td><td>94</td><td>91</td><td>117</td><td>66</td><td>25</td><td>29</td></tr><tr><td>여</td><td>125</td><td>130</td><td>103</td><td>89</td><td>32</td><td>82</td></tr></table>	전체	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자				취업자	구직자 (실업자)	준비자			니트 (NEET)	진학	취업	창업	983	219	221	220	155	57	111	남	94	91	117	66	25	29	여	125	130	103	89	32	82
전체	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자																																			
	취업자		구직자 (실업자)	준비자			니트 (NEET)																															
		진학		취업	창업																																	
983	219	221	220	155	57	111																																
남	94	91	117	66	25	29																																
여	125	130	103	89	32	82																																
표집방법	• 표집방법: 할당표집(quota sampling), 유의표집 (purposive sampling),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 조사방법: 온라인 자기기입(self-report) 조사, 거점 자기기입 조사, 면접조사 병행 (단위: 명) <table><tr><th rowspan="3">전체</th><th colspan="2">경제활동자</th><th colspan="4">비경제활동자</th></tr><tr><th rowspan="2">취업자</th><th rowspan="2">구직자 (실업자)</th><th colspan="3">준비자</th><th rowspan="2">니트 (NEET)</th></tr><tr><th>진학</th><th>취업</th><th>창업</th></tr><tr><td>표집방법</td><td>할당</td><td>할당</td><td>할당</td><td>할당</td><td>유익+ 눈덩이</td><td>유익+ 눈덩이</td></tr><tr><td>조사방법</td><td colspan="6">온라인+거점 병행</td></tr></table>	전체	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자				취업자	구직자 (실업자)	준비자			니트 (NEET)	진학	취업	창업	표집방법	할당	할당	할당	할당	유익+ 눈덩이	유익+ 눈덩이	조사방법	온라인+거점 병행												
전체	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자																																			
	취업자		구직자 (실업자)	준비자			니트 (NEET)																															
		진학		취업	창업																																	
표집방법	할당	할당	할당	할당	유익+ 눈덩이	유익+ 눈덩이																																
조사방법	온라인+거점 병행																																					
조사 시기	2013년 6월~8월 (2개월간)																																					
통합조사 참여	통합조사 참여함 () / 참여하지 않음 (○)																																					

먼저 고졸 비진학자 성별 분포 및 하위집단별 구성비 확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 「교육통계연보자료」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복무 사유로 전반적으로 남성의 비중이 여성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남성의 최소 표본 할당수를 확정하였다. 표집은 할당표집(quota sampling)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창업 준비청소년과 니트청소년의 경우 표본 발굴 및 확보가 매우 어려움을 고려하여 할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의표집방법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당초 할당 기준에 지역분포를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고졸 비진학자 표본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성별 이외 다른 기준변수를 적용하지 못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온라인 조사, 거점조사, 면접조사 방식을 병행하였다.

둘째, 진학·취업·창업 준비자의 경우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대입전 문재수학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기관,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민간 전문 취업학원 등을 거점으로 선정하여 이들 기관에서 수강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거점조사와 함께 온라인조사를 통해서 해당 준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셋째, 니트 청소년의 경우, 조사대상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국백수연대’와 연계 협력으로 조사대상자를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발굴하고, 니트청소년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현장 전문가의 소개를 받으며, 동시에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도 표본을 확보하였다. 할당된 최소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의 조사방법을 모두 활용함과 동시에 온라인 조사의 경우도 국내 조사전문 업체 3개사(**EM, Ipsos, Tillion**)의 온라인 패널DB를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표본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들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될 내용의 기본적인 틀은 ‘행위-의식-환경’이며, 이 틀 하에서 생활 실태에서 나타나는 행위와 그와 관련된 의식 그리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로 구성하여 설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설문조사에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5장에서 제시하였다.

③ 심층면접조사

○ 고졸 비진학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생활·의식 실태 및 이들이 당면한 현실 문제, 그리고 일반화하거나 범주화하기 어려운 개별 사례들을 하위집단별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포착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집단의 동질적 그리고 이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하위구성원의 정책욕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일상에서 만나는 현장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정책의 당사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정책 욕구를 이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현장전문가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들과의 생활 속에서 느껴왔던 정책 개입의 필요성과 지원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였다.

○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 대상 심층면접

현장전문가 뿐만 아니라 정책 당사자인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정책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로서 선정협자들인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의 의견을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청취하였다. 30대 중·후반 고졸 비진학 성인이 회고하는 중·고교 생활, 졸업 후 취업과정, 노동시장에서의 근로 경력과 현재의 일상생활 그리고 생활과 연계된 의식 등에 대한 내용을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생애과정으로서 20대 초·중반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정책 욕구를 분석하였다.

표 I-4 심층면접 조사 방법

주요 요소	내 용																												
참여자 섭외과정	• 연구진 및 전문조사업체 네트워크 활용 • 현장전문가 자문위원의 소개 및 눈덩이 방법으로 확대 •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중 심층면접조사 희망자																												
참여자 수	• 청소년, 현장전문가, 30대 성인 총 47명 참여 – 청소년: 하위집단별 성별, 연령, 출신고교 유형 및 소재지 고려 할당 – 현장전문가: 하위집단별 2~3명으로 할당 – 30대 성인: 성별, 출신고교 유형 및 소재지, 후 진학여부, 경제활동 상태 고려 할당 (단위: 명) <table><tr><th rowspan="2">전체</th><th rowspan="2">합계</th><th colspan="2">경제활동자</th><th colspan="2">비경제활동자</th></tr><tr><th>취업자</th><th>구직자 (실업자)</th><th>준비자 (진학·취업·창업)</th><th>니트 (NEET)</th></tr><tr><td>청소년</td><td>16</td><td>3</td><td>2</td><td>8(진학3, 취업2 창업3)</td><td>3</td></tr><tr><td>현장전문가</td><td>15</td><td>3</td><td>3</td><td>5</td><td>4</td></tr><tr><td>30대 성인</td><td>16</td><td colspan="4">-</td></tr></table>	전체	합계	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자		취업자	구직자 (실업자)	준비자 (진학·취업·창업)	니트 (NEET)	청소년	16	3	2	8(진학3, 취업2 창업3)	3	현장전문가	15	3	3	5	4	30대 성인	16	-			
전체	합계			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자																							
		취업자	구직자 (실업자)	준비자 (진학·취업·창업)	니트 (NEET)																								
청소년	16	3	2	8(진학3, 취업2 창업3)	3																								
현장전문가	15	3	3	5	4																								
30대 성인	16	-																											
참여자 특이 사항	• 청소년: 대학 중퇴자 포함 • 30대 성인: 조사시점까지 비진학자 7명, 후 진학자 9명																												
방식	개별 1:1 심층면접(반구조화된 면담)																												
시간 및 횟수	1시간 정도 2회 내외																												
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음 후 전사																												
면담자	연구진 및 전문 심층면접 조사요원																												

(4) 기타연구방법

○ 콜로키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연구하는데 있어 이들에 대한 기본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강연 또는 대담 방식의 콜로키움이 총 3회 개최되었다. 첫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주제로 교육사회적 관점에서의 접근 이론들을 고찰하였으며, 두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니트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일본의 사회적 기업 K2인터내셔널의 활동 내용을 영상자료와 활동가들의 경험사례를 통해 공유하였다. 세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전문가 강연을 통해 고찰하고 함께 논의하였다.

표 I-5 콜로키움 개최 및 주요 내용

횟수	주요내용	발표자	개최시기
1회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방식: 교육사회학적 접근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	3월
2회	고졸 비진학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일본 K2인터내셔널 사례	야마모토 마사토 (K2인터내셔널 그룹 대표)	6월
3회	고졸 비진학 청소년 대상 분야별 정책 평가	최동선,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월

○ 워크숍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워크숍이 1회 양일간(11/7~8) 개최되었다. 전문가 워크숍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을 두 그룹으로 모아 한 그룹씩 나누어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별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표 I-6 워크숍 개최 및 주요 내용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연구진 및 전문가 7~8명	11월

○ 정책협의회

관계부처와의 정책협의회는 총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첫 번째 정책협의회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 사업들을 파악하고자 기획재정부와 정책실무협의회의를 가졌다. 두 번째 정책협의회는 현 정부 추진 정책의 동향, 특히 정부부처의 추진계획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및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등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추진되는 청소년정책의 동향을 살피고자 여성가족부와 정책실무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세 번째 정책협의회는 실태조사 분석에 기초하여 도출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들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타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그리고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의 정책실무협의회의가 이루어졌다.

표 I-7 정책협의회 개최 및 주요 내용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1차	고졸 비진학 청소년관련 기존 정책 현황	기획재정부	3월
2차	고졸 비진학 청소년관련 정책 추진계획: 근로보호정책	여성가족부	7월
3차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과제 제언 검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11월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연구방법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I-8>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I-8 연구 추진 방법 총괄표

구분		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자	
		취업자	실업자 (구직자)	준비자 (진학·취업·창업)	니트 (NEET)
① 문헌연구		○	○	○	○
① 전문가 자문회의		○	○	○	○
② 질적 조사 I	현장 전문가 간담회 및 심층면접	○(3명) ■ 중소기업인사 담당자 ■ 청년유니온 담당자 ■ 특성화고 취업담당교사	○(3명) ■ 취업포털사이트 담당자 ■ 청년일자리사업 담당자 ■ 고용센터담당자	○(5명) ■ 진학학원담당자 ■ 창업지원센터 담당자 ■ 취업학원담당자 ■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담당자 ■ 사회적일자리 지원 담당자	○(4명) ■ 전국백수연대 대표 ■ 두드림존사업담당자 ■ 니트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대표자 ■ 니트 연구자
	협력기관	■ (주)바이오스페 이스 ■ 청년유니온 ■ 강서공업고등 학교	■ (주)인크루트 ■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 관악고용센터	■ 종로학원 ■ 청년창업센터 ■ 이플리에 뷰티 아카데미 ■ 대한상공회의소 ■ 토닥토닥협동조합	■ 전국백수연대 ■ 경기도청소년상담센터 ■ 하자센터 ■ 한국고용정보원
③ 양적 조사	설문 예비조사	○	○	○	○
	설문 본조사 (총983명)	○(219명)	○(221명)	○(432명)	○(111명)
④ 질적 조사 II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총16명)	○(3명)	○(2명)	○(8명)	○(3명)
	30대 성인대상 심층면접 (총16명)	○(16명: 비진학자 7명, 후 진학자 9명)			
⑤ 콜로키움 및 워크숍		○		○	○
⑥ 정책협의회		○	○	○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년위원회			

3. 연구추진 체계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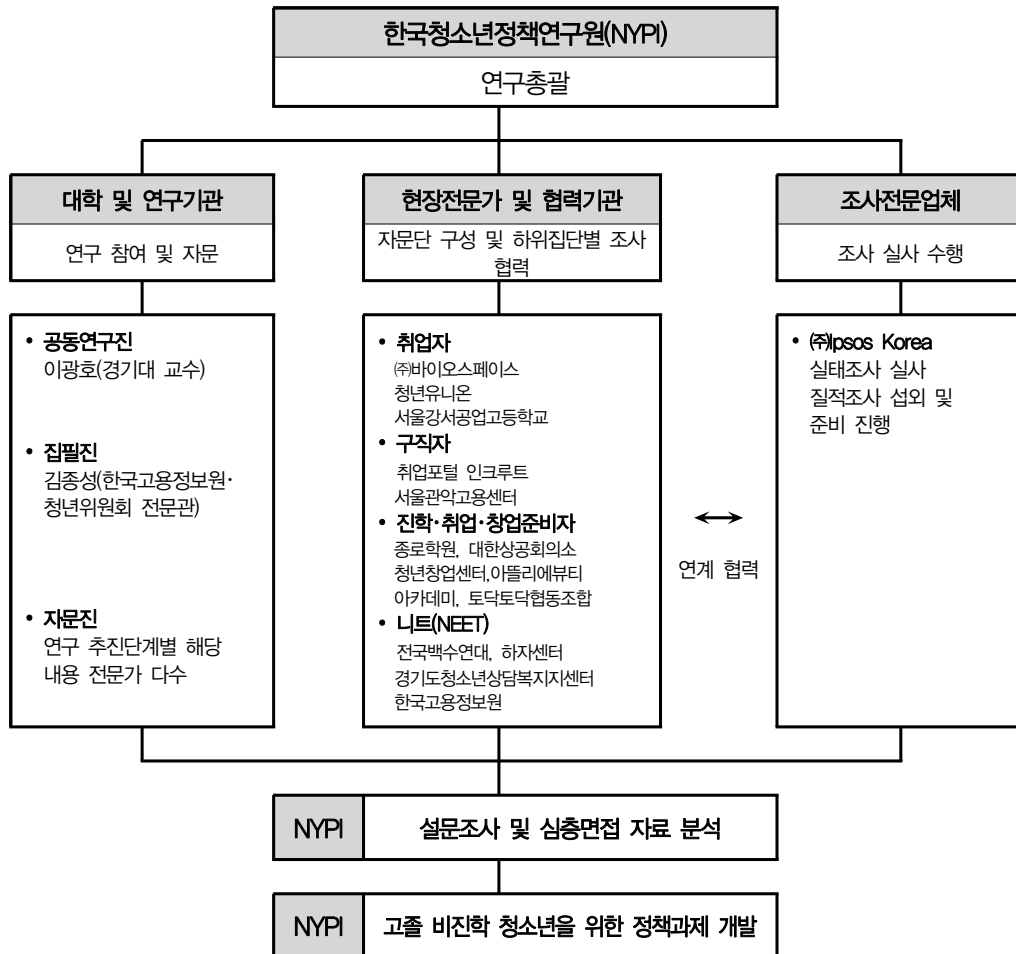
본 연구는 청소년 기본법 상 정책대상(9세~24세)으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청소년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19세~24세 해당 후기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2개년 연속과제로 시작된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연구’의 2년차 연구이다.

2012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및 주거문제 등 현안이슈와 관련된 생활 및 의식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된 지원정책을 도출하였으며, 2013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의식 실태 및 정책욕구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1차년도 (2012년)	목적	· 19세~24세 해당 후기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대상	· 19세~24세 해당 대학 재학생
	주요내용	· 정책대상으로서 후기청소년 개념에 관한 이론 고찰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대상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조사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지원 정책 도출
▼		
2차년도 (2013년)	목적	· 19세~24세 해당 후기청소년 중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범정부 정책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대상	· 19세~24세 해당 고졸 비진학자
	주요내용	· 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이론고찰 및 정부 추진 정책과 현황관련 2차 자료 분석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의식 실태 및 정책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고졸 비진학 청소년 대상, 현장 전문가 대상,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 대상 심층면접 조사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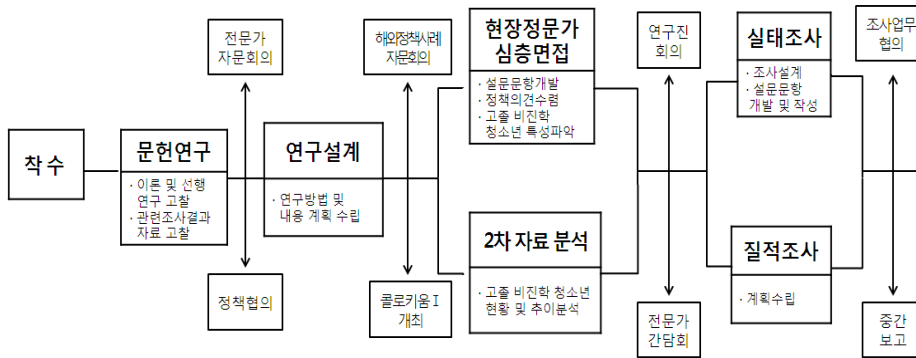
【그림 I-1】 연차별 추진 연구내용

이와 같은 2차년도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I-2]와 같은 체계와 [그림 I-3]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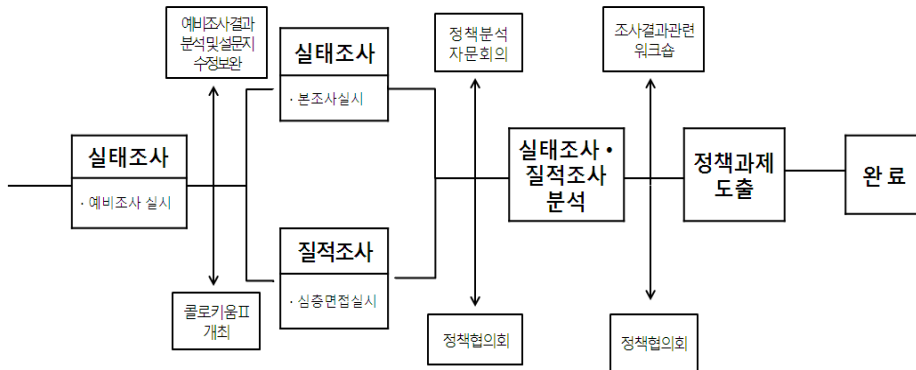


【그림 I-2】 연구 추진체계

1단계



2단계



【그림 I-3】 연구 추진절차

제1부 정책 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이해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범위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방식
3. 고졸 비진학 청소년 관련 연구의 동향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범위

우리 사회에서 지난 40여 년간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관심은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 정책적 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용어나 개념은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을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약간씩 변화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교육 분야에서는 비진학자 혹은 중퇴·비진학자, 노동고용 분야에서는 고졸 미진학자 혹은 고졸 이하 청년층 등으로,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서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져 왔다.

우선 교육정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비진학자는 일반적으로 적령 학령인구 중 정규 기간학제에 속하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며 일차적으로 학교 단계 중 어느 단계를 재학하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신세호·강무섭·민무순·송혜순, 1992, p. 23). 그런데 1990년 중학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고, 고교 평준화 등의 정책 시행 이후 고등학교 비진학자 수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등교육기관 비진학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비진학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연도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의 그 후 진로상황에 관심을 가지므로 다음 해 진학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진학하지 못한 모든 학생(신세호 외, 1992, p. 23)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비진학자 집단은 학교 단계별로 구분하는 방식 이외에 상급학교 진학의사의 여부로 나누기도 한다(신세호 외, 1992, pp. 24-25). 즉, 고등학교 입학 당시 상급학교 진학의사 여부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실업계 학생들은 자발적인 비진학자 집단으로,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었으나 입시경쟁 과정에서 낙오되어 할 수 없이 뒷전에 밀려나게

* 이 장은 이광호(경기대 교수)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된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타율적인 비진학자 집단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는 비진학자가 모두 동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하고, 최근 특성화고 졸업자의 50~6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발적, 타율적 비진학자 집단분류는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 비진학자 집단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주장만 의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표 II-1 교육 분야에서 비진학자 개념과 범주

구분	개념	범주
신세호 외(1992)	비진학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연도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의 그 후 진로상황에 관심을 가지므로 다음 해 진학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진학하지 못한 모든 학생들을 지칭 - 자발적인 비진학자: 고등학교 입학 당시 상급학교 진학의사 여부에 따라 진학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실업계 학생 - 타율적인 비진학자: 진학의사가 있었으나 진학경쟁 과정에서 낙오되어 할 수 없이 뒷전에 밀려나게 된 일반계 고등학생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졸업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다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2조)

여하튼 교육 분야에서 비진학자 내지는 고졸 비진학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연도에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못한 모든 학생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와 함께 사라졌던 기업의 고졸 채용이 2011년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많은 학생·학부모들이 ‘졸업 후 곧바로 진학’이라는 경로가 아닌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경로를 중요한 대안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김환식, 2012, pp. 14-17). 이에 따라 고졸 비진학자에 대한 정책 관심은 자연스럽게 고졸 취업문화 정착과 중등직업교육 내실화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상적 개념으로 교육 분야에서 고졸 비진학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등 정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고졸 비진학자의 개념과 범주는 최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2조의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의에

서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고등학교 졸업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를 통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 고졸 비진학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동일한 개념과 범주가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동과 고용 분야에서는 교육 분야에서와 같이 일정한 학력 수준 이행여부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노동 여부를 중요한 준거로 하여 비진학자를 정의한다. 전병유와 이상일(2003)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층을 '고졸 미진학자'로 정의하면서,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정인수, 남재량과 이승후(2006)는 노동·고용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졸 이하 청년층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학력 상태에 따라 순수 고졸, 대학 재학, 대학 휴학, 대학 중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고용 분야에서는 2000년대 중반이후 비진학자 중에서도 특히 니트(NEET) 등의 존재에 크게 주목하였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정규교육을 받지도 않고, 고용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을 일컫는 개념으로 영국정부에 의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16세~18세의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니트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고등학교 중퇴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 정연순·박가열·오민홍·이로미·장지은·김은영, 2008, pp. 13-14에서 재인용).

우리 사회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개념으로 니트를 정의하며 약간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남재량(2006)은 정규교육, 직업,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혼이며, 가사나 육아를 하지 않는 15~34세의 청년으로 니트를 정의한 바 있다. 오민홍(2007)은 15세에서 19세까지의 청년층 대다수가 정규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정규교육을 마쳤더라도 직업이 없는 청년층이 다수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니트를 정의하였다. 즉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정규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하고 있지 않은 20세~29세 청년층을 니트로 정의하고, 실업자와 구분하기 위해 이들 중 지난 한 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들을 니트로 보았다.

한편 고용노동부(2007)에서는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한국형 니트를 정의하였는데, 경제활동조사 기준을 사용하여 15~29세 이하 개인 가운데, 취업자,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등에 통학하는 자, 육아·심신장애·군입대대기·결혼 준비 등의 활동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이들이 한국형 니트에

해당한다. 단,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에 통학하는 경우도 한국형 니트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고용노동부가 한국형 니트의 개념을 정의한 이후, 정영순 외(2008, p. 15) 연구자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29세의 청년 중, 미혼이며 정기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으로 니트를 정의하였다. 또한 이들 니트를 구직희망여부에 따라 구직 희망 니트와 구직 비희망 니트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취업고시, 국가고시, 혹은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소위 공시족들은 구직 및 비구직 니트의 부분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성격상 이질적인 계층으로 평가하여 구직희망·구직비희망 니트와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성균관대 인적자본개발(HRD)센터(2009)의 공동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한국형 니트 정의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청년 니트의 하위 집단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전통적인 실업자이고, 두 번째 유형은 고시족이나 공시족을 포함하는 함정형, 세 번째 유형은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와 유사한 현실회피형,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구직 무급종사자와 가사노동자를 포함하는 가족노동형 니트이다.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2차 자료를 분석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표 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체로 고졸 비진학자를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 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15~29세 청년 중 고졸학력자로 정의한 경우가 다수이다. 윤형한과 신동준(2012)의 연구에서는 고졸학력의 정의를 학력과 수학여부(졸업, 중퇴, 휴학, 재학)를 기준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순수고졸자와 대학 중퇴자를 고졸 청년의 개념에 포함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고졸 비진학자에 관한 개념은 연구에 따라 고졸 학력자 전체 집단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학력에 연령을 더하여 고졸 이하 또는 고졸 청년층으로 범주화되기도 하였으며, 니트 또는 취업자와 같이 고졸 비진학자를 구성하는 하위집단을 비진학자로 개념화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졸 비진학자와 관련된 연구들이 고졸 비진학자라는 대상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I-2 노동·고용 분야에서 비진학자 개념과 범주

연구자	개념	범주
전병유·이상일 (2003)	고졸 미진학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층(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정인수·남재량· 이승후(2006)	고졸이하 청년층	• 고졸이하: 순수 고졸, 대학재학, 대학휴학, 대학중퇴로 분류
남재량(2006)	니트	• 정규교육, 직업,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혼이며, 가사나 육아를 하지 않는 15~34세의 청년: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
오민홍(2007)	니트	• 15세에서 19세까지의 청년층 대다수가 정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규교육을 마쳤으나 직업을 갖지도,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 중 미혼의 20~29세의 청년층: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
고용노동부(2007)	니트	• 한국형 니트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개인 가운데 취업자,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등에 통학자, 육아·심신장애·군입대대기·결혼준비 등의 활동자를 제외한 자. 단, 취업을 위한 교육으로 통학자는 한국형 니트에 포함
정연순·박가열· 오민홍·이로미· 장지은·김은영 (2008)	니트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29세의 청년 중, 미혼이며, 정기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구직 희망 니트, 비희망 니트 및 공시족
한국경제인연합· 성균관대 인적자본개발(HRD) 센터 (2009)	니트	• 청년 니트란 취직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도 없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화 된 청년층: 전통적인 청년실업자, 고시족, 공시족을 포함하는 함정형, 현실회피형 니트(일본형 은둔형 외톨이와 유사), 가족노동형 니트(구직 무급종사자+가사노동자)
박상현·조동진 (2011)	미진학 고졸자	• 고교졸업 시점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하였거나 졸업시점에서 진학을 하지 못하였으나 차년도에 진학의사가 있는 일시적 미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이 되는 미진학 고졸자
박상현 (2012)	미진학 고졸자	• 2011년 2월 특성화고 졸업자 중 비진학자
박진희 (2012)	고졸 취업자	• 경제활동조사에서 포착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자
윤형한·신동준 (2012)	고졸 청년	• 고교졸업 후 비진학자 + 전문대학 혹은 대학 중퇴자
박기현 (2013)	고졸이하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중 고졸이하 학력자

다른 한편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 :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의 조사 모집단을 통해 고졸 비진학자의 개념과 범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 고교졸업 시점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하였거나 졸업시점에서 진학을 하지 못하였으나 차년도에 진학 의사가 있는 일시적 미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이 되는 미진학 고졸자를 대상으로 목표 모집단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취업·미상·무직·군입대자들을 목표 모집단으로 하고, 조사 모집단으로는 취업, 미상 및 무직의 20% 정도만을 반영하여 조사 모집단 규모를 추산하였다. 특성화(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취업·미상·무직·군입대자들을 목표 모집단으로 하고, 조사 모집단으로는 취업, 미상 및 무직인 졸업자로 규모를 추산하였다(박상현·조동진, 2011).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볼 때, 노동·고용 분야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고졸 비진학자는 고교졸업 직후에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졸업과 동시에 진학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곧바로 재수하여 이듬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즉 고교 졸업 후 일시적 미진학자를 제외한 이들을 비진학 고졸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고졸 비진학자는 당해년도에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자와 진학을 위한 재수생을 제외한 고졸 비진학자 전체를 범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고졸 비진학자 중에서도 니트 등과 같은 특정 범주의 비진학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분야에서 비진학자는 지금까지 주로 무직·미진학 청소년 또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등으로 고려되어 왔다. 우선 최종희(1985)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도, 진학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인구를 포괄적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 지칭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재수생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재수생과 구분하기 위해 ‘무직 청소년’이라 정의한 바 있다. 한편 김정명, 이광호, 노혁과 이해정(1989)은 청소년의 현 상태의 개념과 진로유형 준거 개념을 혼합한 무직·미진학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무직·미진학 청소년은 1985년 청소년에 관한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과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용한 개념으로서 당시 뚜렷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이들 연구자들은 무직·미진학 청소년을 경제활동과 학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면서 수입 있는 일이나 학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거나, 일시적인 병 등 기타 사유로 취직이나 취학하지 못한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990)에서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개념을 사용하며, 각 급 학교 졸업자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취업의사를 가졌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한 바 있다. 특히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은 학생신분의 청소년, 근로, 농어촌, 요보호 청소년 등 다른 유형의 청소년집단과 구별되지만, 하나의 집단범주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0, p. 11)를 들고 있다. 첫째, 일을 잃거나 없는 청소년들은 각 유형 청소년집단의 경계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은 각 청소년집단의 경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만큼 그 성격도 일정한 특성을 지니기 보다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이들 집단은 일이 없는 기간이나 실직 상태 면에서 볼 때, 장기간 그 기간이 누적되어온 청소년에서부터 반복실업을 거듭하는 청소년까지 집단 내부가 구조적으로 다층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은정(2007)은 중등교육 학업 중단 학생들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혹은 졸업 전 학교를 떠나 진학하거나 또는 직업훈련을 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소년을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일본 내각부는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고교 및 대학 등의 학교 및 예비고(입시학원), 전수학교 등에 통학하지 않고,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이며 평소에 수입을 동반하지 않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의하고(김기현, 2005, pp. 55-56; 남재량, 2006, pp. 141-142), 구직형(취업희망을 표명하며 구직활동을 함), 비구직형(취업희망을 표명하지만 구직활동 하지 않음) 및 비희망형(취업희망을 표명하지 않음)으로 분류한 바 있다(김기현, 2005, p. 58; 이은정, 2007 p. 8). 그리고 김민찬(2013)은 비진학 청소년으로 9~24세 청소년 중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19~24세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시준비 중인 한시적 비진학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학자퇴자 등을 모두 포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분야의 비진학 청소년 개념은 청소년의 진로 경로 중에서 취업과 진로 경로를 망라하고, 현 상태에서 존재하는 형태를 중심으로 하되,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 연령 범주를 고려하여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정하여 종합적으로 정의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까지는 주로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중에서도 초·중기 청소년집단에 주목하였던 반면,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는 10대 후반부터 24까지의 후기 청소년집단을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교육 분야에서의 비진학자 개념 정의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 단계로의 진입과 맞물려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표 II-3 청소년 분야에서 비진학자 개념과 범주

연구자	개념	범주
최종희(1985)	무직 청소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도, 진학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인구를 포괄적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 지칭하고, 이들 중 일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재수생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재수생과 구분하기 위해 ‘무직 청소년’이라 정의
김정명·이광호·노혁·이혜정(1989)	무직·미진학 청소년	경제활동과 학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면서 수입 있는 일이나 학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거나, 일시적인 병등 기타 사유로 취직이나 취학하지 못한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990)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각급학교 졸업자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취업 의사를 가졌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
일본 내각부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 고교 및 대학 등의 학교 및 예비고(입시학원), 전수학교 등에 통학하지 않고,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이며 평소에 수입을 동반하지 않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 - 구직형: 취업희망을 표명하며 구직활동을 함. - 비구직형: 취업희망은 표명하지만 구직활동 하지 않음 - 비희망형: 취업희망을 표명하지 않음
이은정(2007)		고등학교 졸업 후 혹은 중도 탈락으로 학교를 떠나 진학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자로 취업희망은 표명하고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희망도 표명하지 않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소년
김민찬(2013)	비진학 청소년	9~24세 청소년 중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19~24세 청소년이 주 대상이 됨. - 입시준비 중: 한시적 비진학 청소년 - 학업중단 청소년 - 대학자퇴자 등 모두 포함

지금까지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교육, 노동·고용 및 청소년 분야의 개념과 범주를 살펴보았다. 분야별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범주는 진로 경로에서 주목하는 바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고졸 비진학자를 조작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연도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라고 정의한 정의된 개념을 적용한다. 노동·고용 분야에서 고졸 비진학자는 재수생을 제외한 취업 대상 고졸자 즉, 비진학 고졸자 전체로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작적 개념을 적용한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다른 방식의 사회 진출을 모색하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19~24세 비진학 청소년이 주 대상이 되며, 재수생 등 진학을 준비하는 일시적 비진학 청소년, 대학 진학 후 중퇴하는 청소년 등도 포함하게 된다(서울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2012).

		학력 및 계열					
		무학·초등·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예체능계) (특성화계)			전문대	대학교 (석사) (박사)
수 학 여 부	졸업		B(고졸)			E (전문대졸)	F (대졸 이상)
	중퇴		A(중졸이하)			C(고졸)	
	휴학					D(대학재학/휴학)	
	재학						
						G(대졸이상)	

출처 : 윤형한, 신동준(2012). 고졸 청년 취업 실태 분석 p.38에서 재인용

【그림 II-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학력과 이수여부 기준

이상과 같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학력과 수학여부를 기준으로 고졸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지 않은 B집단의 순수 고졸자와 전문대학 또는 대학 중퇴자에 해당하는 C집단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해당된다. 이러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고졸 청소년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 비경제활동 집단으로 진학 준비자, 취업 준비자, 창업 준비자 그리고 니트(NEET) 등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존재한다.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방식

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대사적 관점 및 시각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기를 바라보는 당 시대의 사회적 시각과 그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의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직업세계로의 이행적 관점에서는 청소년을 그들의 발달·성숙 정도 내지는 사회의 무질서와 관련하여 비행, 일탈의 예비 집단 또는 극단적인 괴물로 거론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을 나름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개체로서 낯설고 이해 불가능한 행동과 사고방식을 갖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 생산자 혹은 문화적 영웅으로 논의(전상진·정주훈, 2006, pp. 262-267)하기도 한다. 또한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의 장기화 등 현상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 또는 청소년기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왔다. 청소년(기)에 대한 통념이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김미란, 2012, p. 5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러한 청소년의 개념과 의미의 연장선상에 있게 된다.

그런데 앞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과 범주에서 보았듯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취업을 했거나 일을 구하는 경제활동자, 비경제활동 집단으로 진학 준비자, 취업 준비자, 창업 준비자 그리고 니트(NEET) 등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이 진학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데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다시 말하자면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게 되는가?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진학이 보편화된 단계에서 고교 졸업 후 진로는 개인적으로는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짓게 되는 시점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선별·배치하는 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질문은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서 각각 다른 답을 내놓는다. 아울러 이러한 질문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신세호 외, 1992, p. 27).

우선 사회계층화의 기능론 관점, 노동시장 이행 측면에서 인적자본이론에 입각한 관점에서 본다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상급학교 즉,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에 실패한 사회적 선발과정에서

능력과 기술을 갖추지 못하여 탈락한 청소년이며, 이들의 탈락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활용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진학경쟁에서 실패한 비진학자들은 객관적이고 합의된 평가기준에 의하여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정 받은 집단이며, 그러한 실패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대우는 공정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결과이다. 즉, 그들의 실패는 각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여 빚어진 결과이며 능력 위주의 사회적 배분 원리에 의하여 공정하게 그들의 지위가 배치된 것이므로 불만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신세호 외, 1992, pp. 27-28)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고졸 비진학자 집단의 존재는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재수를 통해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갖기 보다는 현재 수준에 맞는 직업과 지위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바라본다면 고졸 비진학자를 위한 진로지도와 취업 지원이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중요하게 간주된다(김성식, 2013).

반면 사회계층화의 갈등론적 관점, 노동시장 이행에서 노동시장 분절이론이나 지역 간 불균형 이론에 입각한 관점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요인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희생양’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누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며, 누가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게 되며, 나아가 누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방황하는 집단으로 남게 되는가 하는 것은 개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자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속한 집단 특성 즉, 사회계층이나 지역, 성별 등의 요인과 더불어 특정 지위집단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사회적 원리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결정지워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신세호 외, 1992, pp. 28-29).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의 결과로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에 실패하거나 비진학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학교교육과 선발과정에서 불평등을 경험한 집단이므로, 이들의 비진학 사유와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교육불평등을 파악하는 것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진학과과정에서의 불평등 구조 개혁과 교육불평등 사회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주요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김성식, 2013).

한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사회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도 약간의 변화를 거듭해 왔다. 1980~90년대까지 이들은 재수생, 고졸 실업자, 무직·미진학 청소년,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등 이행과정의 문제 집단 즉,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1974년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고교졸업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당시

정부는 대학입학정원을 억제해 왔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내내 대입 재수생은 매년 증가해 왔고, 이들은 사회 전체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책은 주로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에 집중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을 심화시키는 한편 그들에 대한 대안적인 교육경로로 고졸자의 직업적응과정, 인문계 직업과정 확대 강화 등 직업교육을 제시(김미란, 2005, pp. 112-113)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의 변화는 청소년의 이행 환경과 방식 즉, 청소년의 생애과정 레짐을 탈표준화, 개별화, 파편화하는 동시에 연장(이광호, 2012, pp. 45-50)시켜 놓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다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재등장하게 된 것이다. 최근 이들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관심은 졸업 후 곧바로 진학이라는 기존의 전통적 경로가 아니라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중요한 대안적 경로의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환식, 2012).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 개편(박병영, 2012)이나 유능한 일꾼을 기르는 특성화고 활성화 내지는 비진학 고졸 청년층을 위한 정책 과제 등의 형태(박상현, 2012)로 새로운 신직업주의적 정책(김미란, 2005, 2012)의 대상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우리 사회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주로 상급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사회조직에서 거의 이탈된 문제 집단(youth as problem)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사회의 구조적 요인과 지위집단의 특정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선별과 배분의 구조적 속성을 강조하며, 이들을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적 희생물(youth as victim)로 바라보기도 한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거나 사회적 희생물로 바라보는 대립적인 시각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존재하는 형태와 상황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진학과 취업을 못하거나 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된 경로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고졸 취업자, 구직자, 진학 준비자, 취업과 창업 준비자, 니트 등 다양한 존재 형태를 띠며, 나름의 삶의 지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고졸 비진학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존재 형태에 따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들의 적극적 삶의 지향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해결책을 지지해줄 수 있는 통합적인 청소년 권리적 접근이 요구된다.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접근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 배분과 배제, 노동시장 이행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화, 사회적 배제 및 노동시장 이행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계층화 관점에서의 접근

부, 권력, 명예 등 사회 구성원이 소유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에는 희소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정도와 배분되는 기준은 사회마다 시대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중시 정도와 배분 방식은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이에 따라 개인과 집단이 위계적으로 서열화 되는 제도화된 불평등 현상을 사회계층화 현상이라고 한다.

학교교육은 바로 사회적 희소가치의 중시 정도와 배분 방식을 사회적으로 제도화 해 놓은 중요 장치 중에 하나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할 만큼 대학진학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짓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선별·배치하게 된다(신세호 외, 1992). 사회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능론적 관점은 체제유지론 혹은 질서유지론적 입장에서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론을 수용한다. 교육의 사회화와 훈련 기능을 공민성 계발로 요약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의 선발과 분배기능은 청소년을 직업사회에 진출시켜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일이다. 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교육이 사회 출세현상에 이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능론적 관점은 학교교육의 중요한 업적으로 인력배치의 효과적 수행을 지적한다(한준상, 1985, pp. 38-44).

따라서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대학 진학에 실패한 청소년들을 비롯한 모든 비진학 청소년들을 사회적 선발과정에서 능력과 기술을 갖추지 못하여 탈락된 사람들이며, 이들의 탈락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활용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 이론적 접근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의 중요도는 자리의 기능적 중요성과 그 자리를 채우는 인력의

회소성에 의해 그 자리의 상대적 지위가 정해지며, 이 때 중요시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자리를 분배해 주는 일보다는 그 자리에 맡겨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과제 수행 능력과 지식수준으로 본다. 즉 개인이 가지는 능력과 소질에 의해 자리가 배분되는 능력주의(meritocracy)에 따라 계층화가 구축된다고 보는 것이다(신세호 외, 1992, p.28).

이 관점에 따르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대입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로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그들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정받은 집단이며, 실패로 인하여 받게 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대우는 공정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결과이다(신세호 외, 1992, p.28).

표 II-4 사회계층화에 대한 기능론과 갈등론적 관점

구분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기본접근	• 체제유지 또는 질서유지	• 경제결정론 또는 지위집단론
계층화의 원인	• 사회의 중요 위치의 일에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차등적인 보상 필요 • 개인발전의 동기 부여, 사회의 적재적소의 인재 충원으로 개인 및 사회의 유지 발전하는 데에서 계층화 발생	• 사회의 모든 일은 중요하고, 능력의 차이는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차이에서 발생함. • 지배집단이 자신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하려는 데에서 계층화 발생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기본입장	• 개인의 능력이 중요, 사회적 선발 과정에서 능력과 기술을 갖추지 못하여 탈락된 자	• 개인의 능력보다는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의 특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비진학 상태에 있는 자

반면 개인이 갖는 능력과 자질이 고졸 비진학 상태를 결정한다고 보는 기능론적 관점과는 달리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모두 속임수에 불과하며 사회구조적 요인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갈등론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주요 이론적 가정을 전제로 한다. 첫째, 사람 간의 갈등, 사람과 자연 간에 나타나는 심리적, 사회적 갈등현상은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갈등의 사회 편재적 현상 때문에 갈등요소에 의한 사회변화 현상 역시 일반적이다. 셋째, 사회구성 요소 모두는 갈등과 변화촉진 요소일 뿐이다. 넷째, 사회질서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해놓은 상태를 말할 뿐이라는 가정을 수용하고 있다(한준상, 1985, p. 45).

갈등론적 관점은 대체로 Marxism에 기초를 둔 경제결정론적 관점, Weber의 사상에 기초를 둔 지위집단론적 관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한준상, 1985, pp. 45-58). 경제결정론적 관점을

갖는 전통 **Marxist**들은 사회변화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나, **Neo-Marxist**들은 학교교육을 노동력 재생산의 조직화된 형식으로 이해한다.

Weber의 사회계층론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는 지위집단론적 관점은 기능주의적 관점과 경제결정론적 관점이 사회구조와 학교교육, 권력집단 및 경제적 요소와 학교교육 간의 거시적 관계 파악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신 학교교육의 모순과 문제는 지위집단 간의 지위추구 경쟁현상, 과정을 탐색, 기술, 설명할 때에 보다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학교교육의 사회화 및 기술훈련 기능은 사회집단의 사회적 이해관계, 독점욕, 기회보장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교교육은 지위집단의 이해관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갈등론적 관점은 계층의 사다리를 차지하는데 있어서 힘 있는 소수만이 그러한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자원을 가진 집단만이 경쟁에서 용이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계층화는 누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며, 누가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게 되며, 나아가 누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집단으로 남게 되는가 하는 것은 각 개인이 가지는 능력과 자질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성, 즉 사회계층이나 지위집단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한다(신세호 외, 1992).

(2)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의 접근

사회적 배제는 **M. Weber**가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의 한 유형으로 언급한 이래 1970년대 초 프랑스에서는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이었으며, 그 대책을 수립하는 정책적 담론의 용어였다(김연희·신황용·이희선, 2012, p. 102). 즉, 빈곤이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빈곤에 대한 관심은 전통적 빈곤과 박탈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인구 5~10%의 하층과 나머지간의 분리에 관한 관심으로 이동하였다(임윤옥, 2005, p. 18). 1990년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시민권 개념으로 통합되어 민주적 법률체제, 노동시장, 복지제도, 가족 공동체 등 사회적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를 사회적 배제로 설명하거나(Silver, 1994, 김연희·신황용·이희선, 2012, p. 103에서 재인용) 사회와 연결되는 고리가 매우 미약한 상태를 사회적 배제로 설명하기도 한다(Room, 1995; 김연희·신황용·이희선, 2012, p. 103에서 재인용).

이후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여러 학자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우선 Fend(1994)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참여기회의 배제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경제적 자원의 배제, 제도로부터의 배제, 문화적 기회의 배제, 사회적 관계의 배제 등을 포함한다(이성균, 2009, pp. 570-571에서 재인용). 그리고 유럽연합 태스크포스팀(EU Task Force)에서는 저소득의 지위, 열등한 노동시장 지위, 그리고 생활의 금전적인 불이익 등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영역으로 사회적 배제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Eurostat, 2000, p. 33; 윤성호, 2012, p. 56에서 재인용).

Barnes(2005)는 빈곤은 소득이라고 하는 1차적인 요인을 강조하는데 비해,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의 결여, 평균적인 생활을 위한 물질적 자원의 박탈 그리고 사회 참여 및 관계망의 결여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박탈과 사회적 배제는 복합적 요인의 결과물이란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박탈은 분배의 측면과 개인과 세대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배제는 자원의 분배와 관계성의 측면을 모두 강조하고 있음과 동시에 개인, 세대 그리고 지역사회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강영배, 2009, p. 106에서 재인용).

표 II-5 빈곤, 박탈, 사회적 배제의 차이

빈곤(poverty)	박탈(deprivat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일차원적	다차원적	다차원적
물리적 욕구	물리적, 물질적 욕구	물리적, 물질적 욕구 사회적 참여
분배적 관심	분배적 관심	분배적, 관계적 관심
통계적	통계적	역동적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지역사회

출처 : Matt Barnes (2005), p.16; 신희정 (2010). 여성 가구주의 빈곤화 구조에 관한 연구: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p.22에서 재인용

이렇게 볼 때, 사회적 배제는 빈곤이나 박탈과는 다른 다차원적인 불이익으로서 어떤 사회의 주류적(사회적, 직업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신명호, 2004; 임윤옥, 2005, p. 23에서 재인용). 즉,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으로서 빈곤과 박탈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 현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된다. 첫째,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로서,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을 말한다. 둘째, 제도적 배제로서, 공공제도에 참여할 기회 박탈을 의미한다. 셋째, 경제적 배제로서, 노동시장과 공공제도의 배제 결과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공공복지제도로부터 배제되면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노동시장 참여 기회가 적으면 최저생계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로서, 노동시장, 공공제도의 참여 자체가 개인의 역할과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이성균, 2009, p. 571). 이러한 배제는 사회적 관계와 의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 “배제된” 취약계층이 “친구관계와 가족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고립감을 느낀다” 혹은 “특정한 지역이나 주거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도 파편화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Mortimer, 1994; 이성균, 2009, p. 571에서 재인용).

결국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는 빈곤과 사회적 차별이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사회구조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측면은 갈등론적 사회계층화 이론과 같은 시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권력의 불균형으로 파악한 Jordan(1997)은 여러 가지 제도적 참여의 제한이 개인의 심리적 배제와 가족 간의 관계 배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주류계층으로부터의 단절과 빈곤 등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배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오영훈·강일규·윤형한·유태균·김진욱, 2010, p.23; 김연희·신황용·이희선, 2012, p. 103에서 재인용).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보다 다양한 범위에 걸쳐 배제되며, 하나의 주변화 된 집단으로 분류된다(강영배, 2009, p. 108).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미성숙한 존재로 파악되는 경향이 강한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경험하고 기본적인 권리들을 부당하게 제한 받는 집단이고 또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특히 우리 사회 청소년은 연령이나 사회적 편견, 입시위주 교육의 억압 그리고 가난을 이유로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부당한 대우와 차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김현주·김준영, 2008, pp. 2-4).

한편 1990년대 이후 유럽의 각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청소년, 즉 지위 제로(status zero) 상태인 청소년들과 취직을 하지 않은 채 정부의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최빈층 청소년(underclass)을 사회적 배제의 범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강영배, 2009, pp. 108-109). 이들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표 II-6 최빈층 청소년(underclass)에 관한 개인주의자, 구조주의자 모델 비교

구분	개인주의자 모델	구조주의자 모델
기본원리	대리권(agency)을 강조 자기 결정, 개인의 선택 통화(通貨)주의, 전통에 기초	구조를 강조 결정주의, 사회적 제약 사회적 정의, 사회적 개입에 기초
개인/정부역할	복지국가의 권한 이양, 개인 책임 강조	복지국가의 권한 강화, 집단적 권리 강조
특징	동질성, 안정성, 빈곤 문화 전략적 일탈, 자기 재생산	이질성, 일시성, 사회적 재생산 계급 문화, 생존전략으로서의 일탈
해결책	처벌, 최소한의 정부개입 낮은 수준의 재정비용	예방, 불평등해소를 위한 개입 낮은수준의 사회비용

출처 : Jones(1997), p.97; 강영배(2009),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 및 정책에 관한 고찰 p.109에서 재인용

우선 개인주의적 입장으로 이들은 청소년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구조주의자들은 청소년 노숙자의 문제를 경제 환경, 복지정책 및 주택시장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의 결과라고 해석한다(강영배, 2009, p. 109).

이런 연장선상에서 다수가 진학하는 사회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학교와 또래로 부터의 사회적 고립감, 여가와 활동, 사회참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는 청소년 세계의 규범이나 관습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인의 사회적 배제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idge, 2002; 이중섭·이용교, 2009, p. 5에서 재인용).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는 청소년의 현재 생활에서의 배제 실태와 함께 ‘상태(state)’가 아닌 ‘과정(process)’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Hill, 1999; 이중섭·이용교, 2009, p. 5에서 재인용).

(3) 노동시장 이행 측면에서의 접근

지금까지 청소년연구는 자율성과 의존성 중에서 한 축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대립적 연구 전통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Cohen & Ainley, 2000; Merckens, 2002). 의존성을 강조하는 한 쪽에서는 청소년을 이행(transition)과정에 있는 존재로 파악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청소년을 나름대로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개체, 자신을 삶을 꾸려가는 존재(youth cultural study)로 간주한다. 이 중에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school-to-work)’의 경로를 주로 연구하는 ‘청소년 이행 전통(youth transitions tradition)’(MacDonald et al., 2001, 2.13)에서는 ‘심리사회적 발달의

선형적인 목적론 모델'(linear teleological model of psychosocial development)을 기반으로, 직업의 획득 즉,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청소년기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간주한다(Cohen & Ainley, 2000, p. 80; 전상진·정주훈, 2006, pp. 262-267에서 재인용; 전상진, 2012, p. 19).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개인적인 접근과 구조적인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인 접근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의해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적자본이론이 대표적이다. 구조적인 접근은 노동시장의 구조에 의한 설명으로 크게 통계적 차별이론, 노동시장 분절이론, 지역 간 불균형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조민수, 2009, p. 12-20).

먼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서는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 일 등을 통해 얻은 경험 등이 몸에 체화된 것을 인적자본이라 칭하고,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개인이 갖는 인적자본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조민수, 2009). 또한 인적자본이론에서 노동시장은 경쟁적이고 그 기능이 완전하여 모든 개인은 자기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논리는 인적자본론이 단일노동시장론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경은, 2006, p. 8).

그런데 인적자본이론은 청소년의 개인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에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현상, 입직구의 제한으로 인한 실업의 문제, 교육과 생산성 제고와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이경은, 2006, p. 9; 조민수, 2009, p. 14). 이렇게 볼 때, 인적자본이론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인적자본에서 결핍된 개인적 문제로 간주된다.

통계적 차별이론은 노동 수요 측면에서 비롯된 차별 구조가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노동시장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통계적 차별이론은 개인이 속한 집단이 어떠한 집단인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처우가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에서 개인적, 사회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개인의 특성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분절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조민수, 2009, pp. 14-15).

노동시장 분절이론은 청소년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나 진입보다는 노동시장의 분절 구조와

3) 이 참고문헌은 인터넷 버전으로 페이지 대신 원문에 명시된 단락 번호로 표기하였음(전상진·정주훈, 2006).

청소년의 노동시장 지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노동시장 분절이론은 노동시장을 동질적인 전체로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조건과 충원구조에서 각기 다른 조건으로 특징 지워진 두 개 이상 분절로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절된 노동시장 사이에는 이동을 저지하는 집단적으로 합의된 제반 규칙 즉, 장애가 존재한다.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은 교육 정도와 수준에 따라 각각 상위 또는 하위 층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어떤 층위에 속하는가에 따라 지위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는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이경은, 2006, pp. 10-12; 조민수, 2009, pp. 16-17). 이와 같은 노동시장 분절이론은 노동시장 내부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청소년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이경은, 2006, p. 11). 따라서 노동시장 분절이론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왜 어떻게 발생하고, 그들의 존재 행태가 왜 이러한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끝으로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에서 지역 간 격차를 설명하는 지역 간 불균형 이론은 주로 지역 노동시장의 분절된 구조에 관심을 집중한다. 지역 간 불균형 이론은 수도권의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 간 차이나 중심과 주변부 노동시장 간의 격차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그리고 지역 간 편차로 인하여 중심부로 인적, 물적 자원이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주변부가 자원 부족으로 인해 주변부에 거주하거나 주변부 지역 학교 졸업 청소년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및 지위 특성이 낮아진다고 본다(조민수, 2009, pp. 19-20). 이렇게 볼 때 지역 간 불균형 이론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상태에 있어 지역 간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관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지역 간 격차와 장기간 지속을 전제하며 다른 요인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한계를 지닌다.

(4) 세 가지 접근에 대한 비판 및 본 연구에의 적용

사회계층화 관점의 접근 중 기능론적 관점은 청소년에 대한 시각을 입시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단순히 입시경쟁의 낙오자로 일반화하는 한계가 있다. 대학진학이 보편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주된 진로 선택이며, 대학 진학에 있어 학업 성적과 같은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로 대학진학을 거부한 청소년들과 학업성적으로 대리되는 대학 진학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비진학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의 비진학 상태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 및 사회구조적 요인 또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진로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들(김대연·강경찬, 1995; 송민경, 2009; 신희경·김우영, 2005; 안선영·장원섭, 2009; 오석영, 2012; 오현석·배진현·이상은·정현진, 2010; 이병석, 1992; 임천순·정태화·이광호, 1992)에서 학업성적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현 상태와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는데 개인의 능력으로 설명되는 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성적이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요인을 간과하기 어렵다.

한편 개인의 능력보다는 개인이 속한 집단, 즉 계층과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생활 및 의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 갈등론적 관점은 빈곤 및 취약계층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같은 계층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들(김성환·전용석, 2005; 문승태·김연희, 2002; 문승태·이상래, 2002; 조아미, 2000; 차재권, 1998; 채창균, 2009; Lee, 1984)의 결과는 개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자원이 많은 계층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가능성이 크다는 갈등론적 관점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이 갖는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 위치로 인한 사회·제도적 배제, 가족 관계, 또래 및 동료,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데 배제를 경험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생활 및 의식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다양한 현실과 삶의 형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며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접근 이론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생활 및 의식 실태와 관련된 사실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3. 고졸 비진학 청소년 관련 연구의 동향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연구(이종재·강상조·공은배, 1978; 최종희, 1985; 서정화, 1986; 김정명 외, 198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0; 신세호 외, 1992; 전병유·이상일, 2003; 김미란, 2005; 이은정, 2007)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은

주로 대입 재수생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학진학 위주의 사회문화적, 교육적 풍토에 기인한 면이 크다. 1974년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고교졸업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당시 정부는 대학입학정원을 억제해 왔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내내 대입 재수생은 매년 증가해 왔고, 이들은 사회 전체의 부담요인으로 작용(김미란, 2005, pp. 112-113)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책은 주로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 대부분의 해당 학령인구 청소년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등 고교 교육 보편화와 동시에 대학 진학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이들의 취업과 진로 모색 및 지원으로 모아졌다. 예를 들어 10대·20대 실업자 전체의 42%(경향신문, 1998.6.10), 고졸이하 취업난 심각(한겨레신문, 1998.6.10) 대학 못 간 청소년대책(동아일보, 1995.3.4), 뗏뗏한 고졸... 당당한 프로(동아일보 1997.5.27) 등이 당시 언론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대학 진학률이 80% 수준에 육박하면서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신(新)고졸 시대(대통령실, 2012.10.11)’로 대변되는 것처럼, 주로 고졸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등에 다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변화는 선행연구들의 연구동향에도 거의 반영되어지고 있다. 1980~90년대에는 주로 교육 분야와 청소년 분야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대입 재수생의 누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도 주로 무직미진학 청소년, 무직청소년 혹은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등 전체 비진학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재수생이나 청소년 초기의 중졸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신세호 외(1992) 연구만이 고졸 비진학자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 연구 또한 대학진학에 대한 지속적이고 편중된 진로의식과 제한된 진로선택, 진로의 불안정성을 가진 고졸 1년차의 비진학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비진학자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이종재와 연구자(1978)들은 주로 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 경제, 심리적 특성과 진학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어 서정화(1986)는 청소년의 진로경로를 중심으로 각급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지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진학기대를 가지고 시도하는 재수생군과 취업의사를 가졌지만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자 모두를 포함하여,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유형과 종합적인 대책을 제언하고 있다. 신세호와 연구자(1992)들은 입시 중심의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고등학교에서도 일반계 고등학교

를 졸업한 학생 중 대학에 비진학한 학생들의 발생 및 그 증가의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고교를 졸업한 후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는지 유형화하고, 각 진로유형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고교 졸업 이후 1년간의 진로 양상을 분석하였다. 교육분야의 이들 연구들은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진로경로를 중심으로 제반 교육기회의 확대와 진로의식 함양 및 기능 중심의 직업교육 확대 등을 주요 정책제언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분야에서도 1980년 말과 1990년 초에 걸쳐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 연구들은 당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정책이 정부 내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면서,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에서 다른 부처와 중복되지 않는 청소년정책 대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치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교육관련 부서에서 대상으로 하는 학생 청소년과 노동고용 관련 부서에서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근로청소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부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무직·미진학 혹은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으로 하여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정명과 연구자(1989)들은 198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실시한 정부의 무직·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전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의 양적 규모 추정과 주변인적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무직·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비행화 우려 집단이나 사회적 낙오자 등 구호 차원의 문제접근이 아니라 청소년실업 대책 차원의 대안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1990)에서는 당시 기존의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교육내적 문제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대책 분야에 소홀한 점에 착안하여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집단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문제의 근본원인과 배경 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방향 탐색과 실천 가능한 몇 가지 중점적 대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종합대책은 교육대책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사회대책, 그리고 학부모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밖에 학위논문으로 노공은(1975)은 비진학·청소년과 진학청소년의 심리적 비교 차원에서 자아개념의 비교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리고 최종희(1985)는 당시 연구기관의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대책 중심의 연구 연장선상에서 무직청소년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2000년대 들어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용노동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와 함께 청년실업자의 누적, 그리고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이르면서, 자연스럽게 고졸 이상의 청(소)년층에 대한 경제활동 실태와 이들에 대한 고용실업정책의 제안으로 모아지고 있다. 전병유와 이상일(2003) 및 정인수와 연구자(2006)들은 고졸 미진학 청년층과 고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실태

와 인력의 유희화 및 장기실업 가능성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실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대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전병유와 이상일(2003)은 실증분석을 통해 고졸 미진학 청년들이 학교와 노동시장 사이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고졸 미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한편 박상현(2012) 등은 2011년 2월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자 중 비진학자 약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한 비진학 고졸 청년층의 고용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진희(2012)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의 정착과 확산 차원에서 비진학 고졸 청소년의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보완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최근 ‘선취업-후진학’이라는 열린 고용정책의 추진과 연계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2000년대 이후 학위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기관의 연구들과는 동일한 맥락에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최준호(2007)은 고졸 청년층의 직업성취를 위한 결정적 요인을 사회자본에 기초한 사회 연결망의 유용성에 대한 관점을 기초로, 고졸 청년층의 교육으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및 직업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 특성과 인적자본, 기업특성, 구직방법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사회 연결망이 사회자본의 형태로서 결정적인 구직방법으로 이용되는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 이은정(2007)은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단계에서 청소년들이 배제되는 것에 대응하는 영국정부의 고등직업교육 정책을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고등직업교육으로의 진입 보장을 분석하기 위해 직업교육접근 경로의 유연화, 선발제도의 유연화,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분석 요소로 도출하고, 그동안의 직업교육에서 근로로의 이행 보장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체 요구반영,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근로경험, 직업능력보장, 고용지원을 주요 분석요소로 삼고 있다.

반면 김미란(2005)은 기존의 연구 경향과는 달리 1980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정책을 주제로 하여 청소년의 근로 이행과정에 대한 국가의 관리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표 II-7 고졸 비진학 청소년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구분		교육 분야	고용·노동 분야	청소년 분야
연구기관 보고서	1980~ 90년대	이중재 외, 1978 서정화, 1986 신세호 외, 1992		김정명 외, 198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0
	2000년대 이후		전병유·이상일, 2003 정인수·남재량· 이승후, 2006 박진희, 2012 박상현, 2012 박기현, 2013	
학위논문	1980~ 90년대	노공은, 1975 최종희, 1985		
	2000년대 이후	김미란, 2005	최준호, 2007*	이은정, 2007**

주: 학위논문은 일반대학원의 석사와 박사학위논문으로 주요 논문만 수록

* 사회학 관련 논문으로 논문의 성격상 고용·노동분야로 간주

** 사회복지학 관련 논문으로 논문의 성격상 청소년분야로 간주

이상과 같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분석해 볼 때, 교육이나 진로경로 혹은 직업교육 중심의 교육분야 접근과, 이들의 고용이나 직업세계로의 이행경로와 노동시장 진입의 구조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하여 기회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노동교육 분야 연구, 그리고 무직·미진학이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노동과 고용, 사회차원의 종합대책이라는 이름하에 백화점식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청소년분야의 연구들의 관점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즉,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다양한 형태(고졸 취업자, 구직자, 진학준비자, 취업 및 창업 준비자, 니트와 같은 동기 상실자 등)로 존재하면서 어떤 삶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이들이 지향하는 삶의 경로를 중심으로 어떤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통합적 청소년정책(integrated youth policy) 혹은 청소년발달(youth development)적 관점에서 조망이 절실하다.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통합적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 발달적 접근은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고 가로지르면서 청소년에게 적절한 사항에

대한 다른 분야와 협력하고, 청소년을 위해 서비스를 조정할 목적으로 청소년정책 부문의 의식적이고 구조화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 스스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삶의 지향을 온전히 고려하는 청소년발달 중심의 사고를 주요 원리로 하여야 한다(이광호, 2012, pp. 112-117).

제 3 장

고졸 비진학 청소년 대상 정책 현황 분석

1. 지난 정부의 추진 정책
(2008~2012)
2. 박근혜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
(2013~)

제 3 장 고졸 비진학 청소년관련 정책 현황*

1. 지난 정부의 추진 정책(2008~2012)

1) 추진 과정

고졸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학력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용상 학력차별, 과도한 학벌 추구로 빚어지는 사회적 낭비 및 노동시장 일자리 미스매칭의 심화, 특성화고(전문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침체 및 직업교육 기피 등의 문제가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그 간 고졸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중심의 고용정책에 집중되었다.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 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진학률은 증가해왔으며,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대학 진학을 정검다리로 전문계고에 진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 7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취업중심으로 방향을 잡아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정책 대상으로서 소외되어 왔던 고졸 청소년들이 주요 정책대상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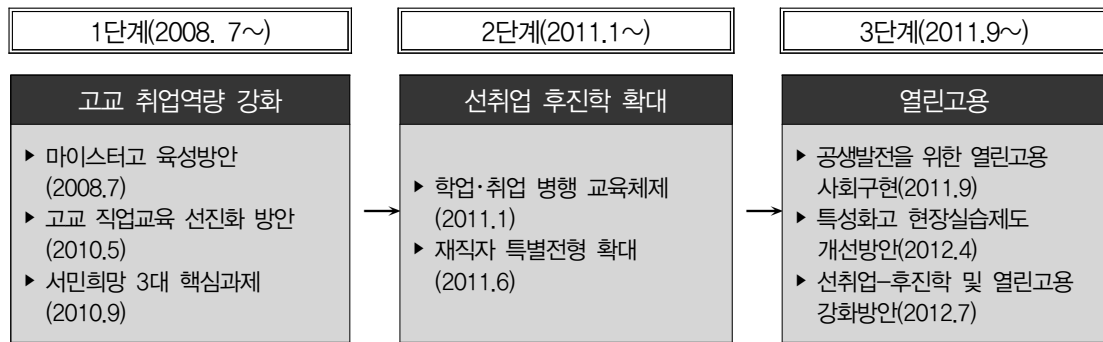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전략’에 이어 2010년 5월에 발표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서는 ‘선취업-후진학 정책’이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기본 정책방향으로 선언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 발표된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방안’은 장학금 지원과 글로벌 현장학습 등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선취업-후진학’ 정책을 위한 다양한 세부 추진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1년 1월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는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데, 그 내용에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기업들에게 세제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2011년 하반기에는 ‘선취업-후진학’ 문화를 조성하고 학력 또는 학벌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2011.9)’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2012년 7월에는 ‘고졸 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고졸자 정책의 사회적 확산과 지속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2008년부터 추진된 지난 정부의 고졸자 대상 정책을 시간의 흐름 순대로 정리하면 [그림 I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1단계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정상화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던 시기이고, 2단계는 ‘선취업-후진학’ 확대의 취업 우선 정책이 중심이 되었던 시기이며, 3단계는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고졸자에 대한 열린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정책을 확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대통령실 (2012.10.11). 신(新)고졸시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p. 6

【그림 III-1】 단계별 고졸 비진학자 교육 및 고용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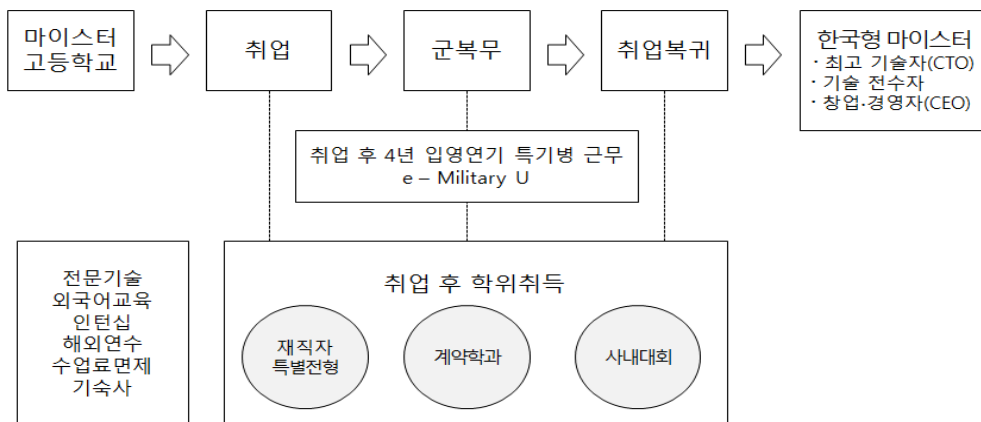
각 단계별로 수립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지난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였으며, 주요 정책 사업들과 장기 추진 사업들은 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어 3단계로 확대 추진되어온 고졸자 대상 주요 정책 사업을 살펴보았다.

2) 주요 추진 정책

(1) 마이스터(Meister)고 육성

마이스터고는 2008년 3월 이명박정부의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이었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⁵⁾. 법적으로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고 정의된다.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의 목표는 조기에 직업 기술인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로개발을 지원하는데 있다. 이 목표를 위해 마이스터고 졸업 후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군복무제도와 직장내 학위취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교육규제를 완화하며, 국가차원에서 마이스터고를 집중 육성하여 전문계고의 선도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방향이 설정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노동부, 2008.7.8).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노동부(2008.7.8), 한국형마이스터고 올 9월에 20개교 이내 선정, 참고자료1
문화체육관광부(2013),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제9권 교육개혁과 신(新)고졸시대 개막. p. 62

【그림 III-2】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성장 경로(Career Path) 모형

5)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자료(2008.3.20) 참조

2008년 7월에 발표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의 주요 정책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추진전략은 ‘마이스터’의 성장 경로를 확립하는데 있다. 이는 졸업 후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군입대에 따른 경력 단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문계 졸업생이 취업을 하면 최대 4년간 군 입대연기가 가능하고, 특히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군입대시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군 특기병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마이스터 성장 경로 확립을 위한 다른 방안은 취업 후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업체 재직 중 계속교육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 일반대학 계약학과의 설치 및 입학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마이스터고 교육 규제 개혁에 있다. 우선 예비 마이스터 양성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교육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산업계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자율화하며, 실습·계절학기, 그리고 기업교육 프로그램 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성과 학교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교장공모제로 임명하고 마이스터급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보인사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학생의 소질과 적성 등을 기준으로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하며, 산업계 인사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육과정개발 등에 참여하여 현장 밀착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국가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있다. 마이스터고를 전문계고 선도모델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은 마이스터고 기반조성에 25억원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공동 지원하고, 산업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학생과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지원을 받는 마이스터고는 시·도 교육감이 지역 전략산업과 마이스터 분야의 적합성, 학교의 기본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교 이상 추천을 하고, 정부-산업계 공동의 ‘마이스터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다. 2008년 1차 9개교를 선정한 후 2009년 2차 12개교를 선정하였는데, 이 때 선정기준은 국가적 필요와 산업계의 수요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술발전 동향과 부합하는가의 여부였다⁶⁾.

6) 1차 9개교: 수도권전기공고(에너지), 부산자동차고(자동차), 경북기계공고(기계메카트로닉스), 원주의료고(의료기기), 충북반도체고(반도체장비), 함덕제철고(철강산업), 군산기계공고(조선·기계), 구미전자공고(전자), 거제공고(조선)

2차 12개교: 미림여자정보과학고(뉴미디어콘텐츠), 인천전자마이스터고(전자·통신), 광주자동화설비공고(자동화설비), 동아 마이스터고(전자기계산업), 울산마이스터고(기계·자동화), 수원하이텍고(메카트로닉스), 평택기계공고(자동차·기계), 금오공고(모바일제품), 한국향만물류고(향만물류), 삼천포공고(항공·조선), 전북기계공고(기계), 부산기계공고(기계)

2010년 3차 3개교와 2011년 4차 4개교의 선정에는 부처의 수요 및 지역산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선정 기준이 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5차 5개교 선정에는 마이스터고 분야의 다각화가 선정기준으로 반영되었다. 2012년 6차 2개교와 7차 3개교 선정도 5차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단, 7차 선정에 있어서는 부처의 수요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다⁷⁾. 이와 같은 선정 기준으로 2008년 이래 총 38개교가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었으며, 38개교 중 28개교는 총 4,423명(남학생: 3,831명, 여학생: 592명)을 선발하여 운영되고 있고, 5차~6차에 선정된 7개교는 2013년, 7차에 선정된 3개교는 2014년에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제9권, pp. 64-72).

2013년 2월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90.3%로, 특성화고 취업률 38.4%이나 종합고 직업반의 취업률 19.3%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성과가 있었다(교육부, 2013.5.15). 이와 같은 마이스터고의 긍정적인 기능이 보다 확대·발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로 집중되어 있는 마이스터고 육성 주체를 보다 다원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마이스터고 선정과정에서 농림수산물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등 의 수요가 반영된 것과 같이 산업체 그리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이스터고 육성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취업교육 강화

마이스터고 육성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직업교육 고등학교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체제개편 및 취업교육의 강화이다. 중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은 2010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는데, 이와 같이 확정된 데에는 특성화고가 본연의 기능을 잃었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경제의 고도 성장기였던 1970~80년대 고등학교 직업교육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률이 2001년 40.8%이었던

7) 3차 3개교: 부산해사고(해양), 공주마이스터고(SMT장비), 울산에너지고(에너지)

4차 4개교: 인천해사고(선박항해기관),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바이오산업), 연무대기계공고(자동차부품제조), 공군항공과학고(항공·전자)

5차 5개교: 포항제철공고(철강산업), 평해공고(원자력발전설비), 서울로봇고(로봇산업), 전남생명과학고(친환경 농·축산업), 삼척전자공고(발전산업)

6차 2개교: 미원공고(차세대전자), 여수전자화학교(석유화학제)

7차 3개교: 완도수산고(어업 및 수산물 가공), 한국경마축산고(말산업), 대중금속고(정밀가공)

것이 2009년 73.5%로 급증한 반면, 취업률은 2001년 54.7%에서 2009년 16.7%로 급격하게 감소한 사실이 밝혀지자 전문계고의 기술인력 양성 기능 및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의 요구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 정부에서는 2010년 5월 12일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제3호 안건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관계부처합동, 2010.5.12)’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핵심은 [그림 III-3]과 같이, 2010년 현재 691개 모든 특성화고를 2015년까지 취업중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로 재편하면서 특성화고의 목표를 특정분야 인재양성으로 규정하고, 종합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여 취업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전문화하는데 있다.

현행: 2010년 691개교	개편: 2015년 400개교
마이스터고(21개교)	마이스터고(50개교)
특수목적고(40개교: 선원, 자영농 등 특수분야 인력양성)	
특성화고(168개교: 디자인, 게임 등 교육과정 특화)	특성화고(350개교)
일반 전문계고(275개교)	일반계 등(291개교)
종합고(187개교: 일반계+전문계)	

출처 : 관계부처합동(2010.5.12),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p. 88

【그림 III-3】 특성화고 체제개편 방향

이와 같은 특성화고 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고등학교단계의 직업교육 축소로 인해 학생들의 직업교육 이수기회가 제한되고, 우수 특성화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제9권, p. 91). 이에 지난 정부에서는 2011년 6월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개편이 아닌, 단위학교 요구를 반영한 시도교육청 중심의 기초상향방식(Bottom-up)으로 체제개편을 추진하였다. 특성화고의 체제개편 결과, 2010년과 비교하여 볼 때 2012년에 마이스터고가 7개교가 증가하였고, 특성화고 8개교와 종합고 78개교가 감소하였으며, 2015년까지 특성화고 29개교, 종합고 103개교가 감소될 전망이다.

한편 특성화고 체제개편과 함께, 특성화고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직업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2010년 9월 6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된 ‘교육희망다사리 구축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①특성화고 학생들의 교육비 전액(1인 연평균 120만원)을 지원하고, ②특성화고 취업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획재정부, 2010.9.16).

2012년에는 특성화고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을 우수학교와 취업을 제고의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역량제고사업 기본계획(2012.2)’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기능강화사업과 학생들의 취업과 직업교육을 돕는 전문인력지원사업,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의 향상을 지원하는 수업선진화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취업기능강화사업에서는 단위학교에 취업지도실을 활성화하는 활동들, 즉 면접, 이미지 메이킹, 근로기준법, 직업윤리, 산업안전 및 보건, 리더십 등 취업역량프로그램의 도입과 산업체와 취업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멘토링과 산업체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지도 및 취업처 발굴 및 알선, 그리고 취업현장을 방문 및 재취업을 지도하는 추수지도를 역점사업으로 지원한다.

둘째,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취업과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위학교에 취업지원관과 산업체 우수강사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산업체 우수강사는 학교가 대한상공회의소(Hi-Job)의 강사 인력풀에서 채용예정자를 2배 이내 선정하여 면접 후 채용하고, 취업지원관은 배치계획에 따라 워크넷에 등록된 취업지원관 인력풀에서 학교가 채용하는 방식이다. 셋째, 수업선진화사업은 수업 개선을 통한 특성화고 교육의 선진화와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프로젝트수업, 실습, 산업안전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 이외에 특성화고 학생들 해외 인턴십 지원과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체 체험 연수 및 현장실습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상과 같은 특성화고 체제개편과 취업역량강화 사업들은 현 정부에서도 진행 중에 있다.

(3) 후진학 체제 확충

후진학 제도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이 대표적이다. 고교 졸업 후 산업현장에 취업한 인력이 전문기술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무학습과 전문분야 학습, 그리고 그 학습을 위한 자격증 취득 또는 학위과정의 입학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장경험에 더해지는 직무학습과 전문분야 학습 과정에서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 인력들의 전문성 및 직무성고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제9권, p.106).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3),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제9권 교육개혁과 신(新)고졸시대 개막, p.105의 내용 재구성

【그림 III-4】 특성화고졸 기능직 입사자들의 성공 경력·경로 형성과정

취업 후 일과 학업의 병행을 지원하는 지난 정부의 후진학 정책은 2010년 5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2011년 1월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과 같은 해 9월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점차 확대되고 구체화되었다.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서는 재직경험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재직자특별전형 도입대학을 거점국립대학으로 확대하였고, 이어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에서 재직자특별전형 운영을 사립대로 확대함과 동시에 사내대학입학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이후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에서는 재직자특별전형 채택 대학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사내대학을 활용하여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중소기업 고졸 취업자에게 계약학과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직경력이나 재직 중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0.5.12; 교육과학기술부, 2011.12.14). 이와 같이 지난 정부의 후진학 정책은 재직자특별전형과 계약학과, 그리고 사내대학을 중심으로 확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제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직자특별전형

재직자특별전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별도 반을 개설하고, 산업체 및 재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9년 10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제29조 2항14호)을 통해 도입되었고 2010년 대학입시부터 적용되었다. 2012년 현재 23개 대학에서 1,027명을 모집하였고, 2013년에 67개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재직자특별전형 대학 수의 증가는 특성화고 졸업자들에게 전문분야 학습 및 학위취득의 기회를 확충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성화고졸 재직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지원이 미흡하여, 재직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용되는 제도에 머물고 있으며, 개인에게 학비 부담은 경제적인 제약요인이 된다. 또한 설치된 대학의 대부분의 학과가 경영 및 사회계열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제한점이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를 산업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제9권, pp. 110-116).

② 계약학과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형태이며,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형태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7.12).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경우 계약형태에 따라 산업체 단독계약형과 제3자 계약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주로 대기업이 단독계약형태로 운영하고, 제3자 계약형태는 공공기관이 산업체와 대학 간 체결된 계약에 대해 지원하는 형태이다.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전자, 모바일, 영상콘텐츠, 정보보안 등 IT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나, 학생의 선발은 고등교육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으로 산업체에서 추천받은 소속직원에게 대해 선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계약학과의 학생수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의 학생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정원 외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나,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4월 기준 105개 대학 426개 학과에서 1만 2,247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유형별로는

채용조건형 41개 학과 1,054명, 재교육형 385개 학과 1만 1,220명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7.12). 현재 운영 중인 계약학과가 대체로 재교육형인 것은 채용조건형의 경우 산업체에서 비용의 전액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사내대학

평생교육법 제32조에서는 종업원 2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가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개인 차원에서 재직자의 학습 욕구 및 직무 전문성 향상,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재직근로자의 직무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사내 대학이 설치된다. 사내대학의 입학자격은 평생교육법 제32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치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선발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규정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내대학은 3개교(삼성전자공과대학교,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이며, 2013년에 4개교(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공과대학,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가 추가 개교될 예정이다. 대기업 중심의 소수의 사내대학이 운영되는 것은 운영 및 학비의 부담을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데 따른 기업의 재정 부담이 크고, 일과 학업 병행에 따른 시간 부족 및 업무공백에 대해 기업과 재학생 모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제9권, pp. 120-121).

이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취업을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근로 생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취업 후 계속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 주요 정책 이외 추진된 정책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교육단계정책으로서 ‘진로진학 상담교사’ 제도를 도입(2011.3)하여 2012년까지 3천여명의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었으며, 커리어넷(Career Net) 진로검사 및 ‘한국 잡월드’ 개원(2012.5) 등의 진로·직업 체험시설이 확대되었다.

졸업 및 취업단계정책으로 고졸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우선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장벽을 완화하였는데, 2012년 ‘지역인재 9급 추천 채용제’ 신설과 기술직 9급 ‘고졸자 채용권고제’의 도입이 그 예이다. 또한 공공기관 입사 지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없애고, 경영평가에 고졸자 채용 비율과 여건 개선 노력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였으며, 공공기관 입사 고졸자들이 승진이나 보직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고졸 채용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고졸자 채용을 촉진하고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를 통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출신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채용 1명당 2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였으며, 고졸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졸청년인턴제’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였다(대통령실, 2012.10.11, pp. 8-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과 관련한 지난 정부의 고졸자 정책은 직업교육과 취업이 그 중심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교육정책과 고용정책 하에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이들 사업들은 올 해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되고 있으며, 보다 구체화되거나 확대 발전된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2. 박근혜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2013~)

1) 관련 국정과제

지난 정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청년정책이 강조되면서 박근혜정부 5대 국정목표(①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맞춤형 고용복지, ③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과 140대 국정과제에 20대 후기 청소년을 포함하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띄는 것은 지난 정부와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2013년부터 추진되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는 고졸 청소년을 포함하는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새로운 정책 강화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청소년 분야에서 조차도 정책대상자로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폭넓게 포함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인 정책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청년층 중에서도 연령측면에서, 또한 학력측면에서도 소수의 하위집단으로 분류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 이어 올해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 140개 국정과제들 속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정책대상자로 포함하거나 이들과 관련성이 높은 과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73.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와 ‘1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과제 이외에 '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53.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의 과제에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정책대상자로 포함되거나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들을 통해 본다면, 지난 정부와 같이 현 정부에서도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교육 및 고용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 고졸자관련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국정과제	주요 추진 계획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	창조경제 생태계조성	08. 청년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K-Move)구축 • 청년 창직 활성화 •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맞춤형고용복지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53.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 서비스망 강화	•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강화 • 고용서비스망 연계강화 • 민간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활성화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7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마이스터고 다양화 • 직무능력표준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직업교육 기회 확대 •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안전과 통합의 사회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1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 스펙초월채용시스템 정착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출처 :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2). 박근혜정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에서 발췌 정리

각 국정과제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8. 청년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과제에서는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과 창직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 시스템(K-Move) 구축과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그리고 공공부문에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주요 추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들 사업 중

K-Move사업은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선발하여 전문가 멘토링 및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인재로 양성한 후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단순 체험형 해외진출 지원사업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53.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과제에서는 구인-구직자 매칭 시스템 구축과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니트(NEET)와 같이 청년층 하위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패키지를 강화하는 등의 사업을 담고 있다. 청년 니트의 규모가 100만명을 초과하였고, 고졸 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2%로 절반 이상(남재량, 2012)이라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중 니트 상태에 있는 이들이 맞춤형 취업지원 과제 하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7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과제에서는 지난 정부에 이어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고졸 재직자의 학위취득 및 경력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마이스터고 다양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표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고졸자 학위취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되고 착수되어 오는 사업들이 다수인데, 마이스터고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육성에 초점을 두어 양적인 확대를 추진하였다면, 박근혜정부에서는 전략산업과 FTA를 대비한 집중 육성사업과 연계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 추진하는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무능력표준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어온 것을 박근혜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고졸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재직자 대상 국비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1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과제에서는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을 구축하며, 신규 채용 시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과거부터 논의 되어 온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기는 하나, 이전과는 달리 고졸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축은 고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은 민관합동으로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청년을 선발하여, 멘토의 도제식 멘토링 지도를 받고, 청년인재은행 DB에 등록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은 산업수요의 요구를 반영한 표준직무매뉴얼을 만들어 능력만 있으면 학력과 무관하게 노동시장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들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현재와 같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의 스펙중심이 아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중심으로 전환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청년선발	[2단계] 온오프라인 멘토링		[3단계] 청년인재은행	[4단계] 취업매칭
상담을 통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선발, 관심분야 도출	〈정보통신·문화 콘텐츠 분야〉		인터뷰 등 멘토의 평가를 통해 청년인재은행 DB 구축	(2차 멘토) 기업 채용담당자 (평가 및 채용) 심층면접, 역할 연기 등 역량평가를 통해 채용
	운영기관	멘토스쿨		
	산업디자인협회	김○○의 산업디자인스쿨		
	캐릭터협회	최○○의 캐릭터디자인스쿨		
	게임산업협회	송○○의 게임컨텐츠스쿨 이○○의 게임캐릭터스쿨		

출처 : 고용노동부(2013.3.29), 일자리 늘리기 자기기, 질 올(오)리기를 통해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습니다. p.4

【그림 III-5】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이상에서 살펴본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포함하여 범부처에서는 고졸자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고졸자와 관련한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 현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3단계(교육단계 - 졸업 및 취업단계 - 취업 후 단계)로 구분하고, 각 부처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과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3단계에 맞추어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 주요 정책 현황

(1) 교육단계에서의 정책

교육단계에서의 정책은 교육부의 직업교육 정책이 중심이다. 교육부의 직업교육 정책은 취업역량강화 기반 구축지원과 학생 취업역량 강화, 그리고 교사역량강화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취업역량강화 기반 구축 지원에는 지난 정부에서 강조되었던 마이스터고 육성과 특성화고

취업 기능 강화, 그리고 고졸 열린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들이 해당되며, 박근혜정부에서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 또한 취업역량강화 기반 구축지원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표 III-2 고졸자관련 박근혜정부 정책: 교육단계

소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관련법률 및 추진근거
교육부	취업역량 강화 기반 구축 지원	• 마이스터고 육성 •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매칭 지원 • 교육과정 개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 열린 채용 홍보 강화 및 인식 개선	•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 자격기본법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학생의 진로지도) • 국정과제 66(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국정과제 70(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 강화)
	학생취업 역량 강화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 직업기초능력 배양지원 • 산업체 우수강사 지원 • 고교단계 현장실습 내실화 •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 지원 • 취업희망자 특성화고 특별전형 확대 • 일반고 위탁과정 확대 •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교사역량 강화	• 전문교과 교원 중장기 현장직무연수 강화 • 연구대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확대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 진로상담과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 •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 역량 강화 • 학교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표준 지침 마련	
교육부 중소기업청	진로교육	•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 환경 여건 강화	•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점과제 3-3(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직무 능력표준 (NCS) 구축	• 교육·훈련과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제도 안착	• 자격기본법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 국정과제 73(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직업체험 환경 여건 강화	• 일-학습 병행 듀얼시스템 구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 3-3(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의 복지 향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 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동법 제8조의 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 3-3(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학생 취업역량강화에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과 학생의 의사소통,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장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기초능력 배양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계 첨단 기술을 갖춘 우수 퇴직인력 등을 활용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우수강사 인력풀 운용을 통한 산업체 우수 강사를 학교에 지원하여 학생들이 산업계 요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현장실습매뉴얼과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등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고,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고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과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사역량강화에는 전문교과 담당 교원의 중장기 현장직무연수를 강화하고,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를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교육과 함께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직업체험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들 사업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졸업 및 취업단계에서의 정책

졸업 및 취업단계에서의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이 중심이 되며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즉 취업지원, 일자리확대, 그리고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취업지원 정책에는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K-Move) 구축과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강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강화,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민간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활성화 등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정책인 K-Move사업의 경우, 포털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해외 현지 일자리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해외취업장려금제도를 통한 현지 정착을 지원하며, 해외 취업하기까지 과정에서 현지 멘토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강화사업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장려금과 재산형성,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확대·개선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사업들은 대상별 맞춤형 취업강화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된다.

일자리확대사업으로는 교육, 경찰, 소방, 복지, 고용분야 등 공공부문에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고졸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지난 정부의 고졸자 채용 촉진 정책들을

이어가고 있으며, 청년 창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직업지원 이외, 기업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이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프로그램과 기업에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표 III-3 고졸자관련 박근혜정부 정책: 졸업 및 취업단계

소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관련법률 및 추진근거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K-MOVE) 구축 •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강화 •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민간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활성화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제25조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지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6조 (국민생활 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 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 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창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7조(창업교육) • 국정과제 15(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지원), 국정과제 58(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3-3(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일자리확대	•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창직 확대	
	채용 기업지원	• 세대간 상생고용 프로그램 •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보급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창업·취업지원	• 지역 밀착형 청년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취업 촉진방안 마련 • 창업교육과정 개설 및 확대 운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3년간 근로소득세 전액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병무청	병역대체복무	• 산업기능요원 군복무를 대체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기획재정부	채용 기업지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2(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 고졸채용 규모 확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 국정과제 98(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고용노동부 이외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역 청소년(청년)들에게 지역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 밀착형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소년(청년)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육성에 필요한 학생 현장실습 비용의 25% 등을 공제하고, 연차적으로 고졸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와 인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병무청에서는 지난 정부에 수립된 바와 같이, 고졸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병역지정 업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확대·추진하고 있다.

(3) 취업 후 단계에서의 정책

취업 후 단계에서의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후진학제도의 일환으로 확충되었던 정책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이 취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이 되면 재직경력만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재직자 특별전형과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계약학과, 기업대학, 사내대학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정부와는 달리 박근혜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취업 단계에서의 정책은 ‘고졸자 국비유학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졸자가 석·박사 학위 또는 직업자격과정이나 산업화(기관) 연수프로그램에 지원할 경우, 6개월 사전 어학적응기간의 지원을 포함하여 교육비 및 체재비 등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 이외, 고졸자가 정책 대상에 다수 포함되는 취업 후 노동시장에서의 보호와 안전에 관한 정책도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III-4>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정규직 전환 확산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및 임금체불 청산과 같은 정책들은 고졸자관련 주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고졸 취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으며, 특히 20대 초반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아 사회안전망의 접근성이 낮으며,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 III-4 고졸자관련 박근혜정부 정책: 취업 후 단계

소관부처 및 관련법률	주요사업	사업내용	관련법률 및 추진근거
교육부	선취업 평생교육	• 재직자 특별전형 •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계약학과, 기업대학, 사내대학 • 직장경력을 대학학점으로 인정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	• 고등교육법개정안 (국회 제출)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입학·편입학 등) 2항 14호
	고졸 국비 유학 지원	• 석·박사 학위과정 및 직업자격과정·산업화(기관)연수 지원	• 평생교육법 제32조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의 정책에서는 고졸자가 주요 대상이 아닌 고졸자를 포함하는 각종 중앙 부처의 정책이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의 경우 고졸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4) 서울시 고졸자대상 추진 정책

서울시가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와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졸자 정책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교육단계와 졸업 및 취업단계의 2단계로 분류되었다. 먼저 교육단계에서는 청년일자리허브를 통해 창업이나 취업 전, 다양한 분야의 일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한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비진학 청소년들이 사회적 창업을 한 청년 선배들과의 워크숍 캠프나 강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진학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졸업 및 취업단계 정책으로는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채용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4월에 ‘열린고용 확산을 위한 고졸자 고용촉진 강화(2013.4.24)’ 대책을 통해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고졸자 우선 고용하고, 민간기업의 고졸채용을 늘리기 위해 500명의 특성화고 졸업생과 청년미취업자를 시(市)의 고용지원사업으로 채용시킬 계획이다. 또한 고졸자가 수행 가능한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일자리

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공급하며, 만25세 이하 고졸자 100명에게 CEO가될 수 있도록 돕는 ‘마이프로젝트 스쿨’을 운영하여 창업교육 강화와 예비 창업인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고졸자 정책은 중앙정부와 같이 교육과 고용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 가지 중앙정부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보이는 것은 고졸자 내의 다양한 하위집단에 대한 고려가 일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표 III-5 고졸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 서울특별시

구분	교육단계	졸업 및 취업단계
사업내용	• 청년일자리허브 • 비진학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 대학 비진학 일반계 고교생 대상 기술교육	• 공공부문 고졸채용 진입장벽 완화 • 민간부문 고졸채용 촉진지원 • 고졸취업 증진 인프라 구축 및 교육 • 청년창업가 지원 • 능력중심의 열린 고용 문화 조성 • 청년일자리허브 • 창업교육 강화로 준비된 예비 창업인 육성
관련법률 및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 4 장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추이 및 현황 분석

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및
특성별 추이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졸업 후
현황

제 4 장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추이 및 현황 분석*

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및 특성별 추이

1) 인구 규모의 추이와 변화

우리 사회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얼마나 존재할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규모와 그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았다⁹⁾.

먼저 <표 IV-1>에 제시된 고교 졸업자 중 진학자와 비진학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졸업자 총 수 측면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2000년 473,665명에서 2005년 399,01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다소 증가해 2010년 477,470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2000년 291,047명에서 2010년 156,06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2000년 83.9%가 대학으로 진학했으나, 2003년 90.2%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2010년에는 81.5%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2000년에 42.0%만이 진학했으나, 이후 10년 동안 30%p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0년 진학률이 7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진학자 수를 토대로 하여 비진학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진학자는 76,024명으로 전체 졸업자의 16.1%를 차지하였다. 2003년까지 39,435명(9.8%)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88,229명으로 전체 일반계 졸업자 중 고졸 비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8.5%로 2003년 대비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종성(한국고용정보원·청년위원회 전문관)이 집필하였음.

9) 교육통계연보 자료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자료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를 진학자와 비진학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의 고졸 비진학자는 별도의 조작적 정의 없이 교육통계연보 자료의 비진학자 수 그대로 사용하였다.

반면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진학자의 수는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2000년 58.0%였던 비진학자의 비중은 2010년 28.8%로 감소하여 일반계 졸업자 중 비진학자의 수와 대조를 보였다.

표 IV-1 고교 졸업자 중 진학자 및 비진학자의 추이(2000~2010)

(단위 : 명, %)

연도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자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2000	473,665 (100.0)	291,047 (100.0)	397,641 (83.9)	122,170 (42.0)	76,024 (16.1)	168,877 (58.0)
2001	465,778 (100.0)	270,393 (100.0)	397,227 (85.3)	121,411 (44.9)	68,551 (14.7)	148,982 (55.1)
2002	439,586 (100.0)	231,127 (100.0)	382,380 (87.0)	115,103 (49.8)	57,206 (13.0)	116,024 (50.2)
2003	400,903 (100.0)	189,510 (100.0)	361,468 (90.2)	109,234 (57.6)	39,435 (9.8)	80,276 (42.4)
2004	405,715 (100.0)	182,835 (100.0)	364,458 (89.8)	113,944 (62.3)	41,257 (10.2)	68,891 (37.7)
2005	399,013 (100.0)	170,259 (100.0)	352,344 (88.3)	115,164 (67.6)	46,669 (11.7)	55,095 (32.4)
2006	405,455 (100.0)	162,600 (100.0)	354,647 (87.5)	111,601 (68.6)	50,808 (12.5)	50,999 (31.4)
2007	412,649 (100.0)	158,708 (100.0)	359,478 (87.1)	113,487 (71.5)	53,171 (12.9)	45,221 (28.5)
2008	423,513 (100.0)	158,408 (100.0)	372,102 (87.9)	115,407 (72.8)	51,411 (12.1)	43,001 (27.2)
2009	424,888 (100.0)	151,410 (100.0)	360,895 (84.9)	111,348 (73.5)	63,993 (15.1)	40,062 (26.5)
2010	477,470 (100.0)	156,069 (100.0)	389,241 (81.5)	111,041 (71.2)	88,229 (18.5)	45,028 (28.8)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b), 교육통계연보 자료 재구성(이하 표 및 그림 동일)

이상과 같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추이와 함께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비중이 증감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2년 간 자료를 사용하여 고등학교의 유형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구분한 후 졸업자와 진학자, 그리고 비진학자의 규모를 나누어 살펴보았다¹⁰⁾.

10) 2010년 고교유형의 개편이 이루어져 2010년 이전 자료와 최근 2년(2011년, 2012년) 자료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IV-2>에 제시된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자 수를 살펴보면, 먼저 2011년 일반고를 졸업한 470,605명 중 75.8%인 356,828명이 상급학교로 진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졸업자는 일반고 졸업자의 진학률보다는 다소 낮은 각각 67.4%, 61.0%, 69.3%의 진학률을 보였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011년 대비 2012년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의 진학률은 크게 차이나지 않으나, 특성화고의 경우 2011년 61.0%였던 상급학교 진학자의 비율이 2012년 50.0%로 11.0%p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선취업-후진학’ 정책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기는 하나, 특성화고 졸업자의 급증했던 대학 진학률의 감소 기류는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V-2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자(2011~2012)

(단위 : 명, %)

연도	졸업자				진학자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2011	470,605 (100.0)	22,779 (100.0)	114,690 (100.0)	40,394 (100.0)	356,828 (75.8)	15,349 (67.4)	69,968 (61.0)	27,986 (69.3)
2012	453,242 (100.0)	23,283 (100.0)	108,950 (100.0)	51,249 (100.0)	347,250 (76.6)	14,943 (64.2)	54,484 (50.0)	37,222 (72.6)

<표 IV-3>은 앞서 살펴본 <표 IV-2>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자 수를 기반으로 하여 산출된 비진학자의 수를 제시한 것이다. 2011년 일반고 졸업자 중 비진학자는 전체의 24.2%인 113,777명이 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는 각각 7,430명(32.6%), 44,722명(39.0%), 12,408명(30.7%)이 고졸 비진학자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도 이와 유사한 양상임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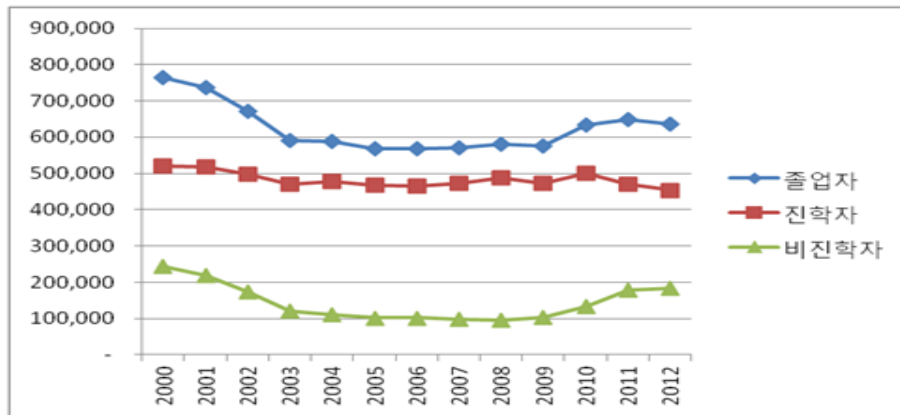
2010년 이전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된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중간 보고 심의 의견 2013.6)이 있었으나, 2010년 이후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학교들을 임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를 가늠하고 그 추이를 파악하는데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0년 고교 유형 개편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 IV-3 고등학교 유형별 비진학자(2011~2012)

(단위 : 명, %)

연도	졸업자				비진학자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2011	470,605 (100.0)	22,779 (100.0)	114,690 (100.0)	40,394 (100.0)	113,777 (24.2)	7,430 (32.6)	44,722 (39.0)	12,408 (30.7)
2012	453,242 (100.0)	23,283 (100.0)	108,950 (100.0)	51,249 (100.0)	105,992 (23.4)	8,340 (35.8)	54,466 (50.0)	14,027 (27.4)

[그림 IV-1]은 2000년부터 최근 까지 고등학교 졸업자를 진학자와 비진학자로 나누어 규모의 변화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2000년 244,901명이었던 고졸 비진학자는 2008년 94,412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133,257명, 2011년 178,337명, 2012년 182,825명으로 매년 평균 1만 5천명정도의 고졸 비진학자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고졸 청소년층 진학자와 비진학자 변화추이

2) 고교 졸업 후 상태 및 특성별 추이와 분포

(1) 고등학교 졸업 후 상태

앞서 살펴본 고졸 비진학자의 규모에 이어 여기에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교 졸업 후 상태는 ①취업, ②군입대, ③무직,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 수 없는 ④미상의 네 가지 분류이다. 고교 졸업 후 상태를 졸업한 출신 고교의 계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IV-4>와 <표 IV-5>에 각 상태를 인문계와 전문계로 나누어 비교 제시하였다¹¹⁾.

우선 <표 IV-4>에서는 고교 졸업 후 취업자와 입대자의 추이를 2000년부터 시계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IV-4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상태 추이: 취업자 및 입대자(2000~2010)

(단위 : 명, %)

연도	고졸 비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2000	244,901 (100.0)	11,729 (4.8)	149,543 (61.1)	361 (0.1)	523 (0.2)
2001	217,533 (100.0)	12,890 (5.9)	130,968 (60.2)	326 (0.1)	481 (0.2)
2002	173,230 (100.0)	10,291 (5.9)	104,138 (60.2)	302 (0.2)	347 (0.2)
2003	119,711 (100.0)	6,909 (5.8)	72,212 (60.3)	116 (0.1)	251 (0.2)
2004	110,148 (100.0)	5,748 (5.2)	60,062 (54.5)	306 (0.3)	354 (0.3)
2005	101,764 (100.0)	5,625 (5.5)	47,227 (46.4)	341 (0.3)	393 (0.4)
2006	101,807 (100.0)	4,967 (4.9)	42,151 (41.4)	297 (0.3)	402 (0.4)
2007	98,392 (100.0)	3,605 (3.7)	32,075 (32.6)	260 (0.3)	435 (0.4)
2008	94,412 (100)	3,434 (3.6)	30,036 (31.8)	250 (0.3)	925 (1.0)
2009	104,055 (100.0)	3,061 (2.9)	25,297 (24.3)	403 (0.4)	962 (0.9)
2010	133,257 (100.0)	4,266 (3.2)	29,916 (22.4)	540 (0.4)	865 (0.6)

11) 보고서 지면상의 이유로 고교 졸업 후 상태 출신계열별 비교를 <표 IV-4>와 <표 IV-5>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다음의 <표 IV-6>과 <표 IV-7>도 같은 사유로 분리 제시하였다.

2000년 고졸 비진학자 244,901명 중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11,729명으로 4.8%이었던가 2010년 3.2%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149,543명으로 61.1%를 차지하였던 것이 2010년 22.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표 IV-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42.0%였던 진학률이 2010년 71.2%까지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취업자와 입대자에 이어 <표 IV-5>에서는 고교 졸업 후 무직자와 미상자의 추이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2000년 고졸 비진학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무직자가 21,265명(8.9%)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0년에는 63,420명(47.6%)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표 IV-5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상태 추이: 무직자 및 미상자(2000~2010)

(단위 : 명, %)

연도	고졸 비진학자	무직		미상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2000	244,901 (100.0)	21,265 (8.9)	10,508 (4.3)	42,669 (17.4)	8,303 (3.4)
2001	217,533 (100.0)	17,018 (7.8)	10,140 (4.7)	38,317 (17.6)	7,393 (3.4)
2002	173,230 (100.0)	13,450 (7.8)	6,155 (3.5)	33,163 (19.1)	5,384 (3.1)
2003	119,711 (100.0)	9,475 (7.9)	4,305 (3.6)	22,935 (19.2)	3,508 (2.9)
2004	110,148 (100.0)	12,870 (11.7)	5,040 (4.56)	22,333 (20.3)	3,435 (3.1)
2005	101,764 (100.0)	22,238 (21.9)	4,327 (4.2)	18,465 (18.1)	3,148 (3.1)
2006	101,807 (100.0)	31,680 (31.1)	5,348 (5.2)	13,864 (13.6)	3,098 (3.0)
2007	98,392 (100.0)	39,001 (39.6)	8,777 (8.9)	10,305 (10.5)	3,934 (4.0)
2008	94,412 (100.0)	44,417 (47.0)	9,804 (10.4)	3,310 (3.52)	2,236 (2.4)
2009	104,055 (100.0)	56,364 (54.2)	11,410 (11.0)	4,165 (4.0)	2,393 (2.3)
2010	133,257 (100.0)	63,420 (47.6)	9,580 (7.2)	20,003 (15.0)	4,667 (3.5)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만큼 급증하지는 않았으나 고졸 비진학자 중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무직자의 경우도 2000년에 10,508명(4.3%)에서 2010년에 9,580명(7.2%)으로 증가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직자로 있는 것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수험 준비하는 기간일 수도 있겠으나, 현재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재수를 하는 대학 진학준비자와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이들의 수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진학자 중 무직자의 비율은 최근 2년간의 자료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과 <표 IV-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2011년 8,776명(4.9%)에서 2012년에 8,136(4.4%)로 다소 감소한 반면, 무직자는 2011년 69,688명(39.1%)에서 2012년 77,534명(42.4%)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IV-6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상태 최근 추이: 취업자 및 입대자(2011~2012)

(단위 : 명, %)

연도	고졸 비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2011	178,337 (100.0)	8,776 (4.9)	2,142 (1.2)	29,756 (16.7)	383 (0.2)	662 (0.4)	66 (0.0)	1,142 (0.6)	70 (0.0)
2012	182,825 (100.0)	8,136 (4.4)	2,723 (1.5)	41,791 (22.9)	410 (0.2)	653 (0.4)	65 (0.0)	781 (0.4)	74 (0.0)

표 IV-7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상태 최근 추이: 무직자 및 미상자(2011~2012)

(단위 : 명, %)

연도	고졸 비진학자	무직자				미상자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2011	178,337 (100.0)	69,688 (39.1)	3,914 (2.2)	8,584 (4.8)	9,201 (5.2)	34,651 (19.4)	1,308 (0.7)	5,240 (2.9)	2,754 (1.5)
2012	182,825 (100.0)	77,534 (42.4)	4,441 (2.4)	7,999 (4.4)	10,079 (5.5)	19,669 (10.8)	1,111 (0.6)	3,895 (2.1)	3,464 (1.9)

(2) 고졸 비진학자의 성별 분포

고교 졸업 후 상태에 따른 추이에 이어 여기에서는 성별에 따른 고졸 비진학자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IV-8>은 2000년대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성별에 따라 진학자와 비진학자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2000년 남녀 진학률은 각각 83.3%, 84.6%로 여성이 다소 높았고, 비진학자는 남녀 각각 16.7%, 15.4%로 남자의 비진학률이 다소 높았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경향성은 2010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남성의 비진학자 비율은 20.4%로 2000년 16.7%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성별 진학자 및 비진학자 추이: 일반계 고교 졸업자

(단위 : 명, %)

연도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0	248,695 (100.0)	224,970 (100.0)	207,296 (83.3)	190,345 (84.6)	41,399 (16.7)	34,625 (15.4)
2001	244,420 (100.0)	221,358 (100.0)	209,014 (85.5)	188,213 (85.0)	35,406 (14.5)	33,145 (15.0)
2002	229,681 (100.0)	209,905 (100.0)	198,782 (86.6)	183,598 (87.5)	30,899 (13.4)	26,307 (12.5)
2003	210,185 (100.0)	190,718 (100.0)	188,802 (89.8)	172,666 (90.5)	21,383 (10.2)	18,052 (9.5)
2004	212,217 (100.0)	193,498 (100.0)	190,643 (89.8)	173,815 (89.8)	21,574 (10.2)	19,683 (10.2)
2005	208,417 (100.0)	190,596 (100.0)	183,053 (87.8)	169,291 (88.8)	25,364 (12.2)	21,305 (11.2)
2006	210,679 (100.0)	194,776 (100.0)	182,971 (86.8)	171,676 (88.1)	27,708 (13.2)	23,100 (11.9)
2007	215,241 (100.0)	197,408 (100.0)	185,717 (86.3)	173,761 (88.0)	29,524 (13.7)	23,647 (12.0)
2008	222,301 (100.0)	201,212 (100.0)	193,844 (87.2)	178,258 (88.6)	28,457 (12.8)	22,954 (11.4)
2009	221,713 (100.0)	203,175 (100.0)	185,534 (83.7)	175,361 (86.3)	36,179 (16.3)	27,814 (13.7)
2010	248,379 (100.0)	229,091 (100.0)	197,625 (79.6)	191,616 (83.6)	50,754 (20.4)	37,475 (16.4)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이어 <표 IV-9>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진학자 및 비진학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모두 진학자가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 남녀 진학자는 각각 70,358명(48.2%), 51,812명(35.7%)에서 2010년에는 60,070명(71.6%), 50,971명(70.6%)로 증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비진학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진학자는 남자 75,583명(51.8%), 여자 93,294명(64.3%)에서 2010년에는 남자 23,816명(28.4%), 여자 21,212명(29.4%)으로 낮아졌다.

표 IV-9 성별 진학자 및 비진학자 추이: 전문계 고교 졸업자

(단위 : 명, %)

연도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0	145,941 (100.0)	145,106 (100.0)	70,358 (48.2)	51,812 (35.7)	75,583 (51.8)	93,294 (64.3)
2001	136,445 (100.0)	133,948 (100.0)	69,354 (50.8)	52,057 (38.9)	67,091 (49.2)	81,891 (61.1)
2002	117,215 (100.0)	113,912 (100.0)	64,318 (54.9)	50,785 (44.6)	52,897 (45.1)	63,127 (55.4)
2003	96,887 (100.0)	92,623 (100.0)	61,490 (63.5)	47,744 (51.5)	35,397 (36.5)	44,879 (48.5)
2004	94,969 (100.0)	87,866 (100.0)	63,583 (66.9)	50,361 (57.3)	31,386 (33.1)	37,505 (42.7)
2005	89,112 (100.0)	81,147 (100.0)	64,818 (72.7)	50,346 (62.0)	24,294 (27.3)	30,801 (38.0)
2006	86,287 (100.0)	76,313 (100.0)	63,326 (73.4)	48,275 (63.3)	22,961 (26.6)	28,038 (36.7)
2007	85,428 (100.0)	73,280 (100.0)	64,657 (75.7)	48,830 (66.5)	20,771 (24.3)	24,450 (33.4)
2008	85,397 (100.0)	73,011 (100.0)	64,634 (75.7)	50,773 (69.5)	20,763 (24.3)	22,238 (30.5)
2009	81,948 (100.0)	69,462 (100.0)	62,148 (75.8)	49,200 (70.8)	19,800 (24.2)	20,262 (29.2)
2010	83,886 (100.0)	72,183 (100.0)	60,070 (71.6)	50,971 (70.6)	23,816 (28.4)	21,212 (29.4)

최근 2년간의 자료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IV-10>은 고등학교 유형별로 2년간 몇 명이 졸업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일반고등학교에서는 2011년 남녀 각각 238,649명, 231,956명이 졸업했고, 2012년에는 남자 231,340명, 여자 221,902명이 졸업하였다.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의 졸업자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들 학교 중 특성화고에서 가장 많은 졸업생이 배출되었다(2011년 남자 64,817명, 여자 49,873명이, 2012년에는 남녀 각각 62,124명, 46,826명이 졸업).

표 IV-10 고등학교 특성별 졸업자 성별차이(2011~2012)

(단위 : 명, %)

연도	졸업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1	238,649 (100.0)	231,956 (100.0)	11,556 (100.0)	11,223 (100.0)	64,817 (100.0)	49,873 (100.0)	27,132 (100.0)	13,262 (100.0)
2012	231,340 (100.0)	221,902 (100.0)	12,222 (100.0)	11,061 (100.0)	62,124 (100.0)	46,826 (100.0)	33,423 (100.0)	17,826 (100.0)

<표 IV-11>과 <표 IV-12>에서는 최근 2년 고등학교 유형별로 성별에 따른 진학자와 비진학자를 살펴보았다. 성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자와 비진학자를 살펴본 결과,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모두 여성의 진학률이 높았으나, 특성화고의 경우에만 남성의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의 경우 남성 고졸 비진학자 수가 많지만, 특성화고의 경우 여성 고졸 비진학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다수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IV-11 고등학교 유형 및 성별 진학자(2011~2012)

(단위 : 명, %)

연도	진학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1	173,909 (72.9)	182,780 (78.8)	7,510 (65.0)	7,837 (69.8)	40,731 (62.8)	29,213 (58.6)	17,993 (66.3)	9,988 (75.3)
2012	170,608 (73.7)	176,642 (79.6)	7,198 (58.9)	7,745 (70.0)	31,620 (50.1)	22,864 (48.8)	23,325 (69.8)	13,897 (78.0)

표 IV-12 고등학교 유형 및 성별 비진학자(2011-2012)

(단위 : 명, %)

연도	비진학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1	64,740 (27.1)	49,176 (21.2)	4,046 (35.0)	3,386 (30.2)	24,086 (37.2)	20,660 (41.4)	9,139 (33.7)	3,274 (24.7)
2012	60,732 (26.3)	45,260 (20.4)	5,024 (41.1)	3,316 (30.0)	30,504 (49.1)	23,962 (51.2)	10,098 (30.2)	3,929 (22.0)

(3) 고졸 비진학자의 지역별 분포

성별 차이에 이어 고졸 비진학자가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가를 교육통계조사 2012년도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표 IV-13>에서는 고등학교 유형 중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졸업자를 진학자와 비진학자로 살펴보았다.

표 IV-13 일반고와 특수목적고의 졸업자 분포(2012)

(단위 : 명, %)

지역	일반고			특수목적고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자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자
서울	75,848 (100.0)	43,628 (57.5)	32,220 (42.5)	4,807 (100.0)	3,076 (64.0)	1,731 (36.0)
부산	28,038 (100.0)	23,444 (83.6)	4,594 (16.4)	2,764 (100.0)	1,749 (63.3)	1,015 (36.7)
대구	21,334 (100.0)	17,425 (81.7)	3,909 (18.3)	1,362 (100.0)	920 (67.5)	442 (32.5)
인천	26,570 (100.0)	20,044 (75.4)	6,526 (24.6)	1,211 (100.0)	670 (55.3)	541 (44.7)
광주	15,678 (100.0)	13,461 (85.9)	2,217 (14.1)	531 (100.0)	358 (67.4)	173 (32.6)
대전	13,270 (100.0)	11,076 (83.5)	2,194 (16.5)	1,103 (100.0)	733 (66.5)	370 (33.5)
울산	12,620 (100.0)	11,201 (88.8)	1,419 (11.2)	868 (100.0)	591 (68.1)	277 (31.9)
경기	119,581 (100.0)	86,854 (72.6)	32,727 (27.4)	4,572 (100.0)	3,123 (68.3)	1,449 (31.7)
강원	14,678 (100.0)	12,629 (86.0)	2,049 (14.0)	449 (100.0)	281 (62.6)	168 (37.4)

지역	일반고			특수목적고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자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자
충북	12,654 (100.0)	10,728 (84.8)	1,926 (15.2)	564 (100.0)	315 (55.9)	249 (44.1)
충남	18,386 (100.0)	15,061 (81.9)	3,325 (18.1)	788 (100.0)	468 (59.4)	320 (40.6)
전북	17,907 (100.0)	15,032 (83.9)	2,875 (16.1)	1,278 (100.0)	733 (57.4)	545 (42.6)
전남	15,058 (100.0)	13,076 (88.0)	1,982 (13.2)	544 (100.0)	440 (80.9)	104 (19.1)
경북	22,382 (100.0)	19,701 (86.7)	2,681 (12.0)	1,302 (100.0)	732 (56.2)	570 (43.8)
경남	33,342 (100.0)	28,925 (86.8)	4,417 (13.2)	1,003 (100.0)	628 (62.6)	375 (37.4)
제주	5,896 (100.0)	4,965 (84.2)	931 (15.8)	137 (100.0)	126 (92.0)	11 (8.0)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졸업자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많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고졸 비진학자수가 많은데, 서울의 경우 일반고 32,220명(42.5%), 특수목적고 1,731명(36.0%), 경기도의 경우 일반고 32,727(27.4%)명, 특수목적고 1,449(31.7%)명의 고졸 비진학자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와 자율고의 졸업자 분포는 <표 IV-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성화고 고졸 비진학자는 경기도가 11,008명(49.4%), 자율고 고졸 비진학자는 서울이 8,191(43.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특성화고와 자율고의 졸업자 분포(2012)

(단위 : 명, %)

지역	특성화고			자율고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자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자
서울	18,158 (100.0)	8,250 (45.4)	9,908 (54.6)	18,869 (100.0)	10,678 (56.6)	8,191 (43.4)
부산	9,156 (100.0)	4,729 (51.6)	4,427 (48.4)	4,548 (100.0)	3,812 (83.8)	736 (16.2)
대구	6,310 (100.0)	3,386 (53.7)	2,924 (46.3)	6,687 (100.0)	5,438 (81.3)	1,249 (18.7)
인천	7,458 (100.0)	3,212 (43.1)	4,246 (56.9)	1,372 (100.0)	1,009 (73.5)	363 (26.5)
광주	3,741 (100.0)	1,798 (48.1)	1,943 (51.9)	2,017 (100.0)	1,727 (85.6)	290 (14.4)

지역	특성화고			자율고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자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자
대전	3,149 (100.0)	1,361 (43.2)	1,788 (56.8)	3,377 (100.0)	2,776 (82.2)	601 (17.8)
울산	2,716 (100.0)	1,666 (61.3)	1,050 (38.7)	872 (100.0)	707 (81.1)	165 (18.9)
경기	22,305 (100.0)	11,297 (50.6)	11,008 (49.4)	2,907 (100.0)	2,109 (72.5)	798 (27.5)
강원	2,950 (100.0)	1,674 (56.8)	1,276 (43.2)	148 (100.0)	139 (93.9)	9 (6.1)
충북	5,724 (100.0)	3,122 (54.5)	2,602 (45.5)	1,087 (100.0)	927 (85.3)	160 (14.7)
충남	4,270 (100.0)	2,052 (48.1)	2,218 (51.9)	1,512 (100.0)	1,183 (78.2)	329 (21.8)
전북	4,039 (100.0)	2,036 (50.4)	2,003 (49.6)	1,360 (100.0)	1,054 (77.5)	306 (22.5)
전남	6,027 (100.0)	3,017 (50.1)	3,010 (49.9)	1,801 (100.0)	1,583 (87.9)	218 (12.1)
경북	5,834 (100.0)	2,827 (48.5)	3,007 (51.5)	2,185 (100.0)	1,829 (83.7)	356 (16.3)
경남	5,669 (100.0)	3,078 (54.3)	2,591 (45.7)	2,254 (100.0)	2,017 (89.5)	237 (10.5)
제주	1,444 (100.0)	979 (67.8)	465 (32.2)	253 (100.0)	234 (92.5)	19 (7.5)

이상과 같이 고졸 비진학자의 규모 및 특성별 추이를 통해서 발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 비진학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들어 매년 평균 1만 7천명의 고졸 비진학자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고교 졸업 후 무직상태에 있는 비율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도 증가 추세에 있다. 셋째,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감소된 비율만큼 취업률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넷째, 성별에 따라서는 특성화고 졸업 여학생들에게서 비진학자 수가 다소 많고, 지역별로는 학생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고졸 비진학자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에서는 교육통계연보 자료로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상태를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¹²⁾. 특히 고졸 비진학

12) 교육통계연보 자료와는 달리,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에는 고졸 비진학자에 대한 분류 자료가 없어, 데이터 가공을 통해 구분해 내야 한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구별해 내기 위하여 우선 19세~24세이며 최종학력이 고졸인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경우 추출된 표본에는 대학 재학생과 대학중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음 단계에서 대학 재학생을 제외시켰다. 남은 표본 중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없는 순수 고졸자와 대학 진학경험이 있으나 중퇴한자들을

청소년이 다양한 하위집단을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상태를 경제활동 및 여타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①취업자, ②구직자, ③(진학/취업/창업)준비자, ④니트로 구분하고, 이들의 졸업 후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졸업 후 현황

1) 고교 졸업 후 현재 상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고교 졸업 후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표 IV-15>와 같이 살펴보았다¹³⁾. 고졸 비진학자 전체 중 취업자(68.7%)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진학/취업준비(12.9%)>니트(12.3%)>구직자(6.1%) 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재 상태 비중의 순위는 출신고교 유형별로 나누어 보아도 큰 차이는 없으나, 대학중퇴자의 경우 구직자의 비중이 0.9%로 매우 낮고 진학/취업준비자와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대학 중퇴 후 구직활동을 하기 보다는 다시 진학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표 IV-15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현재 상태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396,021 ^{주)} (100.0)	135,093 (100.0)	174,523 (100.0)	86,405 (100.0)
취업자	272,221 (68.7)	88,580 (65.6)	122,043 (69.9)	61,598 (71.3)
구직자	23,976 (6.1)	8,494 (6.3)	14,714 (8.4)	768 (0.9)
진학/취업준비	51,226 (12.9)	20,774 (15.4)	16,886 (9.7)	13,566 (15.7)
니트	48,598 (12.3)	17,245 (12.7)	20,880 (12.0)	10,473 (12.1)

자료 :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이하 표 동일)

주) 가중치 부여된 수치로, 분석내용에 따라 이하 각 표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합하여 고졸 비진학자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들 표본을 사용하여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졸업 후 현황'의 내용을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13) 이번 장에서 현재라 함은 2013년 5월 시점을 의미한다.

<표 IV-16>에서는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현재 상태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고졸 비진학 전체 집단 수준에서 남성의 니트 비중이 여성에 비하여 소폭 높은 것을 제외하면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계와 특성화고 졸업 남성은 니트의 비중이, 여성은 구직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는 달리 대학중퇴 남성의 경우 취업 혹은 진학/취업 준비의 비중이, 여성은 니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후 중퇴 경험이 있는 고졸 비진학자와 경험이 없는 이들 사이에 성별에 따른 이질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16 고졸 비진학자의 성별에 따른 고교 졸업 후 현재 상태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396,022 (100.0)	135,093 (100.0)	174,524 (100.0)	86,405 (100.0)
남성	전체	224,136 (56.6)	74,406 (55.1/100.0)	92,945 (53.3/100.0)	56,785 (65.7/100.0)
	취업자	156,133 (69.7)	50,435 (67.8)	63,543 (68.4)	42,155 (74.2)
	구직자	8,557 (3.8)	2,872 (3.8)	4,917 (5.3)	768 (1.4)
	진학/취업준비	29,662 (13.2)	9,882 (13.3)	9,796 (10.5)	9,984 (17.6)
	니트	29,784 (13.3)	11,217 (15.1)	14,689 (15.8)	3,878 (6.8)
여성	전체	171,886 (43.4)	60,687 (44.9/100.0)	81,579 (46.7/100.0)	29,620 (34.3/100.0)
	취업자	116,088 (67.5)	38,145 (62.9)	58,500 (71.7)	19,443 (65.6)
	구직자	15,420 (9.0)	5,622 (9.3)	9,798 (12.0)	0 (0.0)
	진학/취업준비	21,564 (12.6)	10,892 (17.9)	7,090 (8.7)	3,582 (12.1)
	니트	18,814 (10.9)	6,028 (9.9)	6,191 (7.6)	6,595 (22.3)

<표 IV-17>에서는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경과기간별 현재 상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수준에서 보았을 때, 졸업 후 경과기간이 짧은 경우보다는 긴 경우에서 취업자 수와 비율이 높으며(1년 미만: 44.8%, 3년 이상: 71.7%), 이러한 경향은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취업자의 수가 어떠한 패턴으로 증가하는가를 살펴보면, 고교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라 취업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1년 미만자를 보면 니트의 비중은 0%이고 취업 44.8%, 구직 24.0%, 진학/취업준비 31.2%로 모든 비진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였거나 혹은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년이 되면 취업자의 비중은 43.3%로 소폭 감소한데 비하여, 구직자의 수가 7.0%로 급감하고 니트의 숫자가 20.2%로 대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7 고졸 비진학자의 고교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현재 상태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주1)}
전체		309,595 ^{주2)} (100.0)	135,092 (100.0)	174,503 (100.0)	—
1년 미만	전체	6,481 (2.1/100.0)	2,956 (2.2/100.0)	3,525 (2.0/100.0)	—
	취업자	2,905 (44.8)	1,349 (45.6)	1,556 (44.2)	—
	구직자	1,556 (24.0)	0 (0.0)	1,556 (44.2)	—
	진학/취업준비	2,020 (31.2)	1,607 (54.4)	413 (11.7)	—
	니트	0 (0.0)	0 (0.0)	0 (0.0)	—
1년	전체	13,261 (5.4/100.0)	6,199 (4.6/100.0)	7,062 (6.0/100.0)	—
	취업자	7,196 (43.3)	4,107 (66.3)	3,089 (29.6)	—
	구직자	1,162 (7.0)	0 (0.0)	1,162 (11.1)	—
	진학/취업준비	4,903 (29.5)	2,092 (33.7)	2,811 (27.0)	—
	니트	3,356 (20.2)	0 (0.0)	3,356 (32.2)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주1)}
2년	전체	55,683 (18.0/100.0)	24,910 (18.4/100.0)	30,773 (17.6/100.0)	—
	취업자	36,294 (65.2)	13,142 (52.8)	23,152 (75.2)	—
	구직자	3,214 (5.8)	1,007 (4.0)	2,207 (7.2)	—
	진학/취업준비	9,404 (16.9)	4,921 (19.8)	4,483 (14.6)	—
	니트	6,771 (12.2)	5,840 (23.4)	931 (3.0)	—
3년이상	전체	230,814 (74.6/100.0)	101,027 (74.8/100.0)	129,787 (74.4/100.0)	—
	취업자	164,217 (71.7)	69,981 (69.3)	94,236 (72.6)	—
	구직자	17,266 (7.5)	7,487 (7.4)	9,779 (7.5)	—
	진학/취업준비	21,333 (9.2)	12,154 (12.0)	9,179 (7.1)	—
	니트	27,998 (12.1)	11,405 (11.3)	16,593 (12.8)	—

주1) 분석 자료에 대학중퇴자의 고교졸업 후 경과기간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주2) <표 IV-15>의 주) 내용 참조

이는 고교 졸업 후 1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취업에 실패한 비진학자들이 니트 혹은 실망실업으로 돌아서는 하나의 현상 지표로 볼 수 있다.

이후 2년차에는 구직자의 비중은 5.8%로 더욱 감소하고 취업자가 65.2%로 증가하고 취업/진학 준비가 16.9%, 니트가 12.2%로 다소 감소하면서, 취업준비자의 일부가 취업에 성공하고 니트 중 일부가 다시 노동시장 진입의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3년차에 가면 취업자 71.7%, 구직자 7.5%, 진학준비자 9.2%, 니트 12.1%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졸업 후 3년이 경과하면 취업이 가능한 비진학자는 사실상 거의 취업을 하고, 노동시장 진입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약 17%정도 잔류해 있으며, 12%정도는 사실상 구직의사를 포기해버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12%정도의 니트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를 성별과 고교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라 살펴보고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다음에서는 고졸 비진학자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교 재학 중 일 경험 및 취업준비 경험을 살펴보았다.

2) 미취업 기간 및 구직 경험

(1) 미취업 기간

<표 IV-18>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중 현재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이들의 미취업 기간을 살펴보았다¹⁴⁾. 취업자를 제외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미취업 기간에 따른 현재 상태를 비교해보면, 6개월 미만의 미취업기간을 갖는 집단에서는 구직자의 비중이 높으나 6개월이 경과하면서 부터는 구직자 비중과 진학 또는 취업준비자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투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의 미취업 기간을 갖는 비율이 40.6%이고, 3년 이상의 미취업 기간을 갖는 비율이 41.3%로 미취업기간에 따른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6개월을 기점으로 6개월이 경과하면서 실망실업자들의 수가 증가하며 시간이 더 경과할수록 취업의사를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18 고졸 비진학자의 미취업기간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123,798 ^{주)} (100.0)	46,512 (100.0)	52,478 (100.0)	24,808 (100.0)
6개월 미만	전체	56,953 (46.0/100.0)	17,712 (38.1/100.0)	23,753 (45.2/100.0)	15,488 (62.4/100.0)
	구직자	16,343 (28.7)	6,299 (35.6)	10,044 (42.3)	0 (0.0)
	진학/취업준비	17,495 (30.7)	4,195 (23.7)	4,417 (18.6)	8,883 (57.4)
	니트	23,115 (40.6)	7,218 (40.7)	9,292 (39.1)	6,605 (42.6)
6개월 ~ 1년 미만	전체	21,155 (17.1/100.0)	3,865 (8.3/100.0)	10,326 (19.7/100.0)	6,964 (28.1/100.0)
	구직자	2,967 (14.0)	1,033 (26.7)	1,166 (11.3)	768 (11.0)

14) 경제활동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취업자가 아닌 미취업자들에게 미취업기간을 측정한다.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진학/취업준비	10,631 (50.3)	1,690 (43.7)	4,610 (44.6)	4,331 (62.2)
	니트	7,557 (35.7)	1,142 (29.6)	4,550 (44.1)	1,865 (26.8)
1년 ~ 2년 미만	전체	16,635 (13.4/100.0)	9,448 (20.3/100.0)	6,228 (11.9/100.0)	959 (3.9/100.0)
	구직자	1,952 (11.7)	1,162 (12.3)	790 (12.7)	0 (0.0)
	진학/취업준비	8,061 (48.5)	5,666 (60.0)	2,395 (38.5)	0 (0.0)
	니트	6,622 (39.8)	2,620 (27.7)	3,043 (48.8)	959 (100.0)
2년 ~ 3년 미만	전체	13,838 (11.2/100.0)	8,959 (19.3/100.0)	3,835 (7.3/100.0)	1,044 (4.2/100.0)
	구직자	1,041 (7.5)	0 (0.0)	1,041 (27.1)	0 (0.0)
	진학/취업준비	7,774 (56.2)	5,528 (61.7)	2,246 (58.6)	0 (0.0)
	니트	5,023 (36.3)	3,431 (38.3)	548 (14.3)	1,044 (100.0)
3년 이상	전체	15,217 (12.3/100.0)	6,528 (14.0/100.0)	8,336 (15.9/100.0)	353 (1.4/100.0)
	구직자	1,673 (11.0)	0 (0.0)	1,673 (20.1)	0 (0.0)
	진학/취업준비	7,266 (47.7)	3,696 (56.6)	3,217 (38.6)	353 (100.0)
	니트	6,278 (41.3)	2,832 (43.4)	3,446 (41.3)	0 (0.0)

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고졸 비진학자의 가중치가 반영된 수치로 이하 표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표 IV-19>에서는 취업자를 제외한 고졸 비진학자들이 미취업기간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미취업기간 동안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비중이 **35.1%**로 가장 높았으며, 학원 또는 도서관 출입자 비중이 **22.5%**로 나타났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집단을 현재 상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구직자가 **13.5%**, 니트가 **72.3%**로 현재 니트 상태에 있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여가활동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집단의 현재 상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구직자가 **69.8%** 니트가 **30.2%**이다. 이는 미취업기간 동안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니트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사회부적응적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미취업 기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IV-19 고졸 비진학자의 미취업기간 활동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123,803 ^{주)} (100.0)	46,514 (100.0)	52,481 (100.0)	24,808 (100.0)
직업교육 받음	전체	11,890 (9.6/100.0)	3,719 (8.0/100.0)	3,385 (6.4/100.0)	4,786 (19.3/100.0)
	진학/취업준비	10,200 (85.8)	2,029 (54.6)	3,385 (100.0)	4,786 (100.0)
	니트	1,690 (14.2)	1,690 (45.4)	0 (0.0)	0 (0.0)
학원 또는 도서관 출입	전체	27,803 (22.5/100.0)	8,720 (18.7/100.0)	13,451 (25.6/100.0)	5,632 (22.7/100.0)
	구직자	1,921 (6.9)	0 (0.0)	1,921 (14.3)	0 (0.0)
	진학/취업준비	23,030 (82.8)	7,030 (80.6)	10,368 (77.1)	5,632 (100.0)
	니트	2,852 (10.3)	1,690 (19.4)	1,162 (8.6)	0 (0.0)
집에서 보냄	전체	43,479 (35.1/100.0)	14,485 (31.1/100.0)	20,574 (39.2/100.0)	8,420 (33.9/100.0)
	구직자	5,858 (13.5)	2,195 (15.2)	3,663 (17.8)	0 (0.0)
	진학/취업준비	6,197 (14.2)	2,092 (14.4)	1,887 (9.2)	2,218 (26.3)
	니트	31,424 (72.3)	10,198 (70.4)	15,024 (73.0)	6,202 (73.7)
여행/독서 등 여가시간	전체	2,422 (2.0/100.0)	1,690 (3.6/100.0)	732 (1.4/100.0)	0 (0.0)
	구직자	1,690 (69.8)	1,690 (100.0)	0 (0.0)	0 (0.0)
	니트	732 (30.2)	0 (0.0)	732 (100.0)	0 (0.0)
구직 활동	전체	23,054 (18.6/100.0)	6,710 (14.4/100.0)	12,073 (23.0/100.0)	4,271 (17.2/100.0)
	취업자	768 (3.3)	0 (0.0)	0 (0.0)	768 (18.0)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구직자	13,740 (59.6)	4,609 (68.7)	9,131 (75.6)	0 (0.0)
	진학/취업준비	4,173 (18.1)	0 (0.0)	670 (5.5)	3,503 (82.0)
	니트	4,373 (19.0)	2,101 (31.3)	2,272 (18.8)	0 (0.0)
육아/가사	진학/취업준비	1,690 (100.0)	1,690 (100.0)	0 (0.0)	0 (0.0)
기타	전체	13,465 (10.9/100.0)	9,500 (20.4/100.0)	2,266 (4.3/100.0)	1,699 (6.8/100.0)
	진학/취업준비	9,440 (70.1)	7,934 (83.5)	575 (25.4)	931 (54.8)
	니트	4,025 (29.9)	1,566 (16.5)	1,691 (74.6)	768 (45.2)

주) 표Ⅳ-18의 주 내용 참조

(2) 구직 경험

<표 Ⅳ-20>에서는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구직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주에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20.9%만이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한 이들 중에는 니트의 비중이 4.7%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니트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 중 일정 비율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취업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출신고교 유형별로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구직활동 비율(28.0%)이 일반계(18.3%)나 대학 중퇴자(10.9%)에 비해 높는데, 이는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구직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20 고졸 비진학자의 지난주 구직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123,801 (100.0)	46,513 (100.0)	52,480 (100.0)	24,808 (100.0)
있음	전체	25,914 (20.9/100.0)	8,494 (18.3/100.0)	14,714 (28.0/100.0)	2,706 (10.9/100.0)
	구직자	23,976 (95.5)	8,494 (100.0)	14,714 (100.0)	768 (28.4)
	진학/취업준비	732 (2.8)	0 (0.0)	0 (0.0)	732 (27.0)
	니트	1,206 (4.7)	0 (0.0)	0 (0.0)	1,206 (44.6)
없음	전체	97,887 (79.1/100.0)	38,019 (81.7/100.0)	37,766 (72.0/100.0)	22,102 (89.1/100.0)
	진학/취업준비	50,495 (51.6)	20,774 (54.6)	16,886 (44.7)	12,835 (58.1)
	니트	47,392 (48.4)	17,245 (45.4)	20,880 (55.3)	9,267 (41.9)

<표 IV-21>에서는 구직자들의 구직 경로를 살펴보았다. 구직 경로 중 개인적 경로를 이용한 비중은 전체의 6.1%에 불과하고, 제도적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34.0%이며, 그 외 다양한 기타 경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고교 유형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으나,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중퇴자의 경우 개인적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으며, 개인적 경로로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은 특성화고 졸업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표 IV-21 고졸 비진학자의 구직 경로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28,562 ^{주)} (100.0)	9,452 (100.0)	14,714 (100.0)	4,396 (100.0)
개인적	1,742 (6.1)	0 (0.0)	1,742 (14.9)	0 (0.0)
제도적	9,698 (34.0)	1,865 (19.7)	5,411 (46.2)	2,422 (55.1)
기타	17,122 (59.9)	7,587 (80.3)	7,561 (38.9)	1,974 (44.9)

주) 현재 구직 상태에 있는 고졸 비진학자의 가중치가 반영된 수치로 이하 표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표 IV-22>에서는 구직자가 원하는 “원하는 고용 형태”에 관한 결과표이며, 모든 고졸 비진학자들이 임금근로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노동시장에서 비임금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임금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하여 밀려난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다.

표 IV-22 고졸 비진학자의 희망 고용 형태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임금근로	전체	28,563 (100.0)	9,453 (100.0)	14,714 (100.0)	4,396 (100.0)
	구직자	23,976 (83.9)	8,494 (89.9)	14,714 (100.0)	768 (17.5)
	진학/취업준비	732 (2.6)	0 (0.0)	0 (0.0)	732 (16.6)
	니트	3,855 (13.5)	959 (10.1)	0 (0.0)	2,896 (65.9)

<표 IV-23>에서는 구직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직 방법은 사업체 방문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직등록이나 구직응모도 39.3%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고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특성화고 졸업자와 대학중퇴자 집단은 구직등록이나 구직응모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사업체 방문의 비중이 가장 높아 출신고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응시는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만이 취하는 구직방법으로, 졸업한 고교 유형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접근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3 고졸 비진학자의 구직방법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31,590 (100.0)	12,480 (100.0)	14,714 (100.0)	4,396 (100.0)
시험응시	3,027 (9.6)	3,027 (24.3)	0 (0.0)	0 (0.0)
구직등록/구직응모	12,429 (39.3)	3,027 (24.3)	6,980 (47.4)	2,422 (55.1)
사업체 문의/방문/원서제출	15,306 (48.5)	6,426 (51.5)	6,906 (46.9)	1,974 (44.9)
기타	828 (2.6)	0 (0.0)	828 (5.4)	0 (0.0)

<표 IV-24>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고교 졸업 후 취업한 횟수를 살펴보았다. 고교 졸업 후 한 번의 취업 횟수를 갖는 비율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교졸업 후 취업을 경험한 횟수에 따른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업 횟수가 많아질수록 니트청소년의 구성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니트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단기 근로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고졸 비진학자의 미취업 기간과 구직경험에 이어 다음에서는 고교 졸업 후 취업한 첫 일자리 및 현재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IV-24 고졸 비진학자의 졸업 후 취업 횟수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396,025 ^{주)} (100.0)	135,093 (100.0)	174,525 (100.0)	86,407 (100.0)
없음	전체	38,287 (9.7/100.0)	15,871 (11.8/100.0)	16,049 (9.2/100.0)	6,367 (7.4/100.0)
	구직자	4,157 (10.9)	0 (0.0)	4,157 (25.9)	0 (0.0)
	진학/취업준비	21,606 (56.4)	11,174 (70.4)	6,251 (38.9)	4,181 (65.7)
	니트	12,524 (32.7)	4,697 (29.6)	5,641 (35.2)	2,186 (34.3)
1회	전체	118,635 (29.9/100.0)	40,004 (29.6/100.0)	53,975 (30.9/100.0)	24,656 (28.5/100.0)
	취업자	101,672 (85.7)	34,263 (85.7)	46,348 (85.9)	21,061 (85.4)
	구직자	1,767 (1.5)	1,007 (2.5)	760 (1.4)	0 (0.0)
	진학/취업준비	9,238 (7.8)	2,449 (6.1)	3,993 (7.4)	2,796 (11.3)
	니트	5,958 (5.0)	2,285 (5.7)	2,874 (5.3)	799 (3.3)
2회	전체	96,347 (24.3/100.0)	28,259 (20.9/100.0)	47,086 (27.0/100.0)	21,002 (24.3/100.0)
	취업자	68,824 (71.4)	18,823 (66.6)	35,626 (75.7)	14,375 (68.4)
	구직자	6,153 (6.4)	1,162 (4.1)	4,223 (9.0)	768 (3.7)
	진학/취업준비	12,813 (13.3)	5,989 (21.2)	3,789 (8.0)	3,035 (14.5)
	니트	8,557 (8.9)	2,285 (8.1)	3,448 (7.3)	2,824 (13.4)
3회	전체	77,157 (19.5/100.0)	24,912 (18.4/100.0)	28,090 (16.1/100.0)	24,155 (28.0/100.0)
	취업자	56,240 (72.9)	17,195 (69.0)	19,476 (69.3)	19,569 (81.0)
	구직자	5,494 (7.1)	1,609 (6.5)	3,885 (13.8)	0 (0.0)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진학/취업준비	4,542 (5.9)	1,162 (4.7)	1,690 (6.0)	1,690 (7.0)
	니트	10,881 (14.1)	4,946 (19.9)	3,039 (10.8)	2,896 (12.0)
4회 이상	전체	65,599 (16.6/100.0)	26,047 (19.3/100.0)	29,325 (16.8/100.0)	10,227 (11.8/100.0)
	취업자	45,486 (69.3)	18,299 (70.3)	20,593 (70.2)	6,594 (64.5)
	구직자	6,406 (9.8)	4,716 (18.1)	1,690 (5.8)	0 (0.0)
	진학/취업준비	3,029 (4.6)	0 (0.0)	1,164 (4.0)	1,865 (18.2)
	니트	10,678 (16.3)	3,032 (11.6)	5,878 (20.0)	1,768 (17.3)

주) 표Ⅳ-15의 주 참조

3) 첫 일자리 및 현재 일자리

(1) 졸업 후 첫 일자리

<표 Ⅳ-25>와 <표 Ⅳ-26>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졸업 후 첫 일자리 근로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표 Ⅳ-25>에서는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계약한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이 있는 일자리에서 일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비율이 59.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1개월 미만이 2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짧은 첫 일자리를 경험한 비율은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서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니트 집단에서도 38.1% 수준으로 그 다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대학중퇴자 중 취업 집단의 경우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곳에서 첫 일자리를 경험했던 비율이 76.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첫 일자리에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일했던 비율은 현재 취업 집단에서 7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반면, 현재 니트 집단은 첫 일자리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었던 비율은 급격하게 낮아져 1년 미만 5.7%, 1년이나 1년 초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고졸 비진학자의 졸업 후 첫 일자리 근로형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99,377 ^{주)} (100.0)	41,864 (100.0)	37,483 (100.0)	20,031 (100.0)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전체	21,643 (21.9/100.0)	12,434 (29.7/100.0)	6,590 (17.6/100.0)	2,619 (13.1/100.0)
	취업자	9,786 (45.2)	5,136 (41.3)	2,638 (40.0)	2,012 (76.8)
	구직자	1,162 (5.4)	1,162 (9.3)	0 (0.0)	0 (0.0)
	진학/취업준비	2,454 (11.3)	1,142 (9.2)	1,312 (19.9)	0 (0.0)
	니트	8,241 (38.1)	4,994 (40.2)	2,640 (40.1)	607 (23.2)
계약기간 1개월 이상 ~ 1년 미만	전체	58,814 (59.2/100.0)	21,516 (51.4/100.0)	21,751 (58.1/100.0)	15,547 (77.6/100.0)
	취업자	42,731 (72.7)	14,698 (68.3)	16,394 (75.4)	11,639 (74.9)
	구직자	4,948 (8.4)	2,040 (9.5)	2,908 (13.4)	0 (0.0)
	진학/취업준비	7,786 (13.2)	4,778 (22.2)	1,142 (5.3)	1,865 (12.0)
	니트	3,349 (5.7)	0 (0.0)	1,307 (6.0)	2,043 (13.1)
계약기간 1년 근로자	전체	16,352 (16.6/100.0)	6,749 (16.1/100.0)	7,738 (20.6/100.0)	1,865 (9.3/100.0)
	취업자	11,107 (67.9)	3,194 (47.3)	6,048 (78.2)	1,865 (100.0)
	구직자	3,555 (21.8)	1,865 (27.6)	1,690 (21.8)	0 (0.0)
	진학/취업준비	1,690 (10.3)	1,690 (25.0)	0 (0.0)	0 (0.0)
계약기간 1년 초과 근로자	취업자	2,568 (2.6/100.0)	1,164 (2.8/100.0)	1,404 (3.7/100.0)	0 (0.0)

주) 고교 졸업 후 일 경험이 있는 이들 중 계약기간을 정했던 경우만 해당

<표 IV-25>에 이어 <표 IV-26>에서는 계약기간이 없는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를 살펴보았다.

표 IV-26 고졸 비진학자의 졸업 후 첫 일자리 근로형태: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258,361 ^{주)} (100.0)	77,360 (100.0)	120,992 (100.0)	60,009 (100.0)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전체	178,547 (69.1/100.0)	50,825 (65.7/100.0)	91,864 (75.9/100.0)	35,858 (59.8/100.0)
	취업자	149,116 (83.5)	43,989 (86.6)	73,152 (79.6)	31,975 (89.2)
	구직자	8,993 (5.0)	3,427 (6.7)	4,798 (5.2)	768 (2.1)
	진학/취업준비	11,610 (6.5)	760 (1.5)	8,181 (8.9)	2,669 (7.4)
	니트	8,828 (4.9)	2,649 (5.2)	5,733 (6.2)	446 (1.2)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일자리	전체	72,567 (28.1/100.0)	23,510 (30.4/100.0)	29,128 (24.1/100.0)	19,929 (33.2/100.0)
	취업자	49,668 (68.4)	17,375 (73.9)	22,408 (76.9)	9,885 (49.6)
	구직자	1,162 (1.6)	0 (0.0)	1,162 (4.0)	0 (0.0)
	진학/취업준비	6,082 (8.4)	1,230 (5.2)	0 (0.0)	4,852 (24.3)
	니트	15,655 (21.6)	4,905 (20.9)	5,558 (19.1)	5,192 (26.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취업자	979 (0.4/100.0)	979 (1.7/100.0)	0 (0.0)	0 (0.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취업자	1,566 (0.6/100.0)	0 (0.0)	0 (0.0)	1,566 (2.6/100.0)
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	4,702 (1.8/100.0)	2,046 (2.6/100.0)	0 (0.0)	2,656 (4.4/100.0)

주) 고교 졸업 후 일 경험이 있는 이들 중 계약기간을 정했던 경우만 해당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갖는 비율은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집단에서 8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시적인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경험한 비율도 현재 취업자 집단에서 68.4%로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니트 집단에서 21.6%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표 IV-30>의 결과와 연계해 볼 때, 계약기간을 정하였는가와 상관없이 현재 니트 집단의 첫 일자리가

단기간 또는 일시적인 일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비임금근로 형태인 자영업자를 첫 일자리로 갖는 경우는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만 해당된다. 다만, 출신고교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형태를 첫 일자리로 갖는 이들은 모두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형태를 첫 일자리로 갖는 경우는 모두 대학중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이어 <표 IV-27>에서는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를 살펴보았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절반에 가까운 49.4%가 근로여건에 불만족하여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의 근로여건 불만족의 비율(54.9%)이 가장 높았다. 근로여건의 불만족 이외 개인 또는 가족의 사유가 20.1%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이나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 그만둔 사유가 7.7%를 보였는데,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15.3%)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2.7%)나 대학중퇴자(6.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직장이나 직무에 대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기대수준과 현실 수준이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27 고졸 비진학자의 첫 일자리 중단사유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256,062 ^{주)} (100.0)	84,959 (100.0)	112,128 (100.0)	58,978 (100.0)
근로여건 불만족	126,546 (49.4)	35,278 (41.5)	61,571 (54.9)	29,697 (50.4)
전공·지식·기술·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13,100 (5.1)	3,555 (4.2)	9,545 (8.5)	0 (0.0)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19,634 (7.7)	13,016 (15.3)	2,973 (2.7)	3,644 (6.2)
회사내 인간관계 때문에	7,538 (2.9)	3,427 (4.0)	1,690 (1.5)	2,421 (4.1)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	51,427 (20.1)	19,129 (22.5)	20,280 (18.1)	12,018 (20.4)
창업 또는 가족사업에 참여하려고	1,164 (0.5)	0 (0.0)	1,164 (1.0)	0 (0.0)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	14,229 (5.6)	4,999 (5.9)	6,159 (5.5)	3,071 (5.2)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4,022 (1.6)	959 (1.1)	3,064 (2.7)	0 (0.0)
계약기간이 끝나서	5,719 (2.2)	1,162 (1.4)	666 (0.6)	3891 (6.6)
권고사직·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0 (0.0)	0 (0.0)	0 (0.0)	0 (0.0)
직장의 휴업·폐업·파산 등으로	5942 (2.3)	2,272 (2.7)	1,760 (1.5)	1910 (3.2)
기타	6744 (2.6)	1,162 (1.4)	3,256 (3.0)	2,326 (3.9)

주) 고교 졸업 후 일경험이 있는 경우로, 가중치 부여로 이하 표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표 IV-28>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첫 일자리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일을 했는지, 즉, 근속기간을 살펴보았다. 고졸 비진학자 전체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6.21개월로 그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현재 상태와 출신고교 유형으로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재 구직 상태에 있는 이들이 평균 9.16개월로 상대적으로 가장 긴 근속기간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가장 짧은 첫 일자리 근속기간을 갖는 집단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재 니트 상태에 있는 이들로,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2.27개월이다.

표 IV-28 고졸 비진학자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

(단위 : 개월)

구분	전체	항목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6.21	5.57	6.77	6.10
취업자	7.08	7.16	6.83	7.47
구직자	8.36	7.71	9.16	0.00
진학/취업준비	3.71	3.66	3.98	3.47
니트	5.22	2.27	8.61	3.33

<표 IV-29>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첫 일자리의 산업 분포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도·소매업(25.3%) 및 숙박·음식점(23.7%), 그리고 광업·제조업(19.3%)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중퇴자의 경우 이와 동일한 순서대로 높은 비율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광업·제조업의 비율(26.4%)이 가장 높고, 도·소매업(21.0%) 및 숙박·음식점(19.7%)이 그 다음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첫 일자리로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중퇴자의 경우 서비스업종에 집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29 고졸 비진학자의 첫 일자리 산업 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256,063 (100.0)	84,959 (100.0)	112,126 (100.0)	58,978 (100.0)
광업·제조업	49,405 (19.3)	9,644 (11.4)	29,572 (26.4)	10,189 (17.3)
건설업	7,520 (2.9)	3,148 (3.7)	3,532 (3.1)	839 (1.4)
도매 및 소매업	64,898 (25.3)	24,792 (29.2)	23,554 (21.0)	16,552 (28.1)
숙박 및 음식점업	60,584 (23.7)	23,350 (27.5)	22,052 (19.7)	15,182 (25.7)
금융 및 보험업	4,227 (1.7)	598 (0.7)	3,222 (2.9)	407 (0.7)
교육서비스업	4,878 (1.9)	407 (0.5)	3,660 (3.3)	811 (1.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83 (0.5)	0 (0.0)	1,283 (1.1)	0 (0.0)
운수·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977 (4.3)	6,585 (7.8)	1,737 (1.5)	2,656 (4.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215 (2.8)	0 (0.0)	4,680 (4.2)	2,535 (4.5)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422 (0.9)	2,421 (2.8)	0 (0.0)	0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559 (5.3)	2,097 (2.5)	8,859 (7.9)	2,603 (4.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946 (1.5)	1,142 (1.3)	1,096 (1.0)	1,708 (2.9)
기타 (부동산·하수·폐기물 처리·예술 등)	25,148 (9.8)	10,774 (12.7)	8879 (7.9)	5,496 (9.3)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첫 일자리 산업 분포에 이어 <표 IV-30>에서는 첫 일자리에서의 직종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이 37.0%로 가장 많고, 단순노무 종사자(18.8%)>판매 종사자(17.4%)>사무 종사자(10.5%)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고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산업 분포에서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서비스 종사자(37.4%)와 판매 종사자(25.0%)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도 23.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및 판매에 높은 비율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중퇴자에게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중퇴자의 서비스종사자 비율은 51.3%로 절반 이상이고, 판매 종사자의 비율은 14.7%로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14.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도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29.3%로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나, 단순노무 종사자(17.2%)>사무 종사자(15.3%)>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1.0%) 순의 비율을 보였다.

표 IV-30 고졸 비진학자의 첫 일자리 직종 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256,063 (100.0)	84,958 (100.0)	112,127 (100.0)	58,978 (10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398 (4.1)	1,004 (1.2)	7,913 (7.1)	1,481 (2.5)
사무 종사자	26,917 (10.5)	7,712 (9.1)	17,160 (15.3)	2,045 (3.5)
서비스 종사자	94,874 (37.0)	31,746 (37.4)	32,883 (29.3)	30,245 (51.3)
판매 종사자	44,619 (17.4)	21,272 (25.0)	14,672 (13.1)	8,675 (14.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5,103 (5.9)	0 (0.0)	7,840 (7.0)	7,263 (12.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6,059 (6.3)	2,899 (3.4)	12,392 (11.0)	768 (1.3)
단순노무 종사자	48,093 (18.8)	20,325 (23.9)	19,267 (17.2)	8,501 (14.4)

<표 IV-31>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고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입직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첫 일자리 취업경로 중 전체의 47.1%가

신문·잡지·인터넷·벽보 등을 보고 취업하였으며, 28.9%가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 그리고 9.3%가 학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고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신문·잡지·인터넷·벽보 등을 보고 취업한 비율이 가장 높는데, 이는 인터넷을 통한 구직이 20대에게는 보편화되었으며,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구직·구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13.7%)로 나타났으며, 취업한 직장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나 추천은 대학중퇴자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11.0%)을 보였다. 한편 대학중퇴자의 8.5%는 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한 것으로 나타나, 미미한 수준의 비율을 보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0.5%)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1.1%)와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V-31 고졸 비진학자의 첫 일자리 취업 경로

(단위 : 명, %)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357,737 (100.0)	119,222 (100.0)	158,474 (100.0)	77,041 (100.0)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8,661 (2.5)	576 (0.5)	1,729 (1.1)	6,556 (8.5)
회사측의 특별채용에 의하여	5,104 (1.4)	0 (0.0)	4,529 (2.8)	575 (0.8)
신문, 잡지, 인터넷, 벽보 등을 보고 응모	149,315 (41.7)	45,572 (38.2)	67,436 (42.5)	33,307 (43.2)
학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하여	33,285 (9.3)	9,908 (8.3)	21,652 (13.7)	1,725 (2.2)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103,517 (28.9)	43,553 (36.5)	40,120 (25.3)	19,844 (25.8)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30,703 (8.6)	8,775 (7.4)	13,457 (8.5)	8,471 (11.0)
공공 직업알선기관을 통하여	10,594 (3.0)	8,450 (7.1)	2,144 (1.4)	0 (0.0)
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하여	3,447 (1.0)	0 (0.0)	2,777 (1.7)	670 (0.9)
학교 내 취업소개기관을 통하여	4,362 (1.2)	0 (0.0)	3,431 (2.2)	931 (1.2)
자영업 준비	2,232 (0.6)	0 (0.0)	1,199 (0.8)	1,033 (1.3)
기타	6,317 (1.8)	2,388 (2.0)	0 (0.0)	3,929 (5.1)

이상에서 살펴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고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이어 다음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현재 일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2) 현재 일자리

<표 IV-32>에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일자리에 대해 근로시간과 사업체 규모 그리고 종사상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IV-32 고졸 비진학자의 현재 일자리 상태: 근로시간, 사업체 규모 및 종사상지위

(단위 : 명, %, 시간)

구분		전체	유형별		
			일반계	특성화	대학중퇴자
전체		272,221 ^{주)} (100.0)	88,580 (100.0)	122,043 (100.0)	61,598 (100.0)
주당 평균 근로시간		44.23	43.99	44.93	43.77
사업체 규모	1~4인	81,299 (29.9)	26,678 (30.1)	37,241 (30.5)	17,380 (28.2)
	5~9인	55,911 (20.6)	18,503 (20.9)	24,505 (20.1)	12,903 (20.9)
	10~29인	41,196 (15.1)	15,400 (17.4)	19,167 (15.7)	6,629 (10.8)
	30~39인	48,226 (17.7)	10,074 (11.4)	21,895 (18.0)	16,257 (26.4)
	100~299인	22,083 (8.1)	9,956 (11.2)	9,072 (7.4)	3,055 (5.0)
	300인 이상	23,506 (8.6)	7,969 (9.0)	10,163 (8.3)	5,374 (8.7)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08,570 (39.9)	29,422 (33.2)	49,665 (40.7)	29,483 (47.9)
	임시근로자	135,438 (49.8)	44,516 (50.2)	65,469 (53.7)	25,453 (41.3)
	일용근로자	14,768 (5.4)	8,563 (9.7)	4,798 (3.9)	1,407 (2.3)
	고용주	2,525 (0.9)	959 (1.1)	0 (0.0)	1,566 (2.5)
	자영자	4,107 (1.5)	3074 (3.5)	0 (0.0)	1,033 (1.7)
	무급가족종사자	6,814 (2.5)	2046 (2.3)	2,112 (1.7)	2,656 (4.3)

주) 현재 취업자

먼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주당 평균 44.23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출신 학교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주당 평균 44.93시간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43.99시간)나 대학중퇴자(43.77시간)에 비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을 하고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체 근무비율이 2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대체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종사상지위도 절반에 이르는 49.8%가 임시근로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다수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9.7%는 일용근로자로서 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율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3.9%)나 대학중퇴자(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상과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일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의 제한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 중 누가 취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다음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지난 10여 년 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을 실증모델로 분석하였다.

4)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 결정 요인

지난 10여년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년(2001년)~13차년도(2010년) 자료 중 각 년도의 19세~24세에 해당하는 개인을 선별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분석에서 사용한 조작적 정의¹⁵⁾를 적용하여 고졸 비진학자를 분류한 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IV-33>은 각 연도별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규모를 제시한 것이다.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4차년도(2001년)~7차년도(2004년)까지 400명 전후가 포함되었고, 8차(2005년)~13차(2010년)까지는 300명대 초반에서 200명대 중반까지의 대상자가 포함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다소 많아 4차년도(2001년)~9차(2006년)까지 각각 622명, 559명, 553명, 518명, 454명,

15) 각주 12)의 내용 참조

439명이고, 10차년도(2007년) 이후에는 300명대 중반에서 후반의 대상자가 포함되었다. 이들 대상자들을 모두 통합하여 묶은 10년 기간의 패널자료(panel data)를 고졸 비진학 청소년 취업 결정요인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IV-33 분석에 사용된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별 표본 규모

(단위 : 명)

구분	4차 (2001)	5차 (2002)	6차 (2003)	7차 (2004)	8차 (2005)	9차 (2006)	10차 (2007)	11차 (2008)	12차 (2009)	13차 (2010)
전체	1,022	943	966	920	768	747	700	626	592	680
남성	400	384	413	402	314	308	306	262	249	295
여성	622	559	553	518	454	439	394	364	343	385

실증분석모델은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패널로짓모델(Panel Logit Analysis)이다. 분석 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인적자본이론과 지위획득이론에 기초하여 개인의 인적자원변수와 가구자원변수로 구성하였다. 인적자원변수로는 직업훈련경험유무, 자격증 유무를 가변수로 포함하였고, 가구자원변수로는 가구주의 교육년수, 월평균 소득, 직업지위¹⁶⁾를 연속변수의 형태로 투입되었다. 이들 독립변수 이외에 성별, 대학진학경험 유무, 혼인상태가 가변수 형태로, 연령이 연속변수의 형태로 분석모델에 포함되었다.

분석은 <표 IV-3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확률효과모델(Random Effect Model)과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이 모두 실시되었으나, 추정모델의 적합성을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고정효과모델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⁷⁾. 확률효과모델에서 통계적으로

16) 직업 지위변수는 간즈붐(Gansboom)의 ISEI(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점수를 사용하였음(Gansboom, De Greef & Treiman, 1992). ISEI점수는 국제학업성취도 조사(PISA: th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사용되는 등 국제비교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인된 직업 지위점수이다(방하남·김기현, 2001; 이병훈·윤정향, 2006).

17) 패널로짓모델에서 오차항 u_i 를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중 어느 것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추정방법이 달라진다(민인식·최필선, 2012a p.238). 이에 어떠한 추정모델이 더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랜덤효과모델(Random Effect Model)을 분석하여 Likelihood-ratio test of $\rho=0$ 의 검정결과(chibar2(01)=410.19***), 즉 패널개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하우스만 검정(houseman test, H_0 : 고정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을 실시하였으며, 검정결과 고정효과가 있는 것으로(chi2(6)=37.17***) 분석되어 본 연구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 취업결정 요인 분석에 있어서는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이 보다 적절한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표 IV-34>에서는 결과 도출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확률효과(Random Effect Model)의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된 가구주 교육년수와 직업지위, 성별과 같은 변수들은 주어진 시계열 기간 동안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패널 그룹 내에서 일정한 변수이기 때문에 고정효과모델 분석에서는 제외된다(민인식·최필선, 2012a, p. 247). 이에 따라 고정효과모델 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난 10여년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여부를 결정한 요인은 청소년의 연령과 대학진학경험, 그리고 결혼여부임을 알 수 있다.

표 IV-34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 결정 요인: Panel Logit Analysis

구분	FE(Fixed Effect)	RE(Random Effect)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직업훈련경험유무(직업훈련)	0.34 (0.18)	0.81 (0.15)***
자격증여부(자격증있음)	0.23 (0.18)	0.40 (0.16)*
월평균가구소득(로그)	0.00 (0.09)	0.02 (0.05)
연령	0.56 (0.03)***	0.58 (0.03)***
대학진학경험(비진학)	1.66 (0.34)***	1.45 (0.12)***
결혼여부(기혼유배우자)	-1.68 (0.48)**	-1.91 (0.25)***
가구주 교육년수		-0.06 (0.01)***
가구주 직업지위점수	-	-0.01 (0.05)***
성별		-1.48 (0.11)***
상수	-	-12.38 (0.78)***
/lnsig2u		0.95 (0.10)
sigma_u	-	1.61 (0.08)
rho		0.44 (0.02)
N	2,720	6,317
Group	777	2,558
LR chi2	337.90***	-
Wald chi2	-	599.59***
Log likelihood	-853.20	-3350.05

*** p<.001, ** p<.01, * p<.05

각 요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진학 경험이 있는 이들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과 대학진학경험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미혼 청소년들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들보다는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한 이들이 취업상태에 있으며, 대학진학 후 중퇴한 이들보다는 순수고졸학력자들이 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다만, 성별의 영향을 함께 볼 수 없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20대 초반의 기혼 상태가 취업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출산과 양육으로 여성 청소년들의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제2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제 5 장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1. 고졸 비진학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2. 심층면접조사

제 5 장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 조사 개요*

1. 고졸 비진학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1) 조사 설계에서의 쟁점 사항

(1) 표본의 확보

앞선 장들에서 논의되고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자의 비율은 71.3%, 비진학자의 비율은 28.7% 수준이다. 여전히 높은 진학률로 인하여 절대 다수가 대학진학자인 상황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표본 대상으로 확보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게다가 남학생들의 경우 19세~24세에 군입대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 군에 입대 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남성을 표본으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졸 비진학자 수가 절대적으로 적는데 더하여 이들을 구성하는 하위집단이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책대상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부각시키고, 이들의 정책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를 위해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의 다양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본 연구의 실행계획 심의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을 고졸 비진학자 전체가 아닌, 취업준비자 또는 니트 청소년 등의 일부 하위집단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심의 의견이 있었다¹⁹⁾. 그러나 표본 확보의 어려움과 연구 수행의 편의에 따라 고졸 비진학 전체가 아닌, 일부 하위집단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면, 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자 집단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9) 2013년 3월 7일 실행계획서심의회 심의자 중 1인의 심의의견

전체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는데 한계가 있으며,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고졸 비진학자 대상 정책개발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전체 집단을 조사대상자로 설정하고, 표본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하위집단에 대해서는 통계를 분석이 가능한 최소 표본 수를 확보하며, 아울러 활용 가능한 조사방법(온라인 조사, 거점면접 조사²⁰⁾, 면접조사 병행)을 모두 활용하여 표본을 발굴·확보하였다.

(2) 표본설계: 표집방법과 표본 할당 기준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확률표본추출방법(probability sampling)이 요구되며, 이 경우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경우 전국 고등학교의 2012년도 졸업생 명단과 이들의 진학여부 및 졸업 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표본추출틀로서 사용될 수 있으나, 그러한 자료는 현재 작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표집방법으로서 확률표집방법의 선택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의 다양한 표집방법(할당표집, 유의표집, 눈덩이표집)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의 구성은 성별(남성, 여성), 지역(서울 및 수도권, 그 외 지역), 연령(19세~21세, 22세~24세) 등의 기준으로 할당하였으며, 일부 거점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된 진학준비 청소년의 경우 한 학원 당 최대 5명으로 하고, 5명 안에서 성별과 연령을 나누어 조사하도록 세부 할당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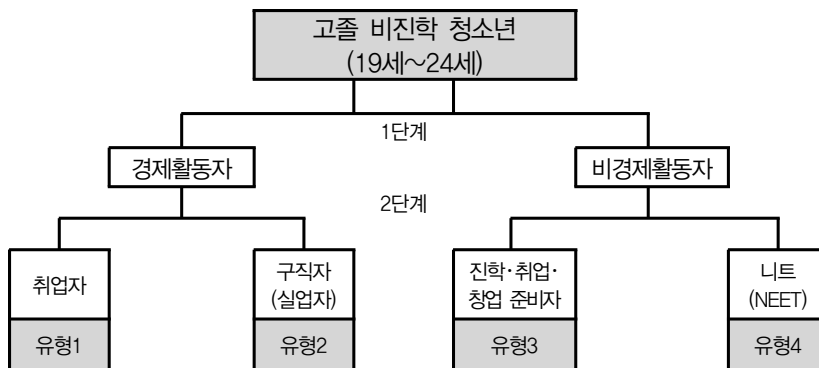
(3) 하위집단의 구성과 분류 기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다양한 층위의 하위집단의 특성과 정책욕구를 제대로 포착해 내기 위해서는 이들 하위집단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범주화 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연구의 목적과 시각 그리고 접근방식에 따라 다양한 분류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정책들이 확대·발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체계적인 확률표집방법을 통한 표본조사는 아닐지라도 교육통계연보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국가통계 2차 자료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졸업 후 상태에

20) 서울 강남·북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대 광역시에 위치한 34개(서울 15, 대전 5, 대구 5, 광주 4, 부산 5)의 대규모 대학입시학원 출구조사 방식으로 진행

비추어 보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에서의 분류기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조사대상자 구성 및 하위집단 분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자 및 취업자 판별기준을 1단계 하위집단 분류 기준으로 하여, 경제활동자와 비경제활동자로 나누었다. 경제활동자 집단 하위에는 현재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취업자와 구직자(실업자) 집단을 구성하고, 비경제활동자 하위에는 경제활동은 아니지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진학·취업·창업 준비자 집단과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니트(NEET) 집단으로 나누어 하위집단을 구성하였다²¹⁾.



【그림 V-1】 조사대상자 하위집단구성 및 분류

2) 조사 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자

본 연구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9세~24세)에

21) 취업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와 구직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구직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학,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준비자들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에 할애하는 시간과 준비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보다 장시간 할애하는 것을 기준으로 현재 상태, 즉 하위집단을 판별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완전히 객관적 지표의 적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관적인 판별에 따르는 구분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졸 비진학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판별함으로써 임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책대상자 주체적 참여에 의한 판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큰 장점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검정고시 등을 통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19세~24세의 후기청소년으로서²²⁾,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순수 고졸 비진학자 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였다가 자퇴한 청소년들도 대상자에 포함하였다²³⁾.

(2) 조사 도구

① 설문 개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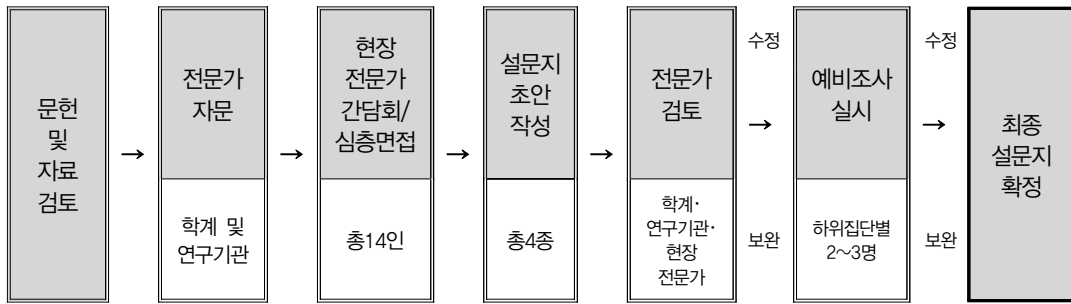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자료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포함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의 설문지(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청년층 부가조사, 사회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 2011 고졸자 취업조사, 교육종단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를 검토 하였으며, 창업준비자 및 니트 청소년과 같이 하위집단별 청소년의 특성과 관련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설문조사지 등을 검토하였다.

문헌자료 검토 후 설문지 구성에 대해 고졸 비진학자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학술분야에서도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설문 초안 작성에 앞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현장전문가들을 통해 그들의 생활실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설문개발 및 문항 작성을 위한 현장전문가 간담회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²⁴⁾. 현장전문가 의견과 검토한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설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후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22) ‘후기청소년’의 개념 및 연령범위에 대한 논의는 1차년도 연구보고서,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의 제2장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었으며, 정책연구로서 현행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연령범위 하에서 후기청소년(19세~24세)을 정의하였음. 2년차 연구인 본 연구에서도 1차년도의 이론적 논의와 정의를 따름. 2013년 3월 22일 국회 강은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후기청소년”의 용어를 추가하고 연령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참고: 제3조 제1호의 2를 ‘후기청소년 이라 함은 청소년인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로 개정).

23) 대학 중퇴 청소년을 조사대상자로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2장의 1.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범위 내용 참조

24) 현장전문가의 선정과 간담회 및 심층면접에 관해서는 후술되는 심층면접조사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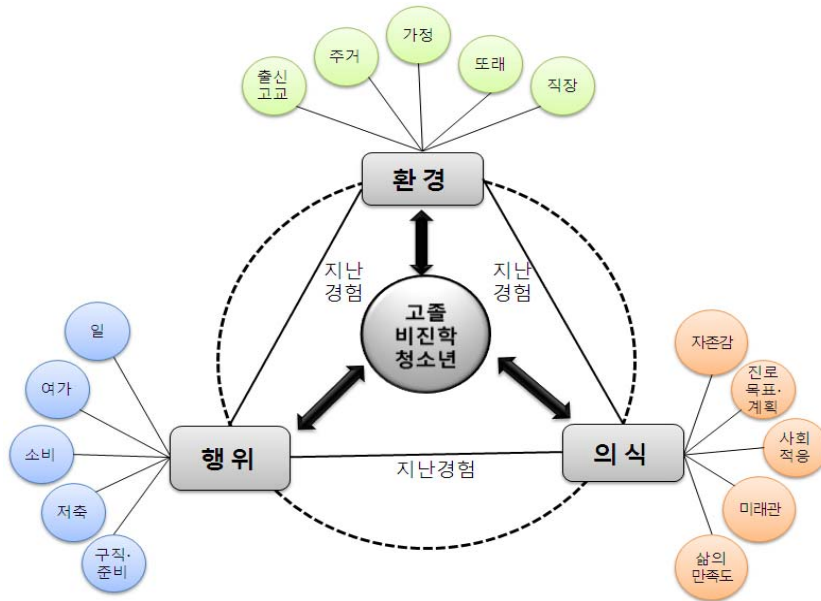
【그림 V-2】 설문 개발 절차

3) 설문구조 및 조사 내용

(1) 조사 내용의 구성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행위-의식-환경’을 기본 틀로 하여 [그림 V-3]과 같이 조사 영역을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시간적인 개념을 더하여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경험을 하나의 영역으로 추가 구성하였다.

각 영역의 하위영역은 대략 5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고졸 비진학자 ‘행위’의 하위 영역으로는 일, 여가, 소비, 저축, 구직활동이 포함되었으며, ‘의식’의 하위 영역으로는 현장전문가 면접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인 자존감, 진로목표, 사회적응, 미래관, 삶의 만족도가 구성되었다. 또한 ‘환경’의 하위 영역으로는 출신고교, 가정, 또래, 직장, 주거환경이 포함되었다.



【그림 V-3】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

이와 같은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에 기초하여 <표 V-1>와 같이, 각 영역별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 대한 회고적 경험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고교 재학 중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이며, 현재 실태는 ‘행위-의식-환경’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현재 생활 및 의식에 관한 사실을 발견하고, 현재 시점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전체 집단 및 이들을 구성하는 하위집단별 정책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표 V-1 조사내용의 구성

구분		취업자 (유형1)	구직자 (유형2)	준비자 (유형3)	니트(NEET) (유형4)
과거 경험	고교 재학 중 경험	- 일반현황 - 출신고교 및 학교생활 - 고교 재학 중 일자리 경험	- 일반현황 - 출신고교 및 학교생활 - 고교 재학 중 일자리 경험	- 일반현황 - 출신고교 및 학교생활 - 고교 재학 중 일자리 경험	- 일반현황 - 출신고교 및 학교생활 - 고교 재학 중 일자리 경험
현재 실태	행위	- 고교 졸업 후 일자리 경험 - 생활시간 - 현재 일자리 경험	- 고교 졸업 후 일자리 경험 - 생활시간 - 구직경험	- 고교 졸업 후 일자리 경험 - 생활시간 - 현재 일자리 경험	- 고교 졸업 후 일자리 경험 - 생활시간 - 구직경험

구분		취업자 (유형1)	구직자 (유형2)	준비자 (유형3)	니트(NEET) (유형4)
		- 생활비 지출현황 - 소득현황 - 여가활동	- 생활비 지출현황 - 소득현황 - 여가활동	- 진학준비 / 취업준비/ 창업준비 - 생활비 지출현황 - 소득현황 - 여가활동	- 생활비 지출현황 - 소득현황 - 여가활동
	의식	- 향후계획 및 진로성숙도 - 자존감, 생활만족도 - 사회생활 적응 - 미래관	- 향후계획 및 진로성숙도 - 자존감, 생활만족도 - 미래관	- 향후계획 및 진로성숙도 - 자존감, 생활만족도 - 미래관	- 향후계획 및 진로성숙도 - 자존감, 생활만족도 - 미래관
	환경	- 거주환경 - 부모 및 가족특성 - 가족관계 - 사회적 지지 - 사회보호대상자	- 거주환경 - 부모 및 가족특성 - 가족관계 - 사회적 지지 - 사회보호대상자	- 거주환경 - 부모 및 가족특성 - 가족관계 - 사회적 지지 - 사회보호대상자	- 거주환경 - 부모 및 가족특성 - 가족관계 - 사회적 지지 - 사회보호대상자

각 영역별 구체적인 설문문항과 문항작성의 근거는 <표 V-2>에 제시된 바와 같다.

○ 일반현황 및 과거경험 영역의 설문문항 구성

일반현황 및 과거경험 영역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과 고등학교 재학 중 경험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재학 중 경험은 출신고교 및 학교생활, 그리고 학업중단 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 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 현재 실태 - ‘행위’ 영역의 설문문항 구성

현재 실태의 ‘행위’ 영역에서는 하위집단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생활시간,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경험, 생활비 지출현황 소득현황 및 여가활동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현재 일자리 경험(취업자 및 준비자), 구직경험(구직자 및 니트), 진학/취업/창업 준비(준비자)를 추가로 측정하였다.

○ 현재 실태 - ‘의식’ 영역의 설문문항 구성

현재 실태의 ‘의식’ 영역에서는 하위집단 유형에 상관없이 향후계획 및 진로성숙도를 질문하였다. 또한 고졸 비진학자들의 사회·정서적인 특성으로서 자존감, 생활만족도와 미래관이 포함되었으며, 취업자에게는 직무몰입과 직무태도로 구성된 사회생활적응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 현재 실태 - ‘환경’ 영역의 설문문항 구성

현재 실태의 ‘환경’ 영역은 하위집단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문항을 배치하였다. 공통 문항으로 거주환경과 부모 및 가족의 특성,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그리고 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 여부와 양육시설 거주 경험으로 측정한 사회보호대상자 여부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V-2 설문문항 및 문항작성의 근거

구분	문항	설문지 종류				출처
		취업자 (유형1)	구직자 (유형2)	준비자 (유형3)	니트 (유형4)	
일반 현황 및 과거 경험	• 일반현황					•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2) 문항 수정하여 사용
	- 성별	문2	문2	문2	문2	
	- 군복무 완료여부	문2-1	문2-1	문2-1	문2-1	
	- 군복무의 사회생활 영향	문2-2	문2-2	문2-2	문2-2	
	- 군복무 예정	문2-3	문2-3	문2-3	문2-3	
	- 출생년도	문3	문3	문3	문3	
	- 현거주지	문4	문4	문4	문4	
	- 혼인상태	문5	문5	문5	문5	
	- 자녀유무	문5-1	문5-1	문5-1	문5-1	
	• 출신고교 및 학교생활					• 출신고교 유형 및 소재지는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2) 문항 사용.
	- 출신고교 유형	문6	문6	문6	문6	
	- 출신고교 소재지	문7	문7	문7	문7	
	- 고등학교 선택 이유	문8	문8	문8	문8	
	- 재학시절 피해경험(7)	문9	문9	문9	문9	
	- 재학시절 학업중단	문10	문10	문10	문10	
	- 학업중단 시기	문10-1	문10-1	문10-1	문10-1	
	- 학업중단 사유	문10-2	문10-2	문10-2	문10-2	
	• 고교 재학 중 일자리 경험					• 재학중 근로경험 부분은 천안시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일부문항 수정하여 사용(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2011)
	-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문11	문11	문11	문11	
	- 아르바이트 종류	문11-1	문11-1	문11-1	문11-1	
	- 아르바이트 부당대우(13)	문11-2	문11-2	문11-2	문11-2	
	-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대처방법	문11-3	문11-3	문11-3	문11-3	
	-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졸업 후 진로 및 직업선택에 미친 영향	문11-4	문11-4	문11-4	문11-4	
	- 재학 중 현장실습 경험	문12	문12	문12	문12	• 근로경험이 진로 및 직업선택에 미친 영향 부분과 진로계획 유무는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2) 문항 수정하여 사용
	- 현장실습 부당대우(13)	문12-1	문12-1	문12-1	문12-1	
	- 현장실습 부당대우 대처방법	문12-2	문12-2	문12-2	문12-2	
	- 재학 중 현장실습 경험이 졸업 후 진로 및 직업선택에 미친 영향	문12-3	문12-3	문12-3	문12-3	
	- 졸업당시 진로계획	문13	문13	문13	문13	
	- 진로상담 및 지원자	문14	문14	문14	문14	
	- 주 진로상담 및 지원자	문14-1	문14-1	문14-1	문14-1	

구분	문항	설문지 종류				출처	
		취업자 (유형1)	구직자 (유형2)	준비자 (유형3)	니트 (유형4)		
	– 졸업 후 대학 진학 –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 사람 – 대학진학 후 중퇴여부 – 대학진학 후 중퇴시기 – 대학 중퇴 사유 – 고등학교 생활만족도 – 고등학교 생활이 현재 삶에 도움정도	문15 문15-1 문15-2 문15-3 문15-4 문16 문17	문15 문15-1 문15-2 문15-3 문15-4 문16 문17	문15 문15-1 문15-2 문15-3 문15-4 문16 문17	문15 문15-1 문15-2 문15-3 문15-4 문16 문17	• 고등학교 생활만족도 문항은 심리척도핸드북 I (1999)에 제 시된 Campbell(1981)의 척도 를 이명신(1998)이 사용한 주 관적 삶의 질 척도 문항 수정 사용 • 현재 삶에 도움정도 문항은 연 구진 작성.	
현재 실태	행위	• 고교 졸업 후 첫 알바리 경험 – 졸업 후 일한 경험 – 졸업 후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 수 – 업·직종 – 근무기간 – 구직기간 – 주된 취업경로 – 고용형태 – 종사상 지위 – 근무 사업장 종사자수 – 근로시간 형태 – 주당 근무시간 – 소득(과세전) – 4대 보험 가입유무 – 퇴직사유 – 퇴직금 수령여부 – 퇴직금 수령가능성 – 졸업 후 자기사업 경험 – 자기사업 분야 – 자기사업 임금 종업원수 – 자기사업 월평균 소득 – 현재 자기사업 운영여부 – 사업 그만둔 이유	문18 문18-1 문18-2 문18-3 문18-4 문18-5 문18-6 문18-7 문18-8 문18-9 문18-10 문18-11 문18-12 문18-13 문18-13-1 문18-13-2	문18 문18-1 문18-2 문18-3 문18-4 문18-5 문18-6 문18-7 문18-8 문18-9 문18-10 문18-11 문18-12 문18-13 문18-14 –	문18 문18-1 문18-2 문18-3 문18-4 문18-5 문18-6 문18-7 문18-8 문18-9 문18-10 문18-11 문18-12 문18-13 문18-14 –	문18 문18-1 문18-2 문18-3 문18-4 문18-5 문18-6 문18-7 문18-8 문18-9 문18-10 문18-11 문18-12 문18-13 문18-14 –	• 일 경험 문항은 한국교육총단 연구(김양분 외, 2011) 취업· 구직자용에서 문항 수정하여 사용 • 자기사업부분은 연구진 작성
		• 생활시간 – 항목별 할애시간 – 외출한 횟수 – 지인과의 만남 – 지인들을 만난 일수 – 지인들을 만나지 않은 이유 – 친구들과 식사 한 일수	문20 – – – – – –	문20 – – – – – –	문20 – – – – – –	문20 문21 문22 문22-1 문22-2 문23	•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 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조 혜영·김지경·전상진, 2012) 문 항 수정하여 사용
		• 현재 일자리 경험 – 현재 일자리가 고교 졸업 후 가장 오래 일했던 알바 여부 – 업·직종 – 근무기간 – 구직기간	문21 문21-1 문21-2 문21-3	– – – –	– – – –	– – – –	• 일 경험 문항은 한국교육총단 연구(김양분 외, 2011) 취업· 구직자용에서 문항 수정하여 사용 • 업무수행도와 관련된 문항은

구분	문항	설문지 종류				출처
		취업자 (유형1)	구직자 (유형2)	준비자 (유형3)	니트 (유형4)	
	- 주된 취업경로 - 고용형태 - 종사상 지위 - 근무 사업장 종사자수 - 근로시간 형태 - 주당 근무시간 - 소득(과세전) - 4대 보험 가입유무 - 퇴직금 수령가능성 - 능력 및 교육수준과 일의 수준 - 고등학교 교육의 현재 업무에 도움 정도 - 고교 교육이 업무수행에 도움되지 않는 이유 - 현재 업무수행에 도움되는 것	문21-4 문21-5 문21-6 문21-7 문21-8 문21-9 문21-10 문21-11 문21-12 문21-13 문21-14 문21-14-1 문21-15				연구진 작성
	• 현재 일자리 경험 - 아르바이트 유무 - 아르바이트 종류 - 아르바이트 목적 -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월평균 근로소득 - 구직활동과 아르바이트 병행의 어려움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지급유무 - 현재 일자리 부당대우(13) - 부당대우 대처방법(13) - 현재 일자리 만족정도(9) - 아르바이트관련 기분상식(4)	- - - - - - 문21-16 문21-16-1 문22 문22-1 문23 문23-1 문23 문24	문21 문21-1 문21-2 문21-3 문21-4 문21-5 - 문22 문22-1 문23 문23-1 - 문24	문21 문21-1 문21-2 문21-3 문21-4 문21-5 - 문22 문22-1 문23 문23-1 - 문24	-	•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된 문항은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2) 문항 수정하여 사용. • 근로권리 및 부당대우와 관련된 문항은 천안시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설문조사(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2011)에서 일부문항 수정하여 사용 • 일자리 만족도 문항은 한국교육종단연구(김양분 외, 2011) 취업·구직자용 문항 일부 수정하여 사용
	• 구직경험 - 구직활동 경험여부 - 최근의 구직활동 시기 - 구직 활동기간 - 구직 업체 수 - 구직정보 얻는 방법 - 구직활동의 어려움점 - 취업의 실패 이유 - 구직을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 - 희망하는 이유 - 구직활동생활 지속기간 - 본인의 취업가능성 - 구직활동 의향 - 원하는 근로형태 - 구직할 생각이 없는 이유	-	- - 문25 문26 문27 문28 문29 문30 문30-1 문31 문32 - - - -	-	문24 문24-1 문24-2 - 문25 문26 - - - - - - 문27 문27-1 문27-2	• 고졸자 취업진로조사(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11)에서 일부 문항 수정하여 사용

구분	문항	설문지 종류				출처
		취업자 (유형1)	구직자 (유형2)	준비자 (유형3)	니트 (유형4)	
	- 현재생활 지속 여부 - 일 외 하고 싶은 활동 유무 - 일 외 하고 싶은 활동 - 지원받고 싶은 것				문28 문29 문30 문31	
	• 진학준비 - 진학준비 결정 영향 - 진학준비 시기 - 고교졸업 1년이상 지난 후 진학준비 동기 -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준비 기간 - 진학관련 사교육 - 진학관련 사교육 형태 - 진학관련 월평균 사교육 비용 - 진학준비의 어려움 - 진학준비 중 지원	-	-	문25 문26 문26-1 문27 문28 문28-1 문28-2 문29 문30	-	• 진학준비관련 문항은 한국교육 종단연구(김양분 외, 2011) 진 학준비비용 문항 수정하여 사 용
	• 취업준비 - 취업준비 결정 영향 - 취업준비 시작 시기 -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준비 기간 - 취업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 - 취업교육 및 훈련유형 - 취업교육 및 훈련기관 - 월평균 취업 및 훈련교육비 - 직업훈련지원금 수령여부 - 월평균 직업훈련지원금 - 직업훈련지원금 받은 기관 - 직업훈련지원금의 취업에 도움정도 - 취업준비의 어려움 - 취업준비 중 지원			문31 문32 문33 문34 문34-1 문34-2 문34-3 문34-4 문34-4-1 문34-4-2 문34-4-3 문35 문36		• 취업준비관련 문항 고졸자 취 업진로조사(고용노동부·한국고 용정보원, 2011) 문항 수정하 여 사용
	• 창업준비 - 창업준비 결정 영향 - 창업준비 시기 - 창업준비 기간 - 창업준비 동기 - 창업준비의 경험적 배경 - 창업의향 분야 및 업종 - 아이디어 창업가능 여부 - 아이디어 창업 가능 분야 - 창업성공 요소 - 창업관련 정보 - 창업교육 - 창업교육 기관 - 창업 초기자금 - 창업 자금 조달방법			문37 문38 문39 문40 문41 문42 문43 문43-1 문44 문45 문46 문46-1 문47 문48 문49		• 창업관련 문항들은 노동패널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10) 및 청년창업가의 창업기 회 원천 분석 및 기회 탐색에 관한 실증적 연구(문수영, 2010), 청년지식기술 창업 연 구(박동 외, 2010) 문항 일부 수정 사용

구분	문항	설문지 종류				출처
		취업자 (유형1)	구직자 (유형2)	준비자 (유형3)	니트 (유형4)	
	- 우리나라 청년창업환경 - 창업준비의 어려움 - 창업준비 중 지원 - 창업실패 후 계획			문50 문51 문52		
	• 생활비 지출현황 - 소비항목별 생활비 지출(14) - 소비항목별 월평균 지출 금액 - 월평균 총 소비지출금액 - 소비지출 금액 조달방법 - 생활비 부족시 절약항목 - 부채 유무(6) - 부채 잔액(6) - 부채의 주된 사유 - 저축여부 - 저축의 목적 - 월평균 저축액	문29 문29-1 문29-2 문30 문31 문32 문32-1 문32-2 문33 문33-1 문33-2	문37 문37-1 문37-2 문38 문39 문40 문40-1 문40-2 문41 문41-1 문41-2	문57 문57-1 문57-2 문58 문59 문60 문60-1 문60-2 문61 문61-1 문61-2	문36 문36-1 문36-2 문37 문38 문39 문39-1 문39-2 문40 문40-1 문40-2	•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2) 문항 수정하여 사용
	• 소득현황 - 소득유무(3) - 소득의 정기성 - 월평균 소득액	문34 문34-1 문34-2	문42 문42-1 문42-2	문62 문62-1 문62-2	문41 문41-1 문41-2	•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2) 문항 수정하여 사용
	• 여가활동 - 주된 여가활동(3) - 주평균 여가활동 시간 - 1회평균 소요비용	문35 문35-1 문35-2	문43 문43-1 문43-2	문63 문63-1 문63-2	문42 문42-1 문42-2	•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2) 문항 수정하여 사용
	• 향후계획 및 진로성숙도 - 1년 후 계획 - 개인사업 분야와 업종 - 장기적인 목표 및 계획 유무 - 장기적인 목표 및 계획 - 개인사업 분야와 업종 - 진로성숙도(8)	문36 문36-1 문37 문37-1 문37-2 문38	문44 문44-1 문45 문45-1 문45-2 문46	문64 문64-1 문65 문65-1 문65-2 문66	문43 문43-1 문44 문44-1 문44-2 문45	• 서울교육중단연구(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13)의 진로성숙도 8개 문항 사용
의식	• 사회·정서적 특성 - 자존감(11) - 생활만족도	문39 문40	문47 문48	문67 문68	문46 문47	• 자존감 문항은 심리적도핸드북 I (1999)에 제시된 Rosenberg (1965) 척도를 김문주(1988)가 번안하여 윤유경 (1996)이 사용 자존감 척도 사용 • 생활만족도 문항은 심리적도핸드북 I (1999)에 제시된 Campbell (1981)의 척도를 이명신(1998)이 사용한 주관적 삶의 질 척도 문항 수정사용
	• 사회생활적응 - 사회생활 및 직무에 대한 태도(12)	문41	-	-	-	• 심리적도핸드북 I (1999)에 제시된 Ostrom(1969)과 이정훈 (한국생산성본부, 1993)를 바탕으로 이명신(1998)이 사용한 사회생활 및 직무에 대한 태도 척도 사용

구분	문항	설문지 종류				출처
		취업자 (유형1)	구직자 (유형2)	준비자 (유형3)	니트 (유형4)	
	• 미래관(9)	문42	문49	문69	문48	• 심리척도핸드북 I (1999)에 제시된 Beck et al.(1974)의 무망감 척도를 신민섭 외(1990) 등이 번역한 것을 이영호 (1993)가 번역 및 수정한 척도 사용
환경	- 거주환경 - 부모님과 동거여부 - 주거형태 - 총 주거비용 - 주된 주거비 조달방법 - 동거인 여부 - 동거인 인원 - 동거인과의 관계 - 주거만족도	문25 문26 문26-1 문26-2 문27 문27-1 문27-2 문28	문33 문34 문34-1 문34-2 문35 문35-1 문35-2 문36	문53 문54 문54-1 문54-2 문55 문55-1 문55-2 문56	문32 문33 문33-1 문33-2 문34 문34-1 문34-2 문35	•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조해영·김지경·전상진, 2012) 문항 수정하여 사용
	- 부모 및 가족특성 - 부모유무 - 부모의 연령 - 부모의 이혼·별거·사별 경험 - 부모의 최종학력 -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 - 부모의 종사상 지위 - 부모의 직업 - 부모의 한달간 총 소득액 - 가정의 소득 수준(주관적)	문43 문44 문45 문46 문47 문47-1 문47-2 문48 문49	문50 문51 문52 문53 문54 문54-1 문54-2 문55 문56	문70 문71 문72 문73 문74 문74-1 문74-2 문75 문76	문49 문50 문51 문52 문53 문53-1 문53-2 문54 문55	•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조해영·김지경·전상진, 2012) 문항 수정하여 사용
	- 가족관계 - 부모의 관여정도 - 경제적 지원 기대 - 경제적 자립 정도 - 형제자매 수 - 가족 응집력	문50 문51 문52 문53 문54	문57 문58 문59 문60 문61	문77 문78 문79 문80 문81	문56 문57 문58 문59 문60	• 부모의 관여정도는 한국교육종단연구(김양분 외, 2011) 공통설문지 문항의 일부 수정 •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조해영·김지경·전상진, 2012) 문항 수정하여 사용 • 가족응집력 척도는 심리척도핸드북 II(2000)에 제시된 최태산과 홍경자(1997)의 척도 사용.
	• 사회적 지지(3)	문56	문62	문82	문61	• 심리척도핸드북 I (1999)에 제시된 House & Well(1978)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정인 (1997)이 사용한 척도문항 일부 수정 사용.
	- 사회보호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여부 - 아동양육시설 거주 경험	문57 문58	문63 문64	문83 문84	문62 문63	• 연구진작성

(2) 자료 수집 방법

자료의 수집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온라인조사와 거점조사 및 면접조사 병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표본 확보가 어려운 니트 청소년과 창업준비 청소년 등의 하위집단에 대해서는 3개 조사전문업체(EM, Ipsos, Tillion)의 대규모 온라인 패널DB를 단계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진학준비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온라인조사와 함께 숙련된 면접원을 활용한 거점면접조사가 병행되었다. 온라인 조사는 2013년 7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거점면접조사는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출신고교 및 졸업 후 경험 특성을 각각 <표 V-3>과 <표 V-4>를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총 983명으로 취업자 219명(22.3%), 구직자 221명(22.5%), 진학준비자 220명(22.4%), 취업준비자 155명(15.7%), 창업준비자 57명(5.8%), 니트 111명(11.3%)이다.

성별로는 남자 422명(42.9%), 여자 561명(57.1%)으로 여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진학준비자의 경우 여성(18.3%)보다 남성(27.7%)의 비율이 다소 높다. 평균 연령은 21.4세이며, 재수생이 많은 진학준비자들의 평균 연령이 20.5세로 다른 하위집단에 비해 다소 낮다. 조사대상자 중 기혼자는 전체의 3.5%수준이며, 조사대상자 남성의 41.5%가 군복무를 완료하였다. 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비율은 전체의 7.7%이고, 이외 양육시설거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1.5%로 전체 대상자의 9.2%가 사회보호대상자에 해당한다.

표 V-3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	취업자	구직자	준비자			니트
					진학	취업	창업	
전체		983 (100)	219 (22.3)	221 (22.5)	220 (22.4)	155 (15.7)	57 (5.8)	111 (11.3)
성별	남	422 (42.9)	94 (22.3)	91 (21.6)	117 (27.7)	66 (15.6)	25 (5.9)	29 (6.9)
	여	561 (57.1)	125 (22.3)	130 (23.2)	103 (18.3)	89 (15.9)	32 (5.7)	82 (14.6)

구분		전체	취업자	구직자	준비자			니트	
					진학	취업	창업		
나이(세)	19세~21세	520 (52.9)	110 (21.2)	100 (19.2)	159 (30.6)	64 (12.3)	28 (5.4)	59 (11.3)	
	22세~25세	463 (47.1)	109 (23.5)	121 (26.1)	61 (13.2)	91 (19.7)	29 (6.3)	52 (11.2)	
	평균 (표준편차)	21.37 (1.83)	21.44 (1.67)	21.68 (1.84)	20.52 (1.58)	21.76 (1.85)	21.57 (2.02)	21.68 (1.97)	
혼인여부	미혼	949 (96.5)	216 (22.8)	214 (22.5)	220 (23.2)	154 (16.2)	57 (6.0)	88 (9.3)	
	기혼	34 (3.5)	3 (8.8)	7 (20.6)	0 (0.0)	1 (2.9)	0 (0.0)	23 (67.7)	
군복무 완료여부 ^{주)}	완료	175 (41.5)	45 (25.7)	46 (26.3)	36 (20.6)	29 (16.6)	10 (5.7)	9 (5.1)	
	미완료	247 (58.5)	49 (19.8)	45 (18.2)	81 (32.8)	37 (15.0)	15 (6.1)	20 (8.1)	
사 회 보 호 대 상 자 여 부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	해당	76 (7.7)	25 (32.9)	23 (30.3)	7 (9.2)	9 (11.8)	5 (6.6)	7 (9.2)
		비해당	907 (92.3)	194 (21.4)	198 (21.8)	213 (23.5)	146 (16.1)	52 (5.7)	104 (11.5)
	양육 시설 거주 경험	해당	15 (1.5)	6 (40.0)	4 (26.7)	0 (0.0)	2 (13.3)	2 (13.3)	1 (6.7)
		비해당	968 (98.5)	213 (22.0)	217 (22.4)	220 (22.7)	153 (15.8)	55 (5.7)	110 (11.4)

주) 남자만 해당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평균 2.65년이 경과한 상태이며, 대상자들 중 재수생이 많은 진학준비자 집단은 이보다 짧은 평균 1.75년이 경과하였다. 이와는 달리 취업준비자 집단의 경우 평균 3.08년이 경과하여 평균보다 오랜 경과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계 졸업자가 573명으로 가장 많으며, 일반계 졸업자 중 34.6%는 진학준비자이다. 특성화계 졸업자는 현재 구직자 집단(35.6%)과 취업자(31.4%) 집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신학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도지역의 중소도시 출신자들이 33.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광역시(30.4%), 서울시(26.2%), 도지역 읍면지역(9.2%) 순으로 많다. 대도시 지역 출신들은 진학준비자가 많으며(서울: 27.5%, 광역시 28.1%), 도지역 중소도시 출신자들의 경우 구직자 집단(27.6%), 도지역 읍면지역 출신의 경우 구직자 및 취업준비자 집단(21.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7.3%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22.3%는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22.1%는 취업 상태에 있다.

표 V-4 조사대상의 출신고교 및 졸업 후 경험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	취업자	구직자	준비자			니트
					진학	취업	창업	
전체		983 (100)	219 (22.3)	221 (22.5)	220 (22.4)	155 (15.7)	57 (5.8)	111 (11.3)
졸업후 경과기간(년)	1년 미만	168 (17.1)	30 (17.9)	28 (16.7)	73 (43.4)	17 (10.1)	8 (4.8)	12 (7.1)
	1~2년	322 (32.8)	72 (22.3)	62 (19.2)	82 (25.5)	44 (13.7)	18 (5.6)	44 (13.7)
	3~4년	291 (29.6)	81 (27.8)	76 (26.1)	42 (14.4)	47 (16.2)	15 (5.2)	30 (10.3)
	5년 이상	202 (20.5)	36 (17.8)	55 (27.2)	23 (11.4)	47 (23.3)	16 (7.9)	25 (12.4)
	평균 (표준편차)	2.65 (1.90)	2.71 (1.71)	2.99 (1.87)	1.75 (1.73)	3.08 (1.89)	2.91 (2.00)	2.89 (2.02)
출신고교 유형 ^{주)}	일반계	573 (58.3)	97 (16.9)	85 (14.8)	198 (34.6)	103 (18.0)	31 (5.4)	59 (10.3)
	특성화계	315 (32.0)	99 (31.4)	112 (35.6)	9 (2.9)	38 (12.1)	20 (6.3)	37 (11.7)
	검정고시	89 (9.1)	22 (24.7)	24 (27.0)	10 (11.2)	13 (14.6)	6 (6.8)	14 (15.7)
	기타	6 (0.6)	1 (16.7)	0 (0.0)	3 (50.0)	1 (16.7)	0 (0.0)	1 (16.7)
출신고교 소재지규모	서울	258 (26.2)	50 (19.4)	58 (22.5)	71 (27.5)	37 (14.3)	20 (7.8)	22 (8.5)
	광역시	299 (30.4)	87 (29.1)	52 (17.4)	84 (28.1)	37 (12.4)	12 (4.0)	27 (9.0)
	도지역_중소도시	333 (33.9)	65 (19.6)	92 (27.6)	50 (15.0)	62 (18.6)	19 (5.7)	45 (13.5)
	도지역_읍면지역	90 (9.2)	17 (18.9)	19 (21.1)	12 (13.3)	19 (21.1)	6 (6.7)	17 (18.9)
	기타	3 (0.3)	0 (0.0)	0 (0.0)	3 (100.0)	0 (0.0)	0 (0.0)	0 (0.0)
대학진학 경험 유무	있다	367 (37.3)	81 (22.1)	82 (22.3)	71 (19.3)	73 (19.9)	23 (6.3)	37 (10.1)
	없다	616 (62.7)	138 (22.4)	139 (22.6)	149 (24.2)	82 (13.3)	34 (5.5)	74 (12.0)

주) 일반계: 인문계/종합고, 자율고, 특목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체능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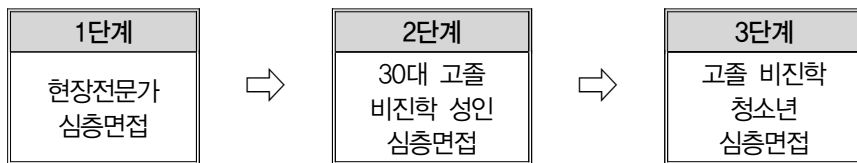
특성화계: 농생명산업고, 해양수산고, 공업고, 정보고, 상업고, 디자인고, 관광고, 마이스터고

기타: 대안학교, 기타

2. 심층면접조사

1) 추진절차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현장전문가의 심층면접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 그리고 고졸 비진학 청소년 심층면접 순으로 실시되었다.



【그림 V-4】 심층면접조사 추진 절차

현장전문가 심층면접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문항 구성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 이었다. 이러한 목적 이외 현장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한 데에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 현황에 대하여 현장전문가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현장전문가 심층면접에 이어 실시된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은 현재 시점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일상을 바라보는 현장전문가의 시각에 더하여 10여년 전 청소년의 경험을 했던 30대 성인들의 회고적 경험을 청취함으로써 고졸 청소년의 현재 모습을 발견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생애 전반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심층면접조사에 앞서 이미 앞서 경험한 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청소년 심층면접의 내용을 보다 견고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심층면접조사는 실태조사만으로는 단언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생활 및 의식 실태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발생 맥락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실태 하에 숨겨진 근본적인 정책욕구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 면접 대상별 조사개요

(1) 현장전문가

① 현장전문가 선정

앞서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심층면접에 참여한 현장전문가는 총 15명이다. 면접에 참여하는 현장전문가의 수를 총 15명으로 설정한 것은 시간 및 예산의 제약 하에서 6개의 하위집단(취업자, 구직자,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창업준비자, 니트)별로 2명 또는 3명의 전문가를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계획에 따른 결과이다.

표 V-5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현장전문가

하위집단구분			성별	소속 및 직급
A	취업자 집단	A1	남	•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A2	남	• 청년노동조합 정책팀장
		A3	남	• 특성화 고등학교 산학협력부장교사
B	구직자 집단	B1	여	• 취업포털사이트 상무이사
		B2	여	• 고용센터 취업지원과 팀장
		B3	남	• 청년일자리센터 팀장
C	진학·취업· 창업준비자	C1	여	• 진학준비학원 상담실장
		C2	남	• 청년창업지원센터 센터장
		C3	여	• 직업훈련학원 상담실장
		C4	남	• 청년인턴사업 운영기관 팀장
		C5	여	• 청년협동조합 대표
D	니트 (NEET)	D1	남	• 전국백수연대 대표
		D2	여	• 상담복지지원센터 두드림존사업 운영 팀장
		D3	남	• 니트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대표
		D4	여	• 청년니트 연구자

심층면접에 참여할 현장전문가의 선정은 각 하위집단별로 자문 및 조사협조를 구할 기관의 목록을 연구진이 사전 자료 검토와 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작성을 한 후 각 기관 또는 개인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참여를 수락한 총 15개 협력기관에서 추천받은 15인이 현장전문가로 최종 선정되었다.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협조 요청을 구하기에 앞서 현장전문가의 기준을 하위집단별로 마련하였다.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은 3월 28일부터 시작되어 5월 9일까지 현장전문가가 원하는 일시에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표 V-6>에 정리된 내용과 같이, 현장전문가들이 일상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진이 문헌검토와 자문회의 그리고 콜로키움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구성한 설문문항 내용에 대하여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문헌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표 V-6 **현장전문가대상 심층면접의 주요내용**

하위그룹구분		주요 면접 내용
취업자 집단		• 고졸 취업자의 특성, 고졸취업자에 대한 사내평가 • 회사 내 고졸 취업자 현황 및 선발, 업무 적응 및 문제점 • 정부정책인지 및 평가, 정책육구
구직자 집단		• 고졸 구인업체 및 구직자의 경향성 변화 • 고용센터를 찾는 고졸 비진학자의 수 및 그들의 특성 • 고졸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 고졸 비진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 • 고졸 비진학자들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어려운 점
준비자 집단	취업	• 고졸 비진학자의 비중 및 특성 • 교육과정 이수 후 고졸 학원생들의 취업경로 • 고졸 학원생들 교육의 어려운 점 • 고졸 학원생들에게 필요한 정책지원
	진학	•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특징 및 재수생들의 주 연령대 • 학원생들의 공통적인 생활 또는 의식특성 • 진학준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
	창업	• 창업자들의 특징 • 창업자들의 주된 창업 업종 및 창업에서의 어려움 • 창업자들의 학력에 대한 의식
니트 집단		• 니트의 원인 및 특성 • 니트의 가족관계 • 니트에게 필요한 것

이와 같은 현장전문가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길게는 2시간, 짧게는 1시간 이내의 면접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장소는 현장전문가의 근무지 또는 조사전문업체의 면접조사실에서 이루어졌다. 면접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구두 동의뿐만 아니라 참여자 서명의 확인서를 통해 동의내용을 확인토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이후에 진행된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대상 심층면접과 청소년대상 심층면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2)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

심층면접에 참여한 고졸 비진학 성인은 모두 16명으로, 현장전문가와 같이 시간 및 예산의 제약을 고려하여 남녀 각 8명으로 확정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의 모집은 성별, 지역, 대학 후진학 여부, 현재 경제활동 상태를 기준으로 할당 수를 <표 V-7>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2013년 6월부터 이 할당 기준에 부합하는 30대 성인을 현장전문가의 추천, 온라인패널DB 활용 등을 통하여 모집하였다.

표 V-7 심층면접 참여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 모집 할당 기준 및 수

(단위 : 명)

구분		성별		계
		남	여	
출신고교	일반계	1	1	2
		1	1	2
	특성화계	1	1	2
		1	1	2
대학 후진학여부	비진학	5~6명	5~6명	10~12
	선취업 후진학	2~3명	2~3명	4~6
현재 경제활동	대기업·금융권 사무직	2	2	4
	중소기업 사무직	2	2	4
	비사무직	2	2	4
	고용주·자영자	1	1	2
	비경제활동자	1	1	2
계		8	8	16

할당기준에 따라 모집한 결과, 최종 <표 V-8>에 제시된 16명의 고졸 비진학 성인이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참여한 이들의 연령은 대체로 30대 중후반이며, 남성이 7명이고 여성이 9명이다. 고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한 후진학자는 총 9명이며, 심층면접 시점까지 진학한 경험이 없는 순수고졸자는 7명이다. 출신고교 유형과 소재지별로는 일반계와 특성화계 졸업자가 각각 8명씩이며, 10명이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현재 이들의 경제활동상태는 16명 중 12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 근무자가 기술직과 사무직에 각 1명, 금융사무직에 1명, 그리고 7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또한 2명이 자영업의 일을 하고 있다.

하위집단구분			성별	연령 (만나이)	출신고교 유형	출신고교 소재지	경제활동 상태
A	대학 비진학	A1	남	30	특성화계	서울, 수도권	자영업자
		A2	남	36	일반계	서울, 수도권	중소기업영업직
		A3	남	34	일반계	서울, 수도권	대기업기술직
		A4	남	36	일반계	서울, 수도권	중소기업사무직
		A5	여	36	특성화계	지방	비경제활동자
		A6	여	33	일반계	서울, 수도권	비경제활동자
		A7	여	34	특성화계	서울, 수도권	중소기업사무직
B	선취업 후진학	B1	남	34	특성화계	지방	대기업사무직
		B2	남	35	특성화계	서울, 수도권	중소기업사무직
		B3	남	30	일반계	지방	중소기업사무직
		B4	여	32	특성화계	서울, 수도권	비사무직
		B5	여	32	일반계	서울, 수도권	중소기업사무직
		B6	여	37	일반계	지방	비경제활동자
		B7	여	37	특성화계	지방	중소기업사무직
		B8	여	36	특성화계	지방	자영업자
		B9	여	34	일반계	서울, 수도권	금융권사무직

이들 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접의 내용은 <표 V-9>에 정리된 내용과 같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과 재학 중 경험, 그 경험이 현재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주관적 의견, 진로선택 및 졸업 후 경험이 현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과 같이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후에 관한 회고적 경험과 더불어 이들 경험이 현재 살아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의견과 지원 요구 사항, 그리고 앞선 선행의 입장에서 현재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의견도 면접 내용에 포함되었다.

표 V-9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 대상 심층면접 주요내용

구분	주요 면접 내용
고교 재학 중 경험	• 고등학교 선택 이유 및 주변의 권유 • 고등학교 생활 및 선생님, 친구 및 선배들과의 관계 • 아르바이트 경험 및 경험이 진로 및 직업선택에 미친 영향 • 학업중단 경험 여부 • 고등학교 경험이 현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고교 졸업 이후 진로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비진학 이유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시도 경험 및 이유 •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대학 진학의 필요성 • 후진학자 대상 대학진학을 하게 된 계기와 대학생활의 영향 • 남성대상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에의 영향 •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취업 및 현재 하는 일
고졸 비진학자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 고교 졸업 당시에 비해 최근 고졸자들의 취업여건에 대한 의견 • 고교시절의 진로선택 및 직업선택 • 사회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 현재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부지원에 대한 의견 • '선취업-후진학' 정책에 대한 의견

(3) 고졸 비진학 청소년

심층면접에 참여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수도 30대 성인과 같이 총 16명이다. 이들은 <표 V-10>의 성별, 지역, 경제활동상태 등과 같은 할당 기준을 고려하여 모집되었다. 2013년 6월부터 현장전문가의 추천, 온라인패널DB 활용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참여 시 심층면접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 중 할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심층면접 대상자로 포함하였다²⁵⁾. 특히 보다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심층면접조사에 담기 위하여 심층면접 참여 의사가 있는 설문조사 응답자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거나 양육시설거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획득한 청소년의 경우 우선적으로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5) 설문조사 응답 완료 후 추가적으로 설문조사 이후에 진행되는 심층면접조사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 의사를 질문하였으며, 32.7%의 응답자가 긍정적 참여의사를 밝혔다.

표 V-10 심층면접 참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 모집 할당 기준 및 수

(단위 : 명)

구분			성별		계
			남	여	
경제활동자	취업자	서울 및 수도권	1~2	1~2	3~4
		그 외 지역	1~2	1~2	
	구직자	일반계	1~2	1~2	3~4
		특성화계	1~2	1~2	
비경제활동자	준비자	진학준비자	2~3		6~7
		취업준비자	2~3		
		창업준비자	2~3		
	니트		2~3		2~3
계			8	8	16

할당 기준을 적용한 모집을 통해 심층면접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면접에 참여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표 V-11>에 제시된 16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9명, 여성이 7명이고, 출신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계 10명, 특성화계 4명이며,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자격을 획득한 청소년도 2명 포함되었다. 참여한 이들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가 12명, 그 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4명으로, 당초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에 할당되었던 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참여자 중 대학 중퇴 경험이 있는 이들은 4명이며, 12명은 순수 고졸자이다. 우선 할당으로 참여한 사회보호대상자는 2명인데, 1명은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의 자녀인 경우이고(C6), 다른 1명은 양육시설에서 거주한 경우(A3)에 해당한다.

표 V-11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구분			성별	출신고교 유형	출신고교 소재지	졸업 년도	대학중퇴 여부	사회보호 대상자여부
A	취업자 집단	A1	남	특성화계	서울, 수도권	2008	중퇴	비대상
		A2	남	일반계	서울, 수도권	2009	비진학	비대상
		A3	남	특성화계	그 외 지역	2009	비진학	대상
B	구직자 집단	B1	남	일반계	서울, 수도권	2010	비진학	비대상
		B2	여	특성화계	서울, 수도권	2009	비진학	비대상
C	진학· 취업·창업 준비자	C1	남	일반계	서울, 수도권	2009	중퇴	비대상
		C2	남	일반계	서울, 수도권	2011	중퇴	비대상
		C3	남	일반계	그 외 지역	2012	비진학	비대상
		C4	남	일반계	그 외 지역	2008	중퇴	비대상
		C5	여	일반계	서울, 수도권	2012	비진학	비대상
		C6	남	특성화계	서울, 수도권	2011	비진학	대상
		C7	여	일반계	서울, 수도권	2007	비진학	비대상
		C8	여	검정고시	서울, 수도권	2010	비진학	비대상
D	니트 (NEET)	D1	여	검정고시	서울, 수도권	2009	비진학	비대상
		D2	여	일반계	그 외 지역	2011	비진학	비대상
		D3	여	일반계	서울, 수도권	2013	비진학	비대상

고졸 비진학 청소년대상 심층면접에서는 <표 V-12>와 같이, 앞서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과 같은 선상에서 면접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설문조사만으로 얻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례와 사실을 심층면접을 통해 얻고, 실태로 나타나는 사실 이면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정책욕구를 발견하고자 하는 심층면접조사 목적에 따르기 위함이다.

구분	주요 면접 내용
고등학교 생활	• 출신고교 선택의 이유 및 권유 • 고등학교 생활 및 친구, 선후배 관계 • 담임 및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 • 가족들과의 관계 •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부당대우 및 대처방법, 진로선택에 영향 정도 • 고등학교 경험이 현재 생활에 도움 되는 정도 • 현장실습 경험여부, 당시 부당대우 및 대처방법, 진로선택에 영향정도(특성화고) • 재학 중 혹은 졸업할 즈음 구체적인 진로계획 여부 및 상담자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비진학 사유 • 졸업 후 주변에서 대학진학을 권했는지 및 권한 이유 • 대학 진학 후 중퇴 여부 및 중퇴 사유(대학 진학자들) •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취업 및 현재까지 경험한 일 • 현재 하시는 일 및 그 일이 아르바이트인지 여부
현재 생활 및 의식	• 하루 24시간 활용 및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 • 현재 주거지 및 동거자 여부 • 월 소비지출 비용 및 생활비 마련 방법 • 주된 여가활동 및 그 활동을 하는 이유 • 1년 후 혹은 미래의 계획 여부 • 부모님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및 부모님이 기대하는 경제적 자립 수준
정책욕구	• 현재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 및 필요한 것 • 고교시절 진로선택 및 직업선택에 관한 주관적 평가 • 현재 사회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 현재 고졸 비진학자들에게 필요한 것들 • '선취업-후진학' 정책에 대한 의견 • 대학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

제 6 장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비진학 사유 및 회고적 경험

1. 비진학 사유
2. 재학 중 경험
3. 졸업 후 경험

제 6 장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비진학 사유 및 회고적 경험*

1. 비진학 사유

1) 특성별 비진학 사유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유를 조사대상자 특성별로 나누어 <표 VI-1>과 같이 살펴보았다. 전체의 3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다’이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성적이 부족해서’라는 사유가 전체의 28.1%로 그 다음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유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유의 분포는 성별, 출신고교 유형별,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비진학 사유를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다는 사유가 3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성적부족(22.3%), 가정형편의 이유(19.1%) 순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성적부족이 36.7%로 가장 높고,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음(29.4%), 가정형편의 이유로(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한 고교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계 졸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9.5%가 성적이 부족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음(19.4%), 가정형편(13.3%) 사유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특성화계 졸업자는 절반이 넘는 52.6%가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은 사유로 비진학 하였으며, 17.4%가 가정형편의 이유로, 15.2%가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비진학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라서는 경과기간이 짧을수록 성적부족의 사유로 비진학 하였다는 비율이 높고, 경과기간이 길수록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다는 사유와 가정형편의 이유로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비진학 하였다는 사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졸업 후 경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가정형편의 이유로 비진학 한 비율이 32.0%에 달하였다.

표 VI-1 고졸 비진학자 특성별 비진학사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기타	χ^2 -test
전체		615 (100.0)	204 (33.2)	101 (16.4)	173 (28.1)	74 (12.0)	18 (2.9)	45 (7.3)	
성별	남성	248	29.4	12.5	36.7	9.7	2.4	9.3	20.9**
	여성	367	35.7	19.1	22.3	13.6	3.3	6.0	
출신 고교 유형	일반계	309	19.4	13.3	49.5	8.7	2.3	6.8	168.5***
	특성화계	230	52.6	17.4	4.8	15.2	3.0	7.0	
	검정고시	73	31.5	24.7	12.3	16.4	5.5	9.6	
	기타 ^{주)}	3	0.0	66.7	0.0	0.0	0.0	33.3	
출신 고교 소재지	서울	188	31.9	15.4	30.3	12.8	1.6	8.0	29.6
	광역시	184	29.3	19.6	34.8	7.6	2.2	6.5	
	도지역 중소도시	186	35.5	16.1	22.6	14.0	4.3	7.5	
	도지역 읍면지역	55	43.6	10.9	16.3	18.2	5.5	5.5	
	기타	2	0.0	0.0	50.0	0.0	0.0	50.0	
졸업 후 경과 기간	1년 이하	154	26.6	5.2	47.4	9.7	0.7	10.4	92.9***
	1~2년	220	28.6	14.6	30.9	12.7	5.5	7.7	
	3~4년	141	42.6	20.6	16.3	14.2	2.8	3.5	
	5년 이상	100	40.0	32.0	9.0	11.0	1.0	7.0	

주: 대안학교 및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결과와 같이,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거나 성적이 부족하거나 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비진학을 선택하는 주된 사유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비진학을 결정하는데 있어 단지 이들 사유만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대학 생활에 대한 두려움, 학비에 대한 부담감과 등록금 투자에 대한 보상 등도 비진학을 결정하는 사유가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각각의 사유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복합적으로 의사결정에 작용한다는 것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고 3때 꼭 학교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학교 수업이 저에게 힘들었거든요.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 그런데 대학도 전공하고 전공과목 외에 교양과목도 듣고 제가 시간표를 짜서 그 시간에 나가서 뭔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힘들어서 학비도 힘들고...”(청소년C7)

“딱히 내 성적 보니까 원하는 대학 못 가겠다. 빨리 다른 길을 전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대학을 못 갈 것 같았어요. 공부하면 점수 나오고, 웬만한 치위생과는 가는데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싸서 집안에서 못 대 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별면서 다닐 자신도 없고 장학금을 받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청소년C5)

“... 그런데 한 달에 400-500씩 내면서 졸업해서 딱 대학 4년제 취직하는 것하고 몇 년 동안 더 경험 더 쌓아서 취직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대학 진학을 재수 끝나고 안 한다고 했어요.”(청소년B1)

“고 3 때 TV에 나왔잖아요. 대학교 나온 사람도 취업 못 해서 막노동 한다고 해서 비싼 돈 내고 대학 갈 필요가 있나?”(청소년B2)

비진학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여러 가지 사유 중, 가정형편으로 인해 진학을 희망하지만 진학할 수 없는 비자발적 사유는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의 자녀들이나 양육시설거주경험 청소년 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표 V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320%, 그리고 양육시설거주 경험 청소년의 38.4%가 형편이 어려워 비진학을 선택하였다. 이는 전체 16.4%의 2배가 넘는 비율이다.

표 VI-2 사회보호대상 청소년의 비진학사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기타	x ² -test
전체		615 (100.0)	204 (33.2)	101 (16.4)	173 (28.1)	74 (12.0)	18 (2.9)	45 (7.3)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해당	50	38.0	32.0	12.0	14.0	4.0	0.0	17.8**
	비해당	565	32.7	15.0	29.6	11.9	2.8	8.0	
양육시설 거주경험	해당	13	23.1	38.4	7.7	23.1	7.7	0.0	9.6
	비해당	602	33.4	15.9	28.6	11.8	2.8	7.5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다고 응답한 사회보호대상 청소년 중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빠른 취업을 택한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육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경우 진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스스로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대학 진학을 희망하나 선뜻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이 다음과 같이 심층면접에서 확인되었다.

“저희 집이 가난하게 살아서 대학교 가는 것보다 취업하고 싶었어요.”(청소년C6)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기 힘들지요, 자기 스스로 해야 하니까. (진학을) 원한 친구는 많은데 (양육시설)재단도 한계가 있어서 1-2명 밖에 못 보내줘요. ... 솔직히 대학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청소년A3)

2) 하위집단별 비진학 사유

개인특성에 이어 현재 상태, 즉 하위집단별로 비진학 사유를 <표 VI-3>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우선 하위집단별로 비진학 사유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다는 사유가 51.4%, 가정형편의 사유가 21.0%, 그리고 성적부족의 사유가 10.9%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직자와 취업준비자의 경우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은 사유가 각각 49.3%와 40.3%, 가정형편의 사유 각각 24.6%, 19.5%, 그리고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각각 12.3%, 18.3%로 나타났다.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진학준비자들은 절대 다수인 83.9%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성적이 되지 않아 비진학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창업준비자와 니트 집단에서는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비진학 했다는 자발적 비진학 사유가 상당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창업준비자의 경우 29.4%, 니트의 24.3%가 이에 해당한다. 니트의 경우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 사유가 가장 비율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은 사유가 23.0%, 가정형편이 18.9%, 그리고 성적부족과 고교 졸업 후에 대해 아무생각이 없었다는 사유가 13.5%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하위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표 VI-3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별 비진학사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기타	x ² -test
전체		615 (100.0)	204 (33.2)	101 (16.4)	173 (28.1)	74 (12.0)	18 (2.9)	45 (7.3)	
하위 집단	취업자	138	51.4	21.0	10.9	8.0	0.7	8.0	395.2***
	구직자	138	49.3	24.6	9.4	12.3	1.5	2.9	
	진학 준비자	149	0.7	2.0	83.9	2.0	1.3	10.1	
	취업 준비자	82	40.3	19.5	11.0	18.3	2.4	8.5	
	창업 준비자	34	41.2	14.7	2.9	29.4	2.9	8.9	
	니트	74	23.0	18.9	13.5	24.3	13.5	6.8	

3) 특성 및 비진학 사유가 하위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개인특성과 비진학 사유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상태, 즉 하위집단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 모델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모델은 종속변수를 하위집단을 3집단(경제활동자, 준비자, 니트)으로 나누어 설정한 모델 <표 VI-4>와 하위집단을 6집단(취업자, 구직자,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창업준비자, 니트)으로 나누어 설정한 모델 <표 VI-5>,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표 VI-4 대학 비진학 사유가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I : Multinomial Logit Analysis

구분	변수	준비자/경찰자	니트/경찰자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개인 특성	성별(남성)	0.01 (0.15)	-0.76 (0.24)**
	연령	-0.11 (0.04)**	0.05 (0.06)
출신 고교특성	출신고교 유형(특성화계)	-1.28 (0.17)***	-0.68 (0.24)**
	출신고교소재지(서울 및 수도권)	0.18 (0.15)	0.13 (0.22)
부모 및 가족특성	사회보호대상자(대상자)	-0.43 (0.28)	-0.69 (0.43)
	월평균 부모소득(로그)	0.16 (0.07)*	-0.08 (0.09)
대학 비진학 사유	돈벌고 싶어서	-1.04 (0.20)***	-0.54 (0.32)
	가정형편	-1.01 (0.27)***	-0.12 (0.35)
	대학 비희망	-0.06 (0.30)	1.10 (0.36)**
	졸업 후 계획 없음 및 기타	0.28 (0.33)	1.35 (0.41)**
	상수	2.01 (1.05)	-1.68 (1.48)
N		983	
LR chi2		221.92***	
Pseudo R2		0.11	
Log likelihood		-839.01	

*** p<.001, ** p<.01, * p<.05

먼저 종속변수를 3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표 VI-4>의 결과를 살펴보면, 준거집단을 취업자와 구직자로 구성된 경제활동집단으로 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19세~24세의 조사대상자 중 연령이 높을수록 준비자 집단에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특성화계 졸업자들은 일반계나 다른 유형의 고졸자들에 비해 준비자 또는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성화계 졸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월평균소득은 경제활동자보다는 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많을수록 고졸 비진학 자녀가 일을 하기보다 무엇인가 준비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비진학 사유의 경우 각 사유의 영향력이 하위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빨리 취업하여 돈 벌기를 원하였거나 가정형편 상의 이유로 진학을 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경제활동자보다는 준비자 집단에 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들 사유로 비진학한 청소년들은 현재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는 달리,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았거나 고교 졸업 후 계획이 없었다는 사유로 비진학한 청소년들은 현재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고교 졸업시기에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은 사유가 졸업 후 20대 초반의 삶의 유형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사유가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각 하위집단별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표 VI-5>에서는 하위집단을 6개 집단으로 나누고 구직자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으로서의 성별의 효과는 니트 집단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도 한 집단, 즉 진학준비자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연령 수준이 높을수록 진학준비자 집단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특성화계 졸업자는 구직자보다 진학준비자와 창업준비자 집단, 그리고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특성화고교 졸업 청소년들이 취업자나 구직자로서 경제활동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I-4>에서 준비자 집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보였던 월평균 부모소득의 경우, <표 VI-5>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학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비진학사유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그 영향이 밝혀졌는데,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다거나 가정형편의 사유로 비진학한 이들은 구직자 집단보다 진학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아 비진학 한 고졸 청소년들은 진학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낮지만, 창업준비자나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높다. 또 고교 졸업 후에 대해 생각이 없었던 이들은 니트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고졸 청소년들은 결국 20대 초반에 니트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I-5 대학 비진학 사유가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II: Multinomial Logit Analysis

구분	변수	취업자/구직자	진학준비자/구직자	취업준비자/구직자	창업준비자/구직자	니트/구직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특성	성별(남성)	0.00 (0.19)	0.12 (0.23)	-0.04 (0.22)	0.06 (0.30)	-0.75 (0.26)**
	연령	-0.06 (0.05)	-0.42 (0.06)***	0.04 (0.06)	0.01 (0.08)	0.02 (0.06)
출신 고교 특성	출신고교 유형 (특성화계)	-0.23 (0.20)	-2.40 (0.39)***	-1.15 (0.24)***	-0.69 (0.32)*	-0.78 (0.26)**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수도권)	-0.29 (0.19)	0.03 (0.23)	0.10 (0.21)	0.07 (0.30)	-0.01 (0.24)
부모 및 가족 특성	사회보호 대상자 (대상자)	0.24 (0.31)	-0.29 (0.51)	-0.46 (0.40)	0.28 (0.49)	-0.55 (0.45)
	월평균 부모소득 (로그)	0.05 (0.08)	0.83 (0.16)***	-0.03 (0.09)	0.13 (0.15)	-0.05 (0.10)
대학 비진학 사유	돈벌고 싶어서	0.11 (0.24)	-4.39 (1.02)***	-0.19 (0.27)	0.07 (0.39)	-0.48 (0.34)
	가정형편	-0.10 (0.30)	-2.25 (0.64)***	-0.45 (0.35)	-0.37 (0.54)	-0.16 (0.37)
	대학비희망	-0.39 (0.42)	-2.15 (0.67)**	0.35 (0.40)	1.06 (0.48)*	0.92 (0.40)*
	졸업후 계획없음 및 기타	0.68 (0.53)	0.55 (0.54)	0.83 (0.56)	1.25 (0.70)	1.77 (0.53)**
상수		1.25 (1.33)	5.15 (1.75)**	-0.60 (1.47)	-2.42 (2.10)	-0.34 (1.64)
N		983				
LR χ^2		473.13***				
Pseudo R^2		0.14				
Log likelihood		-1442.16				

*** p<.001, ** p<.01, * p<.05

2. 재학 중 경험

1) 고교선택 사유 및 학업중단 경험

(1) 고교선택 사유

여기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현재 생활 및 의식 실태와 연계되는 중·고교 재학 시절의 회고적 경험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고교선택의 사유와 중·고교 시절 학업중단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표 VI-6>의 고교선택의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학교 성적에 맞추어 고등학교를 선택하였다는 비율이 45.9%로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나, 이를 성별과 출신고교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절반 이상인 51.4%가 중학교 성적에 맞추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였고, 기타를 제외한 그 외 사유에서는 원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선택하였다는 사유가 16.6%를 나타내었다. 여성의 경우도 성적에 맞추어 선택했다는 비율이 41.7%로 높기는 하나 남성에 비해 10%p 가량 낮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의 사유로 고교를 선택한 비율은 11.2%로 남성(6.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따른 고교선택의 영향을 남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I-6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고교선택 사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중학교 성적에 맞추어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원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친한 친구가 선택하여서	기타	χ^2 -test
전체		983 (100.0)	451 (45.9)	91 (9.3)	144 (14.6)	48 (4.9)	249 (25.3)	
성별	남성	422	51.4	6.6	16.6	4.5	20.9	18.4**
	여성	561	41.7	11.2	13.2	5.2	28.7	
출신고교 유형	일반계	573	58.5	3.8	3.3	4.5	29.9	276.1***
	특성화계	315	31.4	15.9	34.9	5.1	12.7	
	검정고시	8	18.0	21.3	16.9	6.7	37.1	
	기타	6	16.7	0.0	0.0	0.0	83.3	

출신고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일반계 졸업자들의 58.5%가 중학교 성적에 맞추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반해, 특성화계 졸업자들은 31.4%만이 성적에 맞추어 선택하고, 34.9%가 원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여건에 따라 고교를 선택한 비율이 일반계 졸업자는 3.8%에 불과하였으나, 특성화계 졸업자의 경우 4배 정도인 15.9%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는 그 사례수가 적기는 하나 21.3%가 경제적 이유로 고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낮지 않은 비율의 특성화계 졸업자와 검정고시 고졸자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비자발적 고교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6>에 20%를 상회하는 비율이 기타 사유로 응답한 바와 같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선택한 사유는 매우 다양하다. 심층면접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유 중 비교적 다수의 참여자가 제보한 사유는 집과 거리가 가깝다는 것과 별다른 생각 없이 주변에서 인문계(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다른 선택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의견 등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고자 하였고 성적이 좋지 않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유도 있었는데, 심층면접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었다.

“운동하면서 공부가 많이 소홀해졌기 때문에 학교 진학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트를 뽑고 거기서 선생님이 된다고 하고 거기로 가자해서 그렇게 된 거죠. 건축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 했어요.”(청소년A1)

“가려면 갈 수 있는데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가서 밑에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밑에 가서 중간이나 상위권에 있는 것이 나으니까. 대학 갈 생각 있었는데 막상 대학 가도 취업 못 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졸업하고 자격증 따서 취업하는게 낫다고 생각했어요.”(청소년B2)

(2) 학업중단 경험

고교 선택사유에 이어 <표 VI-7>에서는 중·고교 재학 시절 학업중단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의 14%인 138명이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17.1%, 여성이 11.8%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중·고교시절 학업중단 경험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신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계 5.8%, 특성화계 4.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일반계 학업중단 경험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VI-7 중·고교 재학 중 학업중단 경험 유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x ² -test
전체		983 (100.0)	138 (14.0)	845 (86.0)	
성별	남성	422	17.1	82.9	5.5*
	여성	561	11.8	88.2	
출신고교 유형	일반계	573	5.8	94.2	603.3***
	특성화계	315	4.4	95.6	
	검정고시	89	100.0	0.0	
	기타	6	33.3	66.7	

<표 VI-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고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하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 나의 길을 찾고 싶어서(17.4%), 집안경제사정, 부모 및 가정불화, 주거불안정, 부모 간병, 가족 부양 등으로(15.2%), 학습부진, 학업에 대한 동기나 의욕이 없어서(14.5%), 전반적인 학교시스템이 싫어서(13.8%) 등이 주된 사유로 응답되었다. 이를 성별과 출신고교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상반된 비율을 보이는 사유가 눈에 띈다. 예컨대 남성은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 나의 길을 찾고 싶어서 학업중단을 했다는 비율이 23.6%로 가장 많으나, 이 사유에 해당하는 여성은 10.6% 수준이며, 질병이나 사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남성은 15.3%이나 여성은 4.6%에 불과하다. 학습부진 또는 의욕상실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여성은 19.7%이나 남성은 9.7%이고, 학교폭력이나 교우관계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에 있어서도 여성은 13.6%이나 남성은 4.2%수준이다. 또 학칙부적응의 사유는 여성이 13.6%이나 남성은 이에 절반 수준이 6.9%를 보였다. 이들 사유와는 달리 집안경제나 가정불화 등의 사유는 남성과 여성 각각 16.7%, 13.6%, 전반적인 학교시스템이 싫어 학업 중단한 비율은 각각 12.5%, 15.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관계, 시스템에서의 부적응 경향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출신고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계 졸업자는 학습부진 등의 사유가 21.2%로 가장 높고, 특성화계 졸업자는 학교이외 다른 곳에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학업 중단한 비율이 28.6%로 가장 높다. 검정고시 졸업자는 학습부진, 가정형편, 학교시스템이 싫어서, 학교 이외의 곳에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사고나 질병 등의 다양한 사유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한다. 출신고교

유형 모두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학업중단 사유는 가정형편, 부모불화 등의 가정환경과 관련된 사유이다. 이는 중·고교 시절의 학업중단의 상당 비율이 가정문제로 비자발적으로 선택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VI-8 중·고교 재학 중 학업중단 사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장애, 사고, 질병 으로	가정 형편, 부모 불화, 부모 간병, 등	학습 부진, 학업 동기 의욕 없음	학교 폭력, 교우 교사 관계 부적 응	학교 생활 규칙 부적응	유학 어학 연수 이민 부모 해외 근무	조기 진학 종교 방송 활동 등	학교 시스템 과 문화가 싫어서	학교 이외 에서 나의 길을 찾고 싶어서	기타	χ^2 - test
전체	138 (100.0)	14 (10.1)	21 (15.2)	20 (14.5)	12 (8.7)	14 (10.1)	7 (5.1)	1 (0.7)	19 (13.8)	24 (17.4)	6 (4.3)	
성 별	남성 72 여성 66	15.3 4.6	16.7 13.6	9.7 19.7	4.2 13.6	6.9 13.6	6.9 3.0	1.4 0.0	12.5 15.2	23.6 10.6	2.8 6.1	17.8*
출 신 고 교 유 형	일반 계 33 특성 화계 12 검정 고시 89 기타 2	12.1 21.4 7.9 0.0	18.1 14.3 14.6 0.0	21.2 7.2 13.5 0.0	6.1 7.1 10.1 0.0	3.0 7.1 13.5 0.0	3.0 0.0 4.5 100.0	0.0 0.0 1.1 0.0	15.2 7.1 14.6 0.0	15.2 28.6 16.8 0.0	6.1 7.2 3.4 0.0	48.7**

가정문제가 아닌 학교생활에 따른 사유로 학업중단을 선택한 경우는 대체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학업중단을 결정하며, 그 결정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시간 지속적이며 경험 누적의 결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심층면접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로 발견하였다.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학교 다니는 것이 별로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부터 점점 늦게 가고 안 나가는 날도 있고, 3학년 때부터는 더 심해져서...”(청소년D1)

“저하고 맞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제가 아이들하고 성향이 안 맞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담배 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애들은 그런 것이 있고 애들이 저를 좀 괴롭히더라고요, 학교 폭력은 아니라도 왕따 비슷하게 당했어요. 10월달 정도, 거의 2학기 초반이었지요. 일단 제가 결심하고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 부모님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학교 그만 두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또 아토피가 있어서 치료를 했어요.”(청소년C8)

학업을 중단한 시기로는 <표 VI-9>와 같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4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시기가 2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출신고교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계 졸업자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27.3%, 고2 21.2%, 고3 21.2%로 나타났으나, 특성화계 졸업자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절반으로 나타났으며, 고3 시기에도 35.7%가 학업을 중단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정고시의 경우도 특성화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한 가지 차이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학업중단을 경험 하는 비율이 13.5%로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표 VI-9 중·고교 재학 중 학업중단 시기: 학업중단 경험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x ² -test
전체		138 (100.0)	14 (10.1)	9 (6.5)	7 (5.1)	65 (47.1)	28 (20.3)	15 (10.9)	
성별	남성	72	13.9	5.6	4.2	43.0	20.8	12.5	3.4
	여성	66	6.1	7.5	6.1	51.5	19.7	9.1	
출신 고교 유형	일반계	33	6.1	12.1	12.1	27.3	21.2	21.2	36.9**
	특성화계	14	0.0	0.0	0.0	50.0	14.3	35.7	
	검정고시	89	13.5	4.5	3.4	53.9	21.3	3.4	
	기타	2	0.0	50.0	0.0	50.0	0.0	0.0	

2) 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 경험

(1) 아르바이트 경험

학업중단 경험에 이어, 고교재학 중 근로경험을 살펴보았다. 근로경험은 크게 재학 중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교육 및 취업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표 VI-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48.1%가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출신고교 유형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성화계 졸업자가 6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검정고시 졸업자가 61.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계는 37.0%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I-10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x ² -test
전체		983 (100.0)	473 (48.1)	510 (51.9)	
성별	남성	422	46.4	53.6	0.8
	여성	561	49.4	50.6	
출신고교 유형	일반계	573	37.0	63.0	73.7***
	특성화계	315	65.1	34.9	
	검정고시	89	61.8	38.2	
	기타	6	16.7	83.3	

아르바이트로서 경험하는 일의 직종은 45.5%가 서빙 또는 주방보조의 일이며, 성별에 따라 일의 직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서빙·주방이 34.2%로 가장 높고, 생산·기능이 24.5%로 두 직종이 약 5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서빙·주방이 53.4%로 나타나, 여성 아르바이트가 서빙·주방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1 고교 재학 중 주요 아르바이트 직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장 관리	서빙· 주방	서비스	생산· 기능	사무· 회계	IT· 디자인	상담· 영업	강사· 교육	기타	χ^2 -test
전체		473 (100.0)	98 (20.7)	215 (45.5)	26 (5.5)	82 (17.3)	13 (2.7)	5 (1.1)	7 (1.5)	9 (1.9)	18 (3.8)	
성 별	남성	196	22.5	34.2	4.6	24.5	1.5	2.0	1.0	4.1	5.6	36.7***
	여성	277	19.5	53.4	6.1	12.3	3.6	0.4	1.8	0.4	2.5	
출 신 고 교 유 형	일반계	212	21.7	45.8	6.6	15.6	3.3	0.5	1.4	0.9	4.2	12.2
	특성 화계	205	20.5	43.9	5.3	19.0	2.0	2.0	2.0	2.4	2.9	
	검정 고시	55	18.2	49.1	1.8	18.2	3.6	0.0	0.0	3.6	5.5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구체적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아르바이트를 상위 5개로 추려 내어 <표 VI-12>와 같이 살펴보았다.

표 VI-12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주요 업종: 상위 5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음식점/ 레스토랑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전단 배포	취폐· 연회장	χ^2 -test
전체		473 (100.0)	113 (23.9)	56 (11.8)	36 (7.6)	29 (6.1)	26 (5.5)	
성 별	남성	196	20.9	13.8	3.6	7.1	4.1	105.1***
	여성	277	26.0	10.5	10.5	5.4	6.5	
출 신 고 교 유 형	일반계	212	24.1	13.7	5.7	4.7	7.5	127.3
	특성화계	205	22.0	10.7	9.3	8.3	4.9	
	검정고시	55	30.9	9.1	9.1	3.3	0.0	
	기타	1	0.0	0.0	0.0	0.0	0.0	

상위 5개 업종은 음식점/레스토랑,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전단배포, 뷔페·연회장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 업종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5개 업종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음식점/레스토랑이 각각 20.9%와 2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편의점이 13.6%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고, 전단배포는 7.1%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편의점과 패스트 푸드점이 각각 10.5%로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뷔페·연회장(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에서 범주화하여 파악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일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심층면접에서 구체적으로 청취할 수 있었다. 대체로 일하는 곳은 편의점, 식당, 연회장, 길거리이고, 하는 일은 편의점이나 판매점에서 물건을 팔고 당구장이나 문구점에서 자리를 지키는 일도 하며, 식당에서는 설거지나 주방보조 또는 서빙, 그리고 배달 일을 한다. 서빙 일은 식당뿐만 아니라 호텔연회장에서도 이루어진다.

“(아르바이트) 해봤죠. 배달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청소년A1)

“한 달인가 편의점에서 잠깐 했고 ... (친구들은) 보통 편의점이나 당구장”(청소년B1)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문구점...흠쳐 가는지 안 흠쳐 가는지 지켜보는.”(청소년B2)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전단지였던 거 같아요. ... 학교 앞에 공고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전봇대 같은 데 붙어 있는. ... 단기로, 2~3일.”(청소년C1)

“청소년 써 주는 아르바이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호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호텔 아르바이트를 3~4번 정도 했어요. 연회장 서빙이요”(청소년D3)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경험했던 재학 중 아르바이트가 단기의 일회성 일 경험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심층면접에 제보된 일 경험 사례들을 살펴보면, 재학 중 일 경험이 중학교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험하는 일의 종류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때 전단지 돌리는 일이나 주방 보조, 설거지 하는 일...고등학교 때는 패스트푸드와 주차 쪽 일.”(청소년C6)

“중 3때 ... 지하상가 옷장사에서 알바 했어요. ... (고등학교 때) 호텔 알바라고 연회장에서 서빙하는 거 있어요. ... 그리고 회집에서 서빙 했어요. 횡집에서 알바 많이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알바) 편의점이나 서빙이나.”(청소년C5)

“패스트푸드점 아니면 회전초밥 집에서 서빙 알바를 오래 했어요”(청소년C7)

한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일 경험은 앞서 살펴본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소년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검정고시 이후 자료입력과 같은 사무직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나서 훈련 받은 업종에서 실제 취업하여 일을 해보기도 하는 등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범위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검정고시 따고) 일단 아르바이트를 해 봤어요. 사무직으로. 자료 입력이나 자료 분석 같은 것. 인터넷 활용도 하고... 잠깐 잠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 봤어요. 매장 판매도 해 보고 사무직도 해 보고.”(청소년C8)

“네일 배우고 나서 근처 네일샵에서 잠깐 했는데, 한 달 밖에 안 했는데 ... 쉼 때는 마트에서 단기 알바로 행사를 몇 번 하고 공연장 스텝도 하고... 사무 보조도 하고”(청소년D1)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일의 내용에 이어 <표 VI-13>에서는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행위를 경험하였는지의 여부와 각 부당한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VI-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 중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행위는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로 전체의 35.3%가 경험한 바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처음 약속한 것 또는 약속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추가로 요구 받은 경우가 34.5%로 나타났다. 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24.5%로 4명 중 1명이 이러한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낮지 않다. 그러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대부분 참고 일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3 아르바이트 당시 부당행위 경험 및 대응

(단위 : %)

부당행위 내용	부당행위 경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1.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21.8	③
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35.3	①
3.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	34.5	②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24.5	①
5.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12.9	⑧
6. 일을 그만두고 싶는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19.5	②
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5.0	⑧
8.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2.5	⑧
9.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5.3	⑧
10.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0.6	②, ⑧, ⑨
11.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9.7	②
12.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8.0	⑧
기타	4.4	⑧

부당행위 대처방법

- ①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했다.
- ②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 참고 일했다.
- ③ 고용주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 했다.
- ④ 부모,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 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았다.
- ⑦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 ⑧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
- ⑨ 기타(구체적으로:)

부당행위의 경험과 그에 대한 소극적 대응 방식은 심층면접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제보한 자신의 부당행위 경험 또는 그 경험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임금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노동권 침해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다수의 청소년들은 <표 VI-13>의 결과처럼 대체로 일을 그만두어 버리는 것으로 대응한다고 하였다.

“(친구 중에서 그런 피해당한 친구가) 꽤 있었어요. 임금 체불이나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것이 있었어요. ... 때려 치거나.. ... 공사에서 알바 하다가 다쳤는데 치료비도 없이 알바 그만 뒀다고”(청소년A2)

“내 친구가 ○○○에서 일 했는데,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인데 포인트를 자기 것으로 했대요. 그걸 사장님이 알고 일부러 말 안 하고 있다가 임금 받을 때 그거 안 주고 잘못 한 거 알고 있다고, 각서 쓰라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친구가 썼대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임금을, 50~60만원 을, 그래서 왜 안 주냐고 하니까 각서 쓴 것 들이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못 받았다고. ...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니까. 경찰 부른다고, 아무래도 우리는 학생이니까. 저희도 나서서 해 주지 못하고.”(청소년C2)

“(임금을 안 주려고 차일피일 미룰 때 주변 친구들은) 못 받으면 그만 두지요. 다른 아르바이트 구하지요. 아니면 뭐라고 말을 해 보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다 어른이라서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에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받은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3번 있으면 1번 있을까 말까요.”(청소년C6)

다수의 청소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일부 청소년 들은 사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심층면접에서 다음과 같이 포착되었다.

“친구가 피자집에서 일 했는데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온 몸에 피부병 나서, 그런데도 계속 하고, 일 시키고. ... 그리고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늦게 받은 친구들. 그런 건 대다수였죠. 주유소에서 하는데, 어떻게든 안 주려고 빼고, 쥐도 늦게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노동부에 말하거나...정확히 모르겠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악덕사업주들이 많으니까.”(청소년A1)

“공연장 알바 했을 때 안 들어와서 노동부에 신고한 적 있어요.”(청소년D1)

(2) 현장실습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과 함께 고교재학 중 현장실습 경험 유무를 <표 VI-14>와 같이 살펴보았다. 고교 재학 중 현장실습을 경험했다는 학생은 전체의 28.4% 수준으로 낮다. 그러나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성화계의 경우 절반이 넘는 52.1%가 현장실습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의 경우도 현장실습을 경험한 비율이 없지는 않으나 17.6%로 특성화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VI-14 고교 재학 중 현장실습 경험 유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χ^2 -test
전체		983 (100.0)	279 (28.4)	704 (71.6)	
성별	남성	422	28.0	72.0	0.0
	여성	561	28.7	71.3	
출신고교 유형	일반계	573	17.6	82.4	129.3***
	특성화계	315	52.1	47.9	
	검정고시	89	13.5	86.5	
	기타	6	33.3	66.7	

<표 VI-15>에서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경험한 부당행위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았다. 전체의 20.4%가 ‘처음 약속한 일과 다른 일을 추가’로 요구 받았고, 그 다음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가 12.9%,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가 12.2%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을 하면서 부당행위를 경험한 경우에도 아르바이트와 다를 바 없이 대부분 참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의 경우에만 노동관련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의 부당행위와 앞서 살펴본 재학 중 아르바이트에서 경험한 부당행위의 유형을 비교해보면,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당행위가 임금지급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현장실습에서는 임금지급에서의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그 보다는 초과근로의 문제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심층면접 참여자 중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제보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심층면접 참여자들 중 현장실습을 경험한 경우가 1명 있었는데, 그의 경험에서는 실제 현장실습으로 명시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근로를 시켜 한 달 정도만 실습하였다고 한다. 이 경우는 실습생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작업을 강요하고 초과근로를 강요한 사례로 명백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기본적인 것은 설명해 주거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런 것이 명시상은 8시간인데 실제로 12시간을 해요. 거기서 추가로 시키는 경우도 많았어요. ... 그래서 한 달 있었어요.”(청소년A3)

표 VI-15 현장실습 당시 부당행위 경험 및 대응

(단위 : %)

부당행위 내용	부당행위 경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1.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8.6	①
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1.8	①
3.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	20.4	②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2.2	①, ②
5.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5.0	⑧
6. 일을 그만두고 싶는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4.7	②, ⑧
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9.7	①
8.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1.1	①
9.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8	①
10.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0.4	⑤
11.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8	①, ⑧
12.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2.9	②
기타	3.2	②
부당행위 대처방법		

- ①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했다.
- ②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 참고 일했다.
- ③ 고용주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 했다.
- ④ 부모,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 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았다.
- ⑦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 ⑧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
- ⑨ 기타(구체적으로:)

3) 진로 선택 및 고교생활만족도

(1) 진로상담 및 지원

고교 재학 중 진로상담과 진로 준비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어떤 이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받았는가를 <표 VI-16> 및 <표 VI-17>과 같이 살펴보았다. 먼저 고교 재학 중 진로상담이나 준비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에 대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8%가 진로상담 및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3.1%, 여성 56.1%가 진로 상담 및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출신고교 유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반계의 46.6%, 특성화계의 46.3%가 진로상담 및 지원자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검정고시 졸업자의 경우 30.3%만이 진로상담 및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교육 밖에서 진로를 준비할 경우 진로상담 및 준비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I-16 고교 재학 중 진로상담 및 지원자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진로상담 및 지원자가 있었다	진로상담 및 지원자가 없었다	χ^2 -test
전체		983 (100.0)	444 (45.2)	539 (54.8)	
성별	남성	422	46.9	53.1	0.9
	여성	561	43.9	56.1	
출신고교 유형	일반계	573	46.6	53.4	9.6*
	특성화계	315	46.3	53.7	
	검정고시	89	30.3	69.7	
	기타	6	66.7	33.3	

고교 재학 중 진로상담이나 진로 준비지원자가 있었다고 하여, 실제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학교에서의 진로상담은 아예 없거나, 입시 위주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다음과 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상담은 진로상담이 아니라 단지 대학입시 상담에 그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제보하였다.

“(진로 상담은) 형식적이에요. 상담도 학기 초에 한 번 하면 끝나고, 교무실에 와서 잠깐 학생기록지 보고 인적사항 얘기하고, 장래 희망이 뭐니? 하면 그걸 적는 것으로 끝나지. (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진로 교육을 하거나 시청각 자료를 본 적은) 전무합니다.”(청소년A2)

“고3때 담임선생님 말고는... 중1때부터 고2때까지 제가 만난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성적만 (관심있었죠). 1반부터 6반까지 있는데 저희반이 2등 했어요. 종례 때 성적 올려서 우리반 1등 하자. 딱히 너는 꿈이 뭐야 하고 물어보는 분도 없어요.”(청소년B1)

“상담은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 힘든 점 없니 하고, ... 진로 상담보다는 대학 쪽에 많이 중점을 뒀어요. 일단 대학 잘 가자고. 그런 고민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깐 일단 수능만 잘 보자, 대학만 잘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고민 안 했어요.”(청소년C3)

“(진로 상담은) 담임선생님이요. 진학 선생님은 따로 없었고 가끔 강당에 모아 놓고 설명하시고, ... 입시나 진로를 두루두루 다.”(청소년C4)

“고3때 입시 준비할 때 (상담)했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 번호 순으로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한다고 하고. 어디 대학 가고 싶냐, 어느 과 가고 싶냐, 하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고.”(청소년C5)

“입시 위주, 진학 지도 밖에 얘기 안 하시고,”(청소년C7)

“선생님도 잘 몰라서, 친구와 한 명 있거든요. 개도 저랑 똑같이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애라서 자료 모으고 사이트 뒤지고 서로 얘기하고 그랬어요.”(청소년D2)

특성화계의 경우도 일반계와 유사하게 적성이나 진로를 위한 상담보다는 취업을 위한 상담 위주로 진로상담이 진행된 것을 심층면접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따로 불러서 하는 상담 없었고 설문만 했었어요. 설문으로 나의 진로에 대해서 쓰는 것만 A4용지로 해서 했지 따로 가서 한 적 없어요. ... 취업하는 사람은 하는데 저는 그 때 뚜렷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 해 봤자 말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안 했지요.”(청소년B2)

“담임선생님이 1차 상담을 하고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애들에게 2차 상담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취업 교사에게 가서 해요. ... 취업 담당 선생님이 해 주신 정보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요. 자기 개발서 쓰는 거, 자기 소개서와 면접할 때.”(청소년C6)

그 외 학교가 아닌, 사교육 학원에서 진로 및 대학 진학상담을 한 청소년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학교보다 학원선생님을 대학 입시 측면에서 더 신뢰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은 학교만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학원 선생님하고, ... 대학교 정보는 학원 선생님이 더 신뢰가 갔어요.”(청소년C2)

“(진로 지도나 학교 선택에 대한 정보는) 네, 학원이었어요. 제가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 출신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 여러 분 있었는데 제가 믿는 선생님은 한 사람이라서.”(청소년D3)

진로상담 및 지원자가 있었을 경우, 주로 어떤 이들에게 진로 상담 및 지원을 받았는가를 <표 VI-17>과 같이 살펴보았다. 담임선생님이 전체의 65.8%로 가장 높고, 부모·보호자가 58.1%, 친구나 선배(28.2%), 진로상담 선생님(24.8%), 형제·자매(10.4%), 기타(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담임선생님의 비율이 72.2%로 여성(60.6%)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은 친구나 선배(31.3%)가 남성(24.2%)에 비해 높고, 형제·자매(12.6%)의 비율도 남성(7.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고교 유형별로는 담임선생님의 비율이 특성화계(74.0%)의 경우가 일반계(65.5%)에 비해 높고, 학교 교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검정고시의 경우 부모·보호자가 74.1%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17 고교 재학 중 주된 진로 상담 및 지원자(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담임 선생님	진로상담 선생님	부모· 보호자	형제 자매	친구나 선배	기타
전체		444 (100.0)	292 (65.8)	110 (24.8)	258 (58.1)	46 (10.4)	125 (28.2)	26 (5.9)
성별	남성	198	72.2	22.7	59.1	7.6	24.2	5.1
	여성	246	60.6	26.4	57.3	12.6	31.3	6.5
출신고교 유형	일반계	267	65.5	20.6	61.0	9.7	29.2	8.2
	특성화계	146	74.0	34.2	50.0	10.3	24.7	0.7
	검정고시	27	22.2	14.8	74.1	18.5	37.0	7.4
	기타	4	75.0	25.0	50.0	0.0	25.0	25.0

(2) 고교생활만족도 및 현재생활에 도움정도

<표 VI-18>에서는 회고적으로 응답한 고교생활만족도를 살펴보았다. 10점 척도로 측정한 생활만족도는 전체 평균 5.5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출신고교 유형과 현재 하위집단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출신고교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계와 특성화계의 경우 평균 5.6점과 5.8점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나,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검정고시의 경우 평균 3.2점으로 중간점수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위집단별로는 진학준비자가 평균 6.2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반면, 니트의 경우 평균 4.6으로 다른 하위집단들에 비해 만족도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8 고교생활만족도: 회고적 평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0점	1~2점	3~4점	5점	6~7점	8~9점	10점	평균 (표준 편차)	t/GLM -test
전체		983 (100.0)	46 (4.7)	86 (8.8)	174 (17.7)	156 (15.8)	275 (28.0)	218 (22.2)	28 (2.8)	5.5 (2.51)	
성별	남성	422	4.5	7.1	16.4	18.5	27.9	20.9	4.7	5.6 (2.5)	1.1
	여성	561	4.8	10.0	18.7	13.9	28.0	23.2	1.4	5.4 (2.5)	
출신 고교 유형	일반계	573	2.8	8.0	18.2	15.2	29.7	23.7	2.4	5.6 (2.3)	28.5***
	특성 화계	315	4.4	5.4	15.9	16.5	29.9	24.4	3.5	5.8 (2.4)	
	검정 고시	89	18.0	24.8	22.4	19.1	10.1	3.4	2.2	3.2 (2.5)	
	기타	6	0.0	16.7	0.0	0.0	33.3	33.3	16.7	7.0 (2.5)	
하위 집단	취업자	219	4.6	5.9	14.2	16.9	32.0	23.7	2.7	5.7 (2.4)	9.0***
	구직자	221	5.9	10.4	19.9	17.2	27.1	16.3	3.2	5.1 (2.5)	
	진학 준비자	22	1.8	6.4	12.2	12.7	29.6	32.8	4.5	6.2 (2.2)	
	취업 준비자	155	2.6	10.3	22.6	16.1	28.4	18.1	1.9	5.2 (2.4)	
	창업 준비자	57	7.0	14.0	17.5	15.8	22.8	21.1	1.8	5.0 (2.7)	
	니트	111	9.9	10.8	24.4	17.1	20.7	16.2	0.9	4.6 (2.6)	

고교생활만족도에 이어 고등학교 생활이 현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표 VI-19>와 같이 살펴보았다. 전체 평균 3.0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생활만족도와 같이 출신고교 유형과 현재 하위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신고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계가 평균 3.2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반면, 검정고시는 평균 2.3점으로 낮았다. 현재 하위집단별로는 진학준비자 집단이 평균 3.4점으로 평균보다 높고, 취업준비자와 창업준비자 집단이 평균 3.0으로 전체 평균 수준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구직자 집단과 니트 집단은 전체 평균 보다 낮은 각각 평균 2.9점, 2.6점으로 나타났다.

표 VI-19 현재 삶에 대한 고교생활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된 것이 없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좀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평균 (표준 편차)	χ^2 -test
전체		983 (100.0)	99 (10.1)	206 (20.9)	278 (28.3)	298 (30.3)	102 (10.4)	3.0 (1.1)	
성별	남성	422	9.5	19.9	28.4	30.8	11.4	3.1 (1.1)	1.4
	여성	561	10.5	21.8	28.2	29.9	9.6	3.0 (1.1)	
출신 고교 유형	일반계	573	8.4	20.9	28.6	32.1	10.0	3.1 (1.1)	68.0***
	특성화계	315	7.9	19.4	25.7	34.6	12.4	3.2 (1.1)	
	검정고시	89	27.0	28.1	35.9	4.5	4.5	2.3 (1.0)	
	기타	6	33.3	0.0	16.7	16.7	33.3	3.1 (1.8)	
하위 집단	취업자	219	8.2	20.6	26.9	29.7	14.6	3.2 (1.1)	70.6***
	구직자	221	9.5	27.2	30.3	24.4	8.6	2.9 (1.1)	
	진학 준비자	22	3.2	14.5	28.2	42.7	11.4	3.4 (0.9)	
	취업 준비자	155	12.3	20.0	31.6	26.4	9.7	3.0 (1.1)	
	창업 준비자	57	15.8	17.5	19.3	38.6	8.8	3.0 (1.2)	
	니트	111	22.5	25.2	27.1	19.8	5.4	2.6 (1.1)	

이와 같은 고교생활의 도움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살펴본 것에 더하여 고등학교 생활의 어떠한 점이 현재 삶에 도움이 되는가를 심층면접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심층면접에 참여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과 3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세대에 상관없이, 고교 생활의 도움정도에 대한 고졸 비진학자들의 주관적 평가는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했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와 활동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는 이들이 고교생활의 도움 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도움이 전혀 안 되었다면 거짓말이고, 친구들과하고 놀면서 사회성이라고 하나요? 학교 수업도 아예 안 듣는 것보다 자면서라도 들으면 사회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은. 영어라든가.”(청소년A2)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편하게 말을 하는지를 배웠어요. 예절이랑...동아리 통해서 시간 맞추고 의견 조율하고,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게 영향을 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청소년C2)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를 잘 사귀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 착한 애들 만난 거. 나쁜 점이라면, 외고를 선택한 것. 그냥 일반고로 갔으면 혹시나 제가 이과를 선택했을 수도 있으니까.”(청소년C3)

“친구들이나...물론 대학교 되었어도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나 친구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만 못 해요.”(30대성인B5)

“내 생각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배운 거나 선생님에게 영향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30대성인A5)

4) 재학 중 경험이 하위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재학 중 경험들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상태, 즉 하위집단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델은 종속변수를 하위집단을 3집단(경제활동자, 준비자, 니트)으로 구분한 모델 <표 VI-20>과 하위집단을 6집단(취업자, 구직자,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창업준비자, 니트)으로 나누어 설정한 모델 <표 VI-21>,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자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한 <표 VI-20>의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자집단 보다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낮으며, 특성화계 졸업자는 다른 고교유형의 졸업자에 비해 준비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빨리 돈을 벌고 싶었다거나 가정형편상의 이유로 진학하지 않은 이들은 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으며,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았거나 졸업 후에 대한 생각이 없는 비진학 사유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이외에 본 장에서 살펴본 재학 중 경험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과 고교생활만족도가 현재 하위집단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즉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준비자 집단이나 니트 집단이 될 가능성이 낮고, 고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가 졸업 후 경제활동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높이는 경험이며, 재학 중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던 고졸 청소년들이 고교 졸업 후 니트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국 20대 초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또는 니트 상태는 고교생활과 분절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 고교 재학 중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VI-20 고등학교 재학 중 경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I: Multinomial Logit Analysis

구분	변수	준비자/경활자	니트/경활자
		추정 계수(표준 오차)	추정 계수(표준 오차)
개인특성	성별(남성)	0.03(0.15)	-0.70(0.24)**
	연령	-0.09(0.04)*	0.05(0.06)
출신고교 특성	출신고교 유형(특성화계)	-1.23(0.19)***	-0.51(0.26)
	출신고교소재지(서울 및 수도권)	0.25(0.15)	0.19(0.22)
부모 및 가족특성	사회보호대상자(대상자)	-0.27(0.28)	-0.63(0.43)
	월평균 부모소득(로그)	0.13(0.07)	-0.07(0.09)
대학 비진학 사유	돈벌고 싶어서	-0.81(0.21)***	-0.34(0.33)
	가정형편	-0.92(0.28)**	-0.09(0.36)
	대학 비희망	0.04(0.31)	1.21(0.37)**
	계획없음 및 기타	0.38(0.34)	1.26(0.43)**

구분	변수	준비자/경찰자	니트/경찰자
		추정 계수(표준 오차)	추정 계수(표준 오차)
고교 재학중 경험	학업중단 경험 (학업중단)	-0.34(0.23)	-0.53(0.35)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0.73(0.15)***	-0.75(0.23)**
	현장실습 경험 (현장실습)	-0.09(0.18)	-0.39(0.27)
	고교생활만족도	0.04(0.03)	-0.09(0.04)*
	상수	2.00(1.08)	-0.96(1.53)
N		983	
LR chi ²		267.31***	
Pseudo R ²		0.14	
Log likelihood		-817.31	

*** p<.001, ** p<.01, * p<.05

이와 같이 재학 중 경험이 현재 하위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하위집단을 6개 집단으로 나누어 <표 VI-21>과 같이 분석하였다. 구직자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은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진학준비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성화고 졸업자는 진학준비자나 취업준비자 그리고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을 3개 집단으로 나누고 경제활동자를 준거집단으로 분석한 <표 VI-20>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던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하위집단을 6개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학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진학 사유 중 돈을 벌고 싶은 사유와 가정형편 상의 사유는 진학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은 사유는 진학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는 부(-)적인 영향을, 창업준비자와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위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졸업 후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거나 별다른 계획이 없는 사유도 창업준비자와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졸 청소년들과 졸업 후에 대한 진로계획이 없는 이들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이들이 졸업 후 진학을 준비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유 이외에 고교 재학 중 경험의 영향을 살펴보면, <표 VI-20>의 분석에서와 같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과 고교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는데, 아르바이트 경험은 부(-)의 영향을, 고교생활만족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은 진학준비자와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진학을 준비하거나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교 재학 중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자 집단 또는 진학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고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았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고교 졸업 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진로결정과 선택이 졸업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I-21 고등학교 재학 중 경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II: Multinomial Logit Analysis

구분	변수	취업자/구직자	진학준비자/구직자	취업준비자/구직자	창업준비자/구직자	니트/구직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특성	성별(남성)	0.01 (0.20)	0.12 (0.24)	-0.00 (0.22)	0.11 (0.31)	-0.69 (0.26)*
	연령	-0.05 (0.05)	-0.41 (0.07)***	0.04 (0.06)	0.01 (0.08)	0.02 (0.06)
출신 고교 특성	출신고교 유형 (특성화계)	-0.37 (0.22)	-2.27 (0.41)***	-1.30 (0.26)***	-0.57 (0.35)	-0.68 (0.28)*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수도권)	-0.29 (0.19)	0.21 (0.24)	0.13 (0.21)	0.07 (0.30)	0.04 (0.24)
부모 및 가족 특성	사회보호 대상자 (대상자)	0.30 (0.31)	0.23 (0.53)	-0.35 (0.40)	0.32 (0.49)	-0.46 (0.46)
	월평균 부모소득 (로그)	0.02 (0.08)	0.70 (0.17)***	-0.04 (0.09)	0.13 (0.15)	-0.05 (0.10)
대학 비진학 사유	돈벌고 싶어서	0.21 (0.25)	-3.93 (1.03)***	-0.03 (0.29)	0.19 (0.40)	-0.25 (0.35)
	가정형편	-0.00 (0.30)	-2.14 (0.65)**	-0.34 (0.35)	-0.28 (0.55)	-0.08 (0.38)
	대학비희망	-0.27 (0.42)	-2.07 (0.69)**	0.45 (0.40)	1.18 (0.48)*	1.07 (0.41)**
	계획없음 및 기타	0.88 (0.54)	0.84 (0.56)	0.97 (0.57)	1.37 (0.71)	1.75 (0.55)**

구분	변수	취업자/구직자	진학준비자/구직자	취업준비자/구직자	창업준비자/구직자	니트/구직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고교 재학 중 경험	학업중단 경험 (학업중단)	-0.26 (0.30)	-0.31 (0.37)	-0.64 (0.33)	-0.31 (0.43)	-0.63 (0.38)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0.16 (0.20)	-1.15 (0.25)***	-0.43 (0.22)	0.13 (0.31)	-0.66 (0.25)**
	현장실습 경험 (현장실습)	-0.20 (0.22)	-0.37 (0.30)	0.09 (0.24)	-0.67 (0.37)	-0.47 (0.29)
	고교생활 만족도	0.10 (0.04)**	0.21 (0.05)***	0.03 (0.04)	0.01 (0.06)	-0.03 (0.05)
	상수	0.70 (1.37)	4.97 (1.83)**	-0.61 (1.50)	-2.28 (2.14)	0.13 (1.68)
N		983				
LR chi2		554.93***				
Pseudo R2		0.16				
Log likelihood		-1401.26				

*** p<.001, ** p<.01, * p<.05

3. 졸업 후 경험

1) 일 경험

(1) 고교 졸업 후 근로 경험 유무

여기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회고적 경험 중 현재 생활 및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교 졸업 후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고교 졸업 후 일 경험과 관련하여 어떤 이들이 근로경험이 있으며, 졸업 후 얼마나 많은 일 경험을 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VI-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80.1%가 고교 졸업 후 근로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출신고교 유형과 현재의 하위집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22 고교 졸업 후 근로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χ^2 -test
전체		983 (100.0)	787 (80.1)	196 (19.9)	
성별	남성	422	80.8	19.2	0.2
	여성	561	79.5	20.5	
출신고교 유형	일반계	573	72.9	27.1	45.3***
	특성화계	315	91.1	8.9	
	검정고시	89	85.4	14.6	
	기타	6	100.0	0.0	
하위집단	취업자	219	100.0	0.0	201.3***
	구직자	221	91.9	8.1	
	진학준비자	22	51.4	48.6	
	취업준비자	155	78.7	21.3	
	창업준비자	57	93.0	7.0	
	니트	111	69.4	30.6	

출신고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계 졸업자의 근로 경험 비율이 91.1%로 가장 높고, 검정고시 85.4%, 일반계 72.9% 순으로 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 집단을 제외하였을 때, 창업준비자가 93.0%로 가장 높고, 구직자 91.9%, 취업준비자 78.7%의 순으로 나타났다. 니트의 69.4%도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진학준비자의 경우도 절반이 넘는 51.4%가 고교 졸업 후 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는 고교 졸업 후 니트청소년의 일 경험에 있어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짧은 근속기간과 비경제활동 기간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 단기니까 며칠만 일하고 쉬면 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일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돈하고 상관없이. ... (중략) 그렇게 오래 일 한 거 없어요.”(청소년D1)

“... 졸업하고 나서 호프집 서빙 했어요. 3개월 정도. 서빙하다가 오빠가 올라오라고 해서 서울 왔어요. 일자리 알아봤는데 ...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는 한 두 달 일했는데 말투 때문에 잘린 것 같아요.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 (중략) 그 이후에 롯데리아에서 일하다가... 6월에 그만두고 8월에 들어가서는 3월 말까지 했어요.”(청소년D2)

“알바천국, 알바몬에 이력서를 올려 놓았는데 전화가 엄청왔어요. 30통은 왔어요. 제가 게임도 좋아하고 PC방 일이 간단한 것이 많아서 PC방 가게 되었지요. 일은 오래 안했어요. 3개월, 3개월 반 했어요.”(청소년D3)

(2) 고교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수

고교 졸업 후 근로 경험 유무에 이어 경험한 일자리의 수를 <표 VI-23>과 같이 살펴보았다. 전체 평균 3.3개의 일자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하위집단별로 경험한 일자리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3 고교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수

(단위 : 명, %, 개)

구분		사례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9개	10개~ 20개	평균 (표준편차)	t/ GLM -test
전체		787 (100.0)	169 (21.5)	170 (21.6)	164 (20.8)	92 (11.7)	92 (11.7)	74 (9.4)	26 (3.3)	3.3 (2.3)	
성별	남성	341	17.6	23.2	22.3	10.2	10.0	12.3	4.4	3.6 (2.6)	2.5*
	여성	446	24.4	20.4	19.7	12.8	13.0	7.2	2.5	3.1 (2.0)	
연령	19세~ 21세	374	32.3	27.3	20.0	8.6	6.4	4.2	1.2	2.5 (1.6)	97.3***
	22세~ 25세	413	11.6	16.5	21.5	14.5	16.5	14.1	5.3	4.1 (2.6)	
하위 집단	취업자	219	25.6	19.6	15.5	14.2	13.2	9.1	2.8	3.2 (2.2)	4.6***
	구직자	203	13.8	18.7	22.2	15.3	12.8	12.2	5.0	3.8 (2.7)	
	진학 준비자	113	31.9	23.0	23.0	6.2	8.8	5.3	1.8	2.7 (2.2)	
	취업 준비자	122	22.1	22.9	21.3	10.7	8.2	11.5	3.3	3.2 (2.2)	
	창업 준비자	53	9.4	17.0	34.0	11.3	15.1	9.4	3.8	3.7 (2.2)	
	니트	77	22.1	33.7	19.5	5.2	11.7	5.2	2.6	2.8 (1.8)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평균 3.6개, 여성의 경우 평균 3.1개의 일을 경험하여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로는 현재 구직자인 경우가 평균 3.8개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경험하였고, 창업준비자의 경우도 평균 3.7개로 구직자와 함께 전체 평균 이상의 일자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외 다른 하위집단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적은 일자리를 경험하였는데, 특히 니트 집단의 경우 평균 2.8개로 적은 수의 일자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다는 것은 단기간 근로를 반복하거나 잦은 퇴사 또는 이직을 반복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잦은 일자리 이동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노동시장 이행을 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잦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고교 졸업 후 일자리 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표 VI-2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카운트 모델 분석(Count Model Analysis)²⁷⁾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VI-24 고교 졸업 후 일자리 수 결정요인: Count Model Analysis

구분	변수	고교 졸업 후 경험 일자리 수		
		전체	19~21세	22~25세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특성	성별(남성)	0.22 (0.03)***	0.08 (0.06)	0.22 (0.04)***
	연령	0.20 (0.01)***	—	—
출신고교 특성	출신고교 유형(특성화계)	-0.03 (0.04)	0.02 (0.08)	-0.06 (0.05)
	출신고교소재지 (서울 및 수도권)	0.08 (0.03)*	-0.04 (0.06)	0.13 (0.04)**
부모 및 가족특성	사회보호대상자(대상자)	0.13 (0.06)*	0.15 (0.10)	0.10 (0.08)
	월평균 부모소득(로그)	-0.03 (0.01)	-0.05 (0.02)*	-0.01 (0.02)

27) 카운트(count)모형은 종속변수가 연속변수가 아닌 0 또는 양의 정수(non-negative integer)인 경우에 사용한다. 예컨대 자녀 수, 병원방문 횟수, 여행 횟수 등 변수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수를 종속변수로 가진 많은 경우, 대체로 몇 개의 수, 즉 0, 1, 2에 상당수의 관측치가 집중되어 자료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거나(skewed to the right), 이분산성(heteroskedastic)의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OLS회귀분석보다 Poisson모형 혹은 Negative Binomial모형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아송 회귀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포아송 분포함수(Poisson distribution function)을 따른다고 가정하는데, 포아송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같아 equi-dispersion모형이라고도 부른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종속변수가 반드시 일정기간 또는 일정 공간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횟수여야 한다(우석진, 2013, p.140; 민인식·최필선, 2013b, p.136). 이에 근거하여 고교 졸업 후 현재 조사 시점까지 일정한 기간 내 일자리 경험 횟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고교졸업 후 일자리 수 결정요인을 <표 VI-24>와 같이 카운트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구분	변수	고교 졸업 후 경험 일자리 수		
		전체	19~21세	22~25세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고교 재학중 경험	학업중단 경험 (학업중단)	0.04 (0.05)	0.09 (0.09)	-0.00 (0.07)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0.42 (0.04)***	0.53 (0.07)***	0.34 (0.05)***
	현장실습 경험 (현장실습)	0.04 (0.04)	0.09 (0.07)	0.01 (0.05)
	고교생활만족도	0.00 (0.00)	-0.02 (0.01)	0.01 (0.01)
	상수	-3.63 (0.26)***	0.70 (0.17)***	0.96 (0.13)***
N		983	520	463
LR χ^2		554.85***	105.02***	82.16***
Pseudo R ²		0.11	0.05	0.03
Log likelihood		-2018.87	-936.80	-1104.51

*** p<.001, ** p<.01, * p<.05

분석 결과, 개인특성으로서의 성별과 연령, 출신고교 특성으로서의 출신고교 소재지, 그리고 고교 재학 중 경험 특성으로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개인특성으로서의 성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자리 경험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일자리 경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을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 보인다. 그러나 성별에 있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자리 경험 횟수가 많다는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20대 청년층의 짧은 근로의 반복, 그리고 잦은 퇴직과 이직이 여성보다는 남성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출신고교 특성으로서 서울 및 수도권소재 고교 졸업자들이 다른 지역소재 고교 졸업자들에 비해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은 것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 및 가족특성으로서 사회보호대상자의 경우 비대상자에 비해 고교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다는 결과는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잦은 이직을 반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교 재학 중 경험으로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고교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졸업 후 장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할 만큼의 좋은 일자리 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것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대학 진학 및 중퇴 경험

(1) 대학진학 경험의 유무

고교 졸업 후 일 경험에 이어 여기에서는 대학 진학 및 중퇴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고졸 비진학 청소년 중 대학 진학을 경험한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표 VI-25>와 같이 살펴본 결과, 전체의 37.3%가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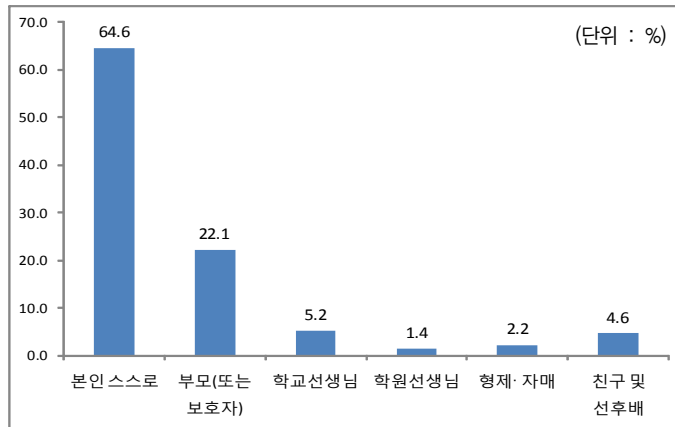
대학 진학의 경험 유무는 성별과 출신고교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41.2%)이 여성(34.4%)에 비해 진학을 경험한 비율이 높고, 출신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계 졸업자(45.9%)가 특성화계(27.0%)나 검정고시(18.0%) 졸업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I-25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x ² -test
전체		983 (100.0)	367 (37.3)	616 (62.7)	
성별	남성	422	41.2	58.8	4.8*
	여성	561	34.4	65.6	
출신고교 계열	일반계	573	45.9	54.1	47.0***
	특성화계	315	27.0	73.0	
	검정고시	89	18.0	82.0	
	기타	6	50.0	50.0	

대학 진학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를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 64.6%가 본인 스스로 결정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영향으로 진학 하였다는 비율이 22.1%로 나타났다.



【그림 VI-1】 대학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복수응답)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64.6%**가 본인 스스로 대학 진학을 결정하였다는 결과만을 본다면, 이 높은 비율이 고등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희망 수치로 쉽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학진학 결정 이면에는 강요된 자기결정, 즉 최종적으로 본인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과 배경으로 대학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음을 고졸 비진학 청소년대상 심층면접 뿐만 아니라 현장전문가대상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발견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현장전문가 중 분야가 서로 다른 세 명의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의 경우, 부모가 자녀 취업으로 인해 수급권이 박탈될 것을 우려하여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권하며, 자녀가 취업을 희망하여도 대학 진학을 강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제보하였다.

“제가 지원 받는 것은 취업하면서 끝났어요. 저는 저희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취업했는데 막상 지원이 끊겨서 더 어려워지고, ... 아버지는 학교 가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취업해라. 해서 하면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원 못 받아도 네가 다니고 싶으면 다녀라.”(청소년C6)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을 취업시키면 한 달도 안 되어서 그만 뒀요. 왜 그만 두냐, 엄마가 그만두래요.(수급권) 그거 박탈당하면 더 손해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학비를 감면해주거나 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그 위의 아이들은 열심히 해서 취업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애들은 오히려 진학하려고 하는. 그런 애매함이 있고... (중략) 기초생활수급자 애들이 취업을 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박탈당하지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통장으로 지원해주는데 그게 제도만 있지 활용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행정담당관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현장전문가A3)

“(임금소득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부모가 못하게 한다던데) 맞아요. 못하게 해요. ... (중략) 어떤 분들은 와서 왜 우리 자식 취업시켰냐고 항의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런가 하고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인당 30씩 하면 한 가정에 120만원이 넘게 지원되고 거기에 받는 의료급여까지 하면 느껴지는 체감은 200만원 정도 지원이라고 하는데, 애가 취업하면, 초봉이 얼마 안되잖아요. 120~130 이렇게 받을 텐데, 120도 안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돈 자체가 아예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못 받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현장전문가B2)

“(경제활동을 하면) 그 동안 받던 수급권이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수급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취업 하게 되면 우리가 공짜로 받던 생활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취업 하지 말고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라 하고 나서... (들어 갈 수 있어야 말이죠?) 대학 가고 싶잖아요. 좋은 대학에는 가기 어렵지만 아무 대학에는 가기 어렵지 않죠. 대학에 적 걸어 놓고 알바를 해서 그만큼 생활비를 벌도록 하고, 적은 유지를 해서 수급권을 유지하게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취업 계층에 있어서 사실은 그 친구들이 빨리 취업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부모들인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현장전문가D4)

(2) 대학 중퇴 여부 및 사유

대학 진학 경험에 이어 중퇴 여부를 <표 VI-26>과 같이 살펴보았다.

표 VI-26 대학 진학 유경험자의 대학 중퇴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중퇴	장기휴학	x ² -test
전체		367 (100.0)	187 (51.0)	180 (49.0)	
성별	남성	174	48.3	51.7	0.9
	여성	193	53.4	46.6	
출신고교 유형	일반계	263	45.6	54.4	11.0*
	특성화계	85	65.9	34.1	
	검정고시	16	56.3	43.7	
	기타	3	66.7	33.3	
하위집단	취업자	81	38.3	61.7	17.8**
	구직자	82	59.8	40.2	
	진학준비자	71	63.4	36.6	
	취업준비자	73	38.4	61.6	
	창업준비자	23	52.2	47.8	
	니트	37	59.5	40.5	

대학 중퇴여부를 살펴 본 결과, 대학에 진학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1.0%가 중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이들이 중퇴를 하였고,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출신고교 유형별,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출신고교 유형과 하위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퇴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특성화계로, 대학 진학 경험자의 65.9%가 중퇴하였고, 검정고시 졸업자도 절반이 넘는 56.3%가 중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진학준비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63.4%의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대학 중퇴자들의 상당수가 다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준비자 집단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구직자 집단에도 59.8%, 니트 집단에도 비슷한 수준이 59.5%, 창업준비자 집단에 52.2%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7>에서는 대학 중퇴자들을 대상으로 중퇴사유를 살펴보았다.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사유는 전공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35.8%)이며, 다음으로는 대학생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17.6%), 등록금 부담(1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27 대학 진학 유경험자의 대학 중퇴 사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등록금 부담	가족 부양 등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전공 흥미가 없어서	친구, 선배 관계가 어려워서	대학생활이 기대에 못미쳐서	학사 취득하더라도 취업이 어려워서	일과 병행이 힘들어서	내 사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타	x ² -test
전체		187 (100.0)	31 (16.6)	14 (7.5)	9 (4.8)	67 (35.8)	10 (5.4)	33 (17.6)	8 (4.3)	4 (2.1)	1 (0.5)	10 (5.4)	
성별	남성	84	17.9	6.0	1.2	33.3	1.2	21.4	7.1	3.6	1.2	7.1	17.7
	여성	103	15.5	8.7	7.8	37.9	8.7	14.6	1.9	1.0	0.0	3.9	
출신 고교 유형	일반계	120	19.2	5.0	1.7	40.8	4.2	17.5	5.0	0.8	0.8	5.0	58.7***
	특성 화계	56	10.7	12.5	10.7	28.6	8.9	17.8	3.6	3.6	0.0	3.6	
	검정 고시	9	22.2	11.1	11.1	22.2	0.0	22.2	0.0	11.0	0.0	0.0	
	기타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취업자	31	22.6	29.1	3.2	25.8	3.2	12.9	3.2	0.0	0.0	0.0	
하위 집단	구직자	49	20.4	4.1	6.1	26.5	4.1	24.5	4.1	6.1	0.0	4.1	89.6***
	진학 준비자	45	6.7	2.2	0.0	48.9	4.4	11.1	11.1	0.0	0.0	15.6	

구분	사례수	등록금 부담	가족 부양 등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전공 흥미가 없어서	친구, 선배 관계가 어려워서	대학 생활이 기대에 못미쳐서	학사 취득하 여도 취업이 어려워서	일과 병행이 힘들어서	내 사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타	χ^2 -test
전체	187 (100.0)	31 (16.6)	14 (7.5)	9 (4.8)	67 (35.8)	10 (5.4)	33 (17.6)	8 (4.3)	4 (2.1)	1 (0.5)	10 (5.4)	
취업 준비자	28	25.0	3.6	10.7	32.1	7.1	17.9	0.0	3.6	0.0	0.0	
창업 준비자	12	25.0	0.0	8.3	33.4	0.0	25.0	0.0	0.0	8.3	0.0	
니트	22	4.6	4.6	4.5	50.0	13.6	18.2	0.0	0.0	0.0	4.5	

이와 같은 대학 중퇴사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복합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이 심층면접에서 청취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 중 대학진학 및 중퇴경험이 있는 이들은 교육 내용의 수준 및 유용성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 우리사회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학교에 진학해야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대학중퇴를 선택하였다고 제보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나타난 한 가지 공통점은 대학 중퇴의 결정이 군복무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에 대한 현실적 시각을 가진 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친구들과 모여 술 먹고, 그런 게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기숙사 생활하고, 그게 재미있었죠. 근데 가보니까 별거 없었어요.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고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 되어서 술 먹고 MT가고 하는 거니까. 근데 군대 가서 생각해보니까... 한 살 한 살, 더 먹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았다고 하지만 교육하는 게, 커리큘럼이 많이 안 좋고, 많이 배우고 있다는 생각은 못 들었어요. 뭔가, 아, 지방대구나 하는 생각 많이 했어요.”(청소년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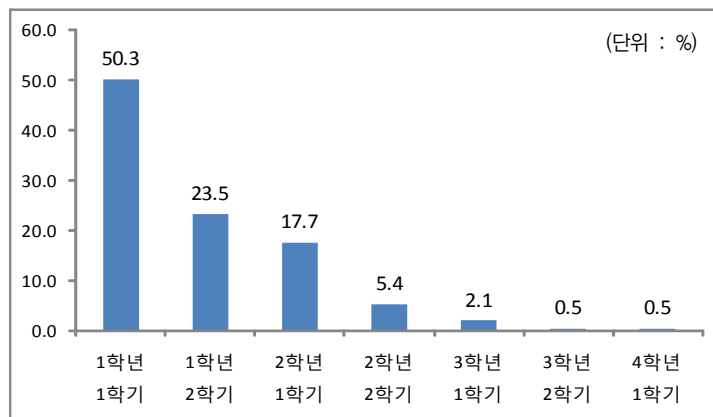
“학교는 합격했는데 다녀 보니까 많은 등록금 내고 갈 필요가 없겠다, 의심이 들더라고요. (중략)... 군대 가기 전에 놀려고 1학기 휴학하고 알바 하다가 군대 갔다가 오고 자퇴했지요. 수업을 찾아서 하는, 자율적일 줄 알았더니 학과사무실에서 수업표를 다 찢서 줬어요. ... (중략) 학문을 추구하기보다 성적에 대해서 시험 매기기 위한 거였고요. 그 때가 1학년이라서 확신이 안 서긴 했는데 취업이나 아니면 공부할 때 배운 것이 썩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청소년A2)

“1년 정도, 학과 생활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집을 설계한다는 게, 학문적으로나 재미있었던,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1학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선임 중에 한 분이, 4년제

대학교의 토목과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를 좋은 데 나오지 않고, 더군다나 건축 일에 이 학교를 나오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되게 많이 들어서,...또 저도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인터넷 같은 데서. 그래서 전역을 하자마자 다시 재수를...”(청소년C1)

“기대 안 차서... 내가 이 분위기에서 하려고 왔나 ... 저는 정시로 온 거라서, 내신으로 온 애들은 쉽게쉽게 온 것 같더라고요. 뭔가 고등학생 같았어요. 애들이 ... 과도 더 좋은 학교를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취업할 때 학교 본다고 해서.”(청소년C2)

대학을 중퇴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50.3%는 1학년 1학기에 중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2학기에 중퇴를 한 경우도 23.5%로 대학진학 후 중퇴한 청소년의 약 80%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2】 대학 중퇴 시기

(3) 대학 진학 및 중퇴 경험의 결정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37.3%가 대학 진학 경험이 있고, 이들 대학 진학 경험자의 절반 정도(51.0%)가 대학 중퇴를 경험하였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대학 진학 경험과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스티드 로짓 모델(Nested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대학 진학의 경험 및 대학 진학자의 중퇴의 결정요인을 2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²⁸⁾.

<표 VI-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 대학 진학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출신고교 유형, 사회보호대상자 여부, 그리고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며, 2단계 대학 중퇴에는 연령과 고교생활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VI-28 대학 진학 및 중퇴 경험의 결정요인: Nested Logit Analysis

변수		1단계: 대학 진학 추정계수 (표준오차)	2단계: 대학 중퇴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특성	성별(남성)	-0.23 (0.14)	-0.05 (0.11)
	연령	-0.14 (0.03)***	-0.30 (0.06)***
출신고교특성	출신고교 유형(특성화계)	-0.97 (0.16)***	0.21 (0.12)
	출신고교소재지(서울 및 수도권)	0.00 (0.14)	0.01 (0.11)
부모 및 가족특성	사회보호대상자(대상자)	-0.58 (0.24)*	-0.06 (0.17)
	로그 월평균 부모소득	-0.00 (0.00)	-0.00 (0.00)
고교생활경험	학업중단경험(중퇴)	-0.18 (0.21)	-0.07 (0.17)
	아르바이트경험(아르바이트)	-0.78 (0.14)***	0.16 (0.12)
	현장실습경험(현장실습)	-0.21 (0.16)	0.21 (0.12)
	고교생활만족도	0.00 (0.02)	-0.12 (0.04)*
상수		4.54 (0.89)	7.48 (1.50)***
N		983	367
-2Log Likelihood		1170.27	-
Log likelihood chi2		128.68***	462.53***

***p<.001, **p<.01, *p<.05

각 요인의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대학 진학과 중퇴에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은 낮으나, 진학을 하였다면 중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졸업 후 경과기간이 짧은 이들이 대학 진학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진학을 하였다면 연령이 높은 후진학자들은 대학중퇴 보다는 장기휴학을 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출신고교 유형변수는 대학 진학 단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8) 개인의 선택을 포함하여 알고자 하는 사회현상이 이산적인 변수의 성격을 보일 경우 다항로짓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이 적용될 수 있으나, 다항로짓모델은 오차항이 독립적이며, 동일한 Weibull 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를 기본으로 가정한다. 오차항에 대한 이러한 가정은 다항로짓모델이 비관련대안의 독립성(Independent of Irrelevant Alternative: IIA), 즉 두 선택 대안의 확률비율이 다른 어떤 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두 대안 간의 속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속성은 많은 경우에 위배된다. 다항로짓모델에서 비관련대안의 독립성 속성이 위배될 경우, 다항로짓모델을 통한 추정 모수의 값은 편향된(biased)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석 모델 중 하나가 네스티드로짓모델이며 사회과학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 2005; 김준기·김호정, 2008; 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3, p.107에서 재인용).

나타났는데, 이는 특성화계 졸업자들이 일반계나 검정고시자에 비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보호대상자 또한 대학진학의 가능성이 낮고,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이들도 대학진학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다는 앞선 분석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고교생활만족도가 대학 중퇴 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고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 중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교생활 만족도가 고등교육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군복무 경험

(1) 군복무 완료 여부

성별에 따라 남성의 경우 대다수가 고교 졸업 후 군복무를 경험하게 된다. 조사대상자 중 남성을 대상으로 군복무 완료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VI-29>와 같이 41.5%가 군복무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9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군복무 완료 여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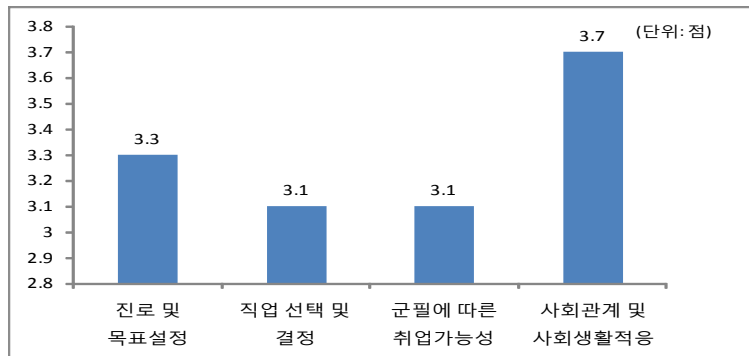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군복무 완료	군복무 미완료	x ² -test
전체		422 (100.0)	175 (41.5)	247 (58.5)	
연령	19세	108	0.0	100.0	224.4***
	20세	61	3.3	96.7	
	21세	63	39.7	60.3	
	22세	75	66.7	33.3	
	23세	64	82.8	17.2	
	24세	43	86.0	14.0	
	25세	8	100.0	0.0	
하위집단	취업자	94	47.9	52.1	11.6*
	구직자	91	50.5	49.5	
	진학준비자	117	30.8	69.2	
	취업준비자	66	43.9	56.1	
	창업준비자	25	40.0	60.0	
	니트	29	31.0	69.0	

연령에 따라서는 22세를 기점으로 군복무 완료비율이 높아져 25세의 경우 모두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는 구직자(50.5%)와 취업자(47.9%) 집단이 다른 하위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료 비율이 높았다.

(2) 군복무 경험의 영향

군복무 완료자를 대상으로 군복무의 경험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생활 및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크게 4가지 항목(①진로 및 목표설정, ②진로 선택 및 결정, ③군필에 따른 취업가능성, ④사회관계 및 사회생활 적응)으로 나누고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VI-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4가지 항목 모두에서 평균 3점 이상의 점수가 나타나, 군복무 경험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가지 항목 중 사회관계 및 사회생활 적응에 대한 군복무 경험의 영향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VI-3】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영향

<표 VI-30>에서는 군복무 경험의 영향 정도를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VI-30 하위집단별 군복무 경험의 영향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진로 및 목표설정	직업 선택 및 결정	군필에 따른 취업 가능성	사회관계 및 사회생활 적응
전체	175 (100.0)	3.3 (1.1)	3.1 (1.1)	3.1 (1.2)	3.7 (1.0)

구분		사례수	진로 및 목표설정	직업 선택 및 결정	군필에 따른 취업 가능성	사회관계 및 사회생활 적응
하위집단	취업자	45	3.3 (1.1)	3.3 (1.1)	3.6 (1.0)	4.0 (0.8)
	구직자	46	3.0 (1.1)	2.9 (1.0)	2.9 (1.1)	3.6 (1.0)
	진학준비자	36	3.9 (1.0)	3.4 (1.1)	3.1 (1.2)	3.8 (0.9)
	취업준비자	29	3.4 (1.1)	3.4 (1.1)	3.1 (1.3)	3.6 (1.0)
	창업준비자	10	2.8 (1.3)	2.5 (1.2)	2.7 (1.3)	3.4 (1.2)
	니트	9	2.4 (1.0)	2.3 (1.0)	2.8 (0.9)	3.4 (1.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복무 후 대부분 하위집단에서 사회관계 및 사회생활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학준비자만이 진로 및 목표설정(3.9)이 사회관계 및 사회생활적응(3.8)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군복무 과정에서 진로의 결정 또는 목표설정을 한 이들이 진로준비자 집단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창업준비자와 니트 집단의 경우 다른 하위집단들에 비해 군복무가 미치는 영향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니트의 경우 진로 및 목표설정이 평균보다 0.9점, 직업선택 및 결정에서도 0.8점, 군복무 완료에 따른 취업가능성은 0.3점, 사회관계 및 사회생활적응도 0.3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졸업 후 경험이 현재 하위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고교 졸업 후 경험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상태, 즉 하위집단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모델은 앞서 <표 VI-20>과 <표 VI-21>의 고교 재학 중 경험의 영향요인 분석에서와 같이, 종속변수를 하위집단을 3개 집단(경제활동자, 준비자, 니트)으로 나누어 설정한 모델 <표 VI-31>과 하위집단을 6개 집단(취업자, 구직자,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창업준비자, 니트)으로 나누어 설정한 모델 <표 VI-32>,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자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한 <표 VI-31>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출신고교 유형, 대학 비진학 사유, 그리고 고교 졸업 후 경험으로서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의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자집단에 속하기 보다는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이들이 니트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자는 준비자나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이 같은 결과는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중에서 고교 졸업 후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표 VI-20>에서와 같이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거나 가정형편의 이유로 비진학한 경우는 경제활동집단보다 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으며,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았거나 고교 졸업 후에 대해 생각 또는 계획이 없었던 이들은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교 졸업 후 경험으로서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의 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집단에 속할 가능성보다 준비자 또는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일자리의 경험이 많은 이들이 현재 경제활동 상태에 있을 가능성 또한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I-31 졸업 후 경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I : Multinomial Logit Analysis

구분	변수	준비자/경활자	니트/경활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특성	성별(남성)	0.16(0.19)	-0.36(0.30)
	연령	0.02(0.05)	0.22(0.07)**
출신 고교특성	출신고교 유형(특성화계)	-1.31(0.18)***	-0.74(0.25)**
	출신고교소재지(서울 및 수도권)	0.25(0.15)	0.22(0.22)
부모 및 가족특성	사회보호대상자(대상자)	-0.36(0.29)	-0.57(0.43)
	월평균 부모소득(로그)	0.13(0.08)	-0.10(0.09)
대학 비진학 사유	돈벌고 싶어서	-1.01(0.22)***	-0.30(0.37)
	가정형편	-1.08(0.29)***	0.03(0.40)
	대학 비희망	-0.01(0.32)	1.37(0.40)**
	졸업 후 계획 없음 및 기타	0.21(0.35)	1.43(0.44)**
고교 졸업 후 경험	군입대 유무 (군복무 완료)	-0.04(0.26)	-0.58(0.46)
	대학중퇴유무 (대학중퇴)	-0.06(0.21)	0.51(0.35)
	졸업 후 일자리 수	-0.22(0.03)***	-0.33(0.06)***
상수		-0.14(1.21)	-4.71(1.62)**
N		983	
LR chi2		288.35***	
Pseudo R2		0.15	
Log likelihood		-806.79	

*** p<.001, ** p<.01, * p<.05

이와 같은 고교 졸업 후 경험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 VI-32>에서는 6개 하위집단을 종속변수로, 구직자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VI-31>에서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정(+)¹⁾의 영향을 미쳤던 연령은 하위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을 보였는데, 진학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는 부(-)의 영향을 취업준비자와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는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측면에서만 본다면, 취업준비자와 니트 집단의 구성원들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표 VI-31>에서 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출신고교 유형변수는 특성화계 졸업자의 경우 진학, 취업, 창업준비자 집단뿐만 아니라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특성화고 졸업자가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전체 집단에서 가장 적극적인 경제활동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표 VI-31>의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던 월평균 부모소득은 진학준비자 집단이 될 가능성에 정(+)³⁾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구직자 집단의 부모소득이 진학준비자 집단보다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비진학 사유의 영향은 하위집단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돈을 벌고 싶어 비진학한 경우는 구직자 보다 진학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가정형편의 사유로 비진학한 경우는 진학준비자 집단과 취업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는 진학준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낮지만, 창업준비자나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집단을 종속변수로 한 <표 VI-31>의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던 대학 진학 및 중퇴여부의 변수의 경우, <표 VI-32>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대학 진학 및 중퇴자의 경우 취업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 진학을 시도하고 중퇴한 이들이 바로 취업을 선택하거나 취업상태에 놓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진학준비, 취업준비자,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직자들이 준비자나 니트 집단에 비해 고교 졸업 후 상대적으로 많은 일을 경험한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동시에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니트청소년의 고교 졸업 후 일자리 경험이 구직자에 비해 적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I-32 졸업 후 경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II: Multinomial Logit Analysis

구분	변수	취업자/구직자	진학준비자/구직자	취업준비자/구직자	창업준비자/구직자	니트/구직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특성	성별(남성)	-0.08 (0.26)	0.04 (0.29)	0.12 (0.29)	0.21 (0.39)	-0.40 (0.33)
	연령	-0.04 (0.06)	-0.28 (0.08)**	0.17 (0.07)*	0.04 (0.10)	0.19 (0.07)*
출신 고교 특성	출신고교 유형 (특성화계)	-0.18 (0.20)	-2.43 (0.40)***	-1.17 (0.24)***	-0.69 (0.32)*	-0.82 (0.26)**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 및 수도권)	-0.27 (0.19)	0.18 (0.24)	0.17 (0.22)	0.09 (0.30)	0.08 (0.25)
부모 및 가족 특성	사회보호 대상자 (대상자)	0.24 (0.31)	-0.05 (0.52)	-0.42 (0.41)	0.25 (0.49)	-0.43 (0.46)
	월평균 부모소득 (로그)	0.04 (0.08)	0.76 (0.17)***	-0.04 (0.09)	0.14 (0.15)	-0.06 (0.10)
대학 비진 학사 유	돈벌고 싶어서	-0.18 (0.27)	-4.37 (1.03)***	-0.37 (0.31)	0.11 (0.45)	-0.45 (0.39)
	가정형편	-0.41 (0.33)	-2.49 (0.66)***	-0.70 (0.38)*	-0.32 (0.59)	-0.20 (0.43)
	대학비희망	-0.68 (0.44)	-2.10 (0.69)**	0.17 (0.42)	1.08 (0.53)*	0.95 (0.44)*
	계획없음 및 기타	0.40 (0.54)	0.38 (0.56)	0.57 (0.58)	1.26 (0.74)	1.66 (0.57)**
고교 졸업 후 경험	군입대 유무 (군복무 완료)	0.19 (0.33)	0.74 (0.40)	-0.10 (0.37)	-0.31 (0.52)	-0.46 (0.49)
	대학중퇴유무 (대학중퇴)	-0.68 (0.30)*	-0.19 (0.31)	-0.38 (0.32)	0.11 (0.47)	0.15 (0.38)
	졸업 후 일자리 수	-0.01 (0.03)	-0.39 (0.06)***	-0.21 (0.05)***	-0.01 (0.05)	-0.34 (0.06)***
상수		1.26 (1.51)	3.43 (2.02)	-2.61 (1.66)	-3.13 (2.37)	-3.14 (1.80)
N		983				
LR chi2		564.94***				
Pseudo R2		0.16				
Log likelihood		-1396.25				

*** p<.001, ** p<.01, * p<.05

제 7 장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생활 및 의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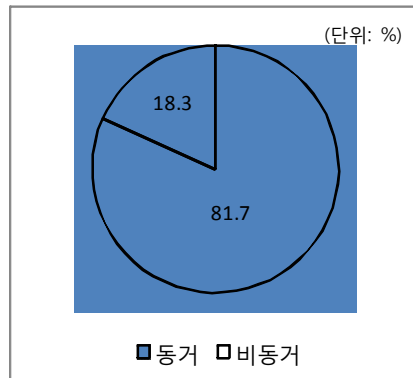
1. 일상생활 환경 특성
2.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및 행태
3. 일상생활에서의 의식 실태 및
향후 계획

제 7 장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생활 및 의식 실태*

1. 일상생활 환경 특성

1) 거주환경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현재 어떠한 거주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림 V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81.7%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18.3%가 비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I-1】 부모와 동거 여부

<표 VII-1>과 같이 하위집단별로 부모와 동거여부를 비교하여 보면, 부모와 동거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진학준비자로 90.0%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니트 집단에서 부모와 동거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 비동거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창업준비자(24.6%)이다.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표 VII-1 고졸 비진학자의 부모와 동거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동거	비동거	x ² -test
전체		983 (100.0)	803 (81.7)	180 (18.3)	
하위집단	취업자	219	77.2	22.8	18.6**
	구직자	221	77.4	22.6	
	진학준비자	220	90.0	10.0	
	취업준비자	155	85.2	14.8	
	창업준비자	57	75.4	24.6	
	니트	111	81.1	18.9	

<표 VII-2>에서는 전체 중 18.3%를 차지하는 부모 비동거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주거형태를 살펴보았다. 비동거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인 51.7%가 월세 자취 생활을 하고 있고, 11.1%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 부모와 비동거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거형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월세 자취	회사 기숙사 등	하숙	고시원	전세 자취	아는 사람 (선배, 친구) 집	자가 (본인, 부모님 명의)	정해진 거처 없음	x ² - test
전체		180 (100.0)	93 (51.7)	20 (11.1)	2 (1.1)	14 (7.8)	17 (9.4)	18 (10.0)	15 (8.3)	1 (0.6)	
성별	남성	67	49.3	20.9	1.5	11.9	0.0	10.4	4.5	1.5	25.5**
	여성	113	53.1	5.3	0.9	5.3	15.1	9.7	10.6	0.0	
하위 집단	취업자	50	48.0	22.0	0.0	14.0	6.0	4.0	4.0	2.0	69.6***
	구직자	50	62.0	6.0	0.0	4.0	4.0	14.0	10.0	0.0	
	진학준비자	22	40.9	18.2	4.5	4.6	9.1	18.2	4.5	0.0	
	취업준비자	23	47.9	8.7	0.0	13.0	8.7	13.0	8.7	0.0	
	창업준비자	14	71.5	0.0	7.1	7.1	0.0	14.3	0.0	0.0	
	니트	21	38.1	0.0	0.0	0.0	38.1	0.0	23.8	0.0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전체 분포와 같이 월세자취(49.3%)와 기숙사(20.9%)의 비중이 높고, 여성은 월세자취(53.1%)와 전세자취(15.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숙사가 제공되는 생산직 근로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위집단별로 살펴봐도 전반적으로 월세자취의 비중이 높는데, 특히 구직자(62.0%)와 창업준비자(71.5%)의 경우 부모 비동거자의 50%가 넘는 인원이 월세자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전체 수준에서는 그 수가 많지 않기는 하나, 다른 하위집단에 비해 취업자와 취업준비자의 경우 고시원 거주자가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³⁰⁾.

심층면접에 참여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중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3명 있었으며, 이들 모두 지방에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지방에서 이주한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거주지가 고시원이 되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수록 청소년들은 고시원의 장기투숙자가 되고 있음을 심층면접을 통해 발견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한 명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화재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채 같은 고시원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사에 머물면서 그 옆에 바로 독서실 다니고 있어요. (학사는) 고시원 같은 건데 밥 주고 관리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80. 밥 먹는 거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주고”(청소년C3)

“친척이 있긴 한데 혼자 있는 것이 편해서 고시원에서.”(청소년C4)

“검색하다가, 처음에 하숙을 생각했는데 여러 번 알아보니까 고시원이 낫겠더라고요. 고시원에서 화재 사고를 직접 겪어서,...그 정도 시설에 그 정도 가격은 못 봐서,...38만원. 보증금은 따로 없고...그만한 가격에 구하기 쉽지 않고, 제가 그런 것은 빨리 잊는 편이라서.”(청소년C8)

<표 VII-3>에서는 주거형태별 월평균 주거비용을 살펴보았다. 보증금을 제외한 월평균 주거비용은 전체 평균 35.4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월세자취로 평균 42.6만원, 고시원 29.6만원, 전세자취 27.9만원, 기숙사 21.5만원,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의 집에 거처할 경우 평균 20.8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부모와 비동거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출신교의 소재지에 따른 주거형태를 비교해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표 VII-2>에 제시하지는 않았다.

표 VII-3 부모와 비동거자 주거형태별 월평균 주거비용(보증금 외)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주)}	10만원 미만	10~ 20만원 미만	20~ 30만원 미만	30~ 40만원 미만	40~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GLM -test
전체	162 (100.0)	18 (10.0)	18 (11.3)	27 (16.9)	37 (23.1)	25 (15.6)	37 (23.1)	35.4 (28.1)	
주 거 형 태	월세자취	92	1.1	6.5	18.5	22.8	20.7	30.4	4.5**
	기숙사 (회사 등)	19	47.4	10.5	10.5	5.3	5.3	21.0	
	하숙	2	0.0	0.0	50.0	0.0	0.0	50.0	
	고시원	14	0.0	7.1	28.6	57.2	7.1	0.0	
	전세자취	17	0.0	47.1	11.8	17.6	17.6	5.9	
	아는 사람 (선배, 친구) 집	18	37.5	6.2	6.2	25.0	6.3	18.8	

주) 월세자취와 기숙사 비용에서 각각 1개의 결측치가 있음.

<표 VII-4>에서는 이와 같은 월소요 주거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 즉 주거비 조달 방법을 살펴보았다. 전체의 56.8%가 본인 근로를 통해 주거비를 조달하고 있고, 특히 월세 자취의 경우 64.5%가 본인 근로를 통해 주거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근로 이외에는 부모님 지원(26.7%)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취업자(80.0%)와 구직자(76.3%), 창업준비자(83.3%)는 본인 근로로 주거비를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학준비자(82.3%)와 취업준비자(55.6%)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

비동거자 주거형태 및 하위집단별 주거비 조달방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주)}	부모님 지원	본인의 근로	은행 대출	친척에 빌림	시금융 또는 대부업체 대출	장학금	기타	x ² - test
전체		146 (100.0)	39 (26.7)	83 (56.8)	2 (1.4)	1 (0.7)	5 (3.4)	1 (0.7)	15 (10.3)	
주거 형태	월세자취	93	23.6	64.5	1.1	1.1	4.3	0.0	5.4	53.7***
	기숙사 (회사 등)	20	30.0	55.0	0.0	0.0	5.0	5.0	5.0	
	하숙	2	50.0	50.0	0.0	0.0	0.0	0.0	0.0	
	고시원	14	42.9	57.1	0.0	0.0	0.0	0.0	0.0	
	전세자취	17	23.5	17.7	5.9	0.0	0.0	0.0	52.9	
하위 집단	취업자	45	15.6	80.0	2.2	0.0	0.0	0.0	2.2	141.7***
	구직자	38	10.6	76.3	2.6	0.0	7.9	0.0	2.6	
	진학준비자	17	82.3	5.9	0.0	0.0	5.9	5.9	0.0	
	취업준비자	18	55.6	33.3	0.0	0.0	0.0	0.0	11.1	
	창업준비자	12	16.7	83.3	0.0	0.0	0.0	0.0	0.0	
	니트	16	12.5	6.3	0.0	6.2	6.2	0.0	68.7	

주) 친인척 등 아는 사람(선배, 친구) 집, 자가, 정해진 거처 없음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주거비 조달방법을 질문하지 않음.

2) 부모 및 가족관계 특성

(1) 부모의 생존 여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환경특성으로서 거주환경을 살펴본 후 가정환경으로서 부모 및 가족관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표 VII-5>에서는 부모의 생존여부와 유형을 살펴보았다. 부모 모두 생존해 계신 경우는 전체의 79.1%이고, 부모 중 한 분만 생존해 계시는 경우는 전체의 20.1%로 나타났다. 어머니만 계시는 모자가정의 경우 13.4%, 아버지만 계시는 부자가정의 경우 6.7%를 차지한다.

표 VII-5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부모 생존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두분 모두 계심	아버지만 계심	어머니만 계심	두분 모두 안계심	χ^2 -test
전체		983 (100.0)	777 (79.1)	66 (6.7)	132 (13.4)	8 (0.8)	
하위집단	취업자	219	73.1	10.0	15.5	1.4	41.4***
	구직자	221	71.9	10.4	17.2	0.5	
	진학준비자	220	91.4	1.8	6.8	0.0	
	취업준비자	155	79.4	6.4	12.3	1.9	
	창업준비자	57	77.2	5.3	17.5	0.0	
	니트	111	81.1	3.6	14.4	0.9	
부모 경제활동	맞벌이	510	65.6	-			1287.9***
	홀벌이	416	31.9				
	모두 일안함	49	2.5				
	해당사항없음	8	-				

한부모 가정의 비율을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취업자(25.5%)와 구직자(27.6%), 창업준비자(22.8%) 집단에서 한부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의 경제활동유형을 살펴본 결과 절반이 넘는 65.6%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31.9%가 홀벌이,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2.5%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43.5%이며,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40대 52.1%, 50대 49.8%(통계청, 2012.12.26)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본 조사에서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부모 맞벌이 비율은 40대 가구주와 50대 가구주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의 생존여부에 이어 <표 VII-6>에서는 부모님의 이혼·별거·사별 경험 여부를 살펴보았다. 전체의 36.8%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집단별로 이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자(47.7%)와 구직자(48.6%), 창업준비자(45.6%)에서 부모의 이혼·별거·사별의 경험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진학준비자 집단에서의 경험 비율은 13.6%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x ² -test
전체		975 (100.0)	359 (36.8)	616 (63.2)	
하위집단별	취업자	213	47.7	52.3	77.1***
	구직자	220	48.6	51.4	
	진학준비자	220	13.6	86.4	
	취업준비자	152	36.2	63.8	
	창업준비자	57	45.6	54.4	
	니트	110	34.5	65.5	

이와 같은 부모님의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었던 유년기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 기억과 경험이 청소년의 현재 행위와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응집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음을 심층면접에서 포착하였다.

“...원래 엄마랑 같이 안 살아서 할머니가 ...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요. 어머니니까... 엄마도 일 하고 있어서 쉴 때 한 달에 두세 번 만나요....(엄마하고 떨어져 산 건)유치원. 엄마와 연락 된 것은 고등학교 와서부터.”(청소년C5)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이혼 위기가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편하겠다. 세상에 아무도 못 믿는다, 가족이라도 못 믿는다고 생각해요. 가족도 사람이고 언니라도 저 잘 되기보다 자기 잘 되는 것을 우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는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일찍 알아서 왜 엄마, 아빠 배려해 주면서 살아야 하는지. (중략) ... (어린 나에게 힘이) 너무 없었지요. 너무 끔찍했어요.”(청소년D3)

부모님의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고졸 비진학자 집단에 많고 대체로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현장전문가들은 부모 및 가정이라는 일차적인 환경의 문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며, 그 동안 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범위는 더 확대되어 왔는데, 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시기에 성장한 세대로서, 성장기 내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가난한 경우 일수록 부모님 맞벌이 하는 경우 높고 편모 편부가 많다 보니까 학교 방과 후에 케어가 전혀 안 됩니다. (중략) 케어 받는 친구들은 학원이 아니더라도 뭔가 부모님 울타리 내에서 있는 거 같고요. 거기서 (청소년들이) 좀 갈리지 않나 싶네요.”(현장전문가A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에 보면 아시다시피 가정이 해체 되어 있다든지, 부모가 있긴 있더라도 굉장히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있긴 있더라도 폭력이나 알코올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 되어 있어서...(중략) 실제로 그런 것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데이터를 본 게 아니라서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에 고등학교 들어 온 애들이 IMF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IMF 직후에 태어난 애들인데 그 때 초기 가정을 형성한 부모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고3 올 때까지 평생 못 살았던 집의 아이들이 많대요. 교사 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격차가 심해져서... 서울에도 예를 들면 난지 캠핑장 가서 애들끼리 자고 아침에 공중 화장실 가서 씻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제법 된대요. 그럴 정도로 문서상에는 부모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 하는 부모 역할을 해 주지 못 하는 가정들이 제법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부모가 2/3 이상 되는 걸로 파악 하고 있거든요.”(현장전문가D4)

(2)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①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생존여부에 이어 여기에서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표 VII-7> 및 <표 VII-8>과 같이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았다. 부모 모두 고졸 학력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아버지의 경우 46.5%가 고졸이고, 어머니의 경우 60.4%가 고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진학준비자 집단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취업자나 구직자, 그리고 니트 집단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학력만을 비교해보면, 아버지 학력의 경우 진학준비자 집단에서는 42.0%가 이에 해당하나, 취업자(15.4%)나 구직자(18.7%)는 진학준비자 집단 비율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경우는 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학준비자 집단의 대졸 학력 어머니의 비율이 28.7%이나, 취업자(8.8%)나 구직자(6.6%), 니트(5.7%) 집단에서는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 고졸 비진학 청소년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아버지의 교육수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초등 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전문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x ² - test
전체		843 (100.0)	78 (9.3)	115 (13.6)	392 (46.5)	28 (3.4)	196 (23.3)	33 (3.9)	
하위집단	취업자	182	9.9	13.7	53.9	4.9	15.4	2.2	99.5***
	구직자	182	12.6	14.8	50.0	1.1	18.7	2.8	
	진학준비자	205	2.9	7.8	35.6	4.9	42.0	6.8	
	취업준비자	133	12.0	16.5	42.1	2.3	21.8	5.3	
	창업준비자	47	4.3	8.5	55.3	6.4	23.4	2.1	
	니트	94	13.8	22.4	51.1	2.1	8.5	2.1	

표 VII-8 고졸 비진학 청소년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어머니의 교육수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초등 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전문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x ² -test
전체		909 (100.0)	75 (8.2)	115 (12.7)	549 (60.4)	32 (3.5)	125 (13.8)	13 (1.4)	
하위 집단	취업자	194	9.3	13.4	64.4	4.1	8.8	0.0	103.8***
	구직자	197	8.6	11.7	68.5	3.6	6.6	1.0	
	진학준비자	216	3.7	7.4	52.3	5.1	28.7	2.8	
	취업준비자	142	10.6	11.3	59.8	3.5	13.4	1.4	
	창업준비자	54	9.3	7.4	64.8	1.8	14.8	1.9	
	니트	106	11.3	28.3	52.8	0.0	5.7	1.9	

② 부모의 경제활동

부모의 교육수준에 이어 직업지위를 가늠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종사상지위와 직종을 살펴보았다. <표 VII-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아버지의 51.4%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진학준비자 집단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67.3%를 보였고, 취업자와 구직자 집단에서는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각각 7.3%, 6.9%로 전체 평균 5.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창업준비자 집단에서 아버지의 종사상지위가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의

비율(17.1%)이 다른 하위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졸 비진학자의 현재 상태를 결정하는데 있어 아버지의 경제활동 유형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II-9 고졸 비진학 청소년 부모의 경제활동: 아버지의 종사상지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직 임금 근로자	일용직 임금 근로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무급 가족 종사자	χ^2 -test
전체		762 (100.0)	392 (51.4)	38 (5.0)	95 (12.5)	146 (19.2)	84 (11.0)	7 (0.9)	
하위 집단	취업자	165	46.1	7.3	13.9	20.6	10.9	1.2	66.6***
	구직자	158	48.1	6.9	15.2	19.0	9.5	1.3	
	진학 준비자	196	67.3	2.6	0.5	15.8	13.8	0.0	
	취업 준비자	115	44.4	2.6	19.1	21.8	10.4	1.7	
	창업 준비자	41	36.6	2.4	19.5	22.0	17.1	2.4	
	니트	87	48.3	6.9	19.5	19.5	5.8	0.0	

<표 VII-10>에서는 종사상지위에 이어 아버지가 종사하는 일의 직종을 살펴보았다. 전체 수준에서는 단순노무직에 종사 비율이 21.2%로 가장 높고,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의 비율이 13.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2.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순노무직은 니트 집단에서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자(26.1%), 구직자(24.7%), 취업준비자(23.5%)에서도 20%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관리자 직종은 진학준비자 집단에서 1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업준비자(12.2%) 집단에서도 낮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진학준비자 집단이 다른 집단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직종은 사무직인데, 진학준비자 집단에서 25.5% 비율을 보이는 반면, 다른 하위집단은 2~3% 대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진학준비자 집단에 화이트컬러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전체 집단에서 사회계층별로 보았을 때, 진학준비자 집단이 가장 이질성이 높은 집단임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II-10

고졸 비진학 청소년 부모의 경제활동: 아버지의 종사 직종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x ² - test
전체		762 (100.0)	92 (12.1)	55 (7.2)	71 (9.3)	77 (10.1)	73 (9.6)	27 (3.5)	105 (13.8)	98 (12.9)	162 (21.2)	2 (0.3)	
하위 집단	취업자	165	12.7	3.6	2.4	10.3	10.9	2.4	16.4	14.6	26.1	0.6	170.6 ***
	구직자	158	12.7	6.3	3.2	8.9	6.3	5.7	16.4	15.8	24.7	0.0	
	진학 준비자	196	14.3	13.8	25.5	11.2	9.7	1.0	6.6	9.2	8.2	0.5	
	취업 준비자	115	11.3	5.2	8.7	10.4	12.2	2.6	17.4	8.7	23.5	0.0	
	창업 준비자	41	12.2	0.0	2.4	17.1	12.2	12.2	17.1	9.7	17.1	0.0	
	니트	87	5.8	6.9	1.1	5.8	8.0	4.6	13.8	19.5	34.5	0.0	

③ 부모가구의 소득

아버지의 직업지위에 이어 부모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을 <표 VII-11>과 같이 살펴보았다. 전체 부모가구 평균 월소득은 330.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인 423.3만원보다 적으나, 전국 가구의 중위소득(331.9만원)과 고졸학력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331.1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다³¹⁾.

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하위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자 집단(282.1만원) 과 구직자 집단(299.9만원), 취업준비자(280.2만원), 니트 집단(272.0만원)의 경우 부모가구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낮는데, 그 중에서도 니트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2개의 준비자 집단의 경우 모두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학준비자 집단의 평균 부모가구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월평균 476만원이다.

31) 통계청(2012.12.21), 가계금융과 복지조사 통계결과 중 '7. 가구 특성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정리표 수록 내용(통계 DB 검색일 2013.10.13)

표 VIII-11 고졸 비진학 청소년 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

(단위 :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100 만원 미만	100~ 200 만원 미만	200~ 300 만원 미만	300~ 350 만원 미만	350~ 400 만원 미만	400~ 450 만원 미만	450~ 500 만원 미만	500~ 600 만원 미만	600~ 700 만원 미만	700 만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GLM- test
전체		975 (100.0)	74 (7.6)	224 (23.0)	196 (20.1)	128 (13.1)	39 (4.0)	80 (8.2)	22 (2.2)	110 (11.3)	33 (3.4)	69 (7.1)	330.3 (355.3)	
하위 집단	취업자	216	6.5	28.7	22.7	13.4	6.5	4.6	1.4	6.9	4.2	5.1	282.1 (202.6)	10.2***
	구직자	220	11.4	27.3	22.3	15.0	3.2	7.7	1.8	5.9	0.9	4.5	299.9 (489.8)	
	진학 준비자	220	1.4	10.4	11.4	7.7	4.1	13.6	5.9	22.3	7.3	15.9	476.0 (396.3)	
	취업 준비자	152	9.2	23.7	23.7	13.8	3.9	9.9	0.0	8.6	2.6	4.6	280.2 (192.6)	
	창업 준비자	57	8.8	21.0	21.0	22.8	0.0	3.5	0.0	15.8	1.8	5.3	314.2 (295.8)	
	니트	110	11.8	28.2	22.7	13.7	2.7	5.5	1.8	10.0	0.9	2.7	272.0 (311.2)	

(3)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적 특성

① 부모의 관여수준

앞서 살펴본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이어 고졸 비진학 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표 VII-12>에서는 청소년의 ①거주형태, ②사생활, ③진로선택, ④직업선택, ⑤금전관리의 각 5개의 항목, 5점 척도로 측정한 부모의 관여 수준을 살펴보았다.

각 항목별 전체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사생활 관리 2.7점, 금전관리 2.8점으로 보통 수준 이하로 관여하며, 거주형태와 진로선택은 각각 3.2점, 직업선택은 3.1점으로 보통수준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집단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자 집단에서의 부모관여도는 5개 항목 모두에서 평균보다 낮았으며, 구직자 집단의 경우 직업선택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는 달리 진학준비자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보다 높은 부모관여도를 보였는데, 특히 진로선택(3.8점), 거주형태(3.6점), 직업선택(3.4점)에서 부모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자의 경우 대체로 평균 수준보다 다소 낮은 부모관여도를 보였으나, 단 진로선택에 있어서는 3.8점으로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준비자나 니트 집단은 5개 항목에서 대체로 평균 수준을 보였다.

표 VII-1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적 특성: 부모의 관여수준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거주형태	사생활관여	진로선택	직업선택	금전관리
전체	975 (100.0)	3.2 (1.1)	2.7 (1.0)	3.2 (1.0)	3.1 (1.0)	2.8 (1.1)
하위 집단	취업자	216 (1.1)	2.7 (1.0)	3.0 (1.0)	2.9 (1.0)	2.7 (1.1)
	구직자	220 (1.1)	2.6 (1.0)	3.0 (1.1)	3.1 (1.1)	2.9 (1.1)
	진학 준비자	220 (1.0)	3.0 (1.0)	3.8 (0.8)	3.4 (0.9)	3.0 (1.0)
	취업 준비자	152 (1.0)	2.7 (1.0)	3.4 (0.9)	3.3 (0.9)	2.9 (1.0)
	창업 준비자	57 (1.0)	2.8 (1.0)	3.0 (1.0)	3.1 (0.9)	3.0 (1.0)
	니트	110 (1.2)	2.6 (1.0)	3.1 (0.9)	3.0 (0.9)	2.7 (1.0)

거주형태를 제외하고 부모의 관여도가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진로선택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진로선택에 대해 부모의 관여도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여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의 경우, 아예 방치하거나 자녀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한다는 명분하에 청소년 자녀에게 자기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강제된 자기결정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부하는 거나 진로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조언해주는) 그런 건 없었고, 너 생각 있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 드리면 그 쪽으로 계속, 그래 뭐, 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청소년C1)

“방치하신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지냈어요. (중략)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엄마 아빠랑 말을 잘 하는 편이에요...진로는 선생님하고만 하고 부모님하고는 일상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중략) (진로는) 그런건 친구들하고.. 그리고 학원 선생님..”(청소년C2)

“부모님하고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냥. 뭐 되면 좋을까 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엄마는 나는 뭘 하고 싶다 하면 그거 들어주시고 ... 엄마 아빠는 생각보다 공부의 그런 게 없었어요. 연고라고 해야 하나, ...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시고,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제가 더 많이 아는.”(청소년C3)

“(부모님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믿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오히려. 뭐라고 해 주셨으면 하는데... 딱히 안 하시니까.”(청소년B1)

“...그런 거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둘 다 바쁘셔서 신경 못 써 주셨어요.”(청소년D2)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는 것을 다 하라고, 네 선택이고 네가 하는 거니까 하라고 하고.”(청소년C6)

“(엄마, 아빠하고) 진로 때문에 얘기한 적 있는데. 딱히 돈은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터치 안 하는 편이었어요.”(청소년A2)

이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기결정이 강제되는 것에 더하여 대학 진학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기주도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진로 선택을 하도록 요구받기도 한다. 이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강요된 자기결정 상태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기주도성은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즉 복합적 층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 창의성을 중시하고, 자기주도성 말은 무성하지만, 실제 다수의 아이들은 내몰린다는 거죠.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엄마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 (중략) 그냥 좋은 학교 가야 해,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일단 시험은 잘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 잘 본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님데 그래도 확률은 높잖아요, 하는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애들을) 밀어붙

이기 하고 있다는 거죠. …(중략) 중요한 건 애의 지향인데, 주변에 휩쓸리는 경우마저 보이더라고
요. 그게 아주 심각한, 청소년들의 자기 정체성 갭이랄까, 세칭 초일류 상위층인데도 자기중심성이
허약해요.”(현장전문가C1)

진학 준비자들이 자기주도성을 갖지 못하는 데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입시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특히 대학입시 전문 학원에서 생활하는 진학준비자
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자기주도성은 크게 허용되지 않는 환경 하에 놓여 있다.

“... 거기가 엄청 빠센 데예요. 쉬는 시간에 말도 못하게 하고, 말을 하면 벌점이에요. 화장실에서도
말 못하게 하고, 말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 사감이라고 있어요. 복도마다, 되게 엄청
강압적이에요, 00학원이 여러군데 있는데... 근데 거기가 엄청 빠세대요.”(청소년C3)

② 부모의 경제적 지원 및 자립 기대수준

<표 VII-13>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부모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가를 살펴보았다.

표 VII-13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적 특성: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 일체	진학·취업· 창업 등 비용만	용돈만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음	기타	x ² -test
전체		975 (100.0)	167 (17.1)	144 (14.8)	309 (31.7)	338 (34.7)	17 (1.7)	
하위 집단	취업자	216	5.1	10.2	21.7	61.6	1.4	250.2***
	구직자	220	7.3	13.2	36.3	39.1	4.1	
	진학준비자	220	40.0	25.9	26.8	6.8	0.5	
	취업준비자	152	17.1	11.8	42.1	27.0	2.0	
	창업준비자	57	12.3	10.5	31.6	43.9	1.7	
	니트	110	17.3	10.9	37.3	34.5	0.0	

전체적으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용돈만 기대한다는 응답도 31.7%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대 수준은 하위집단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자의 경우 61.6%가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구직자는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9.1%, 36.3%는 용돈만 지원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준비자의 경우 40.0%가 용돈을 포함한 일체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길 바라며, 취업준비자의 경우 용돈만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답한 비율이 42.1%이다. 창업준비자의 43.9%는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고, 31.6%는 용돈만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니트의 경우 용돈만 지원을 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37.3%,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34.5%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는 니트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하더라도 청소년 스스로가 자립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심층면접에서 발견되었다. 심층면접의 한 참가자의 경우, 대학 학비를 어머니가 준비해 주었지만, 자신은 국가장학금 신청 등 스스로가 학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어머니가 절약해서 대학 학비를 열심히 모아 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장학금을 신청해 볼 생각이요. 국가 장학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는 다 지원금을 보려고요.”(청소년D3)

이와는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자립을 도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희망하여 마치 켄거루족과 같은 삶을 희망하는 니트청소년의 사례도 다음과 같이 포착되었다.

“내가 조급하지 않은 것이 엄마, 아빠와 같이 살고 있고 집 안에만 있으면 먹을 것도 다 있고 핸드폰도 엄마가 아직 돈 내 주시거든요. 그것도 그렇고...나이가 지나니까 친구들도 졸업하고 일 하잖아요. 나도 이려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중략) (부모님으로부터 자립해야겠다는 생각은)아직은. 제 친구는 저에게 부럽다고. 그 친구는 이것저것 자기가 해야하고 생활비도 자기가 써야 하는데...(중략) 엄마가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뭐라도 배워 볼래... 많이 노력하셨는데 제가 다 안되니까. 요즘은 한번씩 자격증 배워 볼래 라고 하시는데...달달하지는 않아요. ...(중략) (30살 넘고 40살 넘어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은데요.”(청소년D1)

이와 같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대수준과 부모들이 요구하는 청소년의 자립수준이 일치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VII-14>에서는 부모가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자립수준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자립도 기대하지 않는다가 3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 일체(27.4%), 용돈만(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 살펴봐도 취업자(49.1%), 구직자(32.7%), 진학준비자(37.3%), 취업준비자(32.9%) 모두 어떠한 자립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 일체 수준의 자립기대를 하는 비율은 창업준비자 집단에서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준비 비용만이라도 자립하기를 기대하는 비율은 진학준비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용돈만이라도 자립하기를 기대하는 비율은 취업준비자(25.0%)와 니트(24.6%)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VII-14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적 특성: 부모가 기대하는 경제적 자립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 일체	진학·취업·창업 등 비용만	용돈만	어떠한 자립도 기대하지 않음	기타	x ² -test
전체		975 (100.0)	267 (27.4)	117 (12.0)	208 (21.3)	363 (37.2)	20 (2.1)	
하위 집단	취업자	216	25.5	9.7	14.8	49.1	0.9	57.0***
	구직자	220	31.8	8.2	22.7	32.7	4.6	
	진학준비자	220	19.5	20.9	21.8	37.3	0.5	
	취업준비자	152	28.9	11.2	25.0	32.9	2.0	
	창업준비자	57	35.1	8.8	22.8	31.6	1.7	
	니트	110	31.8	9.1	24.6	31.8	2.7	

③ 가족응집력

부모와의 관계에 이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가족응집력을 5가지 항목(①형제자매의 우애, ②가족간 대화, ③식구들보다 친구들이 따뜻하게 대해줌, ④가족과 함께 집에 있을 때 가장 마음 편하고 좋음, ⑤가족끼리 대화가 잘 통함)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표 VII-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수준에서 보면 다섯 가지 항목 중 형제자매의 우애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3.6점), 식구들보다 친구들이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문항은 가족응집력에 부정적인 문항으로 역산하여 계산한 결과 2.9점으로 식구들이 친구들보다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느끼는 것은 보통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 비교해보면, 진학준비자의 가족응집력이 전체 평균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제자매의 우애 항목은 3.9로 높았고, 가족과 함께 집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는 항목도 3.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니트의 경우 다른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가족응집력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나, 식구들보다 친구들이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문항에는 역산으로 계산한 결과 3.2점으로 친구들이 가족보다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5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적 특성: 가족응집력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형제자매 우애 ^{주1)}	가족간 대화	식구들보다 친구들이 따뜻하게 대해줌 ^{주2)}	가족과 함께 집에 있을 때 가장 마음 편하고 좋음	가족끼리 대화가 잘 통함
전체	983 (100.0)	3.6 (1.1)	3.1 (1.1)	2.9 (1.0)	3.3 (1.1)	3.1 (1.1)
하 위 집 단	취업자	219	3.5 (1.1)	2.9 (1.1)	3.2 (1.2)	3.1 (1.1)
	구직자	221	3.5 (1.0)	2.9 (1.0)	3.0 (1.1)	2.9 (1.0)
	진학준비자	220	3.9 (0.9)	3.5 (1.0)	2.8 (1.0)	3.7 (0.8)
	취업준비자	155	3.7 (1.0)	3.2 (1.2)	3.0 (1.0)	3.3 (1.1)
	창업준비자	57	3.6 (1.1)	3.2 (1.2)	2.8 (1.1)	3.4 (1.2)
	니트	111	3.2 (1.1)	2.8 (1.0)	3.2 (1.0)	3.1 (1.1)

주1) 형제자매의 응집력을 묻는 문항의 경우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가 있음. 전체 사례수는 875명이고 취업자 195명, 구직자 198명, 진학준비자 201명, 취업준비자 136명, 창업준비자 49명, 니트 96명

주2) 다른 문항들과 달리 가족에 부정적인 문항으로 역산으로 계산하였음.

앞서 부모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층면접에서는 현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응집력은 성장해온 기간 동안 누적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응집력의 강도가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청소년, 그리고 현재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준비자 집단에서 가족응집력이 약함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형하고 저는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 옛날에는 되게 좋았는데 형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잘 못 보냈어요. 어릴 때는 컴퓨터 폐인, 게임 중독자. 고등학교 와서는 친구 잘못 사귀어서 절도하고 저는 동생으로써, 형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싫었죠. 형도 아니라고 아빠 엄마한테 패륜적인 행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못 열겠어요.”(청소년C3)

“동생 있어요. 붙으면 싸웠어요. (가족끼리 활동을...) 돈 버느라고... 너무 공부만 하라고 하시니까. (부모님이) 집에 잘 없으신데요. 집에 오시면 그 때마다 그렇게 한 두 마디씩 하시고.”(청소년C4)

“(가족과 저녁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빠가 주말에 집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서 주말에 있으면 가끔 장 보고...엄마도 일 하고 있어서 설 때 한 달에 두 세 번 만나요. (동생과의 대화는) 제가 많이 걸어요. 사춘기라서 그런지 가족하고 얘기 잘 안 하려고 해요.”(청소년C5)

3) 사회적 지지

(1) 어려울 때 의지 정도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에 이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인적 환경, 즉 또래, 동료·상사, 온라인친구 등과 관련하여 이들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지지를 하고 있으며, 그 수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는 세 가지 항목(①어려울 때 의지정도, ②내 문제에 대한 타인의 경청수준, ③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인적 환경은 5집단(① 회사상사/동료, ②부모님(보호자), ③형제·자매, ④친구/선후배, ⑤SNS/온라인 동호회(카페)친구)로 구분하였다.

먼저 <표 VII-16>에서는 어려울 때 의지정도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5가지 인적 환경

집단 중 어려울 때 부모님(보호자)에 대한 의지 정도가 3.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선후배(3.5점), 형제·자매(3.3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 비교하면, 취업자, 구직자, 취업준비자 집단에서는 부모님(보호자)과 친구나 선후배에게 의지하는 정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진학준비자(4.0점)나 창업준비자(3.7점)의 경우 어려울 때 부모님(보호자)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SNS 활용도가 높은 세대이기 는 하나, 어려울 때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에게 의지하는 정도는 1.9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VII-16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 어려울 때 의지정도

(단위 : 점)

구분		회사상사/ 동료	부모님 (보호자)	형제·자매	친구/선후배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전체 ^{주)}		2.4 (1.0)	3.6 (1.1)	3.3 (1.1)	3.5 (1.0)	2.0 (1.0)
하위 집단	취업자	2.4 (1.0)	3.6 (1.2)	3.3 (1.2)	3.6 (0.9)	1.9 (1.0)
	구직자	2.4 (1.0)	3.4 (1.0)	3.2 (1.1)	3.4 (1.0)	2.1 (1.0)
	진학준비자	2.2 (1.1)	4.0 (0.8)	3.5 (1.0)	3.7 (0.8)	2.1 (1.0)
	취업준비자	2.4 (0.9)	3.5 (1.0)	3.2 (1.1)	3.4 (1.0)	2.0 (1.0)
	창업준비자	2.5 (1.2)	3.7 (1.1)	3.5 (1.1)	3.4 (1.1)	2.2 (1.0)
	니트	—	3.2 (1.1)	2.9 (1.1)	2.9 (1.0)	1.9 (1.0)

주) 회사상사/동료, 부모님(보호자), 형제·자매, 친구/선후배, SNS/온라인동호회(카페)친구 등 각각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는 제외하고 분석하여 각각의 사례수가 다르기 때문에 표에서 사례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하 다른 사회적 지지 항목도 동일한 이유로 사례수를 제시하지 않음.

(2) 내 문제에 대한 경청 수준

<표 VII-17>에서는 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타인의 경청 수준을 살펴보았다. 5가지 인적 환경 집단 중 어려울 때 부모님(보호자)의 경청 수준이 3.7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선후배가 3.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 비교하면, 취업자와

구직자 집단에서는 부모님(보호자)보다 친구나 선후배가 내 문제를 경청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학준비자, 창업준비자, 취업준비자 그리고 니트 집단에서는 부모님(보호자)이 친구나 선후배보다 내 문제를 더 잘 경청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학준비자와 창업준비자의 경우 형제·자매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취업자나 구직자 집단의 청소년들이 사회보호대상자의 비율이 높고, 그들의 부모가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으며 직업지위가 낮음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집단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부모나 가정으로부터의 일차적 사회적 지지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II-17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 내 문제에 대한 경청 수준

(단위 : 점)

구분		회사상사/동료	부모님 (보호자)	형제·자매	친구/선후배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전체		2.9 (1.0)	3.7 (1.1)	3.3 (1.1)	3.6 (0.9)	2.3 (1.1)
하위 집단	취업자	3.0 (1.0)	3.6 (1.1)	3.3 (1.1)	3.7 (1.0)	2.2 (1.1)
	구직자	2.9 (1.0)	3.4 (1.1)	3.2 (1.1)	3.6 (0.9)	2.3 (1.0)
	진학준비자	2.5 (1.1)	4.1 (0.8)	3.6 (1.0)	3.9 (0.8)	2.3 (1.1)
	취업준비자	2.9 (1.0)	3.6 (1.0)	3.2 (1.1)	3.5 (0.9)	2.3 (1.1)
	창업준비자	2.9 (0.9)	3.8 (1.1)	3.6 (1.0)	3.5 (1.1)	2.4 (0.9)
	니트	—	3.4 (1.1)	3.0 (1.1)	3.3 (0.9)	2.3 (1.1)

(3) 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

<표 VII-18>에서는 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앞서 어려울 때 의지하고 내 문제를 경청해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님(보호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 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인적 환경은 부모님(보호자)가 아닌 친구 또는 선후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보호자)는 3.3점이고, 친구/선후배는 3.6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앞선 두 개의 항목에서 진학준비자를 비롯하여 부모님(보호자)의 점수가 높았던 준비자 집단, 그리고 니트 집단에서도 친구/선후배의 점수가 부모님(보호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일차적인 대상이 또래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VII-18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 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

(단위 : 점)

구분		회사상사/ 동료	부모님 (보호자)	형제·자매	친구/선후배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전체		2.3 (1.1)	3.3 (1.1)	3.2 (1.2)	3.6 (1.1)	2.1 (1.1)
하위 집단	취업자	2.4 (1.1)	3.3 (1.1)	3.3 (1.2)	3.8 (1.0)	2.0 (1.1)
	구직자	2.4 (1.1)	3.1 (1.2)	3.1 (1.2)	3.5 (1.1)	2.1 (1.1)
	진학준비자	2.1 (1.1)	3.6 (0.9)	3.4 (1.0)	3.8 (1.0)	2.3 (1.2)
	취업준비자	2.4 (1.0)	3.2 (1.1)	3.1 (1.2)	3.4 (1.1)	2.0 (1.1)
	창업준비자	2.4 (1.1)	3.3 (1.2)	3.4 (1.3)	3.6 (1.3)	2.2 (0.9)
	니트	—	2.9 (1.2)	2.8 (1.3)	3.1 (1.2)	2.0 (1.1)

심층면접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청취할 수 있었다. 일을 하면서 만난 회사의 동료 또는 상사로부터 삶의 멘토와 같은 지지를 받는데, 이러한 경험은 현재 취업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회사 동료 또는 상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남자 청소년들의 사례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직장)에서는... 그 때 형들이 좋았거든요. 지금 2명하고 연락하고... 2년 지났는데 연락하고... 되게 멘토 같은 형 있어요. 힘들어 하면 와서(다독여주고).”(청소년A3)

“어디 돈 주고 상담하거나 테스트는 못 했고... 경험 많은 분하고 술도 많이 먹고 얘기 많이 했어요.”(청소년B1)

“저는 부모님도 힘들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대부분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알게 된 분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혼자 참고, ...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위로를 받으니까, 어느 정도 심적으로 안정이 돼요.”(청소년C6)

부모와 형제·자매로부터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받는 청소년들의 사례도 다음과 같이 발견되었다.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상담을 하는 건) 엄마였던 것 같아요.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아직도 친구처럼 지내고, ... 집안 교육 과정에서 어른들에게 하는 거나,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이 힘들 때 엄마가 한 마디 해주면 그게 굉장히 힘이 돼요.”(청소년A1)

“제가 재수할 때... 저희 형이 (제가 재수 하고 싶다고 했는데) 다 말렸어요. 저희 형은 딱히 대학 나와서, 연고대나 스카이 나온 사람은 모르겠는데 자기처럼 00대 나온 사람은 대학 나온 것이나 안 나온 것이나 메리트를 못 느끼겠다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젊을 때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 (중략)... (부모님이) 제가 재수 실패하고 나서 그 때 많이 말해 주셨어요. 그 때 형이 취직했는데 자기 전공하고 전혀 관련 없는 광고회사 잘 다니고 있으니까. ... (중략) 너희 형도 저렇게 관련 없는 곳에서 일 하는데 너라고 안 될 거 있냐고, 아직 어린데 왜 그러고 있냐고.”(청소년B1)

“제가 외동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일 힘을 주셨지요. 성공할 수 있다고, 잘 할 수 있다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어주시고.”(C8)

인터넷동호회 활동을 통해서도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심층면접에서는 인터넷 동호회와 협동조합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사회정서적 측면에서의 강한 지지를 받는 구체적 사례가 발견되었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사람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책이 되는 거잖아요. 조합원이 책이 돼요. ... (중략) 자기 삶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회를 나누는데... 다시 내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감사 하다 하는 거야. ... (중략) ... 지금 고정 사업 되어 있는 것 중에 ‘캔맥영화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조합원이 캔맥주 먹으면서 영화 보고 싶어요 했을 때 그래 그러자 해서 만든 게 캔맥 영화제 였어요. 거창 하지 않고 처음에는

있는 영화 틀다가... 조합원 중에 영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영화감독의 꿈을 접었어요. (그 사람) 집에 있는 안타까운 작품이 있어, 그걸 가지고 와서 상영했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 영화 상영을 하니) 거기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현장전문가C5)

회사동료나 상사, 부모 및 형제, 그리고 인터넷동호회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터놓으며 긍정적 지지를 받는 주된 대상은 친구라는 사실이 심층면접에서도 확인되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은) 동네친구 한 명. 그 친구는 동네 친구이니까 ... 학원 끝나는데 와서 카페에 들어서 내 하소연 들어주고 가라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주로) 친구들과 얘기하고.”(청소년C1)

“(친구들 만나서 내 고민도 얘기하고) 저는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라서, ... 모임도 자주 가고 제가 짜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는 것 같아요.”(청소년B1)

“(나를 지지해주는 것은) 친구 집단 같아요. 친구들이 많이 알아주고 인정해줘서.”(청소년C7)

한편, 니트청소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정도가 낮는데, 이는 심층면접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내가 고민이 되는 일이 있거나 하면 친구들과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얘기 안 해요. 들어주는 하는데 저는 얘기 안 해요. (친구들이 이해 못 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가족에게도 뭐 때문에 힘들어, 라고 안 하고 혼자.”(청소년D1)

2.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및 행태

1) 일상생활 시간 사용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환경 특성에 이어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일상생활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생활시간의 사용이다. 각 하위집단 별로 하루 생활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VII-1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II-19 고졸 비진학자의 생활시간 사용

(단위 : 명, 시간, %)

구분	사례수	수면	출퇴근 /이동 시간/ 집박 이동	근무 시간/아 르바이트	학원 수강/ 교육 훈련/개 인 공부	구직 활동	진학/취 업/창업 정보 수집	여가	집박 활동	집안 활동	기타
하 위 집 단	취업자 ^{주)}	219	7.0 (29.4)	1.2 (5.3)	8.4 (35.2)	1.8 (7.7)	-	4.5 (18.9)	-	-	0.7 (2.9)
	구직자	221	7.8 (32.8)	1.9 (8.3)	5.0 (20.9)	1.2 (5.0)	1.3 (5.8)	5.6 (23.7)	-	-	0.7 (3.2)
	진학 준비자	220	6.4 (26.7)	1.2 (5.0)	0.9 (3.8)	11.6 (48.4)	-	0.6 (2.5)	2.9 (12.0)	-	0.3 (1.2)
	취업 준비자	155	7.5 (31.3)	1.9 (7.9)	2.6 (10.8)	4.8 (20.1)	-	1.4 (5.8)	4.9 (20.7)	-	0.7 (3.1)
	창업 준비자 ^{주)}	57	7.7 (32.4)	1.7 (7.1)	6.3 (26.5)	1.6 (7.0)	-	1.4 (5.8)	4.2 (17.5)	-	0.9 (3.9)
	니트	111	8.7 (36.3)	0.8 (3.1)	-	-	-	-	2.3 (9.6)	12.0 (49.9)	0.2 (1.1)

주) 취업자와 창업준비자의 생활사용시간은 응답자들의 각 항목별 응답시간의 총합이 24시간이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어 각 항목별 평균시간의 합이 24가 되지 않음.

<표 VII-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시간의 사용은 하위집단별로 차이를 보인다. 수면시간의 경우 진학준비자가 평균 6.4시간으로 가장 짧은 시간을 갖고, 니트가 평균 8.7시간으로 가장 긴 수면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7시간 수면을 하는 취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진학준비자 집단은 취업자보다 짧고 니트와 취업 및 창업준비자

집단은 취업자보다 긴 수면시간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면시간이 짧은 진학준비자 집단의 학원수강 등의 공부 시간은 평균 11.6시간으로 하루 24시간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공부에 사용하며, 여가 시간은 평균 2.9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자 이외 구직자와 준비자 집단에서도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창업준비자가 평균 6.3시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은 구직자가 5.0시간, 취업준비자 2.6시간, 진학준비자 0.9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 집단의 경우 24시간 측정 항목도 다른 집단과 달리 집 밖 활동과 집안 활동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집 밖 활동은 하루 평균 2.3시간인 반면, 집안 활동은 12.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집안 활동시간을 하루 평균 8.7시간인 니트 집단의 평균 수면시간에 더한다면, 고졸 비진학 청소년 중 니트 집단은 하루 평균 20시간 이상을 집안에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학준비자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여가시간은 현저히 짧고, 수면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시간으로 할애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진학준비자들의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도 수면과 공부시간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진학준비자들의 일상생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시까지 공부하고 그 이후는 자습하고 ... (여가시간은) 누워서 멍 때리다가, 5분 지나면 공부하고.”(청소년C1)

“6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독서실이 9시 반에 열어요. 그 전까지 어제 했던 거 복습하거나 공부하고, 9시 반에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저녁 먹으러 학사에. 학사랑 엄청 가까워요. 10m 정도로, 밥 먹고 다시 독서실 가서 6시까지 공부하고 저녁 먹고, 1시 반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해요. 두세 시까지. 졸릴 때까지 해서. 그래서 6시에 일어나는.”(청소년C3)

“(학원 오는데)평균적으로 30~40분 걸린다고 치고, 저희는 7시 50분까지 들어와야 하니까 늦어도 6시 반에는 일어나야겠죠. 올빼미는 괴롭죠. 그렇게 와서 간단히 테스트 하고 단어 외우고 하고, 8시 40분부터 6~7시간 공부를 해요. 중간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나서 잠깐 바람 쐬고. 저희는 구내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먹는 독종도 있고, 답답해서 안되겠어 하는 애들은 밖에 나가서 먹고, ... 또 7시에 들어가서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 자습실도 주말에는 9시에 나오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늦어도 2시까지 들어오고 6시까지 해라. 적어도 4시간은 할 수

있게. 그 나머지는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 (중략)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움직이는 거 귀찮아하는 애들 많아요. 앉아서 음악을 듣거나.”(현장전문가C1)

앞서 <표 VII-1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을 하는 취업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하루 중 근무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 심층면접에 참가한 취업청소년들의 사례를 보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근무 후 시간, 즉 퇴근 후 저녁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여가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퇴근 후에는 제 시간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죠. 업무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에 많이 알아보려고 하고 공부하고.”(청소년A1)

“(퇴근 후에) 책을 읽거나 게임하거나... 가족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청소년A2)

“(8시간 일하고) 남는 시간 다..(요즘은) 공부 밖에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시간에) 다 놀았지요. 퇴근하면 놀고...”(청소년A3)

한편, 니트청소년의 생활시간은 특별히 계획된 일을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하루를 사용하고 있음을 심층면접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집에서) 그냥 하는 거 없이 지내요. ... (외출은) 때에 따라서 다른데 안 나갈 때는 일주일 다 안 나갈 때도 있고 이주일 안 나갈 때도 있고, 일주일에 3~4번 나갈 때도 있고.”(청소년D1)

“아침에 드라마 보다가 오후가 되면 책 보다가 운동도 하고, 햇빛을 받으라고 해서 운동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일본어 공부 시작했거든요. 할 게 없어서, 일본어 공부하다가 낮잠도 잤다가, 신선 노름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청소년D2)

“(요즘 하루 일과는) 완전 프리하지요. 도서관 가서 자기 소개서나 학업 진로 계획 써요.”(청소년D3)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사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취업준비자의 생활시간도 니트청소년의 일상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음이 다음과 같은 심층면접의 사례에서 발견되었다.

“집에서 영어 공부해요..EBS로 인터넷 강의...아니면 필기했던 거 다시 보지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피부 필기, 아니면 취업하고 나서 상담할 때 뭘 알아야 손님들에게 말 하니까 잊지 않게 공부하고... 애들 만나거나 TV 보다가...학원 다니면 10시부터 3시...그 이후에 나가서 연습하거나 집에 와서 쉬었어요. 연습하고 나면 수건하고 빨아 놓아야 하거든요. 다 하고 나면 지쳐요.”(청소년C5)

“방송 작가가 되려고 취업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글을 더 써 보기도 하고 방송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집에서 인터넷 하는 시간이 가장 많겠네요?) 아무래도. (낮 시간 동안 밥 먹고 인터넷 보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밖에도 나가요.”(청소년C8)

2) 근로활동

(1)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①최장기간 일한 근무지 여부

일상생활 활동 중 주요한 활동인 근로활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취업자들의 현재 일자리가 고교 졸업 후 최장 기간 일한 일자리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VII-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취업자들이 일하는 곳이 고교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중 최장 기간 근무한 곳이라는 비율이 55.3%이고, 44.7%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 61.6%라 현재 일하는 일자리가 고교 졸업 후 최장 기간 근무한 곳이라고 응답하였고, 남성의 경우 이보다 낮은 46.8%가 최장 기간 일한 근무지라고 답하였다.

표 VII-20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고교 졸업 후 최장기간 일한 근무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간 근무한 곳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간 근무한 곳 아님	χ^2 -test
전체		219 (100.0)	121 (55.3)	98 (44.7)	
성별	남성	94	46.8	53.2	4.7*
	여성	125	61.6	38.4	

②취업경로

다음으로 현재 일자리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취업하게 되었는지 취업경로를 살펴보았다.

표 VII-21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취업경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부모, 친척, 아는 사람	친구, 선후배	신문, TV, 생활 정보지 등	공공 및 사설취 업알선 기관	인터넷 구직 사이트	현장 실습, 인턴십 등	기타	x ² - test
전체		219 (100.0)	23 (10.5)	4 (1.8)	24 (11.0)	33 (15.1)	12 (5.5)	5 (2.3)	111 (50.7)	4 (1.8)	3 (1.3)	
성별	남성	94	4.3	2.1	12.8	17.0	8.5	0.0	52.1	3.2	0.0	17.6*
	여성	125	15.2	1.6	9.6	13.6	3.2	4.0	49.6	0.8	2.4	
출신 고교 유형	일반계	97	3.1	1.0	13.4	20.6	2.1	1.0	57.8	1.0	0.0	46.0**
	특성 화계	99	20.2	3.0	8.1	10.1	7.1	4.1	42.4	2.0	3.0	
	검정 고시	22	0.0	0.0	9.1	13.6	13.6	0.0	59.1	4.6	0.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표 VII-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50.7%)을 통하여 현재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친구, 선후배 등을 통한 취업도 15.1%, 부모·친척 등 아는 사람을 통한 취업도 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경로는 성별과 출신고교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나누어 보아도 인터넷을 통한 취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남성의 경우 친구나 선후배를 통한 취업이 17.0%로 두 번째로 높은 취업경로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학교 선생님을 통한 취업(15.2%)이 인터넷에 이어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출신고교 유형별로도 인터넷을 통한 취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일반계 57.8%, 특성화계 42.4%, 검정고시 59.1%), 특성화계에 비해 검정고시나 일반계 졸업자들에게서 인터넷을 통한 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인터넷 이외에 일반계의 경우 친구나 선후배를 통한 취업이(20.6%) 두 번째로 많았으며, 특성화계는 학교선생님을 통한 취업(20.2%), 검정고시는 친구나 선후배를 통한 취업과 언론매체를 통한 취업이 각각 13.6%로 두 번째로 많은 취업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도 현재 일을 하는 취업자들이 주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잡코리아에서 찾아보고 이력서 넣고, 이것도 면접 봤어요.”(청소년A1)

“제가 워크넷에서 찾아서 면접 보고 ... 12월 중순에 면접 합격해서 1월에 바로.”(청소년A2)

“(취업포털)사람인에 들어갔어요...전 그거 보고 갔어요.”(청소년A3)

인터넷 구직사이트 경로 이외에 부모님이나 지인의 소개로 취업하는 사례도 심층면접에서 다음과 같이 포착되었다.

“어차피 디자인 계통은 사람들이 결과물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니까, 그 때 마침 고 3이 끝나고 나서 아는 분 소개로 그런 스튜디오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청소년C7)

③ 일의 내용(업·직종)³²⁾

인터넷 등을 통해 취업한 현재 일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일의 내용을 <표 VII-22>와 같이 살펴보았다.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일은 사무·회계(26.9%)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빙주방(16.0%), 매장관리(13.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출신고교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남성의 경우 생산·기능(22.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매장관리(19.1%)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여성의 경우 사무·회계의 비율(38.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빙주방(16.8%)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신고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계 졸업자는 서빙·주방의 비율(23.7%)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무·회계와 매장관리가 동일하게 14.4%를 나타내었으나, 특성화계 졸업자의 경우 사무·회계가 44.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생산·기능이 16.2%로 높게 나타났다. 검정고시 졸업자의 경우 매장관리가 31.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서빙·주방(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일의 업종과 직종을 표준산업 및 직업분류에 준하지 않은 것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하는 일의 구분이 표준산업 및 직업분류 보다는 취업포털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분류체계에 더 익숙하다는 것이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비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분류 기준으로 일의 내용(업·직종)을 조사하였다. 또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로 했던 일과 졸업 후 취업한 일자리에서의 일이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목적에서도 아르바이트 분류 기준으로 일의 내용을 파악하였음을 밝힌다.

표 VII-22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일의 내용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매장 관리	서빙 주방	서비스	생산 기능	사무 회계	IT·디자인	상담 영업	강사 교육	기타	χ^2 -test
전체		219 (100.0)	29 (13.2)	35 (16.0)	21 (9.6)	26 (11.9)	59 (26.9)	12 (5.5)	11 (5.0)	5 (2.3)	21 (9.6)	
성별	남성	94	19.1	14.9	9.6	22.3	11.7	3.2	4.3	1.1	13.8	39.7***
	여성	125	8.8	16.8	9.6	4.0	38.4	7.2	5.6	3.2	6.4	
출신 고교 유형	일반계	97	14.4	23.7	10.3	10.3	14.4	3.1	8.3	4.1	11.4	68.0***
	특성 화계	99	8.1	5.0	7.1	16.2	44.4	9.1	3.0	1.0	6.1	
	검정 고시	22	31.8	27.3	18.2	0.0	4.5	0.0	0.0	0.0	18.2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이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취업하여 일하는 업·직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대체로 몇 가지 한정된 업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고졸’ 학력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고졸’이라는 학력이 일자리 선택의 폭을 좁히며,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취업시장에 나서기 이전부터 일자리 선택에 있어 기회의 제한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한이 결국에는 대학 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심층면접에서 확인하였다.

“고졸이면 일에서 선택의 폭이 없어서 공장이나 서빙이나 그런데 갈 수 밖에 없고...”(청소년D2)

“... 학교, 학벌. 디자이너 분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서 사람을 뽑는 최저 기준이 2년제 졸이 많아요. 학벌 무관도 있기는 한데... 그런 곳은 많이 빠져서, 그거 때문에 애들이 저 같이 있다가 (대)학교 간 애들도 몇 몇 있었어요.”(청소년C7)

이와 같은 일자리 선택의 기회 제한이라는 청소년들의 원인 진단에 더하여 심층면접에 참여한 현장전문가는 이에 대한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 즉 대학 진학률의 급격한 증가와 고졸자 집단의 소수화, 그리고 대졸인력의 초과공급에 따른 노동시장 인력 수급 등 구조적인 변화측면에서의 진단을 추가하였다.

“대학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 (중략) 학력인플레에 따라 나타나는 채용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고졸만 해도 갈 수 있는 일자리를 2년제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가는 일자리로 변화된 거죠. 아주 단적인 예 중 하나가 은행의 창구직원. 그리고 일단 고졸의 숫자가 작아져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가 (고졸자들이 많이 갔던) 생산, 제조, 서비스 등 기능직군들에 고졸이 부족해졌죠. 고학력이 아닌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저임금 일자리에 임금 인플레도 같이 수반되어서 기업이나 사업체들이 감당이 안되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쓰기 시작했고. 그런 현상들이 학력 인플레를 더 부추기지 않았나 ... (중략) 고졸자 구인은... 통계를 내 봐야겠지만 평균적으로 제조, 유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요. IT는 좀 적죠. 왜냐하면 그 쪽은 테크니컬한, 학력수준이 요구되는 자리가 많아서 IT, 통신 이런 직종은 고졸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고.”(현장전문가B1)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졸 취업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구체화가 미진한 것도 지난 정부의 열린 고용정책 추진으로 고졸자 채용기업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졸자들에게는 기회의 제한으로 체감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장전문가 심층면접에서 발견되었다.

“공통적인 인성은 빼고요, 그건 고졸이든 대졸이든 다 마찬가지로거든요. 신입에게 원하는 공통적인 인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 대졸의 경우는 요구되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어떤 전공을 갖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훈련을 했고, 필요하면 어학이나 PC skill 과 관련해서는 어떤 직무스킬이 있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데, 최근에 고졸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고졸채용을 진행하다보니 입는 애로가 누구를 선발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한 거죠. ... (중략) 채용의 기준이 불명확한 거죠. 요즘 대졸자의 면접을 볼 때는 직무 중심의 선발을 하는데, 고졸은 직무 자체가 난이도가 낮고 러프(rough)하다보니까 여전히 조건에 대한 정리가 덜 된 거 아니냐 ... 고졸 채용이 계속 확장되고, 고졸이라 해도 보직 중심, 직군 중심으로 가다보면, 그 직군의 전문성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적성이나 직무능력이 당연히 정리되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죠.”(현장전문가B1)

④ 근속기간

앞서 일의 내용에서 살펴 일을 현재 일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를 <표 VII-23>과 같이 살펴보았다. 전체 평균 근속 기간은 9.8개월로 고용노동부의 2012년 고용노동통계에서 집계된 20세~24세 고졸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 1.4년에 비해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³³⁾.

3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DB 학력 및 연령별 근속기간 부분의 내용임(2013.10.13일 검색).

이는 전체의 32.4%가 3개월~6개월 근속기간을 갖는 등 6개월 미만 근속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의 평균 근속기간(7.6개월)보다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11.4개월)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I-23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근속기간

(단위 : 명, %, 개월)

구분	사례수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18개월 미만	18~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평균 (표준편차)	t/GLM -test
전체	219 (100.0)	47 (21.5)	71 (32.4)	29 (13.2)	31 (14.2)	13 (5.9)	28 (12.8)	9.8 (10.6)	
성별	남성	94	30.9	28.7	13.8	12.8	6.4	7.4	7.6 (8.5)
	여성	125	14.4	35.2	12.8	15.2	5.6	16.8	11.4 (11.7)
출신 고교 계열	일반계	97	21.6	29.9	17.5	15.5	6.2	9.3	9.0 (9.5)
	특성 화계	99	17.2	37.4	9.1	14.1	7.1	15.2	10.9 (11.7)
	검정 고시	22	40.9	22.7	13.6	9.1	0.0	13.6	7.5 (9.5)
	기타	1	0.0	0.0	0.0	0.0	0.0	100.0	26.0 (0.0)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짧은 기간 일을 하고 퇴사를 결정하는 데에는 일 자체의 과중한 노동 강도 또는 일하는 분야의 쇠퇴하는 사업 비전 등 노동여건 및 노동시장 환경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심층면접을 통해 발견되었다.

“다른 중소기업 2년 다니다가, 거기가 LCD였거든요. 2년 정도 다녔는데 LCD 망하고 OLED,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계속 LCD를 고집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봤거든요. 변경할 생각 없냐고 하니까 LCD는 앞으로 10년 더 간대요. 저는 막연히 이걸 아니다 싶어서”(청소년A3)

“힘들어 하는 친구도 있고 에이 씨, 하거나 대충 때려 치는 애들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해서 뭐 해? 다른데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애들이 그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아니라도 갈 데 많다.”(청소년C6)

“근데 통계에서도 나오는데 1년 이내 직장을 바꾸는 경우가 50%가 넘는대요. 특성화고 학생들만 이직이 높은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서. 그런 면도 있고, 아이들이니까 아직 판단이 미숙해요. 이 놈들도, 처음에 학교에서 취업시켜주니까, 거기를 그만두고 B회사 가요, 그리고 또 C회사 가요. 애들이 나중에 그래요. 처음에 선생님이 해준 회사가 제일 낫다고, 기업은 그런 게 있어요. 퇴사한 사람들 절대 안 받아주는, 반더라도 정규직으로 안 받고, 일용직으로 받든지.”(현장전문가A3)

이와 같은 사례는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낯은일을 기피하고 불성실하고, 적응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비판과는 달리, 잦은 이직과 짧은 근속의 문제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단언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노동여건 및 환경이 짧은 근속기간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근로여건 및 환경이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짧은 근속기간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측면은 직장 내 학력에 따른 차별과 업무 비전의 부재이다. 심층면접에서는 대졸자와의 임금 격차와 승진 기회에서의 차별, 그리고 시간이 경과해도 입사 시와 다를 바 없는 직무내용으로 일을 통한 비전을 찾기가 어려움이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힘든 것은 연봉차이지요. 대졸 연봉하고 고졸 연봉이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 (중략) 인사고과나 승진 문제지요.”(청소년A2)

“친구들이 (얘기) 많이 해요. 고졸하고 대졸하고 진짜 대우 다르다고. 고졸이 채용되어도 인사 정리(구조조정)할 때 고졸 먼저 잘린다고...”(청소년C5)

“(회사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서... 대학 나온 형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일에서 차별이 있지요. 대학 나온 형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데 저희는 그게 틀렸어요. ... (그 형들에게) 중책을 맡기고 아래 사람에게는 덜 한, 이 사람들도 할 수 있겠지 싶은 것을 맡기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 일만 해서 뭔가 더 보여주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처음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은 계속 중요한 직책을 맡아 하고, 그 아래 있는 사람은 올라가도 어쩔 수 없이 ... 알아본다고 해도, 너무 늦었어요. 이미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허비한 뒤예요.”(청소년C6)

⑤ 고용형태

<표 VII-24>에서는 현재 일자리의 고용형태를 살펴보았다. 절반 이상인 52.0%의 취업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IV장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통해 살펴본 바와 동일한 결과이다.

표 VII-24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고용형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정규직	비정규직	해당사항없음	x ² -test
전체		219 (100.0)	88 (40.2)	114 (52.0)	17 (7.8)	
성별	남성	94	33.0	58.5	8.5	3.5
	여성	125	45.6	47.2	7.2	
출신 고교 유형	일반계	97	25.8	62.9	11.3	18.0**
	특성화계	99	53.5	41.4	5.1	
	검정고시	22	40.9	54.6	4.5	
	기타	1	100.0	0.0	0.0	
일의 내용	매장관리	29	10.4	72.4	17.2	60.2***
	서빙주방	35	14.3	74.3	11.4	
	서비스	21	52.4	38.1	9.5	
	생산기능	26	38.5	57.7	3.8	
	사무회계	59	57.6	42.4	0.0	
	IT디자인	12	75.0	25.0	0.0	
	상담영업	11	90.9	9.1	0.0	
	강사교육	5	0.0	80.0	20.0	
	기타	21	28.6	52.4	19.0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58.5%)이 여성(47.2%)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졸 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출신고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계 졸업자의 62.9%, 검정고시 졸업자의 54.6%가 비정규직인데 반해, 특성화계는 53.5%가 정규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특성화계 졸업자들이 고교 졸업

후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계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자는 고졸자로서 취업시장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일을 내용별로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의 비율이 많은 일은 서비스(52.4%), 사무·회계(57.6%), IT·디자인(75.0%), 상담·영업(90.9%)이며, 매장관리(72.4%), 서빙주방(74.3%), 생산·기능(57.7), 강사·교육(80.0%), 기타(52.4%)는 비정규직이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표 VII-2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 미완료가 취업가능성과 정규직 취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미필자는 대기업 못 들어와요.”(청소년A3)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 두는 경우가 있고, 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 남자들은 대부분 다니다가 1년이면 1년, 1년 반이면 반 다니고 군대를 가야 하니까 그만 두고, 갔다가 와서 받아준다는 회사가 있으면 다시 갈 수 있겠지요. ... 취업할 때 딱 군필자냐고 물어보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저는 20살 정도라서 괜찮은데 24살 되었는데 군대 안 갔다가 왔으면 뒤에 많이 걸림돌이 되지요. 취직을 해도 군대 가게 되면 못 다닐 거 아니냐, 이게 많이 단점이 되지요.”(청소년C6)

“(군미필 때문에) 기업에서 꺼려해요. 아예. 우리는 남학생 안 뽑는다고 해요. 요즘에는 조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저희가 취업을 시키려고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학생들이 1년 정도 경험을 쌓고, 기업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요. 훈련을 시켜 놓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 건데 일 좀 할만하다 싶으면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오면 우리 회사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데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는 투자만 하고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 싫다고 얘기해요. 괜찮은 기업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일하고 군대를 다녀와도 너네들이 희망하면 1차적으로 우리 회사에 다시 재취업시켜주겠다는 전제를 저희가 받고 취업을 시켜요. 그러면 남학생들이 오히려 취업이 되죠.”(현장전문가B2)

“우리나라는 의무병역 제도가 있어요. ... 기업에서도 남학생들을 채용하면서,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병역필 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 같은 느낌이 안 든대요. 그래서 중도 탈락률이 많았어요. (중략) 기업에서도 볼 때, 저 녀석 군대도 안 갔다 왔지, 언제 그만 둘 지 모르지, 자기들도 정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탈락이 많으니까 ... 아이들이 군대 가기 전까지 그 기업에 취업했다가 군대 제대 후 다시 복직하거나 아니면 병역특례업체 가서 병특요원으로 근무하고 병역필해서 계속 근무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현장전문가A3)

⑥ 종사상지위

고용형태에 이어 취업자들의 현재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표 VII-25>와 같이 살펴보았다.

표 VIII-25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종사상지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직 임금 근로자	일용직 임금 근로자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단독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x ² - test
전체		219 (100.0)	111 (50.7)	79 (36.1)	19 (8.7)	5 (2.3)	2 (0.9)	3 (1.3)	
성별	남성	94	41.5	38.3	12.8	4.2	2.1	1.1	11.7*
	여성	125	57.6	34.4	5.6	0.8	0.0	1.6	
출신고교 계열	일반계	97	37.1	47.5	10.3	3.1	1.0	1.0	30.2*
	특성화계	99	65.7	24.2	8.1	1.0	1.0	0.0	
	검정고시	22	40.9	40.9	4.6	4.5	0.0	9.1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일의내용	매장관리	29	13.8	69.0	13.8	0.0	3.4	0.0	108.1 ***
	서빙주방	35	17.1	65.7	8.6	2.9	0.0	5.7	
	서비스	21	71.4	23.8	4.8	0.0	0.0	0.0	
	생산기능	26	53.8	30.8	15.4	0.0	0.0	0.0	
	사무회계	59	74.6	23.7	0.0	0.0	1.7	0.0	
	IT디자인	12	66.7	16.7	8.3	8.3	0.0	0.0	
	상담영업	11	100.0	0.0	0.0	0.0	0.0	0.0	
	강사교육	5	20.0	60.0	0.0	20.0	0.0	0.0	
	기타	21	38.1	19.0	28.6	9.5	0.0	4.8	

우선, 전체의 50.7%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이고,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도 36.1%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57.6%)과 남성(41.5%) 모두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많기는 하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1%p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여성에 비해서 낮은 남성의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38.3%)은 여성(34.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고교계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계는 임시직 임금근로자 4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특성화계의 경우 65.7%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나타났다. 또 검정고시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각각 40.9%로 동일하다.

일의 내용에 따른 종사자 지위를 살펴보면, 매장관리(69.0%)와 서빙주방(65.7%), 강사·교육(60.0%)은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지위가 많으나, 서비스(71.4%), 생산·기능(53.8%), 사무·회계(74.6%), IT·디자인(66.7%), 기타(38.1%)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지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⑦ 사업체 종사자 수

다음에서는 현재 일자리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표 VII-26>과 같이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분포가 높은데, 5인 이하 사업장이 2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5~9명이 17.8%, 10~29명 규모는 15.1%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IV장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자료 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일의 내용에 따라 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1~4명이 일하는 곳이 가장 많은 일의 내용은 매장관리(58.6%), 서빙주방(54.3%), 서비스(23.9%), IT·디자인(33.4%) 등이며, 생산·기능의 경우 30인 이하 규모가 23.1%로 가장 높았으며, 5~9명이 일하는 비율이 높은 일은 사무·회계(18.6%), 강사·교육(60.0%)으로 나타났다. 일의 내용 중 상담·영업의 경우 1~4명, 5~9명, 100~299명이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2%로 사업체별 범주가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II-26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일의 내용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1~4명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해당사항없음	χ^2 -test
전체	219 (100.0)	63 (28.8)	39 (17.8)	33 (15.1)	12 (5.5)	18 (8.2)	22 (10.0)	9 (4.1)	7 (3.2)	13 (5.9)	3 (1.4)	
일의 내용	매장 관리	29	58.6	13.8	13.8	0.0	3.5	10.3	0.0	0.0	0.0	98.1*
	서빙 주방	35	54.3	22.9	20.0	0.0	2.8	0.0	0.0	0.0	0.0	
	서비스	21	23.9	14.3	9.5	9.5	14.3	9.5	9.5	0.0	9.5	
	생산 기능	26	7.7	3.8	23.1	11.6	15.4	11.5	3.8	3.8	15.4	
	사무 회계	59	8.5	18.6	11.8	8.5	10.2	16.9	5.1	8.5	10.2	
	IT 디자인	12	33.4	16.7	16.7	8.3	8.3	8.3	8.3	0.0	0.0	
	상담 영업	11	18.2	18.2	9.0	9.1	9.1	18.2	9.1	9.1	0.0	
	강사 교육	5	40.0	6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21	33.3	23.8	19.0	0.0	4.8	4.8	4.8	0.0	4.8	

일자리 특성: 사업체규모에 따라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및 복리후생에 큰 차이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기업이 선호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심층면접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한 청소년의 사례에서 사업체규모에 따른 근로여건 및 복리후생의 구체적인 차이를 포착하였으며, 그 주요한 차이가 노동 강도에 따르지 않는 보수의 격차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중소기업은 막 같이 부딪히면서 일 하니까, 되게 사람다운 것이 있는데, 대기업도 정이 있긴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기본 안 됐네. 이거 안 해 주면.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정해져 있어요....대기업은 복리후생이 잘 되어서 부당한 거 없어요. 중소기업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니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그게 그렇지요. 여가 시간이 없어요....야간만 12시간 6개월 했는데 한 달에 170을 받았어요. 대기업은 8시간 교대로 일

하면서 쉴 거 다 쉬고 보너스 포함하면 한 달에 180을 받아요. (중략) 그 전에 중소기업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쉬고 기본 12시간, 많으면 16시간 했는데, 그 때 어떻게 버텼나 싶은데..."(청소년A3)

⑧ 근로시간형태

비정규직과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 형태는 <표 VII-27>과 같이, 전일제가 60.3%, 시간제가 39.7%로 나타났다. 성별과는 달리 출신고교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계 졸업자는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의 차이가 크지 않고, 특성화계 졸업자는 10명 중 7명인 72.7%가 전일제 근로를 하며, 검정고시자의 경우 54.5%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내용에 따라서도 근로시간형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일에서는 전일제의 비중이 높으나, 매장관리(75.9%)와 서빙주방(77.1%)과 같은 일에서는 시간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7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근로시간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일제	시간제	x ² -test
전체		219 (100.0)	132 (60.3)	87 (39.7)	
성별	남성	94	56.4	43.6	1.0
	여성	125	63.2	36.8	
출신고교 유형	일반계	97	50.5	49.5	12.9**
	특성화계	99	72.7	27.3	
	검정고시	22	45.5	54.5	
	기타	1	100.0	0.0	
일의내용	매장관리	29	24.1	75.9	63.5***
	서빙주방	35	22.9	77.1	
	서비스	21	85.7	14.3	
	생산기능	26	69.2	30.8	
	사무회계	59	81.4	18.6	
	IT디자인	12	75.0	25.0	
	상담영업	11	100.0	0.0	
	강사교육	5	60.0	40.0	
	기타	21	47.6	52.4	

㉑ 주당 근무시간

<표 VII-28>에서는 현재 일자리의 주당 근무시간을 살펴보았다. 전체 평균 주당 43.4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의 내용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주당근무시간이 가장 긴 일은 서비스 업무로 주당 50.2시간 일하며, 가장 짧은 일은 앞서 시간제 근무형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강사·교육으로 주당 22.8시간 이다.

표 VII-28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일의 내용별 주당 근무시간

(단위: 명, %, 시간)

구분	사례수	10 시간 미만	10~ 20 시간 미만	20~ 30 시간 미만	30~ 40 시간 미만	40 시간	41~ 50 시간 미만	50 시간 이상	평균 (표준편차)	GLM -test
전체	219 (100.0)	7 (3.2)	5 (2.3)	16 (7.3)	21 (9.6)	59 (26.9)	43 (19.6)	68 (31.1)	43.4 (14.8)	
일의 내용	매장관리	29	3.4	3.4	6.9	17.3	20.7	6.9	41.4	42.6 (14.4)
	서빙주방	35	8.6	5.7	25.7	17.2	14.3	11.4	17.1	33.7 (15.4)
	서비스	21	0.0	0.0	0.0	9.5	23.8	23.8	42.9	50.2 (13.7)
	생산기능	26	0.0	0.0	3.8	3.9	26.9	19.2	46.2	48.8 (12.2)
	사무회계	59	0.0	0.0	1.7	6.8	44.1	30.5	16.9	44.4 (9.7)
	IT디자인	12	8.3	0.0	0.0	8.4	25.0	8.3	50.0	47.5 (19.0)
	상담영업	11	0.0	0.0	0.0	0.0	27.2	36.4	36.4	48.9 (9.3)
	강사교육	5	20.0	20.0	20.0	0.0	40.0	0.0	0.0	22.8 (16.9)
	기타	21	4.8	4.8	9.5	9.5	9.5	19.0	42.9	44.4 (19.3)

5.0***

㉒ 월평균 소득

<표 VII-29>에서는 취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았다. 전체 평균 월 120.6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노동통계에서 집계된 20세~24세 고졸 학력자의 월평균 임금인 153.5만원보다도 적다³⁴⁾. 이는 설문조사에서 소득을 하향보고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3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DB 학력 및 연령별 월평균 임금 부분의 내용임(2013.10.13일 검색).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고, 시간제 근무비율이 높는데 따른 결과로도 보인다. 이 같은 월소득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일의 내용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일은 생산·기능으로 월평균 142.9만원의 소득을 얻으며,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종사 비중이 높은 매장관리(90.0만원)와 서빙주방(78.3만원)은 월평균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기능의 일이 대체로 2교대 방식으로 초과근무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매장관리나 서빙·주방 일은 시간제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VII-29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30 만원 이하	30~50 만원 미만	50~75 만원 미만	75~ 100 만원 미만	100~ 120 만원 미만	120~ 150 만원 미만	150~ 180 만원 미만	180~ 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t/ GLM -test
전체		219 (100.0)	7 (3.2)	11 (5.0)	24 (11.0)	17 (7.8)	41 (18.7)	50 (22.8)	42 (19.2)	11 (5.0)	16 (7.3)	120.6 (53.1)	7.5***
일의 내용	매장 관리	29	3.5	10.3	24.1	10.3	27.6	17.3	6.9	0.0	0.0	90.0 (35.7)	
	서빙 주방	35	5.7	17.1	28.6	8.6	17.2	17.1	5.7	0.0	0.0	78.3 (38.8)	
	서비스	21	0.0	0.0	4.8	4.8	23.8	28.5	23.8	4.8	9.5	137.1 (42.9)	
	생산 기능	26	0.0	0.0	0.0	11.5	15.4	23.1	30.8	3.8	15.4	142.9 (41.9)	
	사무 회계	59	0.0	0.0	6.8	8.5	16.9	18.6	28.8	13.6	6.8	140.0 (44.1)	
	IT 디자인	12	8.3	0.0	8.3	0.0	16.7	41.7	16.7	0.0	8.3	122.3 (45.3)	
	상담 영업	11	0.0	0.0	0.0	0.0	18.2	45.4	18.2	9.1	9.1	138.6 (30.6)	
	강사 교육	5	0.0	20.0	0.0	20.0	20.0	20.0	20.0	0.0	0.0	100.0 (48.4)	
	기타	21	14.3	4.8	4.8	4.7	14.3	23.8	14.3	0.0	19.0	129.0 (53.1)	

⑪ 4대 보험 가입 여부

<표 VII-30>에서는 현재 일자리에서의 4대 보험에 가입 여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및 전일제 근로비율이 높은 일자리에서는 4대 보험 가입 비율이 높고,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비율이 높은 일자리에서는 4대 보험 모두 비가입 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가입률이 높은 일자리는 사무·회계(88.1%), IT·디자인(83.3%), 서비스(66.7%), 생산·기능(61.5%)이고, 모두 비가입한 비율이 높은 일은 매장관리(62.1%)와 서빙·주방(62.9%)이다.

표 VII-30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일의 내용별 4대 보험 가입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모두 비가입
			가입	비가입	가입	비가입	가입	비가입	가입	비가입	
전체		219 (100.0)	130 (59.4)	89 (40.6)	132 (60.3)	87 (39.7)	134 (61.2)	85 (38.8)	130 (59.4)	89 (40.6)	78 (38.6)
일의 내용	매장 관리	29	27.6	72.4	37.9	62.1	34.5	65.5	27.6	72.4	62.1
	서빙 주방	35	25.7	74.3	28.6	71.4	34.3	65.7	25.7	74.3	62.9
	서비스	21	66.7	33.3	71.4	28.6	71.4	28.6	71.4	28.6	28.6
	생산 기능	26	61.5	38.5	57.7	42.3	57.7	42.3	65.4	34.6	30.8
	사무 회계	59	88.1	11.9	88.1	11.9	89.8	10.2	88.1	11.9	10.2
	IT 디자인	12	83.3	16.7	83.3	16.7	83.3	16.7	83.3	16.7	16.7
	상담 영업	11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0.0
	강사 교육	5	20.0	80.0	20.0	80.0	20.0	80.0	20.0	80.0	80.0
	기타	21	42.9	57.1	33.3	66.7	33.3	66.7	33.3	66.7	57.1
x ² -test			65.3***		60.6***		60.7***		69.9***		54.0***

⑫ 퇴직금 수령 가능성

4대 보험 가입여부에 이어 <표 VII-31>에서는 현재 일자리에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전체 취업자들 중 현재 일자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총 183명으로 이들 중 53.0%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수령 가능성의 여부에는 성별, 출신고교의 유형, 일의 내용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의 59.4%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남성의 55.8%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며, 일반계 졸업자의 53.0%와 검정고시자의 81.3%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반면, 특성화계 졸업자의 66.3%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서비스(64.7%), 생산·기능(63.6%), 사무·회계(76.9%), IT·디자인(62.5%), 상담·영업(72.7%), 강사·교육(66.7%)일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매장관리(79.2%), 서빙주방(77.8%)일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II-31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퇴직금 수령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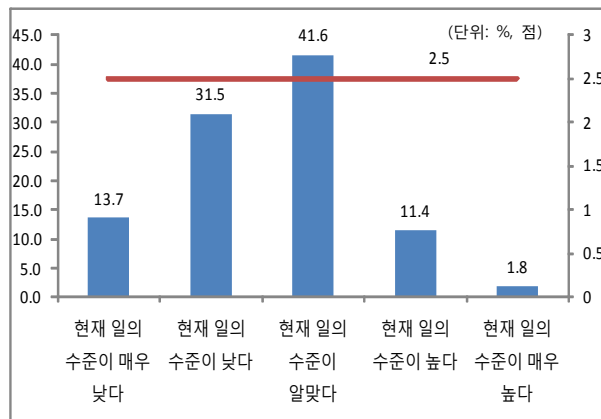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	퇴직금 받는다	퇴직금 못받는다	χ^2 -test
전체		183 (100.0)	97 (53.0)	86 (47.0)	
성별	남성	77	44.2	55.8	4.1*
	여성	106	59.4	40.6	
출신고교 유형	일반계	83	47.0	53.0	15.7**
	특성화계	83	66.3	33.7	
	검정고시	16	18.7	81.3	
	기타	1	0.0	100.0	
일의 내용	매장관리	24	20.8	79.2	39.8***
	서빙주방	27	22.2	77.8	
	서비스	17	64.7	35.3	
	생산기능	22	63.6	36.4	
	사무회계	52	76.9	23.1	
	IT디자인	8	62.5	37.5	
	상담영업	11	72.7	27.3	
	강사교육	3	66.7	33.3	
	기타	19	31.6	68.4	

주) 현재 일하는 근로자 중 36명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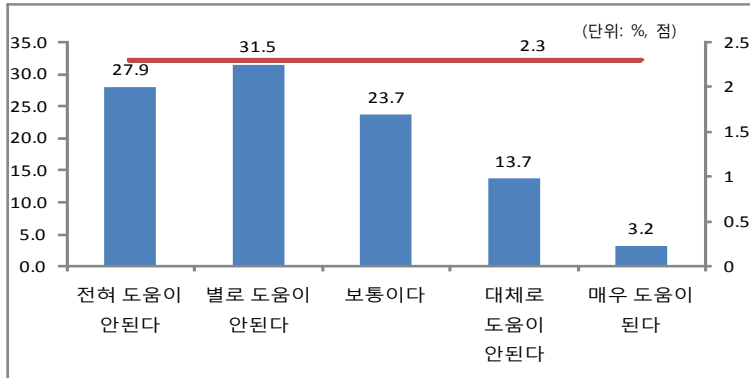
(2) 현재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

현재 일자리의 특성과 더불어 여기에서는 취업자 본인의 능력 및 교육수준 대비 현재 일의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V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자 전체의 41.6%는 현재의 일의 수준이 자신의 능력 및 교육수준에 알맞다고 평가하였으며, 31.5%는 자신의 능력 및 교육수준에 비해 현재 하는 일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을 해보면, 총5점 만점에 2.5점으로 전반적으로 현재 하는 일이 자신의 능력 및 교육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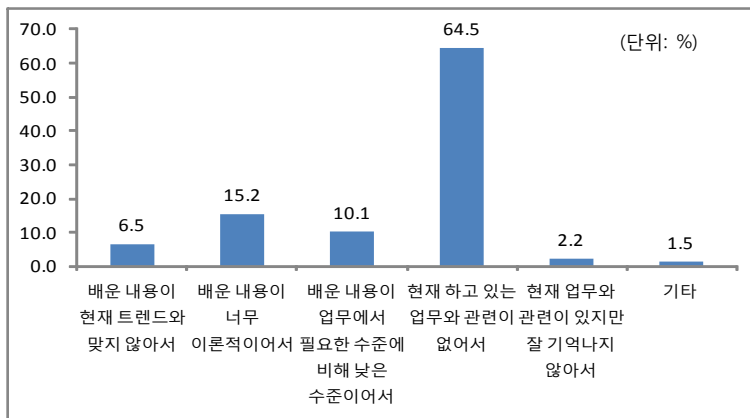
【그림 VII-2】 현재 일의 수준

[그림 VII-3]에서는 고등학교의 학습내용이 현재 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취업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르면, 전체의 31.5%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27.9%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반면,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5점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 2.3점으로 고등학교의 학습내용이 현재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그림 VII-3】 고등학교 학습내용이 현재 업무에 주는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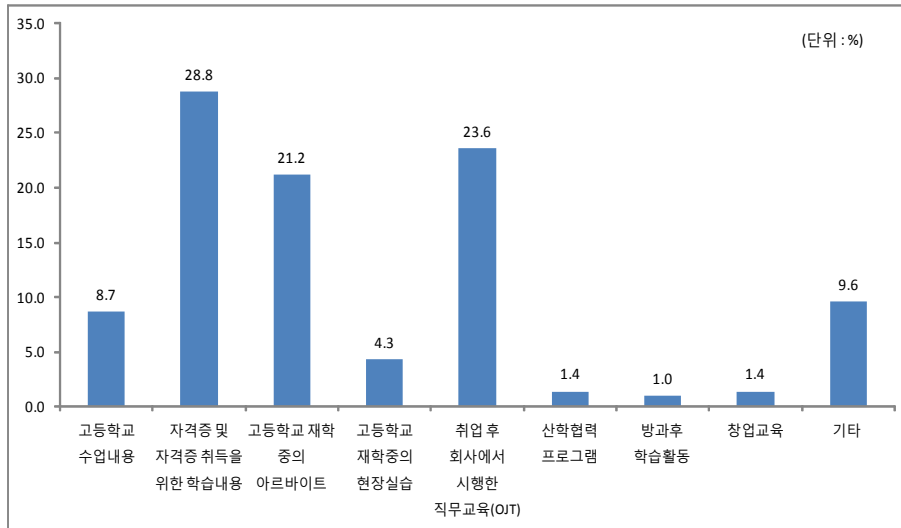
고등학교 시절 학습내용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그림 VII-4]와 같이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64.5%**는 현재업무와 관련이 없어서라고 답하였고, **15.2%**는 배운 내용이 너무 이론적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10.1%**는 배운 내용이 현재 업무에서 필요한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VII-4】 고교시절 학습내용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그림 VII-5]에서는 현재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격증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내용(**28.8%**)이며, 취업 후 회사에서 시행한 직무교육(OJT)이 **23.6%**,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도 **21.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 재학 중 수업내용은 8.7%, 고등학교 재학 중의 현장실습의 도움은 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내용이 취업 후 업무에 그다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VII-5】 현재업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표 VII-32>에서는 일의 내용과 고용형태에 따라 현재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의 내용과 고용형태에 따라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매장관리와 서빙주방은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각각 33.4%, 51.5%), 서비스(33.3%), 생산·기능(30.4%), 상담·영업(40.0%)은 취업 후 회사에서 시행한 직무교육(OJT)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격증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사무·회계(47.4%), IT·디자인(45.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자격증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2%, 비정규직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가 도움이 되었다(30.3%)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32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 현재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	고등 학교 수업 내용	자격증및 취득 학습내용	고등 학교 재학 중 아르바 이트	고등 학교 재학중 현장 실습	회사 직무 교육 (OJT)	산학 협력 프로 그램	방과후 학습 활동	창업 교육	기타	χ^2 - test
전체	208 (100.0)	18 (8.7)	60 (28.8)	44 (21.2)	9 (4.3)	49 (23.6)	3 (1.4)	2 (1.0)	3 (1.4)	20 (9.6)	
일의 내용	매장관리	27	7.4	14.8	33.4	3.7	14.8	0.0	0.0	3.7	22.2
	서빙주방	33	3.1	12.1	51.5	0.0	21.2	0.0	0.0	0.0	12.1
	서비스	21	0.0	28.6	19.0	9.5	33.3	0.0	0.0	4.8	4.8
	생산기능	23	4.4	21.7	21.7	4.4	30.4	8.7	0.0	0.0	8.7
	사무회계	59	6.8	47.4	5.1	3.4	27.1	1.7	3.4	1.7	3.4
	IT디자인	11	36.4	45.4	0.0	0.0	0.0	0.0	0.0	0.0	18.2
	상담영업	10	20.0	10.0	30.0	0.0	40.0	0.0	0.0	0.0	0.0
	강사교육	5	60.0	20.0	0.0	20.0	0.0	0.0	0.0	0.0	0.0
	기타	19	5.3	31.6	15.8	10.5	21.0	0.0	0.0	0.0	15.8
고용 형태	정규직	86	9.3	44.2	9.3	3.5	23.2	1.2	1.2	2.3	5.8
	비정규직	109	8.3	16.5	30.3	5.5	22.9	1.8	0.9	0.9	12.9
	해당사항 없음	13	7.7	30.8	23.0	0.0	30.8	0.0	0.0	0.0	7.7

주) 전체 취업자 중 8명 무응답

심층면접에서는 현재 취업한 청소년 중에 인력개발원에서 직업훈련 및 교육이 현재 업무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다수는 학창시절 아르바이트 경험이 현재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제대 이후에 직업, 거기 간 것이 영향이 있지. 인력개발원. ... (교육은) 광케이블, 랜케이블, 컴퓨터 엑셀, 기본적인 거...자격증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면 어떤 방법이 있고, 구직하는 방법도 이렇게 해서 구직한다고 알게 되지요.”(청소년A2)

“(아르바이트가) 필요하지요. 직장 생활 하면서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거기서 적응해 나가는 거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느 정도 눈치밥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직장 가서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청소년C6)

“(아르바이트 경험)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서비스 마인드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냥 친한 친구만 모이면 되고 자기가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알바는 약간 서비스적인,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고 인내심이나 눈치 보는 것이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청소년C7)

이와 같이 직업훈련 및 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는 훈련 및 교육기관에서 부차적으로 알게 되는 자격증 정보와 그 정보들에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은 일과 대인관계에 대한 적응력을 갖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직업 훈련 및 교육이 실무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찾아가고 접근해 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중요함을 시사하며, 일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축적시키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구직자 및 진학·취업·창업준비자의 현재 아르바이트

①아르바이트 활동 여부

고졸 비진학 청소년 중 오로지 취업자만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직자 및 준비자 집단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³⁵⁾. 이에 <표 VII-33>에서는 구직자 및 준비자 집단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살펴보았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비율은 43.8%이다. 성별로는 차이가 없으나 출신고교 유형 및 하위집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신고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계 졸업자의 60.3%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반면, 일반계 졸업자와 검정고시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아 각각 63.3%와 56.6%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에 따라서는 구직자의 61.1%, 창업준비자의 80.7%가 아르바이트를 하나, 진학준비자의 82.7%와 취업준비자의 56.8%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35) 앞서 V장에서 하위그룹 구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직자나 준비자의 경우 일과 구직 또는 무엇인가 준비하면서 용돈·생활비 조달을 위한 근로생활을 하고 있으나, 하위집단 판별 시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자신의 주된 활동은 구직 또는 준비활동이며 자신을 취업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표 VII-33 구직자 및 준비자의 현재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하고 있다	하고있지 않다	x ² -test
전체		653 (100.0)	286 (43.8)	367 (56.2)	
성별	남성	299	43.1	56.9	0.0
	여성	354	44.4	55.6	
출신고교 계열	일반계	417	36.7	63.3	28.5***
	특성화계	179	60.3	39.7	
	검정고시	53	43.4	56.6	
	기타	4	50.0	50.0	
하위집단	구직자	221	61.1	38.9	121.2***
	진학준비자	220	17.3	82.7	
	취업준비자	155	43.2	56.8	
	창업준비자	57	80.7	19.3	

②아르바이트 목적

<표 VII-34>에서는 구직자 및 준비자의 아르바이트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VII-34 구직자 및 준비자의 현재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목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교육 (훈련)비 마련을 위해	내 생활비 (용돈) 충당을 위해	가족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	실무경력/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기타	x ² -test
전체		286 (100.0)	16 (5.6)	197 (68.9)	31 (10.8)	36 (12.6)	6 (2.1)	
성별	남성	129	6.2	71.3	10.1	9.3	3.1	3.6
	여성	157	5.1	66.9	11.4	15.3	1.3	
출신 고교 유형	일반계	153	5.9	73.2	7.8	11.8	1.3	22.9*
	특성화계	108	6.5	62.0	14.8	15.8	0.9	
	검정고시	23	0.0	69.6	13.0	4.4	13.0	
	기타	2	0.0	100.0	0.0	0.0	0.0	
하위 집단	구직자	35	3.0	65.2	17.0	12.6	2.2	30.9**
	진학준비자	38	7.9	89.5	2.6	0.0	0.0	
	취업준비자	67	10.5	71.6	4.5	10.4	3.0	
	창업준비자	46	4.3	58.7	8.7	26.1	2.2	

아르바이트를 주된 목적은 68.9%가 생활비(용돈)를 충당하기 위함이다. 실무경력 및 사회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은 전체의 12.6%인데, 특성화계 졸업자(15.8%)와 창업준비자 집단(26.1%)에서 이 목적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의 10.8%는 가족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계 졸업자(14.8%)와 구직자(17.0%)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아르바이트 일의 내용

아르바이트 일의 내용으로는 <표 VII-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장관리(22.0%)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서빙주방(18.2%), 사무·회계(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 일의 내용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남성의 경우 매장관리(26.4%)를 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의 경우 사무·회계(26.7%)일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5 구직자 및 준비자의 현재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일의 내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장 관리	서빙 주방	서비스	생산 기능	사무 회계	IT 디자인	상담 영업	강사 교육	기타	χ^2 - test
전체	286 (100.0)	63 (22.0)	52 (18.2)	22 (7.7)	40 (14.0)	51 (17.8)	8 (2.8)	17 (5.9)	8 (2.8)	25 (8.8)	
성별	남성	129	26.4	20.1	7.0	20.1	7.0	0.8	5.4	3.9	9.3
	여성	157	18.5	16.6	8.3	8.9	26.7	4.4	6.4	1.9	8.3

29.1***

구직자, 준비자, 니트청소년들이 하는 아르바이트의 일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고교 재학 중에 했던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심층면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이자가야...편의점도 다시 했고 카페도 했고 PC방도 했는데”(청소년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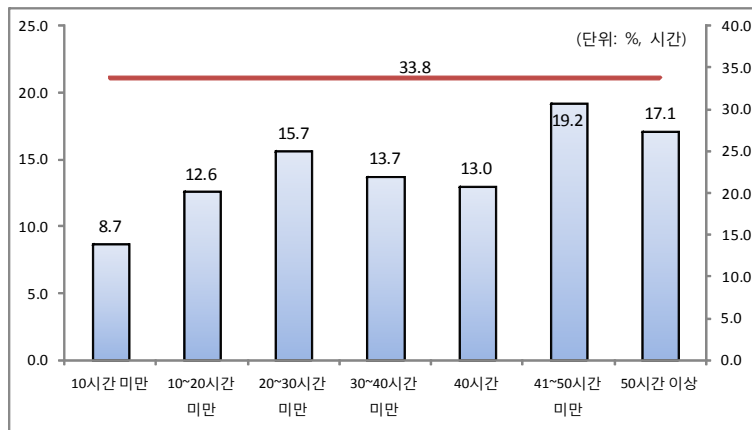
“예식장 도우미를 주말마다 하는데 요즘 더워서 예식이 없어서.”(청소년C5)

“전기 설비, 옥상에 가서 안테나 만지고 그거 관리하고 사무직도 경험했는데.”(청소년C6)

“잠깐 잠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 봤어요. 매장 판매도 해 보고 사무직도 해 보고.”(청소년C8)

④ 아르바이트 주당 평균 시간

[그림 VII-6]에서는 아르바이트 일을 주당 몇 시간 정도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전체 평균 주당 33.8시간 일을 하며, 이를 주5일 근무를 가정하여 하루 평균시간을 산출하면, 하루 6~7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하루 8시간 정규직 노동시간에 비해 그다지 짧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II-6】 아르바이트 주당 평균 근로시간

⑤ 아르바이트 소득

하루 평균 6~7시간 정도의 일을 하여 구직자와 준비자가 얻는 월평균 소득은 <표 VII-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89.7만원이며, 그 금액의 수준은 아르바이트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는 일은 상담·영업으로 월평균 소득이 131.0만원 수준이고, 가장 낮은 소득 금액은 시간제 근로 비율이 높은 서빙·주방 일로 월평균 67.5만원 수준이다.

표 VII-36 구직자 및 준비자의 현재 아르바이트: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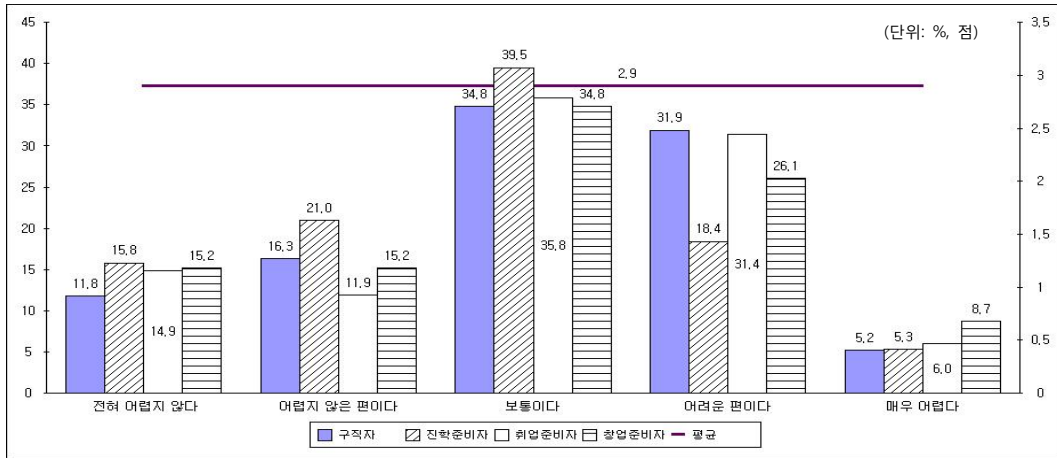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	30만원 이하	30~50만원 미만	50~75만원 미만	75~100만원 미만	100~120만원 미만	120~150만원 미만	150~180만원 미만	18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GLM -test
전체		273 (100.0)	35 (12.8)	34 (12.5)	47 (17.2)	27 (9.9)	35 (12.8)	53 (19.4)	27 (9.9)	6 (2.2)	9 (3.3)	89.7 (53.6)	
아르바이트 내용	매장 관리	63	11.1	22.2	19.1	11.1	12.7	14.3	6.3	3.2	0.0	77.6 (44.6)	3.8***
	서빙 주방	48	12.5	18.7	35.4	16.7	2.1	8.3	4.2	2.1	0.0	67.5 (40.2)	
	서비스	22	18.2	18.2	9.1	4.6	4.5	18.2	22.7	0.0	4.5	94.1 (70.8)	
	생산 기능	32	6.3	3.1	21.9	6.3	15.6	18.7	15.6	0.0	12.5	109.8 (54.7)	
	사무 회계	51	9.8	3.9	7.8	9.8	25.5	31.4	9.8	2.0	0.0	99.9 (42.7)	
	IT 디자인	7	14.3	0.0	14.3	0.0	28.6	28.6	14.2	0.0	0.0	95.7 (45.0)	
	상담 영업	17	5.9	17.6	0.0	5.9	0.0	41.2	0.0	11.8	17.6	131.0 (77.8)	
	강사 교육	8	0.0	12.5	25.0	25.0	0.0	25.0	12.5	0.0	0.0	90.6 (45.5)	
	기타	25	36.0	0.0	8.0	4.0	20.0	12.0	16.0	0.0	4.0	81.7 (60.8)	

주) 구직자 및 준비자 중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무응답자 13명 제외

⑥아르바이트 병행의 어려움

[그림 VII-7]에서는 구직 또는 준비하는 일들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2.9점으로 보통 수준 이하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I-7】 구직자 및 준비자의 아르바이트 병행에 따른 어려움 정도

그러나 진학준비자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와 진학준비의 병행이 어려워 현재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준비자 중에서도 공무원시험과 같이 진학준비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청소년의 경우 또한 아르바이트의 병행이 공부의 집중을 방해한다는 판단 하에 그만두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심층면접에서 포착되었다.

“일 하면서 (공부)하면 좀 그렇지요. ...학원은 그 때 안 다녔어요. 도서관 다니면서 혼자 공부했어요.”(청소년C2)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없어요.”(청소년C3)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유는) 공부에 집중하자....그건 아니고 (공부) 시간이 더 있다는 거.”(청소년C4)

⑦부당행위의 경험

아르바이트 병행의 어려움과 함께 <표 VII-37>에서는 아르바이트 사업장 및 현재 일자리에서의 부당행위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장 많이 한 경험은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요구 받은 것으로 전체의 26.5%가 경험하였으며,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17.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재학 중

경험한 부당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는 20대 초반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10대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II-37 취업자, 구직자 및 준비자의 현재 (일)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경험

(단위: %)

부당행위 내용	전체	취업자	구직자	진학 준비자	취업 준비자	창업 준비자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2.1	11.0	14.1	7.9	11.9	15.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2.9	11.4	15.6	5.3	13.4	17.4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	26.5	26.0	29.6	23.7	19.4	32.6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7.4	17.4	18.5	7.9	20.9	17.4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5.1	4.6	5.2	2.6	7.5	6.5
일을 그만두고 싶는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7.5	7.3	10.4	0.0	6.0	8.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7.5	5.5	9.6	2.6	7.5	15.2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1.0	0.0	1.5	0.0	3.0	2.2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3.6	3.2	5.9	0.0	1.5	4.3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0.8	0.0	0.7	0.0	3.0	2.2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3.6	2.3	3.7	0.0	6.0	8.7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8.9	7.8	14.8	2.6	6.0	6.5
기타	2.6	1.8	3.7	2.6	3.0	2.2

<표 VII-38>에서는 경험한 부당행위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처 또한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직자와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의 경우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했을 때는 고용주에게 항의하거나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

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면 대부분 그만두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자 수가 많지는 않으나 고용주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그만두거나 도움을 청할 것을 몰라 그냥 다니는 등 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였고, 성희롱을 당해도 도움 청할 곳을 몰라 그냥 다녔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8 취업자, 구직자 및 준비자의 현재 (일) 아르바이트: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부당행위 내용	전체	취업자	구직자	진학 준비자	취업 준비자	창업 준비자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①	①, ③	①, ②, ③	③, ④	①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①	①	①, ④	①	①, ②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	①	①	①	①, ⑨	①	②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①	①	①	②	①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⑧	⑧	⑧	⑥	①, ⑧	①
일을 그만두고 싶는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①	①, ⑧	②, ④, ⑧	-	①	①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①	⑧	①	①	①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⑧	-	⑧	-	①, ⑧	②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②	①	②	-	⑤	①, ②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⑧	-	⑧	-	①, ⑧	②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①	①, ②	-	⑧	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②	②	②	①	①	①
기타	①, ②	①, ⑧	②, ⑨	②	②, ⑥	①
부당행위 대처방법						

- ①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했다.
 ②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 참고 일했다.
 ③ 고용주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 했다.
 ④ 부모,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았다.
 ⑦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⑧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심층면접에서는 구직이나 준비상태에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어떠한 부당행위를 경험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청취할 수 있었다. 재학 중 아르바이트 때와 마찬가지로 임금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주이고, 임금을 깎기 위한 사업체의 자체 수습기간의 적용이나 지각비 등과 같은 일명 ‘임금 깎기’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의 수위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편의점은 (최저임금) 4,860원인데,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배우는 것이라고 해서 수습기간 때문에 몇 백 원 까는데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딱히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일부러 카페는 제가 한 번도 일 안 해봤는데 일 해봤다고 거짓말 했어요.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도 필요 없는데. ... (지각하면 시급에서 까고) 카페가 5시 반까지 출근인데, 5시31분만 되어도 5천원 까는 거라고. 밖에 나갔다 오라고 해서 카페 밖에서 1시간 앉아 있다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청소년A3)

“(친구 중에) 꽤 있어요.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이 있었어요. ... 언뜻 들었는데 공사장에서 알바 하다가 다쳤는데 치료비도 없이 알바 그만 뒀다고 하더라고요.”(청소년A2)

“중소기업에서 6개월 못 받은 친구가 있어요. ... 신고해야 하는데 언젠가 주겠지 하더라고요. 답답해요. ... 모르겠어요. 신고하기 그렇대요.”(청소년A3)

“(호텔) 엘리베이터 알바들은 예쁜 애들만 하니까... 울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지나친 농담, 그리고 하대가... 가장, 욕이 제일 심했지요. 언어폭력. ... (중략) 예약이 빨리 끝나면 돌아갈 수 있는데, (담당 홀 일이)빨리 끝나면 다른 홀로 옮겨서 그 쪽 일을 하도록 했어요.”(청소년D3)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때 사업주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사례는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선량한 마음까지도 악용하고 있는 부당사례로 볼 수 있다.

부당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우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부당행위에 대한 대처방법은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경험이나 정보에 의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다수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근로보호에 관한 정보에 접근을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조차도 알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급여를 안 준 업체가 있었어요. 그거 때문에 제가 노동부 가서 신고 한 적도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일했던 곳에 문자나 연락을 먼저 하고, 그래도 계속 안주면 노동부에 가지요. ... (노동부 신고 정보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검색하다보니 급여 안 받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청소년C8)

“(청소년 노동상담, 그런 데는) 아는 애들의 경우, 알고 있는 애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되거나, 딱 TV에서 공익광고가 없으니까...(친구들끼리) 공유하면서, 주변에 알바하는 사람들이 남긴 글이나 그런 거.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개인)블로그나 거기를 더 많이 이용한 것 같아요. 알바천국 그런 곳보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 쓰는 거니까.”(청소년C8)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경험한 부당노동행위가 일 및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설정과 목표를 수정 하는 계기도 되고 있음을 심층면접을 통해 발견하였다.

“(아르바이트 해 보기 전과 후에)엄청 달라졌지요. ... (중략) 알바생에 대한 하대가 심해서, 내가 고졸이라면 계속 이런 상태겠구나... 대학 진학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대학도 안다니는 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뒤에서도 들리라고 크게 말씀하셨어요. 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청소년D3)

3) 소비활동

(1) 소비지출

소득활동에 이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소비활동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대략적인 소비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월평균 소비지출금액을 <표 VII-39>와 같이 살펴보았다. 전체 월평균 소비지출금액은 55.9만원이며, 이러한 월소비지출금액은 하위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집단은 창업준비자로 월평균 78.9만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78.0만원)가 이와 비슷한 규모의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비지출 금액이 낮은 집단은 진학준비자로 월평균 29.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9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소비지출: 월평균 총 소비지출금액

(단위 :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10 만원 미만	10~ 20 만원 미만	20~ 30 만원 미만	30~ 50 만원 미만	50~ 70만원 미만	70~ 100 만원 미만	100~ 150 만원 미만	150 만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GLM -test
전체	983 (100.0)	117 (11.9)	130 (13.3)	123 (12.5)	185 (18.8)	126 (12.8)	126 (12.8)	113 (11.5)	63 (6.4)	55.9 (51.0)	
하 위 집 단	취업자	219	2.8	3.2	5.0	16.0	17.8	25.1	21.9	8.2	78.0 (42.8)
	구직자	221	7.7	8.6	7.2	19.9	16.3	16.8	14.0	9.5	68.7 (53.8)
	진학 준비자	220	17.7	25.5	23.6	20.9	5.5	1.8	2.3	2.7	29.5 (31.5)
	취업 준비자	155	12.9	18.1	16.1	21.3	16.1	5.2	7.7	2.6	42.0 (40.4)
	창업 준비자	57	0.0	5.3	5.3	22.8	15.8	24.5	17.5	8.8	78.9 (54.6)
	니트	111	31.6	15.3	14.4	12.6	4.5	7.2	6.3	8.1	46.5 (68.6)
											32.6***

심층면접에서 제보된 사례들을 통해 보면, 취업자들은 본인의 근로로 지출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저축을 한다. 진학준비자들은 학원비, 주거비, 식비 등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이 항목 외에 개인적인 용돈으로 쓰는 금액은 많지 않았다.

“어머니 60만원 드리고, 자동차 할부 40만원 나가고, 주택청약 10만원, 재형저축 10만원 핸드폰비 내고 보험, 상해보험 치아보험 이런 거 나가고 나머지는 제가 술 먹고 데이트 하고 카드값 내고, ... (돈이 부족할) 때는 엄마한테 아쉬운 소리 하죠. 유일하게.”(청소년A1)

“학원비까지 포함해서 한 60만원 정도... 개인적으로는 거의 안 써요.”(청소년C1)

“한 달에 80. 밥 먹는 거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주고(독서실비, 개인용돈까지)100만원 넘게 들죠.”(청소년C3)

“부모님이 어느 정도 주시고 저도 어느 정도 충당하고요, 잠깐씩 아르바이트 하면서.”(청소년C8)

“(아르바이트) 조금씩 하고 오빠하고 엄마에게 용돈 받아서 쓰고 있어요.”(청소년D2)

<표 VII-40>에서는 이와 같은 수준의 소비지출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VII-40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소비지출: 월소비지출 금액 조달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	부모님 지원	본인의 근로 (아르바이트 등)	저축해 두었던 돈 사용	은행 대출	현금 서비스 이용	친척 에게 빌림	친구나 지인에게 빌림	사금융 또는 대부업체 대출
전체		977 (100.0)	593 (60.7)	468 (47.9)	513 (52.5)	10 (1.0)	35 (3.6)	4 (0.4)	40 (4.1)	4 (0.4)
하위 집단	취업자	219	31.5	86.3	47.0	1.4	6.4	0.5	4.6	0.5
	구직자	219	47.9	65.8	54.8	2.3	3.7	0.5	5.9	0.5
	진학 준비자	220	92.3	13.2	37.7	0.5	0.5	0.0	0.9	0.0
	취업 준비자	155	65.2	39.4	63.2	0.0	3.2	0.6	3.9	1.8
	창업 준비자	57	42.1	77.2	50.9	1.8	1.8	0.0	8.8	1.8
	니트	107	85.0	0.9	74.8	0.0	5.6	0.9	3.7	0.9

주) 총 983명의 조사대상자에서 무응답 6명 제외한 총 사례수

복수응답으로 측정한 조달방법 중 부모님 지원을 통한 조달 방법이 6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저축해 두었던 돈을 사용하는 비율도 52.5%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취업자의 경우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인근로를 통해 조달하는 비율이 86.3%이며, 구직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조달하는 비율이 65.8%로 가장 높다. 준비자 집단의 경우, 진학준비자는 92.3%가 부모님 지원이고, 취업준비자의 경우 부모님 지원(65.2%)과 저축했던 돈을 사용(63.2%)하는 경우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준비자의 경우 본인근로의 비율이 7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의 경우는 부모님 지원(85.0%) 또는 저축했던 돈 사용(74.8%) 이외에 다른 조달방법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비소비 지출: 저축 및 부채

소비지출에 이어 비소비지출을 저축과 부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표 VII-41>에서는 저축을 하는지의 여부와 저축을 하는 목적을 복수응답으로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은 45.2%이며, 저축 목적으로는 만약을 대비한 저축이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생활비나 용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3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집단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저축하는 비율은 취업자(68.9%)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으며, 이들의 33.8%는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25.8%는 결혼준비, 25.2%는 주거지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와는 달리 구직자와 준비자 집단에서는 생활비나 용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저축을 한다는 비율이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단, 창업준비자 집단에서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의 저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I-4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비소비지출: 저축여부 및 목적(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저축 하고 있음	진학시, 등록금 마련	생활비 (용돈) 충당	원하는 상품/서비스 구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주거지 마련	만약을 대비한 자금 준비	내 사업 자금 마련	여행/ 어학 연수 경비	별다른 목적 없음	기타
전체		983 (100.0)	444 (45.2)	74 (16.7)	136 (30.6)	79 (17.8)	35 (7.9)	98 (22.1)	91 (20.5)	165 (37.2)	38 (8.6)	62 (14.0)	31 (7.0)	14 (3.2)
하위 집단	취업자	219	68.9	21.2	16.6	10.6	7.3	25.8	25.2	33.8	10.6	19.9	6.6	2.6
	구직자	221	46.6	14.2	33.0	9.45	11.3	35.8	24.5	24.9	4.7	8.5	3.8	2.8
	진학 준비자	220	29.1	29.2	43.1	44.6	0.0	1.5	3.1	38.5	1.5	12.3	7.7	1.5
	취업 준비자	155	43.2	5.7	38.6	20.0	12.9	14.3	18.6	34.3	4.3	10.0	11.4	2.9
	창업 준비자	57	54.4	3.0	33.3	12.1	6.1	30.3	15.2	24.2	36.4	9.1	6.1	3.0
	니트	111	25.2	8.6	28.6	17.1	2.9	0.0	20.0	57.1	2.9	14.3	5.7	8.6

<표 VII-42>에서는 월평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저축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전체 월평균 29.1만원 정도를 저축하며, 하위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가장 많은 금액을 저축하는 집단은 취업자로 월평균 44.6만원을 저축하고, 창업준비자의 경우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월평균 31.8만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소비지출: 월평균 저축액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10 만원 미만	10~ 20만원 미만	20~ 30만원 미만	30~ 50만원 미만	50~ 70만원 미만	70~ 100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평균 (표준 편차)	GLM -test
전체	444 (100.0)	110 (24.8)	103 (23.2)	45 (10.1)	76 (17.1)	60 (13.5)	28 (6.3)	22 (5.0)	29.1 (30.7)	
하위 집단	취업자	151	6.6	15.9	9.9	23.2	24.5	11.3	8.6	44.6 (35.5)
	구직자	103	18.4	25.2	13.6	18.4	11.7	7.8	4.9	29.8 (27.3)
	진학 준비자	64	60.9	23.4	7.8	6.3	0.0	0.0	1.6	10.0 (16.2)
	취업 준비자	67	38.8	29.8	6.0	13.4	9.0	1.5	1.5	17.3 (19.8)
	창업 준비자	31	12.9	29.0	9.7	22.6	16.1	3.2	6.5	31.8 (30.3)
	니트	28	42.9	32.1	14.3	7.1	0.0	3.6	0.0	12.2 (14.8)

19.8***

저축에 이어 <표 VII-43> 및 <표 VII-44>에서는 부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표 VII-43>에서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어떠한 대출 기관을 통해 부채를 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의 29.3%가 부채를 지고 있으며, 취업자(35.2%), 구직자(37.6%), 창업준비자(45.6%) 집단의 경우 평균보다 부채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부채 보유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창업준비자 집단으로 밝혀졌다.

부채가 있는 이들의 45.8%가 가족/친인척/친구/지인 등 사적인 경로를 통한 부채를 갖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의 비율이 30.2%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족/친인척/친구/지인 등 사적인 경로를 통해 부채를 갖는 비율은 진학준비자에게서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은 창업준비자 집단에서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창업준비자의 경우 사금융 및 대부업체 대출을 보유하는 비율도 26.9%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VII-43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소비지출: 부채유무 및 경로(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부채 있음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대금 연체	사금융 및 대부업체 대출	국가 대출	가족/친인척/ 친구/지인에 게 빌린돈	기타
전체		983 (100.0)	288 (29.3)	87 (30.2)	37 (12.8)	34 (11.8)	65 (22.6)	132 (45.8)	18 (6.3)
하위 집단	취업자	219	35.2	33.8	10.4	11.7	28.6	44.2	3.9
	구직자	221	37.6	28.9	16.9	15.7	18.1	45.8	8.4
	진학 준비자	220	12.7	21.4	10.7	7.1	21.4	64.3	3.6
	취업 준비자	155	25.8	17.5	12.5	2.5	27.5	40.0	7.7
	창업 준비자	57	45.6	42.3	15.4	26.9	19.2	46.2	7.7
	니트	111	30.6	38.2	8.8	5.9	17.6	41.2	5.9
x ² -test			48.4***	7.4	2.3	11.9*	3.7	4.7	1.9

<표 VII-44>에서는 부채를 보유하고 된 사유를 살펴보았다. 전체의 37.5%가 내 생활비 마련으로 부채가 생겼으며, 21.5%가 내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부채는 구직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51.8%로 절반이 넘는다. 이들 사유 이외, 진학준비자 집단에서는 유흥비마련을 위한 부채보유 비율이 3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상반되게 니트 집단에서는 가족의 생활비 또는 부채상환을 위해 내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비율이 17.6%로 나타났다.

표 VII-44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소비지출: 부채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내 교육비 마련	내 교육비 이외 취업 준비금 마련	내 거주 비용 마련	내 생활비 마련	내 유흥비 마련	가족 (나 이외의)의 생활비 또는 부채상환을 위해서	기타	x ² - test
전체	288 (100.0)	62 (21.5)	10 (3.5)	22 (7.6)	108 (37.5)	37 (12.9)	30 (10.4)	19 (6.6)	
하위 집단	취업자	77	27.3	2.6	2.6	38.9	10.4	9.1	50.1*
	구직자	83	13.3	4.8	9.7	51.8	9.6	7.2	
	진학 준비자	28	25.0	0.0	7.1	17.9	39.3	10.7	
	취업 준비자	40	30.0	2.5	10.0	30.0	12.5	10.0	
	창업 준비자	26	15.4	7.7	7.7	38.5	3.8	15.4	
	니트	34	20.6	2.9	11.8	23.5	11.8	17.6	

심층면접 참가자를 통해 부채 사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었다. 한 참가자의 부채는 자동차 구매로 인한 부채이고, 다른 한 명은 생활비 대출로 인한 부채였다.

“...자동차 할부 40만원 나가고, ...(그 외에 따로 빚은) 없어요.”(청소년A1)

“제 이름으로 대출 받은 것이 있어서...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은행 두 곳에서 받았거든요...제가 벌면 제 것으로 이자를 갚았는데.”(청소년D2)

4) 여가활동

근로활동과 소비활동에 이어 <표 VII-45> 및 <표 VII-46>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어떠한 여가활동을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표 VII-45>에서는 주로 하는 여가활동을 살펴보았는데, 전체의 50.5%가 취미오락 활동을 하며, 23.9%가 문화예술관람 활동, 16.6%가 휴식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참여(1.6%)나 스포츠참여(2.4%), 사회활동 등(2.0%) 신체를 움직이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II-45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여가활동: 주된 여가활동(1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 오락	휴식	사회 활동 등	χ^2 - test
전체	983 (100.0)	235 (23.9)	16 (1.6)	19 (1.9)	23 (2.4)	11 (1.1)	496 (50.5)	163 (16.6)	20 (2.0)	
하 위 집 단	취업자	219	29.2	1.4	1.4	3.2	0.4	47.5	12.8	107.7***
	구직자	221	24.0	3.6	1.4	0.9	2.3	58.8	8.6	
	진학 준비자	220	15.5	0.9	1.8	2.7	0.0	48.2	28.6	
	취업 준비자	155	29.7	1.3	4.5	2.6	1.3	45.1	15.5	
	창업 준비자	57	42.1	1.8	3.5	1.8	0.0	36.8	14.0	
	니트	111	12.6	0.0	0.0	2.7	2.7	58.6	18.9	

이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 VII-46>에서는 여가활동 상위 5개 항목의 세부 항목들을 다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즐기는 취미오락 활동을 크게 인터넷 게임과 인터넷 검색 및 SNS 활동으로 나누어 본 결과, 인터넷 검색 및 SNS 활동(15.3%)보다는 인터넷 게임(20.9%)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자 집단의 경우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비율(29.9%)이 인터넷 검색 및 SNS 활동(13.1%)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집단과 더불어 니트 집단에서도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비율이 27.0%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인터넷 검색 및 SNS 활동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진학준비자(24.1%)와 니트(23.4%)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집단과는 다르게 창업준비자 집단에서는 영화 관람을 하는 비율이 35.1%로 높아 10~20% 내외로 나타난 다른 집단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V시청과 같은 휴식활동은 진학준비자(16.4%)와 니트(12.6%) 집단 청소년들이 낮지 않은 비율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6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여가활동: 여가활동 상위 5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문화예술 관람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영화보기	인터넷(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및 SNS	TV시청	낮잠
전체	983 (100.0)	209 (21.3)	205 (20.9)	150 (15.3)	94 (9.6)	60 (6.1)
하 위 집 단	취업자	219	26.5	19.2	9.6	7.3
	구직자	221	22.2	29.9	13.1	4.5
	진학준비자	220	13.2	15.0	24.1	16.4
	취업준비자	155	25.2	16.1	11.6	9.7
	창업준비자	57	35.1	15.8	5.3	5.3
	니트	111	12.6	27.0	23.4	12.6

이와 같이 인터넷 게임과 영화감상을 중심으로 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에 대해 심층면접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청취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하는 운동 또는 음주 활동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감상도 인터넷으로, 운동도 혼자하는 여가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집에서요. 뉴스시청... (취미는) 운동하고 주말마다 토요일 저녁에 축구하고.”(청소년A1)

“친구들하고 PC방 가서 컴퓨터 하고 술 마시고.”(청소년A2)

“축구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지 많이 안 하고 딱히 여가는 카페 가서 얘기하고, 얼굴 보는 거 자체가 여가를 즐기는 것 같아요. 일안 하는 거 자체가.”(청소년B1)

“(여가 시간에) 술...저희 가족이 술을 잘 먹어요. 술 먹는 거 좋아해요.”(청소년B2)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서 영화 보거나. 한 달에 한번 가끔 친구도 만나고. 혼자서 노래방도 가고. 스트레스도 풀고.”(청소년C3)

“아침에 운동해요. 1시간씩...방에서 스트레칭 하고 팔굽혀 펴기 해요. ... 가끔 영화 보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여자 친구 만나서 같이.”(청소년C4)

여가 활동과 관련하여 심층면접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여가를 즐기는데 있어 동일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상의 여러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도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일상에서 자주 접한다는 사실이다.

“... 박물관, 미술관은 대학생 할인이 되는데... 비진학자는 학생증이 없고, 나이는 같은데. 어디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 공모전에서도 자격 요건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공모전. KB나 큰 것(공모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쪽에서도 별별 사람이 다 지원하니까 제한을 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청소년C7)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참가 기회에 있어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참가 자격에서 쉽게 배제되고 있음을 심층면접에 참가한 30대 성인의 제보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다.

“국토순례... 그런 것은 대학생만 되잖아요. 그런 거 (참가) 하고 싶었는데... 대학원생·대학생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도 해 주면 좋겠어요. 굳이 그건 대학생이라고 한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대학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걷는 것이... 뭐가 틀릴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중략) 그렇게 대학 가고 안 가고 차이가, ... 그렇게 뭐 차이가 있을까 싶어요.”(30대성인A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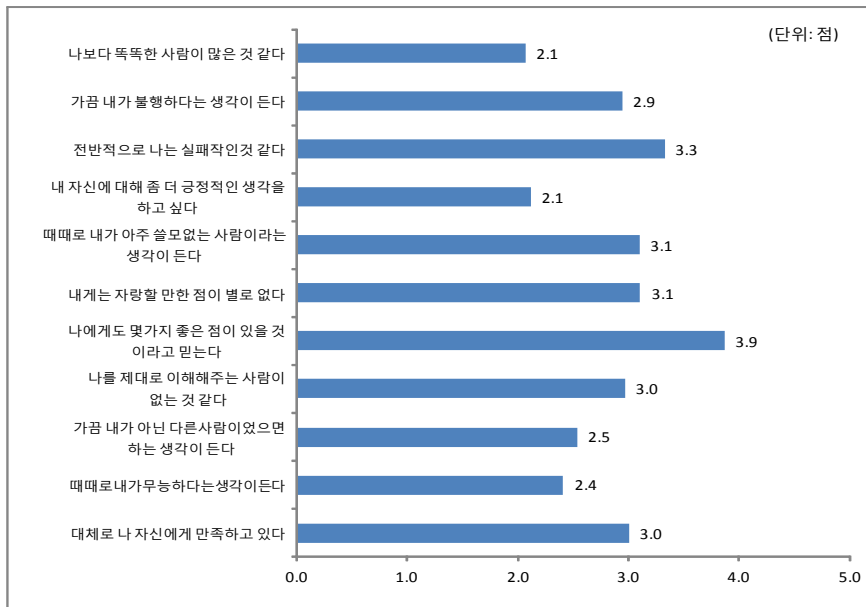
3. 일상생활에서의 의식 실태 및 향후 계획

1) 자존감, 진로성숙도, 미래관

(1) 자존감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 이어 여기에서는 의식 실태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았다. 그 첫 번째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그림 VII-8] 및 <표 VII-47>과 같이 살펴보았다.

자존감은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5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전체 평균 2.8점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보통 이하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취업자(2.9점), 창업준비자(2.9점), 진학준비자(3.1점)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구직자(2.7점), 취업준비자(2.7점), 니트(2.5점) 집단이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니트 집단이 6개 하위집단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I-8】 자존감 문항별 평균

표 VII-47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의식: 자존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총점(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983(100.0)	31.4(8.1)	2.8(0.7)
하위집단	취업자	219	32.7(7.5)	2.9(0.6)
	구직자	221	29.8(8.2)	2.7(0.7)
	진학준비자	220	34.2(7.7)	3.1(0.7)
	취업준비자	155	29.9(7.6)	2.7(0.6)
	창업준비자	57	32.8(7.9)	2.9(0.7)
	니트	111	27.9(8.4)	2.5(0.7)

이와 같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낮은 자존감은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이 다수인 사회에서 진학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심층면접에서 발견하였다. 또한 자신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준비도 시도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알아내고 찾아내는 시간과 속도가 제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속도와 동일한 상태에 있어야 함을 가정하고 요구하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자존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심층면접을 통해 발견하였다.

“... (친구들이) 대학 가기 힘든데 가면 똑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똑같은 거 못하고 있잖아요. ... 개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소외감 느끼고 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다 부질없다고. 네가 뭘 하고 싶은지 찾으려면 그게 진짜라고. 그래서 혼자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자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요리한 곳은 알바생이 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저빠고 다 대학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대학 안갔어? ...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학도 안갔으니 시간도 많을 것 같다고... 깔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를)되게 깔렸어요.”(청소년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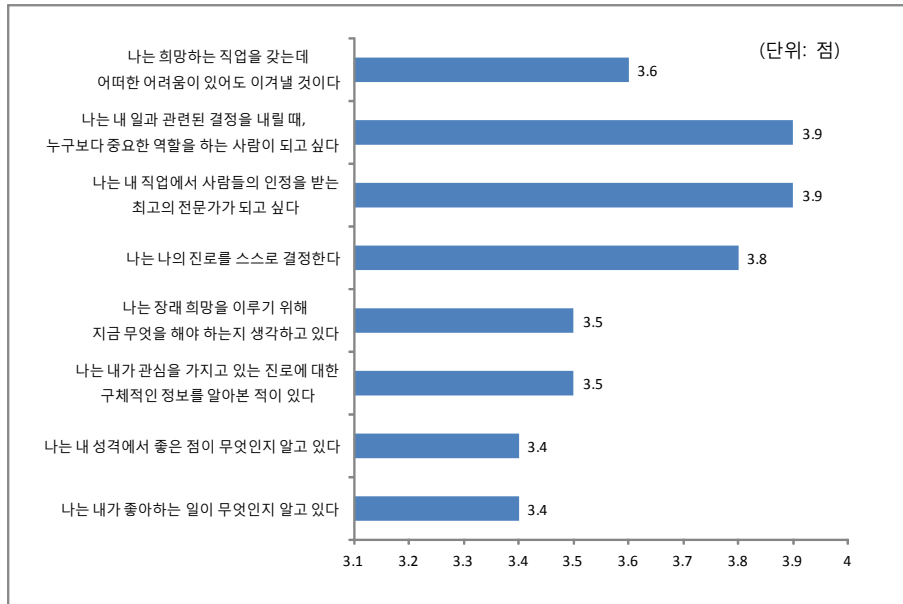
“왜 대학을 안 갔어, 라고 물어보면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다고 하지만 그 쪽에서 나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고등학교 밖에 안 나온 애 있잖아, 그렇게 말을 하거나 홍대를 졸업한 애들이 있으면 홍대 나온 애 있잖아, 라고 하는데 저는 대학교 안 간 애, 고등학교 졸업한 애라고 하는 것이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대학 안 간 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얘기하고 다녀요.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갔다면 이해를 하더라고요. 오해 받는 거 싫어서.”(청소년C7)

“...PC방 알바는 대학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항상 면접 보면 22살이네, 대학 어디야? 그래요, 고등학교만 나왔는데요, 하면 왜? 그래요, 왜라고 하면 딱 뭐라고 말을 할 지 모르겠고... 깔고 가는 느낌도 들고, 피해의식일 수 있는데...웬지 그래요. 어디 가나 대학이 필요하고 대학을 물어보고, ... 대학을 안 가면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청소년D3)

(2) 진로성숙도

자존감에 이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그림 VII-9]와 <표 VII-48>과 같이 살펴본다. 자존감과 달리 진로성숙도는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5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전체 평균 3.6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진학준비자(4.0점)와 창업준비자(3.8점), 취업자(3.7점) 집단의 진로성숙도가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구직자(3.5점)와 니트(3.1점) 집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6개 하위집단 모두에서 보통(3.0점) 이상의 수준이다.



【그림 VII-9】 진로성숙도 문항별 평균

표 VII-48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의식: 진로성숙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983(100.0)	3.6(0.7)
하위집단	취업자	219	3.7(0.7)
	구직자	221	3.5(0.7)
	진학준비자	220	4.0(0.6)
	취업준비자	155	3.6(0.7)
	창업준비자	57	3.8(0.7)
	니트	111	3.1(0.9)

(3) 미래관

<표 VII-49>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미래관을 살펴보았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된 미래관은 ‘그렇다’와 ‘아니다’로 측정되었으며, 각 항목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진학준비자와 창업준비자 집단에서 각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직자와 취업준비자 그리고 니트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전체를 기준으로 각 항목별 긍정 응답 비율을 비교해 보면, ‘나는 미래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긍정 응답 비율(83.1%)을 나타내었으며,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라는 항목에서 가장 낮은 긍정 응답 비율(62.0%)을 나타내었다. 특히 니트 집단은 이 항목에서 34.2%의 매우 낮은 긍정 응답을 보였다.

표 VII-49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의식: 미래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긍정 응답 비율						
		전체	취업자	구직자	진학 준비자	취업 준비자	창업 준비자	니트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983 (100.0)	62.0	69.4	53.4	78.2	59.4	64.9	34.2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983 (100.0)	72.9	72.1	68.8	85.9	69.7	77.2	59.5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983 (100.0)	66.9	67.1	65.6	71.4	61.9	75.4	63.1
장래에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983 (100.0)	77.6	78.5	71.0	90.0	71.0	91.2	66.7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 보통 사람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83 (100.0)	73.3	79.5	62.4	87.3	66.5	86.0	58.6
나에게 있어서 과거의 경험이 장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고 있다.	983 (100.0)	66.8	77.2	58.4	74.1	64.5	86.0	42.3

구분	사례수	긍정 응답 비율						
		전체	취업자	구직자	진학 준비자	취업 준비자	창업 준비자	니트
나는 미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983 (100.0)	82.4	82.2	77.4	95.9	77.4	93.0	67.6
나는 미래에 대한 큰 신념을 가지고 있다.	983 (100.0)	66.3	72.1	54.8	81.4	63.2	80.7	45.0
나는 미래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983 (100.0)	83.1	82.6	79.2	95.0	80.6	84.2	71.2

2) 생활만족도

(1) 기본특성 및 하위집단별 생활만족도

자존감, 자기성숙도, 미래관과 같은 사회·정서적 특성에 이어 <표 VII-50>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생활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평균은 5.3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생활만족도는 성별, 출신고교 유형, 하위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5.8점)이 여성(5.0점)에 비해 다소 높으며, 출신고교 유형에 따라서는 일반계(5.5점)>특성화계(5.3점)>점성고시(4.7점)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는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자(5.7점)와 진학준비자(6.1점), 창업준비자(5.5점)은 평균보다 만족하는 수준이 더 높고, 구직자(5.0점), 취업준비자(5.0점), 니트(4.4점)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니트의 현재 생활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VII-50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0점	1~4점	5점	6점	7점	8~10점	평균 (표준편차)	t/GLM -test
전체		983 (100.0)	30 (3.1)	268 (27.3)	173 (17.5)	175 (17.8)	173 (17.6)	164 (16.7)	5.3 (2.2)	
성별	남성	422	2.8	18.7	17.1	20.1	19.4	21.9	5.8 (2.1)	5.8***
	여성	561	3.2	33.7	18.0	16.0	16.2	12.9	5.0 (2.2)	
출신 고교 유형	일반계	573	2.4	26.2	16.6	17.8	19.0	18.0	5.5 (2.1)	2.9*
	특성화계	315	3.2	27.0	19.0	18.4	17.5	14.9	5.3 (2.2)	
	검정고시	89	6.7	33.7	19.1	16.9	10.1	13.5	4.7 (2.4)	
	기타	6	0.0	50.0	16.7	0.0	0.0	33.3	5.1 (3.2)	
하위 집단	취업자	219	1.4	18.7	20.1	24.2	18.2	17.4	5.7 (2.0)	12.7***
	구직자	221	3.6	33.5	18.1	16.3	15.4	13.1	5.0 (2.2)	
	진학 준비자	220	1.8	18.7	12.7	17.7	21.8	27.3	6.1 (2.0)	
	취업 준비자	155	1.9	33.5	20.0	16.8	18.7	9.1	5.0 (2.2)	
	창업 준비자	57	8.8	24.6	10.5	14.0	19.3	22.8	5.5 (2.6)	
	니트	111	6.3	41.5	21.6	11.7	9.9	9.0	4.4 (2.2)	

(2) 생활만족도 결정 요인

<표 VII-51>에서는 본 장에서 앞서 살펴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환경 및 활동특성, 그리고 의식 수준을 모두 반영하여, 현재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VII-51>과 같다.

표 VII-51

현재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구분	변수	전체	취업자	구직자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창업준비자	니트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특성	성별 (남성)	0.06 (0.09)	0.38 (0.21)	-0.21 (0.19)	0.19 (0.19)	0.29 (0.24)	0.07 (0.53)	-0.52 (0.37)
	연령	-0.06 (0.02)**	-0.07 (0.05)	-0.15 (0.05)**	0.02 (0.06)	-0.20 (0.06)**	0.13 (0.13)	0.08 (0.08)
학교 특성	출신 고교 유형 (특상학계)	0.21 (0.10)*	0.30 (0.20)	0.25 (0.19)	-0.14 (0.50)	0.20 (0.27)	-0.35 (0.53)	0.08 (0.32)
	출신 고교 소재지 (서울 및 수도권)	-0.15 (0.09)	0.30 (0.19)	0.09 (0.19)	-0.66 (0.19)**	0.02 (0.23)	-0.80 (0.50)	-0.52 (0.31)
부모 및 가족 특성	사회 보호 대상자 (대상자 가구)	-0.08 (0.17)	-0.45 (0.32)	-0.04 (0.30)	-0.04 (0.63)	0.98 (0.47)*	0.31 (0.86)	0.35 (0.67)
	월평균 부모 소득 (로그)	-0.00 (0.04)	-0.01 (0.09)	0.03 (0.08)	0.09 (0.15)	0.22 (0.12)	-0.54 (0.23)*	0.04 (0.14)
	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0.03 (0.13)	0.20 (0.25)	0.07 (0.24)	-0.68 (0.32)*	0.18 (0.35)	-0.95 (0.63)	0.54 (0.46)
	부모 관여도	-0.02 (0.06)	-0.02 (0.12)	-0.09 (0.12)	0.19 (0.13)	-0.17 (0.17)	-0.10 (0.31)	0.07 (0.20)
	가족 가속 응집력	0.32 (0.07)***	0.20 (0.14)	0.36 (0.15)*	0.22 (0.16)	0.39 (0.17)*	0.92 (0.40)*	0.47 (0.24)
	본인 근로 소득(로그)	-0.01 (0.02)	0.03 (0.12)	-0.04 (0.05)	0.01 (0.07)	0.09 (0.06)	0.24 (0.21)	-
의식	진로 성숙도	0.10 (0.07)	0.10 (0.16)	0.32 (0.15)*	-0.00 (0.17)	0.10 (0.18)	0.20 (0.47)	-0.02 (0.21)
	자존감	1.61 (0.07)***	1.41 (0.16)***	1.62 (0.16)***	1.41 (0.17)***	1.84 (0.20)***	1.08 (0.45)*	1.67 (0.24)***
	미래관	0.13 (0.02)***	0.10 (0.04)*	0.09 (0.04)*	0.26 (0.06)***	0.13 (0.05)*	0.32 (0.15)*	0.06 (0.06)
사회적 지지		0.34 (0.08)***	0.39 (0.19)*	0.45 (0.16)**	0.50 (0.20)*	-0.09 (0.19)	0.69 (0.48)	0.01 (0.25)
상수		-0.84 (0.71)	-0.27 (1.62)	0.00 (1.44)	-3.79 (1.72)*	1.07 (1.80)	-5.73 (3.59)	-3.50 (2.30)
N		983	219	221	220	155	57	111
F		98.17***	17.36***	28.13***	20.42***	18.45***	6.63***	10.22***
R ²		0.58	0.54	0.65	0.58	0.64	0.66	0.57
Adj. R ²		0.58	0.51	0.63	0.55	0.61	0.58	0.52

*** p<.001, ** p<.01, * p<.05

우선, 전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은 개인특성으로서의 연령, 출신고교 특성으로서의 고교유형과 소재지, 부모 및 가족특성으로서의 사회보호대상자여부, 월평균 부모 소득, 부모동거여부, 가족응집력, 청소년 의식과 관련한 변수로 진로성숙도, 자존감, 미래관, 그리고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집단별로는 서로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자존감의 경우 하위집단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각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전체집단과 구직자, 취업준비자 집단의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고교의 유형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집단에서 본다면 특성화계 졸업자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출신고교의 소재지는 진학준비자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진학준비자들 중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고교 졸업자들이 다른 지역에 소재한 고교 졸업자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학준비자 집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부모와의 동거여부인데, 부모와 비동거하는 진학준비자의 경우 동거자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호대상자여부는 취업준비자 집단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보호대상자로서 취업준비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소득수준은 창업준비자 집단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 준비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가족응집력 변수는 취업자, 진학준비자, 니트 집단을 제외한 3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 즉 현재 삶의 질에 가족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의식과 관련한 변수로서 진로성숙도는 구직자 집단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구직자 집단의 경우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식과 관련한 자존감변수는 모든 집단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로 밝혀졌다. 즉 자존감이 높을수록 어떠한 하위집단에 있든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이다. 이는

생활만족도로 대변될 수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재 삶의 만족도가 자존감에서 비롯되며, 자존감 회복이 20대 초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긍정적 삶의 내용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초가 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미래관은 니트 집단을 제외한 5개 하위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긍정적인 미래관을 가질수록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도 전체집단을 비롯하여 취업자, 구직자, 진학준비자 집단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부모 및 형제·자매, 친구 및 선후배, 회사 동료 및 상사, SNS 및 온라인 동호회 등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지지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현재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졸 비진학자의 현재 삶의 질에 긍정적인 자존감과 미래관, 사회적 지지, 그리고 가족응집력과 같은 사회·정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변수는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삶의 질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3) 향후 계획

(1) 취업자의 향후 계획

자존감, 진로성숙도, 미래관 그리고 현재 생활만족도에 이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VII-52>에서는 현재 고졸 비진학 청소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역에서의 정책대상자가 되고 있는 취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향후 계획을 살펴보았다³⁶⁾. 취업자의 경우 정부의 ‘후진학’ 정책의 주요 대상자이며, 군입대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산업기능요원 확대의 주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비록 표본 수가 적기는 하나, 이들의 향후 계획을 살펴보는 것은 정부의 정책수요자를 가늠하는데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먼저 <표 VII-52>에 제시된 취업자의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다른 일자리로 이직한다는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2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일한다는 비율은 24.2%로 나타났다. 이직은 아니지만, 내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이들도

36) 설문지에서는 1년 후 계획과 1년 이후의 미래계획을 측정하였으나, 미래계획에 무응답이 많아 1년 계획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5.9% 정도 있으며, 대학진학(14.6%) 또는 해외연수/유학(6.4%)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입대를 계획하고 있는 비율도 6.9%로 나타났으며, 9.1%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VII-52 취업자의 향후 계획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일함	다른 일자리로 이직함	대학 진학	내 사업을 시작	결혼	군입대	해외연 수/유학	기타	별다른 계획 없음
취업자	219	53 (24.2)	59 (27.0)	32 (14.6)	13 (5.9)	6 (2.7)	15 (6.9)	14 (6.4)	7 (3.2)	20 (9.1)

그렇다면 이러한 향후 계획을 갖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표 VII-53>에서는 취업자의 향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짓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수를 고려하여 비교적 유사한 계획을 묶어 종속변수를 4개 집단(①현직 유지, ②이직 및 내 사업, ③대학진학 및 유학 등 학업, ④계획 없음 등 기타)으로 나누었으며, ‘④계획 없음 등 기타’에 해당하는 이들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으로서의 성별과 의식특성으로서의 미래관,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로환경 및 조건에서의 월평균소득, 그리고 사회생활적응특성으로서의 직무몰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은 취업청소년의 향후 계획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남성의 경우 현직유지나 이직 또는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입대와 같이 기타사유에 포함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미래관은 이직 또는 사업할 계획을 가질 가능성과 대학 진학 또는 유학 계획을 가질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긍정적인 미래관을 갖는 취업청소년이 이직이나 사업, 또는 대학진학이나 유학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인들과는 달리, 현재 일자리에서의 월평균소득수준은 현직을 유지할 계획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월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직장에서의 계속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몰입의 경우도 현직 유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어, 직무몰입의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취업청소년들의 잦은 이직과 짧은 기간 내 퇴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과 직무에 대한 몰입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현재보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미래관을 갖는 이들이므로, 이들의 긍정적인 미래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VI-53 취업청소년의 향후 계획 영향요인: Multinomial Logit Analysis

구분	변수	현직유지/기타	이직 및 사업/기타	대학진학 및 유학/기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특성	성별(남성)	-1.10 (0.51)*	-1.56 (0.46)**	-1.71 (0.50)**
의식	진로성숙도	-0.04 (0.38)	-0.08 (0.34)	-0.05 (0.38)
	자존감	0.57 (0.38)	0.01 (0.35)	-0.12 (0.38)
	미래관	-0.12 (0.11)	0.22 (0.10)*	0.28 (0.11)*
근로환경 및 조건	현재일자리 근무기간	-0.00 (0.02)	0.02 (0.02)	-0.01 (0.02)
	종사상지위(상용직)	0.53 (0.54)	-0.93 (0.48)	-0.29 (0.52)
	주당근로시간	-0.00 (0.02)	-0.00 (0.01)	-0.00 (0.02)
	월평균소득(로그)	1.51 (0.69)*	0.33 (0.39)	0.84 (0.54)
	종사자수	0.14 (0.10)	0.00 (0.09)	0.02 (0.10)
사회생활적응	직무스트레스	0.06 (0.16)	0.12 (0.14)	0.10 (0.15)
	직무몰입	0.31 (0.10)**	0.03 (0.09)	-0.04 (0.09)
상수		-9.29 (3.19)**	-1.42 (1.89)	-3.79 (2.38)
N		219		
LR χ^2		93.67***		
Pseudo R^2		0.15		
Log likelihood		-253.09		

*** $p < .001$, ** $p < .01$, * $p < .05$

(2) 구직자, 준비자, 니트청소년의 향후 계획

<표 VII-54>에 제시된 취업자를 제외한 5개의 하위집단의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구직자나 준비자의 경우 다수가 현재 상태의 목표를 향후 계획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구직자(57.0%)와

취업준비자(70.3%)는 취업을 계획하고 있고, 진학준비자(89.6%)는 대학진학을, 창업준비자(35.1%)는 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각기 현재의 상태에 있는 이유가 향후 계획이다.

그러나 니트의 경우,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전체 니트의 4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비율도 24.3%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진학을 계획하는 이들도 9.9% 비중으로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현재 니트 상태에 있는 이들의 40% 정도가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니트 상태를 탈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

표 VII-54 구직자, 준비자, 니트청소년의 향후계획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취업	대학 진학	내 사업을 시작	결혼	군입대	해외연 수/유학	기타	별다른 계획 없음	χ^2 -test
전체	764 (100.0)	297 (38.9)	236 (30.9)	41 (5.4)	27 (3.5)	58 (7.6)	14 (1.8)	31 (4.1)	60 (7.8)	
구직자	221	57.0	8.6	4.5	6.3	10.0	3.2	3.6	6.8	710.8***
진학준비자	220	3.2	89.6	0.0	0.4	3.2	2.3	0.9	0.4	
취업준비자	155	70.3	4.5	3.2	1.3	10.3	0.7	3.2	6.5	
창업준비자	57	17.5	3.5	35.1	14.0	8.8	1.8	7.0	12.3	
니트	111	40.6	9.9	5.4	1.8	7.2	0.0	10.8	24.3	

이에 <표 VII-55>에서는 니트청소년의 향후 계획을 결정하는 요인을 네스티드로짓모델(Nested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모델의 첫번째 단계에서는 향후 계획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향후계획이 있는 니트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계획과 그 이외 계획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다³⁷⁾.

분석 결과, 니트청소년 집단에서 향후 계획이 있는지의 유무에는 니트청소년의 월평균소비지출금액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월평균소비지출금액이 많을수록 향후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소비지출금액이 소비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37) 구직자나 준비자의 경우 향후 계획이 취업 또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표 VII-5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구직자와 준비자 집단은 제외하였다. 또한 니트청소년의 향후 계획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표본수가 111명으로 적음을 고려하여 독립변수는 최소한의 변수로, 특히 가변수의 수를 제한하였다.

것이든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가정 하에서 소비하지 않거나 소비지출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제약이 있는 니트청소년 보다는 소비여력이 있는 이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향후 계획이 있을 경우, 그 계획이 취업계획인지의 여부에는 니트청소년의 연령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대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요인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낮고, 부모가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 일체를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니트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취업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교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긴, 연령이 높은 니트청소년들은 향후 무엇인가를 계획하더라도 취업을 계획하지는 않으며, 경제적 자립의지가 낮은 이들 또한 계획이 있더라도 취업계획은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니트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소비활동수준에서라도 무엇인가 끊임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야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노동시장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니트청소년들의 연령과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의지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VI-55 니트청소년의 향후 계획 결정요인: Nested Logit Analysis

변수		1단계: 향후계획 유무	2단계: 취업/취업 이외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특성	연령	0.06 (0.12)	-0.51 (0.17)**
	월평균소비지출금액(로그)	0.02 (0.01)*	0.01 (0.01)
	진로성숙도	-0.41 (0.34)	0.06 (0.43)
	자존감	0.11 (0.42)	0.11 (0.43)
	미래관	-0.16 (0.09)	0.14 (0.1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수준 (용돈포함 생활비일체)	0.25 (0.63)	-1.03 (0.45)*
부모 및 가족 특성	월평균 부모소득(로그)	-0.15 (0.20)	-0.02 (0.23)
	부모동거여부(비동거)	-2.44 (1.51)	-0.67 (0.45)
	가족응집력	-0.56 (0.39)	-0.69 (0.43)
상수		1.12 (3.27)	12.55 (4.41)**
N		111	84
-2Log Likelihood		103.52	-
Log likelihood χ^2		19.64*	91.57*

*** p<.001, ** p<.01, * p<.05

제3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정책욕구 및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

제 8 장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1. 고졸 비진학 청소년 공통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2. 취업 및 구직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3. 진학·취업·창업 준비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4. 니트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제 8 장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

1. 고졸 비진학 청소년 공통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현재 생활 실태 및 의식을 살펴본 VII장에 이어서, 본 장에서는 앞서 청소년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고, 여기에 현장 전문가의 시각과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의 선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을 더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 공통의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현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문제 또는 욕구가 아닌, 대학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이고 누적되어온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의 주요 정책욕구가 십여 년 전, 앞서 20대 초반을 경험한 30대 성인들과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의 확인을 통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정책욕구가 세대를 넘어 해소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과 그 문제들 속에서 드러나는 정책욕구를 네 가지(①기회의 제한, ②강제된 자기결정, ③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위축감, ④노동권의 침해)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1) 기회의 제한

(1) 일자리 선택의 제한

고졸 청소년들이 근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단지 분포 비율만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차이가 있을 뿐 그 일자리가 취업한 일자리인지 아르바이트 일자리인지에 상관없이 사무·회계, 서빙·주방, 매장관리, 생산·기능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고졸’이라는 학력을 일자리 선택을 제한하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학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의 제한은 이미 십수년 전 20대 초반을 경험한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도 동일한 경험을 하였으며, 그 제한이 단지 고교 졸업 직후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일 선택의 폭을 좁히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심층면접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캐드 배우고 나니까 원서 쓸 만한 곳)이 있긴 했는데 제한이 되더라고요. 학력이 많이 걸렸어요. ...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이 너무 축소되어 있어요. 아직 안 돼요. 나와야 해요. 안 그러면 돈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30대성인A4)

“보통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편의점, 홀서빙, 커피전문점, 다 이거인데 이거보다 회사에서 단순한 거라도 조금 저도 사무실에서 출퇴근하면서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데, ... 있으면 인포메이션(안내)이고 그런 것도 젊은 친구들을 원하고 조금 괜찮다 싶어서 보면 항상 뭐가 하나씩 걸려요. ... 거의 대부분 학력이 걸려요. 자격증, 영어.”(30대성인A6)

“... 왜냐하면 지금 대학이 너무 많잖아요. 대학 졸업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나와서 사무직 갈 수 없지요. 사무직 갔다는 것은 가끔 보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그 외에 없어요.”(30대성인B1)

“(고등학교를) 졸업만 해 버린 케이스는 계약직도 없습니다. 다 알바 밖에 없습니다. 보통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진짜 그게 아니라 모든 알바의 시작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제일 많고 야간도 많이 하고 해서 항상 수요가 있고 집 근처에 있어서 교통비 안 들고, 알바의 모든 시작은 대부분은 편의점에서 시작 합니다. 편의점이 단순노무라서 채용이 잘 되는 게 있고요. 알바도 조금 시급이 센 영화관 알바 아니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몸이 고되더라도 시급 센 쪽으로 나가고 계약직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현장전문가A2)

이처럼 고교 졸업 후 일자리 선택에 있어 직종이 한정되고 기회의 폭이 좁다는 사실을 체감한

고졸 비진학 성인들은 그 한계를 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으며, 후(後)진학 한 30대 성인들은 공통적으로 대학 졸업 후 취업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하였다.

“... 사회에서 지금 제가 하고 싶어도 나는 잘 할 수 있는데 채용 공고 자체가 무조건 대졸이야. 그러면 나는 내가 대학 안 나왔지만 이 업무로 사회생활을 계속 해 왔어. 그래서 대학 나와서 신입보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데 기회조차 안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회, 그런 상황이 있어서 대학을 늦게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진학을 했던 것 같아요.”(30대성인B9)

“(대학 졸업 하고) 훨씬 폭이 넓어졌어요. 일단 학벌에서 걸리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 때 (채용 공고에) 거의 다 대졸이 많이 써 있어서.”(30대성인B4)

“(대학졸업 후) 취업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요즘은 고졸 취업자는 거의 없어요. 월급은 너무 터무니없고 부당 대우도 많이 받으니까.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대학 진학을 하고 연수도 갔을 것 같아요.”(30대성인B5)

“아무래도 했으니까, 제가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 업무도 안 상태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레벨이니까 두 개를 더 지원할 수 있어서 아주 많다고 표현하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요.”(30대성인B7)

(2) 창업운영에서의 진입장벽과 네트워크 제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기회의 제한은 취업 시, 일자리 선택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게 고용되는 임금근로자로서의 취업 기회뿐만 아니라 자기사업을 하는 창업에 있어서도 학력에 따른 기회의 제한, 즉 학력에 따른 진입 장벽이나 네트워크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는 것을 심층면접에서 발견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측면에서 대졸자들과의 교류를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였다.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 외부 용역 들어 갈 때 박사 이상 제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 (중략) ... 사실 컨소시엄 들어갔는데 박사 몇 명 이상 A급이라고 하죠? A급 B급 C급 해서 석사 몇 명 있는데 경력이 이제 컨설팅도 그런데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학사 취득

후 15년 이상 경력, 이 분들은 그런 역량도 뛰어나신데... 단순히 (학력에 따라) 평가 받는다는 거 자체가 좋진 않았어요. 그런 차별 정도 어쩔 수 없죠.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사기업끼리 일 하기는 무리 없는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하고 일 하다 보면 아무래도..."(현장전문가C2)

"엄마가 이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걸을 때 신발을 구겨 신지 말고 물 한 잔 먹어도 컵에 따라서 마셔라. 고급스럽게 행동하고 말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누가 되어 버리지 않도록. 그런 것이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이 너무 잘 와 닿고 그러다 보니까 ... (중략) ... 자꾸 만나게 되는 사람도 대졸들을 만나게 되니까 좋은 정보를 자꾸 얻게 되고, 그런 좋은 효과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30대성인A1)

"대학 전공자는 학연이 연결이 되는데... 그런 애들은 또 그렇게 뭉치잖아요. ... 아무래도 그런 정보가 차단이 되기도 해요. 교수님이나 강사가 얘기를 해 주고 빠삭한데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밖에 없거든요. 친구들에게 듣거나. 친구들이 그 쪽 분야 아니면 전혀 관심 없고, 다행히 친구들이 예술 분야, 디자인 분야라서 얘기해 주고 연결해 주는 것이 많았어요" (청소년C7)

(3) 청소년활동과 공모전 등에서의 배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기회의 제한을 경험하는 것은 비단 일자리 선택이나 창업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앞서 VII장의 여가활동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 연령대의 대학생들에게는 보편적이고 선택가능하며, 주요 참가대상이 되는 청소년활동에 있어서도 기회의 제한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토순례와 같은 청소년활동에서도 참가대상을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한정한다거나, 각종 공모전의 지원 대상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국토순례) 그런 것은 대학생만 되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대학원생. 대학교가 아닌 그런 것도 대학비진학자도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도 해 주면 좋겠어요. ... 굳이 대학 간 사람하고 안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걷는 것이 뭐가 틀릴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30대성인A7)

"... 박물관, 미술관은 대학생 할인은 되는데 비진학은 학생증이 없고, 나이는 같은데 어디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범위도 적고, 공모전에서도 자격 요건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에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공모전. KB나 큰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쪽에서도 별별 사람이 다 지원하니까 제한을 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청소년C7)

이는 대학생이 20대 젊은이의 다수를 점유하다보니, ‘20대 청년=대학생’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여진다. 20대 청년은 대학생이 아니며(‘20대 청년≠대학생’), 20대 청년의 최소 25%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임을, 즉 20대 청년에 대해 우리사회가 제대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과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세대를 넘어 일자리 선택, 일거리 획득, 체험활동, 공모전 응시 등 일상생활 속에서 ‘고졸 학력’에 따른 제한을 경험하며, 이러한 한계와 제한으로 고졸 비진학자로서의 좌절감을 경험한다. 고졸자로서 경험하는 기회의 제한은 대학 진학을 통해 해소하고 있음을 30대 성인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과잉학력 및 학벌사회의 부작용이 우리사회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결국 개인의 대학 진학으로 학력에 따른 기회제한을 해소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비추어 볼 때, 학력에 따른 기회의 제한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고졸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강제된 자기결정

(1) 저학력 맞벌이 부모의 무관심

VII장에서 살펴본 고졸 비진학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적 특성에서 나타난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대한 부모의 관여수준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 결과가 모든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진로선택에 있어 자녀들에게 자기결정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의 진로에 관심이 높지만, 자녀의 진로선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관여하는 수준은 낮음을 의미한다. 진로선택을 스스로의 결정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현재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만은 아니다.

이미 이 시기를 경험한 30대 성인들도 이미 ‘강요된 자기결정자’로서의 경험이 있었다.

“... 그게 저희 가정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너무 바쁘게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나는 너에게 다 맡길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방임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학교나 어디서든 잡아주는 체계가 있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저희 언니라도 했을 텐데... 이게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아요. 다들 바쁘게 사셔서. ... 저희 때보다 더 방임하는 부모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게 꿈을 쫓는 학생도 물론 있겠지만 저와 같이 크고 있는 학생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30대성인B9)

“... 우리는 방목을 해요.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뭘 하든 뒷감당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라, 그런 스타일로 교육하셔서 소소하게 감싸고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네 선택은 존중하지만 그 결과는 네가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선택에 조언을 안 해 주세요. ... (중략) ... 저희 부모님은 진짜 중요할 때 나 몰라라, 하는 식이라서.”(30대성인B7)

“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 아버지가 경찰이다 보니까, 경찰 하다 보면 숙직하는 날도 많고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많은데, 쉬는 날은 산에 가기도 했는데, 놀러 가기도 했는데, 크게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한 기억이 없어요. 회사에 들어가도 한 달에 얼마 받냐? 사고 치지 말고 잘 해라, 라고.”(30대성인A3)

“(수능 떨어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뭐 할래? 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대학 가도 보내줄 형편도 안 되고 떨어지면 네가 힘든 것이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알아서 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30대성인A4)

저학력 맞벌이 부모가 자녀에게 진로선택의 자기결정을 강요하게 되는 것은 맞벌이로 인한 시간적 제약과 더불어 고교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부모의 인지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의 선택에 따른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회피와 부모도 경험해보지 않은 고교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보인다.

(2) 진로상담 및 멘토의 부재

고교 졸업 후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자기 결정 상태에 놓이게 되는 데에는 자신의 진로를 함께 이야기하는 진로상담자와 멘토가 고교 재학 중에도, 그리고 졸업 후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VI장과 V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교 재학 중에 이루어지는 진로상담은 인문계 고교 졸업자의 경우 대학 입시의 진학 상담이었고, 특성화계 고교의 상담은 취업상담이 주가 된다. 그나마 재학 중에는 형식적인 수준에서라도 교사와의 진로상담이 이루어지지만, 고교 졸업 후에는 진로상담 또는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나눌 수 있는 멘토가 전무한 실정이다. VII장의 사회적 지지 분석 내용에서도 기술된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대상은 ‘친구’로 압축된다.

진로결정과 선택을 온전히 자신의 결정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험은 30대 성인 고졸 비진학자들의 경험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모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혹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지난 시절과 같이 방황하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회고하였다.

“(부모님에게 대학 안 간다고 한 것은) 고 1때. 엄마는 대학 안 하고 뭐 할래? 하고 많이 실망하셨고 아빠는 가정에 관심을 막 주지 않아서 아빠는 얘기 안 했고 엄마는 힘들어 하셨지만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 엄마가 다는 모르셨을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방황하는지 몰랐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가 관심을 두셨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30대성인A6)

“... 저희 가족 분위기가 너의 결정에 따를게, 그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점을 보셨다고 하는데 애한테 터치하지 말고 애가 하는 방향으로 내버려 두면 알아서 밥벌이 한다고 했대요. 엄마가 그 말을 너무 맹신하셨는지 안 건드리는 거지요. 엄마에게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엄마는 그 얘기를 믿는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만약 지역 사회에서라도 저를 인솔해 주는 분이 있거나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도 명확하게 충고해 주셨으면 제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쉬워요.”(30대성인B9)

“졸업하면 끝이었어요. 유대를 해서 사후 관리는 전혀. 졸업하면 너 누구냐? 이 분위기지요. ... (중략) ... (그 때 만약 지역 사회에 이런 입시, 진로 관련된 것을 동사무소처럼 접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그랬으면 많이 상담을 받고, 지금처럼 헤매지 않았을 것 같아요. ... (중략)

... 어디 지역에서라도 정보가 있으면 제가 해 봤을 것 같아요. 그 때 저도 방황하던 시기고 뭘 해야 하는지 몰랐던 시기에 뭐라도 잡고 싶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저는 진로 상담도 받고 내가 어떻게 나가서 뭘 해야 할지 그 때 잡았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살아오면서 굉장히 후회가 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지? 그것으로 귀속이 돼요.”(30대 성인B9)

이상과 같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선택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보와 진로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미미한 수준이며, 30대 성인이 고교를 졸업하였을 당시와 현재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확대 지원되어온 진로서비스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및 가이드에 대한 공통적 욕구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본다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할 수 있으며 선택한 진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가이드 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위축감

(1) 공동체 및 또래문화경험의 부족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중요한 문제는 자존감이 낮고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V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 보통(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2.8) 자존감을 가지며, 특히 니트 청소년의 자존감은 하위집단 중 가장 낮은 2.5수준을 보인 바 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현장전문가들은 공동체 경험 또는 또래문화 경험의 부족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위축감의 원인을 찾았다. 다시 말해 고교 재학 중 학교생활에서도 공동체나 또래경험의 기회가 적고, 고교 졸업 후에는 그나마 또래공동체라고 부를만한 것조차 없기 때문에 나홀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위축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밖으로 또래가 안 생기는데 보통 대학 가면서 사회 전 단계로 선배들도 만나고 하는데 고등학교라는 게 선후배가 적거든요. ... (중략) ... 고등학교 자체가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후배 만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학교 같은 반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 이런 정도인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생활적인 측면에서 대학을 가지 않으면 공동체가 안 생기고 처음에 관계 맺는 게 알바 사장님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안타까웠는데... 졸업만 하면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 같고요. ... (중략) ... 알바를 많이 해 본 22세~23세까지 알바만 한 친구는 생각보다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있더라고요.”(현장전문가A2)

“과거에는 ‘우리’라는 게 많아서 친구가 어디 취업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 여기 취업했어, 거기 괜찮나, 응, 우리 사장님 한 명 데리고 오라는데 하고 묻혀 갔는데, 근데 요즘은 애들이나 혼자예요. 그 전에는 나 혼자면 두려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왜, 스마트폰이 있지. 뭐 있지, 뭐 있지. ... (중략) ... 그런 면은 아쉬운데, 어떻게 해요. 변화에 적응해야죠. 옛날에는 이랬는데 다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없고.”(현장전문가A3)

“청소년 문제를 보면 또래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못 나가고 그러면 더 고립되고, 근데 또래가 있으면 돈을 빌리거나 빈대를 붙는 게 가능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깐.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경험에 대한 것도 사실 필요하죠.”(현장전문가B3)

(2) 가족으로부터의 낮은 사회적 지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낮은 자존감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있다. 존재로서 무시당한다거나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받는 상처는 성인이 되어도 쉽게 회복되지 못함을 현장전문가와 30대 성인 대상 심층면접에서 확인하였다.

“가족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멀죠.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존감을 키워주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칭찬을 받긴, 어쨌건, 집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는 그렇게 무기력한 경우는 드물어요. 뭐라도 하는. 황당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똑같이 오는데... 이를테면, 요식업계 가서 웨이터 한다,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일단 뭔가는 하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집에서 관심 없어 하고 너한테 기댈 거 없다,

커서 뭐가 될 거야 라든지, 어디 가서 일자리 잡아서 회사만 다니면 된다 하는 경우는 관계도 멀고, 자기를 몰라준다고 생각하니까 일도 안 하게 되죠.”(현장전문가D1)

“지금도 대학 가라고, 너희 엄마는 숙대 나오고 아빠는 고대 나왔는데, 장남이, 경주김씨 대가공과가 대학 안 나왔다는 것이 말이 돼? 종친회 가면 할 말이 없어.”(30대성인A1)

“누나들도 점수에 맞게 (대학을) 가라. 방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관심이 없었어요. 나에 대해서.”(30대성인A2)

“(부모님은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혀 말씀 없으셨어요. (고민이 있거나 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할 때 상담할 상대가) 없었어요. 굉장히 필요했어요. ... 아무리 공부해도 올라가지 않아요. 고 1때는 했는데... 마음이 할까 말까 하다가, 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자꾸 성질 건드리고,”(30대성인A4)

(3)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

가정에서 가족의 사회적 지지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위축감이 영향을 받는다면, 고교 졸업 후 직면하는 고졸자에 대한 선입견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즉 V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진학자가 절대 다수인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소수자로서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바라보는 편견의 시선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자존감을 위축시킨다.

우리사회의 이러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다수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경험은 단지 20대 초반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편견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험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30대의 일상 속에서도 지속됨을 30대 성인 면접조사에서 발견하였다.

“...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엄마들 만났을 때, 그게 제일 난감해요. ... 학부모 만나서 대학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얘기 할 때. 많이 하지 않지만 중간중간 위축이 되고, 자격지심에... 개의치 않지만.”(30대성인A5)

“결정적인 것은 친구들하고 모이는데, 대학 간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데, 취업 나간 애들은

일 때문에 못 왔고 저만 대학생 애들 사이에 끼 있었어요. 학과 얘기하고 동아리 얘기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하니까 소외감도 느끼고.”(30대성인B2)

“위축감이 들지요. 딱히 너는 고졸, 그런 말을 한 적 없는데 괜히 미묘한 감정이 있잖아요,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내가 고졸이라서 그런가? 취업 나가면 대 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대학 나왔냐고, ... (중략) ... 직원들은 모르니까. 어느 대학 졸업했어? 몇 학번이나?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좀 그랬지요.”(30대성인B4)

‘고졸’자로서의 심리적 위축은 취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며, 그 경험은 일시적인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취업 과정에서의 고졸자로서 배제 경험은 좌절감과 함께 패배감을 맛보게 하며, 직장생활에서의 고졸자 배제 또는 대졸자와의 구별 짓기는 직장 내 왕따 경험과 함께 사회적 위축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쉽지 않아요. 아, 너 참 잘 한다. 기술은 애가 최고야. 승진 시키려면 고졸이네. 이 사람을 이 사람 그대로 봐 주는 것이 아니고 학벌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게 만연해요. 학벌 타파했어. 학벌 없어, 없애, 라고 하면서... (중략) ... 막상 면접 보러 가면 학교 여기 나오셨어요? 면접부터 그래요. 2년제인가요? 이런 식으로. 벌써 면접부터 패배감이 확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졸업장이라도 따야겠구나...”(30대성인B9)

“부모님이 하신 말이 너무 딱 들어 맞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작았는데도 약간, 제 자격지심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학교 얘기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기죽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거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요. ... 그 전에 어느 학교 나왔어? 하면 당연히 대학교 얘기 하는데 그럴 때 나는 대학 안 나오고 고등학교 나왔어, 하면 스스로 위축 되는 것이 있었거든요.”(30대성인B5)

“고졸을 받아주지도 않고 고졸에 대한 인식이 저하 되어 있어서 ... (중략) ... 사람들이 고졸 하면 안 좋게 보고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고졸인 애들이 취직을 해도 잘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30대성인B3)

“(직원들이 저보고) 대학도 안 나왔는데.... (입사할 때) 돈을 갓다 받친 거야? (여기) 왜 들어왔나?

터 타임 시간에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30대성인A1)

“사람들 만나면 아무래도, 대학 어디 나왔니? 라고 물어 봤을 때 안 나왔다고 할 때 약간 난감하지요. 위축이 되고...”(30대성인A2)

“자기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월급은 내가 더 받거든요. ... (중략) ... 회사에서 사무직 하면서 가끔 힘든 일은 지원하라고 해요. 멀티로 쓰려고 저를 올려 놓았는데...대 놓고 흥봐요. 여자들이 웅성웅성. 나를 왕따시켜요. 의류회사 다자이너 사무실에 올려놓고, 저만 자재를 하는데, 여기 다 여자고 저만 남자예요.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몰라요. 다 웅성웅성하고 따를 시켜요. 대 놓고 뒤에서 별 얘기 다 해요.”(30대성인A4)

이와 같은 30대 성인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20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위축감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차적으로 가족들로부터의 낮은 사회적 지지 그에 더하여 사회생활에서 받는 고졸자로서의 위축감과 대졸자와 구별 짓기 등 우리사회 곳곳의 왜곡된 시선들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구성원으로서 존재를 부정당하는 경험을 부여한다.

4) 노동권의 침해

(1) 주요 피해자가 되는 취약계층 청소년

학교 이외의 곳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험은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에서 부터이다. V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고, 고교 졸업 후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 경제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인데, 일 경험을 통해서 이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약속한 과업 이외의 추가적인 노동을 강요받는 부당행위 경험을 하게 된다.

<표 VIII-1>에 종합하여 정리된 바와 같이,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에서는 대체로 임금지급과 관련된 노동권 침해 경험을 하고, 현장 실습이나 현재 취업한 일자리에서는 임금보다는 추가 노동과 관련된 부당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에서 임금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임금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권 침해 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노동권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음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나마 임금문제가 가장 쉽게 파악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³⁹⁾.

표 VIII-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부당행위 경험: 고교 재학 중 및 현재 일자리 종합

부당행위	고교 재학 중 경험		현재일자리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전체	취업자	구직자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창업준비자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21.8	8.6	12.1	11.0	14.1	7.9	11.9	15.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35.3	11.8	12.9	11.4	15.6	5.3	13.4	17.4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	34.5	20.4	26.5	26.0	29.6	23.7	19.4	32.6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24.5	12.2	17.4	17.4	18.5	7.9	20.9	17.4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12.9	5.0	5.1	4.6	5.2	2.6	7.5	6.5
일을 그만두고 싶는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19.5	4.7	7.5	7.3	10.4	0.0	6.0	8.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5.0	9.7	7.5	5.5	9.6	2.6	7.5	15.2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2.5	1.1	1.0	0.0	1.5	0.0	3.0	2.2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5.3	1.8	3.6	3.2	5.9	0.0	1.5	4.3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0.6	0.4	0.8	0.0	0.7	0.0	3.0	2.2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9.7	1.8	3.6	2.3	3.7	0.0	6.0	8.7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8.0	12.9	8.9	7.8	14.8	2.6	6.0	6.5
기타	4.4	3.2	2.6	1.8	3.7	2.6	3.0	2.2

39) 정책자문회의(2013.11.4) 논의 내용

취업 전 단계로서의 현장실습이나 현재 일자리에서는 사업장 규제제도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부당행위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추가근로의 비율은 다른 부당행위 경험 비율의 2배를 넘어 높은 수준이다. 이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근로시간을 요구받고 있음을 시사하며, 취업한 일자리이든 아르바이트 일자리이든 상관없이 대체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근로활동을 하는 업·직종에서는 약속한 일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고졸자에게 주어지는 직무가 대체로 단순 업무로 명확하지 않거나 한 가지 업무만이 아닌 여러 업무를 동시에 견뎌야하는 중소기업의 운영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일을 통해 경험하는 부당행위 또는 노동권 침해의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일 또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맺는 약속과 신뢰(trust)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부당행위의 경험은 30대 성인의 아르바이트와 취업 경험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들의 회고적 경험에서는 도제식 일자리에서는 일을 배운다는 명목 하에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은 경험이 있고, 때로는 신체적 폭력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 아르바이트 하면 그 돈을 업주들이 많이 떼 먹는다고. ... 주유소에서 많이. 사장님, 알바는 계약서도 안 쓰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배 찜하는 식으로. (돈 안 주는 거예요?) 네. 그 때는 무지해서, 이런 것도 다 쓰고 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몰라서. ... 요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데 그 때 당시만 해도 그냥. 그리고 알바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법적으로 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30대성인B4)

“... 그때는. 너 목표가 뭐야? 세일즈의 목표가 뭐야? 무조건 다 매니저가 점장이거든요. 너는 경력이 없지? 너는 페이 이만큼만 받아. 일을 알려주는 입장이고 너는 나에게 배워 가는 거니까 오히려 너는 나에게 돈을 내고 일을 배워도 모자라는데 어쨌든 일이니까 성의 표시 하는 거 생각하고, 정말로 막내로 들어가면 한 달에 45만원...”(30대성인A1)

“백화점에서 상품권 행사 하면 상품권을 몇 개 미리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할인해 주는 매력처럼 느끼게 해서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스킬이잖아요. 백화점은 그걸 못 하게 하면서 매출 압박을 줘요. 왜 많이 못 팔아? 주로 그런 압박은 백화점 사무실에서 매니저에게 주고 매니저가 밑에 직원에게 주고. 그런데 그걸 해 줘야 상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걸,

상품권을 안 타 줘요. 상품권 타 줄게요, 하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직원이 가서 받아와야 하거든요. 갔는데 저를 눈여겨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창에 과장님이 있고 상품권 행사하는 분이 있는데 저를 알아본 거예요. 직원인 것을. 명찰 떼고 갔는데. 거기서 정강이를 발로 차는데 진짜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픈 것보다. 사람 많은 곳에서...”(30대성인A1)

(2) 낮은 노동권 인지 수준에 따른 적절한 대처 능력의 부족

Ⅵ장과 Ⅶ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고교 재학 중에도, 그리고 고교 졸업 후에도 노동권을 침해한 부당행위에 대해 참는다거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소극적 대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회피 수준의 소극적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노동 주체로서 자신의 노동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는데 있으며, 자신들의 경험만을 정보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경험으로서 아르바이트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청소년의 노동권 측면에서 이들의 노동인권의 인지수준을 높이고,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사업장 단속 중심의 보호 정책은 최소한의 노동시장 감시 정책으로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공급자의 노동권 인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며, 청소년들이 노동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알려주는 노동 상담과 부당행위 문제해결까지 함께 하는 성인의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Ⅷ-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부당행위 대응: 고교 재학 중 및 현재 일자리 종합

부당행위	고교 재학중 경험		현재일자리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전체	취업자	구직자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	창업준비자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③	①	①	①	①, ③	①, ②, ③	③, ④	①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①	①	①	①	①, ④	①	①, ②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	②	②	①	①	①	①, ⑨	①	②

부당행위	고교 재학중 경험		현재일자리					
	아르 바이트	현장실습	전체	취업자	구직자	진학 준비자	취업 준비자	창업 준비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①, ②	①	①	①	①	②	①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⑧	⑧	⑧	⑧	⑧	⑥	①, ⑧	①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②	②, ⑧	①	①, ⑧	②, ④, ⑧	-	①	①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⑧	①	①	①	⑧	①	①	①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⑧	①	⑧	-	⑧	-	①, ⑧	②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⑧	①	②	①	②	-	⑤	①, ②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②, ⑧, ⑨	⑤	⑧	-	⑧	-	①, ⑧	②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②	①, ⑧	①	①	①, ②	-	⑧	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뒷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⑧	②	②	②	②	①	①	①
기타	⑧	②	①, ②	①, ⑧	②, ⑨	②	②, ⑥	①
부당노동행위 대처방법								

- | | |
|---------------------------------|------------------------------|
| ①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했다. |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았다 |
| ②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 참고 일했다 | ⑦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
| ③ 고용주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 했다 | ⑧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 |
| ④ 부모,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 ⑨ 기타 |
| 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 |

이상과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공통적으로 갖는 주요 문제 및 정책육구에 이어 다음에서는 하위집단별로 이들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와 정책육구를 나누어 도출하였다.

2. 취업 및 구직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1) 단기퇴사 및 잦은 이직

(1) 군미필자에 대한 기업의 기피 및 군복무를 위한 짧은 근속 일자리의 선택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고교 졸업 후 평균 3.3개의 일자리를 경험하고,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길고 고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이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VI장의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VII장에서는 현재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9.8개월로 20세~24세 고졸자 평균 근속기간인 12.4개월보다 짧으며, 특히 남성(7.6개월)이 여성(11.4개월)에 비해 근속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속기간이 짧은 데에는 군복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군입대로 인하여 입대 전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을 고려한 남성들은 고교 졸업 후 진로 선택을 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30대 성인 심층면접에서 포착하였으며, 취업을 하였더라도 군미필자를 직원이 아닌 준직원으로 분류하는 사례 또한 발견하였다.

“일단 제가 정규직으로 들어갔을 때 군대를 안 가서 똑같은 여자 직원은 바로 정규직, 8급이 되고 저희는 군대 안 갔다는 이유로 준 8급이라는 사원 딱지가 붙더라고요. ‘준’이라는. 그게 붙어도 일 하는 것은 똑같아요. 전혀 틀린 거 없었어요.”(30대성인B1)

“아르바이트, 맨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만 하고 갔다가 와서 취업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군대 가야 한다고, 그만 두어야 한다고, 복잡하고 오래 해 봐야 1년이니까.”(30대성인A4)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어요. 일단 돈을 벌고 나서 학교 다니려고, 이리저리 뒤져보고 아는 사람 연락해서 천안 쪽에 반도체 회사가면 편하다고 해서 그 쪽으로 올라갔어요. ... 제가 3개월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갈 때 휴직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도급이거든요.”(30대성인B3)

기업에서 군미필 남성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현장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일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면 군입대로 인력의 공백이 생기고, 군복무 후 이전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인력투자에 대한 손해를 받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입장에서도 군복무에 따른 경력단절이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병역특례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 현장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군미필 때문에) 기업에서 꺼려해요. 아예. 우리는 남학생 안 뽑는다고 해요. 요즘에는 조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저희가 취업을 시키려고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학생들이 1년 정도 경험을 쌓고, 기업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요. 훈련을 시켜 놓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 건데 일 좀 할만하다 싶으면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오면 우리 회사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데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는 투자만 하고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 싫다고 얘기해요.”(현장전문가B2)

“우리나라는 의무병역 제도가 있어요.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 다녀오든 아니든 병역필 해야 사람대접을 받지 병역을 필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기업에서도 남학생들을 채용하면서,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병역필 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 같은 느낌이 안 든대요. 그래서 중도 탈락률이 많았어요. ... (중략) ...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건 아이들이 군대 가기 전까지 그 기업에 취업했다가 군대 제대 후 다시 복직하거나 아니면 병역특례업체 가서 병특요원으로 근무하고 병역필해서 계속 근무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현장전문가A3)

고교 졸업 후 취업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군복무 후 다시 그 일자리로 돌아간다면 기업에서 군미필 청소년에 대한 채용을 꺼린다거나 직원 교육 및 훈련 투자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성장과정에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업과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군복무 이전과 이후에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군복무 이후 이직은 발생 가능한 일이다. 다만, 군복무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과 근로경력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노동수요자 측면에서의 방안과 노동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군복무 후 고교 졸업 후 취업한 일자리에 복귀한다고 한다면, 고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취업이 청소년의 적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취업지도가 이루어지는 특성화고의 경우 학생의 적성보다는 ‘취업’ 그 자체의 목적에 초점을 두어 성적 순 또는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추천과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이 30대 고졸 성인 심층면접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학생 스스로도 성급하게 진로를 결정하는 성향이 있다. 취업을 통한 소득 획득이라는 의미가 취업 당시에는 가장 중요할 수 있으나 근로생애의 첫 출발점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신중한 진로 지도와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로라고 해도 상업계 특성상 취업이 목표인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받는 회사로 가느냐, 얼마나 대기업으로 가느냐, 거기 몇 명을 보내느냐, 그게 담임 선생님의 실적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많이 보내려고 하였고 많이 취업시키려고 하셨어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니까 좋은데 가면, 돈 많이 받는데 가면 된다. 적성보다. 상업계니까 대부분 숫자 관련 업무잖아요. 적성은 굳이 안 따지고 괜찮은 회사면 들어가라, 그러셨어요.”(30대성인B8)

“진로는 진짜 성적순으로 해줬어요 선생님. 어느 특정 기업체에서 추천서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어느 추천서가 왔는데 혹시 가고 싶은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잘하는 애들 위주로 불러서 너 이거 추천서 왔으니까 써라 해서 써서 되면 좋은 거고. 일단 선생님 눈에서 그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선택권조차도 없는 거지요.”(30대성인B7)

“저는 솔직히 빨리 나가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에게 대기업은 힘들 것 같고 될 수 있는 곳에 빨리 넣어 달라고 했어요. (가고 싶은 곳에 대해) 생각은 많이 했지요.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고, 그 때 제 상황이 성적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돈 빨리 벌어서....”(30대성인A7)

(2) 기초 직무역량 및 사회적응력 부족

군복무나 열악한 근로 여건과 같은 구조적인 원인 이외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취업 후 짧은 기간에 퇴사를 하고 취업과 구직을 반복하는 이직이 빈번한 또 다른 측면의 원인은 기초 학습 또는 직무역량의 부족과 사회적응력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고용하는 기업과 취업알선을 하는 현장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현장전문가들은 부족한 기초 학력이나 직무역량은 업무 수행을 불가하게 하며, 학력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기초 학력의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산학협력고등학교 이외 고졸 신규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현장전문가 심층면접에서 발견하였다.

“LCD 인사 과장님을 만나서 여쭙 봤더니 거기는 생산직에 고졸자를 많이 뽑거든요. 한 회에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가 두 번째 정도 고졸자를 많이 뽑는 회사에 해당 되는데, 고졸자를 뽑는데 가장 애로 사항이 뭐냐 했더니 기초 학력이래요. 어느 정도가 문제가 되느냐 물어 봤더니 스탑(stop)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버튼의 스탑을 눌러야 하는데... 스탑 뜻을 몰라서 그걸 잘 못 눌러서 ... 한 1~2분 만에 몇 억 손해가 발생 한다든지. 세컨드(second)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장비 누를 때 제대로 작동 시키지 못 해서 문제가 발생 한다든지... 고등학교 졸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년들이 왕왕 발생한다는 거죠. ... (중략) ... 20대 후반 청년층들 보다 가정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기초 학력 부분에서 훨씬 더 애로 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현장전문가D4)

“... 습득이 팔려요. 지적수준이 낮아요. 고졸 뽑는다 해도 회사 경력 5년, 10년 차들. 진짜 고졸 신입들은 현실적으로 채용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해요. 산학협력 아니면. 그게 가장 큰 단점이지요. ... 웹디자인, 웹프로그래머를 고졸을 뽑겠다고 했는데... 안됐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하는데 잘 안되니까 할 수 없이 대졸, 전문대졸 이상으로 공고를 바꿀 수밖에 없죠. ... 대졸이라고, 고졸이라고 해서 차별성 있게 직무를 주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시작하고 본인의 능력보다 조금 어려운 업무를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드러나지 않아요. 나중에 1~2년 후에는 드러나지만...”(현장전문가A1)

기초 학력뿐만 타인과 함께 일정한 공간에서 규칙을 정하고 지키며 생활하는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또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취업과 구직을 반복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현장전문가들은 진단하였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미처 갖추어지지 않은 생활에서의 적응력 부족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상사와 동료들을 통해 배우고 고쳐나가면서 개선되고 향상되어 갈 수 있는 것임을 기업의 현장전문가의 심층면접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린대요. 외계인이 하나 들어오는 거죠. 기업은 잘 짜인 하나의 조직 사회잖아요.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명령과 복종이 있고 뭔가 이익을 창출해내야 하는 기업인데...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면, 우리가 사전 교육을 많이 시키고

보내지만 애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요. 선생님들이 취업률 높이려고 어디든 한 군데 더 넣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예뻐~ 하면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꾸 취업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하는 소리가 복장부터, 아이들이 자유롭게 입고 오니까. 또 식당에서 식당예절, 깔끔하고 정리정돈 되어 있고, 음식 안 남기고, 이런 게 애들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현장전문가A3)

“면접을 통해서 ... 본인이 지원하는 직종이 무슨 직종인지 무슨 기술을 배우는 것인지 본인들 하고 적성이 맞다고 보는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취업까지 연결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보고 있죠, 그렇게까지 하는 데도 중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3개월짜리더라도 적응 못 하고 24개월짜리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현장전문가C4)

“저희 회사는 상하간의 수직계열의 문화는 없는데 기본적인 건, 복장의 태도나 왜 그러냐면, (중고등학교 때) 담배 피우고 그랬던 것들이, 회사 나와서는 어른들이다 보니까 티는 잘 안 내려고 하는데 그런 게 묻어나는 게 있어요. 복장도 불량스럽고, 그럼 지적을 해주죠. 근데 본성들은 다 착해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건 금방 개선이 되요.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복장불량, 인사 잘 안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적해주면 또, 근데 사회성은 부족하죠. 말을 잘 안 하고, 시무룩해 있는 것들. 고졸 애들이 회사에 적응하려면 따뜻하게 감싸줘야 하는 건 있는데 회사 특성상 중소기업은 각자의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케어를 못해주면 개네들이 힘들어할 수 있죠.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현장전문가A1)

2) 열악한 근로 여건

군복무 이외 또 다른 구조적인 원인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근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데 있다. V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현재 정규직(40.2%) 보다는 비정규직(52.0%)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임시직(36.1%)이나 일용직(8.7%)의 지위로서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46.6%)에서 주로 사무·회계(26.9%), 서빙·주방(16.0%), 매장관리(13.2%), 생산·기능(11.9%)의 일을 하는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은 일자리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노동 시장에서 낮은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노동 강도와 보수가 일치하지 않는 취약한 노동 여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지위는 30대 성인 고졸 비진학자의 경험과 다르지 않아 20대의 낮은 지위는 30대 성인의 경험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경험하는 열악한 근로 여건이 근로 생애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 아무나 들어가는 회사였어요. 거기는 사람 고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못 견뎌서 나가는 회사예요. 힘들어서. 아침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을 했어요. 다 못 견디고 3개월이면 아웃이예요. 상시 모집이예요. 모텔하우스 모형 만드는 것이 수작업으로 하니까 보름씩 밤을 새요. 그런데 그 당시 페이가 켜졌어요. 아침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 하고 스티로폼 깔고 쓰레기 바닥에서 4시간 자고 기상, 부장이나 과장이 그래요. 그러면 일어나서 만들고 졸다가 커팅기에 손도 나가고, 그건 3D 중에 최고 3D예요.”(30대성인A4)

“기관을 굶는다고 해야 하나? 오븐이 있거든요. 기관을 납땜 해 놓으면 지나가면서 그 온도를 재고 데이터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복리후생은 없고 급여는 220만원정도. 기숙사는 2명 쓸 때도 있고 3명 쓸 때도 있고. 인센티브나 상여금 없고 휴가도 없어요. 주야 2교대인데... 주간-주간, 야간-야간 2주씩 돌 거예요. 12시간 근무로.”(30대성인A4)

“우선, 본인이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원하는 최저임금이나 보수 면에 있어서, 막상 부푼 꿈을 안고 배워서 현장에 나가면 막상 현장에서는 최소한 1~3년까지는 저임금으로써 그 시기를 버텨야 하는 (미용) 환경.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게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시급이 4,000원인가요? 4,800원인가요? 거기에 절대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미래를 위해서 전문 기술을 익혀서 현장에 나가서 그 고비를 견뎌야 하지만 생활고나 막상 월급을 받았을 때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대부분 거의 반 정도는 포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 (중략) ... 예전에는 스텝의 기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고, 그보다도 못한 임금을 받았을 때는 특별히 의지나 자기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는 한은, 대부분 20대 초반에 쉽게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단순업무로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 중에 20~30% 정도, 그 시기를 견뎌서 사회에 잘 적응해서 그런 아이들이 경력이 쌓여서 일부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지, 배운다고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어서 ... 배우는 아이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서 받는 임금의 변화가 없는 한은 이걸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요.”(현장전문가C3)

열악한 근로 여건과 더불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약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4대 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도 사각지대라고 할 만큼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VII장에서 분석된 취업청소년의 현재 일자리에서의 4대 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취업자 중 4대 보험에 모두 비가입된 청소년이 38.6%에 달하고, 건강보험(61.2%), 고용보험(60.3%), 산재보험(59.4%), 국민연금(59.4%)이 대략 60% 내외의 가입률을 보인바 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험은 30대 성인이 이미 거쳐간 십수년 전의 20대 초반 일 경험에서도 발견된다.

“그 때도 아르바이트라서 이력서 안 냈어요. 아침에 8시부터 5시에 끝났으니까. ... 지금 생각해 보면 계약직 같아요. 알바도 아니고 정규직이면 4대 보험이 되는데 하나도 안되었으니까.”(30대성인A2)

고용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면서 저임금, 단기 고용, 열악한 근로조건, 빈번한 이직, 인력 수요-공급에 의한 임금 결정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2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은 확대되고 있고, 그 확대되는 노동시장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진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의 문제가 고졸 청소년집단의 문제로서 접근하기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현장전문가들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4대 보험 가입 수준이 낮은 것은 이들이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본인의 권리로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로서 적용 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하지도 않고 접근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이다. 중요한 것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왜 사회적 보호 장치에 접근하지 않으려는 것인가인데, 이는 일상의 경험 속에서 고졸자가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반복하면서 학습된 기피로 보인다.

“실제 실업 급여를 타거나 실업 보험을 수령 하거나 사회적 안전장치 혜택 같은 것들이 고졸 대졸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졸 친구들이 더 못 찾아 먹으니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접근 자체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뻔하게 이런 지원 나한테 올 게 아니야 이런 컨셉이 있는 거 같고요. 늘 알파 하면서 좋은 케이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끔 좋은 사장님도 있습니다만...”(현장전문가A2)

3) 직장 내 학력 차별과 업무 비전의 부재

(1) 역량 발휘 및 승진에서의 기회 제한

단기퇴사 및 잦은 이직에 더하여 취업 및 구직청소년에게서 드러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학력에 따른 제한과 차별을 경험한다는 사실이며, 무엇보다도 경력이 쌓여도 업무의 전문성은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있음이 30대 성인 면접조사에서 발견되었다.

단기퇴사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초기 입직한 일자리에서 결국에 고졸 비진학자들이 이직하는 계기는 학력에 따른 차별적 임금체계와 자신의 업무가치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있다. 이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 즉 취업 자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닌, 전 근로 생애 보다 짧게는 취업 후 일자리 지속까지 정책적 관심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고졸이다 보니까, 여기는 ‘사’자도 있고 기본 관리부 파트 외에 다 대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소장님 마인드가 서울 소재 알아주는, 그런 것을 많이 내세우는 스타일이라서 딱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학 졸업자만 왔으니까 부서의 관리팀은 되게 무시했어요. ... 업무가 하찮다 이거지요. 서류만 작성해서 출력해서 특허청에 제출해 주고, 잡다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우도 안 해 주고 인정도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폐이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좋았지만 점점 올라가는 폭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월급도 남들은 평균 15% 올려주는데 관리부는 5% 올려주고 ... (부서간의 차별도 있고?) 이게 순전히 학력, 업무는 거기 진짜 많거든요. 이것도 전문성인데, 아는 사람만이 서류 작성하니까. 업무는 전문성인데 학력으로 인해서 구분이 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30대성인B7)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회사도 고졸도 있고 초대졸도 있고 진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일 하는 업무 수준도 다르고 진짜 저 사람은 내가 봐도 너무 고생하거든요. ... 너무 막 대해요. 이 사람 일 많아서 조금 실수 하면 괜찮다고, 일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여기서 실수가 나면 되게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연봉 올려주는 것도, 인센티브도 확실히 다르게 주고, 관리직은 사원에서 대리 가려면 10년 걸려요. 제가 다니는 업종이 그런 차별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고학력자가 많잖아요. 특허청이나 변리사나.) 소장 마인드가 또 이런 업종은 그런

것을 많이 따져서 그런지 몰라도, 학력에 대한 차별성을 뼈저리게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좋던 안 좋던 좋은 대학이든 나쁜 대학이든 대학 가라...”(30대성인B7)

업무 이외 직장생활에서 고졸 학력자로서 차별은 대졸자와의 임금 격차를 인지하면서 체감하게 되고, 경력을 쌓으면서 갖는 승진 기회가 능력중심이 아닌 학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짐을 직장 내 동료의 사례를 통해 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고졸자로서의 한계를 체감하고 이직 또는 진학을 한다는 사실이 30대 성인 면접조사에서 드러났다.

“(승진의 기회나 그런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밀린다는 느낌은) 이 회사에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계열사 회사 중에 한 명 여자 직원이 대학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보다 한 달 입사가 빨라요. 그런데 어떻게 월급명세서를 봤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한 달 밖에 차이 안 나는데. 회계에서 일 하다 보니까 계열사들. 그런데 업무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 쪽, 계열사 중에서 저희 부서는 부장님이 관리하셔서 제가 많은 업무를 못 하지요. 그런데 이 쪽 계열사는 그 여자 직원이 다 하긴 하지만, 승진이 정말 빨리 되었어요. ...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크게 나와 다르다, 업무상 크게 차이 없다고 보는데...) 그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정도로,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30대성인A7)

“...인턴, 계약 기간이 지나면 연봉 협상하잖아요. 협상 기간에 고졸, 2년대졸, 4년대졸, 이것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다고 ... (중략) ... 연봉 협상할 때 얼마 올려 달라고 얘기를 자신 있으니 하잖아요. 그래도 너는 전문대졸이잖아. 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만 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 상사랑 옥신각신 할 때 당신은 많이 배운 것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빗대서. 그런 부분이 많이 고쳐져야 한다고, 인식이. 하는 만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능력이 아니고 학력으로 제한이 되지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학벌이 ... (승진은 고졸자가) 아무래도 더디지요.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은 일을 못 해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줘서 더 승진도 빠르는데 그런 애들은 계속 몇 년간 그 자리에요. 그 회사 다닐 때도.”(30대성인B4)

“쉽지 않아요. 아, 너 참 잘 한다. 기술은 애가 최고야. 승진 시키려면 고졸이네. 이 사람을 이 사람 그대로 봐 주는 것이 아니고 학벌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게 만연해요.”(30대성인B9)

“... 진급이 저희 수석 부장님, 부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셨는데, 거기 사이에 차장님이고, 과장님하고 부장님이 같은 고등학교 같은 기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고졸에서 끝났고 부장님은 4년제 나와서 입사를 하셨고, 둘이 동기예요. 이 사람은 과장이고 부장이고, 과장은 매일 깨지고 회사에서 왕따고, 동료 주임이나, 저희는 계장 직급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주임이라고 하지요. 계장 직급을 보면 전문대졸이 있고 4년제가 나오면 보통 1-2년차에 대리를 달아요. 그걸 봤을 때 고졸은 해 봐야 과장, 차장이 끝이다.”(30대성인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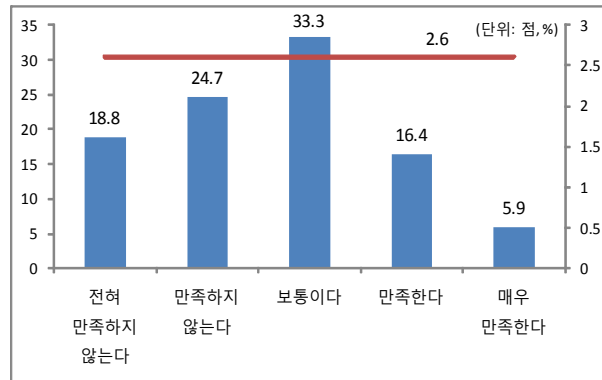
“... 처음에는 모르고 다 고졸로, 언니들이 입사했다가 대학 진학한다고 빠지는 거예요. ... 고등학교 진학할 때 선택할 때처럼 내가 남들보다 빨리 사회 진출해서 경력 쌓고 인정받으면, 그 생각이 강했는데, 막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보이게끔 비교가 되니까. 이렇게 차별을 받고 다녀야 하냐는 생각이 ... 너무 불공평해서 회사를 그만 두고 대학을 갈까? 이러다가 제 앞에 저보다 1살 많은 언니가 그게 있었어요. 롤모델. 회사를 1시간 먼저 퇴근하고 야간대를 갔어요. 그 언니가.”(성인B7)

이와 같은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향후 선택할 ‘선취업-후진학’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직무와 관련된 능력의 개발이나 향상에 무게 중심이 있기보다는 고졸자로서 경험하는 차별과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후진학’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2) 경력이 쌓여도 달라지지 않는 업무

임금 및 승진 등 직장 내 학력 차별과 더불어 취업 및 구직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업무를 통한 비전을 가질 수 없다는데 있다. VII장에서 분석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살펴보면, 총 8개 항목 중 ‘나는 내 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와 ‘나는 내 직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의 항목이 5점 중 평균 3.9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욕구와는 달리, 현재 일자리의 개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취업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그림V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통(3점) 수준 보다 낮은 평균 2.6점이며, 전체의 22.3%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분석결과와 현재 일자리에서의 개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취업청소년의 만족도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직무를 통한 청소년 개인의 발전 기대와 욕구는 높은 수준이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업무에서는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림 VIII-1】 취업 청소년의 현재일자리 개인 발전가능성 만족도

현재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과 같이 30대 고졸 비진학 성인의 사례에서도 직무 전문성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취업 후 수년의 경력이 쌓여도 신입 직원으로 맡은 단순 또는 보조업무 그 이상의 업무가 주어지지 않으며, 업무의 전문성 또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퇴사의 주요 이유는 ‘비전의 부재’라 할 수 있다.

30대 성인의 경험이 현재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게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전반에 직무역량 중심의 업무 재편이 요구되고,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의 인사시스템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 다른 친구들도 세무사사무실 다니는 친구가 있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조정도 할 수 있어야 해요. 회계만 하면 단순히 회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다운 시키는 조정을 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해야 하는데 거기는 그 업무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무장이 그 일을 다 해 줘요. 업무 마무리는 여기서 일 하면 사무장에게 넘기고 자기가 조종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더 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 ... 여기서 사무장이 (그 일을) 안 시켜요. 그 언니가 되게 오래 되었는데... 일을 안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언니도 당연하듯이 넘겼어요. 친구가 먼저 그만 두고 저는 종합소득세까지 끝나고 그만 두고.”(30대성인A5)

“일반 공무원은 인정을 받고 월급도 세고... 그런데 저와 같이 일 하는 비정규의 나이 많은 9년, 10년 된 언니들 봐도 저하고 월급 차이가 안 나고. 언니들 보면 희망이 안보였어요... 박봉에 쪼들려서 여기 아니면 갈데없는 것처럼 민원인에게 욕먹어도 꾹꿇이 다니고. 비전이

없어 보이고... 앞으로 이 월급으로 계속 보조 업무나 해 가면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정규직으로 이직해서..."(30대성인B7)

"... 사회생활 하면서, 처음에 들어갈 때 고졸이 어때서?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대졸자하고 섞여서 일을 하는데 계속 서포터로만 해 줘야 하잖아요. 업무는 똑같아요. 개인 커리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조해 주는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수준의 일감 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이것보다 잘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는데, 그게 대졸하고 고졸의 차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제가 들어갔을 때 일 배운 언니들이 있는데 그 언니들이 다 여상 출신이었거든요. 거기서 6년, 7년 근무했어도 하는 일은 제가 하는 일하고 다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6·7년 근무했어도 그 분들이 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30대성인B8)

"(승진 기회나, 처음에 단순 업무를 했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게 없었어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 없지 않아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30대성인B6)

3. 진학·취업·창업 준비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요구

1) 진로목표 설정에서의 자기주도성 상실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집단의 하위집단으로서의 진학 준비 청소년은 고교 졸업 후 재수하는 청소년 비율이 높아 다른 하위집단 청소년들에 비해 연령 수준이 낮으며, 다른 하위집단에 비해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갖는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부모의 관여도 수준, 특히 진로선택에 대한 관여도 수준이 평균(3.2점)보다 크게 상회(3.8점)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종합해보면 진학준비청소년들은 부모의 높은 관여 및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하위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진학준비청소년을 일상에서 만나는 현장전문가는 진로 목표의 설정이 막연하고,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하는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자기선택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을 만큼 스스로에 대해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냥 막연하게 학교에서... 거기서 뭘 해야 할지, 그런데 잘 모르니까... 일단 점수를 잘 받아놓아서 ... 경영대를 갈까, 철학과를 갈까, 고민하는 거죠. 경영에 뜻을 두었다면, 근데 A대학 경영을 갈까, B대학의 경영을 갈까 해야 하는데, 근데 A대학 경영을 갈까, A대학 철학을 갈까 그런 고민을 해요. 작년에도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학을 간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도록 고민 했대요. 그래서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공부를 하겠대요, 공부라는 게 인문학을 공부하는 건데, 그러면 서울대를 가야지. 집안이 어려우면 장학금 주고 너를 공부시켜줄 대학을 찾으면 되고, 두 개 중 하나네 했더니(저는 5분만에 툭 던졌는데) 애가 그러네요, 하고 금방 수궁하더라고요. 그 학생은 서울대 인문대를 갔는데, 주변에서 그 점수면 말이야 고대 경영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중요한 건 애의 지향인데, 주변에 휩쓸리는 경우마저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주 심각한, 청소년들의 자기 정체성 갭이랄까,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런 부분이, 세칭 초일류 상위층인데도 자기중심성이 허약하다. ... 자신감 결여예요. 자기 정체성 부족이죠. 황당하게라도 목표를 정해서 go하고 안되면 진로 수정인데 그게 없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패기가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몰라요. 자기 연구가 안되어 있죠.”(현장전문가C1)

이는 진학준비청소년, 특히 고교 졸업 후 재수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스스로가 설정한 진로 목표가 아닌,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시선과 의식 수준에 맞추어진 목표를 자신의 진로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진학의 목표와 진로설정에 있어 자기 주도성을 상실한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는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진학준비청소년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2) 현실인식과 직무개념의 부재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집단의 하위집단으로서 취업준비청소년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현장전문가는 취업준비청소년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현실과 괴리된 막연한 취업준비라고 지적하였다. 현장전문가 뿐만 아니라 30대 고졸 성인 심층면접에서도 취업생활은 막연하게 기대했던 생활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 그 현실의 실상과 차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왜냐하면 일단 회사 생활을 너무 몰라요. 돈만 벌 수 있나 보다, 예를 들면, 저희 작년에 호텔·관광 쪽으로 여학생이 되게 열심히 하겠다고 막 그래서 큰 호텔은 아니지만 별 몇 개짜리던가 거기에 들어가게 해줬어요. 사원으로, 근데 하루 이틀 다니다가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고 하니까, 자기는 정말 뭐든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되게 열성적으로 공부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호텔이 서비스업이잖아요. 단계를 밟아 가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매니저도 할 수 있고, 근데 하루 이틀 다니고 왜 그만 뒀냐고 했더니 자기한테 설거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당연히 서비스업종은 설거지부터 할 수 밖에 없어요. ... (중략) ...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생각만으로는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거지고 하고 차심부름도 할 수 있고, 책상도 닦아야 하는 거다. 하지만 ...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당해보면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잠깐 아르바이트 하고 서빙해주면 돈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정말 이 조그만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그걸 해야 하나, 선배들이 그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싫은 소리 한 마디 했다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 (중략) ... 물론 밑바닥부터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직장생활의 현실감각을 익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현장전문가B2)

“막상 졸업해서 취업해 보면 저희가 꿈 꾸 것하고 너무 현실이 동떨어진 거예요. 의상디자인이라고 해도 정말 가면 TV에서 나온 것처럼 멋들어지게 ... 그런데 현실은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욕 얻어먹고, 그렇다고 월급은 몇 십만원 밖에 안 되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솔직히 그런 말을 잘 안 해 줬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는 현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30대성인B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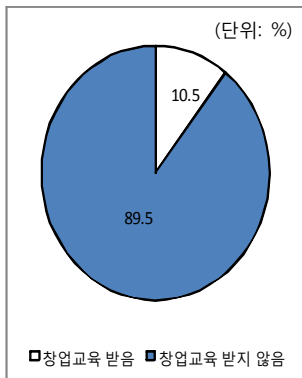
“본인들이 생각한 것하고 달라서... 저도 고등학교 시절 돌아보면 창의적 발상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발명하듯이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여기 오는 것은 실생활이니까. 배관 설게 잘못되면 댁다고 난리 치니까.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거지요.”(30대성인B2)

취업준비청소년들이 현실 감각이 없고 실제 취업과 동떨어진 직장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이들이 현실의 직업세계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한된 체험의 기회와 성장환경에서, 다양한 직업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모델도 부족한 상태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기대할 수 있는 직업의 정보는 TV와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것이 유일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취업준비청소년들은 TV속에서나 등장하는 현실 부존재 직업을 꿈꾸고 닿을 수 없는 그 꿈의 직업을 성취하기 위해 막연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장전문가는 직종과 직무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구직과 일자리 알선도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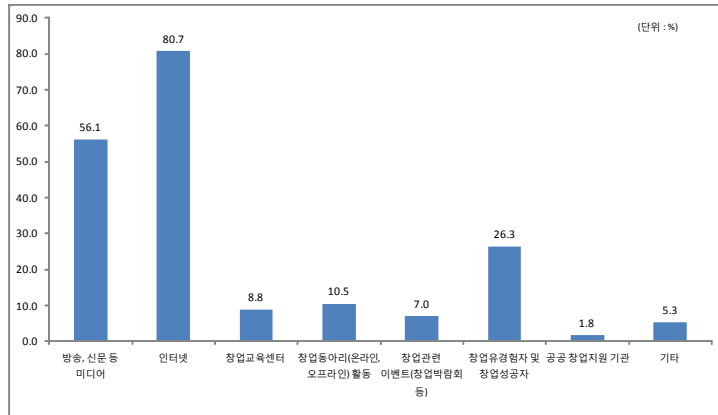
“(대체로 상담을 하면 원하는 분야는) 사무직. 너무 막연하죠. 저희가 특강을 할 때 직종의 개념을 심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직종 개념이 너무 없어요. 학생들이 그냥 사무직, 아니면 그냥 생산직인데, 생산직도 정말 다양해요. 3D업종이라는 금형부터 해서 단순조립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 다양함을 이해 못해요. 그리고 사무직도 앉아서 펜대 굴리고 이러는 줄 알아요. 총무직은 총무직대로, 경리직은 경리직대로 분야가 있다는 걸 이해 못해요. 애들이 주로 희망하는 쪽이. 서비스직, 아무 개념 없이. 서빙하는 거 있잖아요. TV영향인지 몰라도 그게 되게 좋아 보이나 봐요. 되게 쉽게 서비스하고 이런 거. 근데 그걸 부딪혀서 하다 보면 서비스직이 되게 힘들잖아요. 감정 노동이고, 그걸 나중에 해보면 아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직종에 대한 개념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현장전문가B2)

실제 직업세계에 대한 현실 감각을 일깨우고 직업 선택을 위한 직종과 직무 개념을 교육하는 것은 취업준비청소년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이 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상당한 격차를 취업시장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이들이 그 간극을 줄어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현실 직업세계 경험, 즉 현실의 취업생활을 단계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아가며 이들의 적응을 기다려 줄 수 있는 중간 과정으로서의 직장생활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깨닫는 시간과 주체적으로 목표 설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준비청소년들이 실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현실 인지 수준이 낮은 것과 같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 또한 창업에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의 접근성이 낮고 실제 창업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창업 준비청소년 대상 설문에서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받는 비율은 조사한 결과, [그림 VI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10.5%에 불과하다. 또한 [그림 VIII-3]과 같이 창업정보를 얻는 경로는 주로 인터넷과 방송·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창업유경험자의 경험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II-2】 창업교육여부



【그림 VIII-3】 창업정보를 얻는 방법(복수응답)

이와 같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창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않는 것은 창업에 있어 체계적인 정보와 준비보다는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전문가는 창업 준비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창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자본력이라고 제보하였다.

“저는 고졸 창업자를 많이 만나 봤는데요. 대부분 대학 못 간 거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진 않아요. 오히려 구분 하는 게 학력 비학력이 아니라 현재 빛이 있냐 없냐. 자본에 의해서 많은 역량이 있으면 도와 줘야 하는 거지, 이 친구가 고졸인지 대졸인지는 제가 만나본 친구들 중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현장전문가C2)

그러나 창업에 대한 체계적 정보가 불충분 하였을 때, 창업 실패라고 할 만큼의 좌절을 경험하게 됨을 30대 고졸 성인의 심층면접에서 포착하였다.

“인터넷 쇼핑물은 어디선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물건에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물건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판매 루트가 다 기밀이거든요. 물건 때 오는 것이 다 기밀이거든요. 공유가 안되거든요. 발품 팔아서 자꾸 친해지고 도매상하고 친해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직접 다 알아봐야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때는 창업센터도 그렇고 활성화 되지 않아서 어디 가서 물어볼 곳도 마땅히 없었어요. 그렇다고 뭘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안되고

... (중략) ... 결정적으로 인터넷 쇼핑물을 재미있게 잘 했거든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2년 가까이 했는데 중간에 한 번 씬 이유가 세금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세금을 대해서 잘 모르고 OO를 통해서 판매했는데... 판매에서 내는 수수료가 있어서 그것으로 세금 되겠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세금을 대해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업자 등록을 안했으면 안되었던 거고, 세금 어마어마하게 맞았거든요. 그거 때문에 한 번 실의에 빠져서... 2년 동안 내가 헛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30대성인B8)

이와 같은 내용은 취업 또는 창업 등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그 무엇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접근해 가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준비청소년들에게는 어디에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특히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연계해주는 정보 연계서비스의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3) 취약계층의 장기간 지속되는 준비 상태

(1)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유지를 위한 준비상태의 지속

VII장에서 분석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준비자 집단의 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280.2만원)은 니트 집단(272.0만원) 다음으로 낮다. 이처럼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 현장전문가는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의 청소년들이 수급권을 유지하고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고, 공공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준비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다.

“(임금소득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부모가 취업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급여 만이라도 2년간 올려주겠다는 제도가 생겼어요. (취업성공) 패키지에서, 취업을 하면 생계비 지원은 안되지만... 의료급여가 되게 큰 부분이거든요. 그건 2년간 연장해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안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와서 왜 우리 자식 취업시켰냐고 항의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런가 하고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인당 30씩 하면 한 가정에 120만원이 넘게 지원되고 거기에 받는 의료급여까지 하면 느껴지는 체감은 200만원 정도 지원이라고 하는데, 개가 취업하면, 초봉이 얼마 안되잖아요. 120~130 이렇게 받을 텐데, 120도 안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돈 자체가 아예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못 받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누가 봐도, 저라도, 놀면서 지원금을 받는데, 거의 노는 건데, 취업해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걸 딱 끊어버리면, 그 분이 일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몰래 몰래 일용근로를 하는 걸로 하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아서 조금, 그게 다 알지만 밝혀내기 쉽지 않고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만 일하면 30~40 수당도 받는데 그걸 없으면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현장전문가B2)

“(경제활동을 하면) 그 동안 받던 수급권이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수급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니가 취업 하게 되면 우리가 공짜로 받던 생활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취업 하지 말고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라 하고 나서 (들어 갈 수 있어야 말이죠?) 대학 가고 싶잖아요. 아무 대학은 가기 싫지만 좋은 대학에는 가기 어렵지만 아무 대학에는 가기 어렵지 않죠. 대학에 걸어 놓고 알바를 해서 그만큼 생활비를 벌도록 하고 적은 유지를 해서 수급권을 유지하게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취약 계층에 있어서 사실은 그 친구들이 빨리 취업 하는 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부모들인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현장전문가D4)

이와 같은 상황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취업이 저임금·불안정 고용의 노동시장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유지로 얻게 되는 경제적 지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함을 당사자들이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을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빈곤한 부모가 자녀의 자립기반과 자립의지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부모세대는 공적 부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빈곤한 상태를 고스란히 자녀가 세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부모가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준비기간의 직업훈련 소평

기초생활보호수급권 유지를 위해 준비기간이 지속되는 문제와 더불어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부작용의 하나는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만을 수강할 뿐 적극적으로 구직이나 취업준비를 하지 않은 취업준비청소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비단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빈곤계층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⁴⁰⁾

이와 같은 사례를 일상에서 접하는 현장전문가는 ‘직업훈련의 쇼팽’이 공공취업지원서비스 이용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시험의 종류를 바꾸어 가며 취업준비상태를 지속하는데, 어떠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부모님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핑계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취업준비청소년 집단과 니트 집단에서 동일하게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현실에서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하위집단의 구별, 즉 구직자, 준비자, 니트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기 때문이다.

“... 본인이 알바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단기적 일자리를 갖지 않는다면, 부모님 지원을 받기 제일 좋은 핑계 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경우에는 고졸자도 시험 준비는 가능하잖아요, 시험 준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한 과목과 하나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니트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번에는 전기 했다가 이번에는 뭐 했다가 토목 했다가 경찰 했다가 반복적으로 이 쪽 저 쪽 기웃기웃 해 보는 거죠, 이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기웃 기웃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고시생 모습 보다는 등록은 되어 있으나 이 길이 쉬울 거야, 라고 진입해 놓고 실제로는 완수를 하지 못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제법 있는데...” (현장전문가D4)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준비상태에 있으면서 직업훈련과정을 쇼팽하듯 경험 속에서 배회하는 경우도 현장전문가 심층면접에서 포착되었다. 현장전문가는 준비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안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사회진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는 준비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로의 진출을 원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로 나가는 문을 선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문을 열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시사한다.

“회사 같은 곳 문화도 잘 수용이 안되고, 제가 볼 때 이걸 중산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어 대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와 맞는 데가 어딘지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죠, 부모가 돈이 있으면 글로벌하게 떠돌고, 부모 돈이 없으면, 간 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간보고 다니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두려움의 표시거든요, 어디 가서 안착하기가 어려운데 거예요, 나랑 맞나 안 맞나, 계속 ... 기존의 조직문화가 딱딱한 것도 있지만 조직문화에 적응이

40) 정책개발 워크숍 및 자문회의 I (2013.11.7) 논의 내용

안되어서, 유럽도 보면 창업지향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창업할까 하는데, 창업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해보다가 창업도 만만한 게 아니다 하면, 자꾸 뭐가 이렇게... 사회로 나가는 고리를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 문제 같아요.”(현장전문가B3)

4. 니트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1) 적응력의 부재

VII장에서 분석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니트청소년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12시간을 집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여기에 평균 수면시간인 8.7시간을 더하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은 20.7시간으로 집 밖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니트 청소년들은 사회와의 단절은 물론, 집 밖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 대한 적응력은 매우 낮은 수밖에 없다. 니트 청소년을 일상에서 만나는 현장전문가들은 니트청소년이 갖는 주요한 문제는 ‘적응력’이라고 진단하였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동기형성이 되면, 진학 또는 직업훈련이나 구직을 하게 되는데 그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사회에 나가면 현실 사회의 환경과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동기 형성 전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대상을 통괄해서 나오는 최종 결정의 키워드는... 7~8년 사업 했더니 나오는 거는 뭐였냐면 ‘적응력의 문제’ 같아요. ... (중략) ... 그게 뭐냐 하니 취업 했는데요. 학원 보냈고 학교를 보냈는데 몇 달 만에 다시 나와요. 모든 게 반복 되는 패턴인 거예요. 이유가 뭔지 봤더니 적응력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학원을 보냈어요, 나는 요리사가 되겠어요. 생각이 없다가 이렇게 해서 전문대 갈 거고 했어요, 정말 열의가 차서 보냈어요. ... (중략) ... 그 시간대에 학교를 가지 않고 무엇을 준비 하러 갔을 때 본인 의지가 충만하거나 건강한 아이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아이를 여기까지 만들어 놓았더니 갔더니 ... 다 어른들이예요 다시 적응의 문제가 나와서... 드랍 아웃 되어 버려요. 안 가요. ... 구직 활동 준비를 시켜서 갔어요, 가면은 비진학 청소년이죠. 10대 후반 20대 해도 애들 대학 나오잖아요. (자기는) 20대 중반인 거예요. ... 남들하고 스펙도 다르고 커리어도 달라요. 그 관점에서 다시 적응을 못 하고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디를 갔다 와도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게 부적응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관계에서 어려움을 그러다 보니 어떤 조직이나 어떤 세팅에 가도 그게 안 되니까 드랍 아웃 되어 버려요. 부적응의 문제가 관계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긴 하잖아요. 이거 보다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이 더 크면 커버가 돼요. 이게 없던 애들이잖아요. 없던 애들을 여기까지 끌어 올려놨어요. 그러면 관계는 상쇄 시킨다고 하더라도 비등비등 할 때는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드랍 아웃 되어 버리는 거예요. ... 문제는 외부에서 보는 아웃풋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속력이 없다는 거를 발견 하게 됐어요.”(현장전문가D2)

이와 같은 현실 사회에서의 적응 실패는 니트청소년들에게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강화시키며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적응의 실패는 니트청소년들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부정적인 가치관은 무엇을 하더라도 또다시 부적응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VII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니트청소년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집단의 하위집단들 중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욕, 그리고 과거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았다. 예컨대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항목에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34.2%로 전체 평균 62.0%의 절반 수준이며, ‘나에게 있어 과거의 경험이 장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고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42.3%에 불과했다. 현장전문가는 미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틀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제보하였다.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 미래상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아요. 미래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거치지 않고 ... 이 아이가 어떤 자격증 등을 따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상이 부정적이어서 보는 관점 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그걸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정서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 같아요.”(현장전문가D2)

V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니트청소년들은 이미 중·고교 재학 시절부터 무엇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못한 진로 목표나 계획이 부재했던 이들이다. 이들에게 무엇인가의 동기를 형성하는 것은 이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지 않는 첫 출발점 일 수 있다. 그러나 동기 형성만으로 현실의 사회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니트청소년들이 형성된 동기를 유지하며, 현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기 형성과 사회적응의 중간 단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낮은 적응력은 니트청소년들이 갖는 공통 특성이지만, 적응력이 낮아진 그 원인은 개별

청소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니트상태에 이르게 된 다양한 원인과도 일맥상통한다. 정서적인 자원부족이 적응력의 문제가 된 이들도 있고, 경제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환경의 문제가 된 이들도 있으며, 중·고교 시절 학업중단의 경험 등 각기 차이가 있음을 현장전문가의 심층면접에서 발견되었다. 현장전문가는 적응력이 낮은 니트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원 또한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니트청소년의 적응의 문제가 개인의 병리적 원인이 아닌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그런 거(동기 없음)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다 보니 적응력도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적응력이 있어야지 **target**을 잡든지 **target**이 없어서 적응이 되서 그 문화에 휩쓸려 가잖아요. 그것도 떨어지고 ... 자원도 떨어진 아이들에게요. 정서적인 자원이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 일반의 가정 아이들도 있어요. 있는데 정서적인 부분이 취약해서 적응력 문제를 계속 이야기 하는 아이들도 있고... 고등학교 때 탈학교 아이들도 있는 거고요. 비행인 아이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적응이나 경제적인 취약이나 정서적인 취약을 봤을 때는 미혼모 아이들 아니면 비행이나 범죄 청소년들이나 새터민 아이들 ... (중략) ...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취약하다는 게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지라.”(현장전문가D2)

“무중력상태에 빠진 경로를 생각해보자면 ... 첫 번째는 사회적인 충격. 그 충격은 왕따나 은따나 그 방관을 했던... 학교 폭력 중간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던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양쪽에서 배신당하는 거죠. 그냥 친구들로부터 왕따는 아니지만 배신감을 느꼈을 때가 굉장히 많고, 제가 볼 때는 그게 50%이상은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부모의 영향. 부모가 억지로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 했다든지, 부모가 전문적인 경우도 많아요. 부모를 따라 잡기가 너무 힘든 거죠. 첫 번째가 관계적인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가족적인 측면이 동시에 직업적인 상상이 굉장히 힘들어진 경우... 세 번째는 자기 본연적인 성격, 내향적인데, 내향적이라 그냥 묻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내향적이라 너무 힘든 경우가 있고, 이걸 다시 둘로 나누면 관계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경우와 정체성의 혼란에서 나오는 문제. 정체성의 문제라는 게 어떤 철학적인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럴까,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안 행복하지, 남들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지?”(현장전문가D3)

2) 생성되지 않는 자존감과 학습된 무기력

중·고교 재학 시절을 비롯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복된 실패와 사회적 배제의 경험에서 얻는 좌절감은 니트청소년들의 자존감 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 여기에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주어지지 않을 때 니트청소년의 자존감은 형성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VII장에서 살펴본 자존감 분석결과를 보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보통(3.0점) 수준 이하의 평균 2.8점의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특히 니트청소년은 평균 2.5점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집단을 구성하는 하위집단 중 가장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집단별 현재 생활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니트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존감이 유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을 만큼 니트청소년의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현장전문가들은 니트청소년들이 자존감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이들이 자존감을 생성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즉 대학진학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들의 진학 실태의 경험, 대졸자도 취업 못하는 상황에서 고졸자로서 취업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위축감에서 비롯된 자신감 상실, 열악한 근로 여건 경험 등은 니트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자존감 자체를 생성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 예전에는 많이 대두된 니트의 양상은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 할 곳이 없고 이래서 생기는 니트들이 있다면, 최근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할 엄두조차 못 내는 니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워낙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도 못 한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 나는 고등학교 졸업 했는데 어떻게 취업 하겠냐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자영업. 집안 상황이 괜찮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도 녹록치 않고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만 생산직 line에 가도 생산직 자체가 워낙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반복 되고 있어서 내수가 안 좋잖아요. 자재들이 없는 곳들이 많거든요. ... (중략) ... 가면 거의 아웃소싱 인데다가 간접 고용이기 때문에 임금이 적고, 체불 임금이 되고 해도 그걸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본사에도 책임 안지고 아웃소싱 업체도 우리는 해당 권한이 없다 해 버리니까 거기서 일 하는 사람은 봉 뜨게 되고 저도 그래서 50~60만원씩 받고 그랬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산직은 거의 일용직 수준이라서 최저 임금을 넘지 않잖아요. 1원 한 장 다르지 않게 그 해 최저 임금을 주는 시급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열악하죠. 그래서 사실 고졸 취업자라고 하면 사회인들

근로 조건이나 환경들에서 사실 미리 포기 해 버리는 니트도 많을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가 워낙 학벌 중심 사회라서 그런 것들이 강하고, 그런 기능직의 상고나 공고 출신 이런 친구들이 아닌 이상 인문계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 그게 아니면 사회에서 도태된다고 생각 하는 그런 사회를 살다가 사회에 딱 나왔는데 대학을 안 갔어. 그러면 거기서 오는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하는 자괴감이 말도 못 하게 오는 거죠.”(현장전문가C5)

“자존감이 거의 바닥이죠. 근데 제가 볼 때 한국의 청소년이라면 굉장히 조증이 있지 않으면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어요. 전교에서 2등 하는 친구도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난 왜 2등이지? 이런 한국의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현장전문가D3)

자존감이 생성되기 어려운 환경 하에 있다 할지라도 가족으로부터의 응원과 사회적 지지는 니트청소년들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지 않으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VII장에서 분석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가족응집력을 살펴보면, 니트청소년은 가족 간 대화를 많이 한다거나(28점)나 가족 끼리 대화가 잘 통한다(28점)고 생각하는 수준이 전체 평균(각 3.1점) 보다 낮았으며, 하위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어려울 때 부모(3.2점)에게 의지하는 수준도 평균(3.6점)보다 낮으며, 부모가 내 문제를 경청하는 수준(3.4점)도 평균(3.7점)보다 낮다. 이에 더하여 부모에게 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수준(2.9점) 또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전체 평균 수준(3.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현장전문가 심층면접에서도 니트 청소년의 다수가 부모를 비롯한 가족으로부터 배려와 지지를 받기보다는 무시와 상처를 받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존감이 낮을지라도 무엇을 하든 부모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는 니트청소년들은 무기력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현장전문가의 분석이다. 결국 부모의 태도는 니트청소년들이 자존감을 생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갖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멀죠.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존감을 키워주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칭찬을 받긴, 어쨌건, 집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는 그렇게 무기력한 경우는 드물어요. 뭐라도 하는. ...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집에서 관심 없어 하고, 너한테 기댈 거 없다, 커서 뭐가 될 거야 라든지... 어디 가서 일자리 잡아서 회사만

다니면 된다 하는 경우는 (부모와) 관계도 멀고, 자기를 몰라준다고 생각하니까 일도 안 하게 되죠.”(현장전문가D1)

“아무래도 부모랑 마주치는 게 싫어서 밤낮이 바뀌기도 하는데 근데 밤낮이 바뀐 것 때문에 부모와 더 갈등이 생기죠. 부모는 그거 자체를 더 비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나머지 시간을 뭘 하나고 하면 사실은 대답을 못해요. 저희한테 오는 애들은 대부분 음악을 듣는다고 하고 가끔 보면 산책을 하는 경우도 있고 20% 정도는 혼자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현장전문가D3)

“... 자기들이 학벌주의로 학교를 받아들이는 거 자체에서 실패감을 느꼈고 싫었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부모가 그것을 감싸 안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건데, 더 열심히 공부하지 그랬냐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나의 내면의 가치를 봐 주지 않고 그런 학업 능력이나 그런 걸로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면서 나는 아무도 없고 외로워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게 한대요. 그 때가 첫 번째 계기였고, 그러면서 사회하고 단절되기 시작한 거죠. 부모하고 얘기하기 싫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싫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제가 니트인 친구들이 처음부터 직장을 한 번도 안 가졌던 친구들은 아니고 대부분 경험이 있더라고요 이 경험을 가진 이후에 이 친구들이 느끼는 생각이나 느낌이 달랐거든요. 대부분 이 친구들은 이 경험을 가지고 나서 지금은 내가 작은 일자리 좋지 못 한 일자리를 하더라도, 더 나은 곳으로 옮겨 가야지 생각 하는 반면, 이 친구들은 그런 곳에 가면 좋지 못한 대학을 나오거나 학력이 짧으니깐 이런 데서 밖에 일을 못 하는 구나 더러운 세상 하면서 사회에 대한 반발감이 커지게 되고 그 때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현장전문가D4)

니트청소년의 무기력감은 장시간 반복 학습이 되며,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삶의 연장선상에서 20대 후반 30대까지 지속적으로 누적 강화되어 회복 가능성을 낮춘다. 일반적으로 청년니트의 문제에 접근을 하면서 20대 초반 연령대보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더 주목하는 것은 누적된 문제가 증폭되어 그 연령대에서 표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대 초반 니트청소년의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20대~30대 청년니트 문제의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대 후반이나 30대가 된 니트들을 만나 보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력이 학습 된 거를 느끼거든요 그런 상태로 지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를 하려고 해도 엄두가 안나고 지금

내 생활에 있는 것이 돈이 많지 않아도 그게 익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자 감을 만나게 된다든지 가정을 형성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거의 요원한 일이 되어 버리잖아요. 점점 더 반발 심리 같은 것들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곳에 취업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 하니까 여자도 못 만나는 구나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거나 집을 살 돈도 없구나 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커지는 채로 증폭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현장전문가D4)

“... 저희 친구들은 일반적 자존감도 낮은 거 플러스 관계적 자존감이 낮아서 더 힘든 건데, 기본적으로 미래나 직업에 대한 자존감은 한국의 청소년 자체가 굉장히 낮을 거라 생각하고 그게 낮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 문제인 경우가 있는 게 그 낮은 자존감, 허한 결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하려고 한다든지, 이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사회생활에서 되게 힘들죠. 말하자면 **upper** 니트가 되는 거죠. 어퍼 클래스 니트가 되는 친구들 ... 이런 경우에서 뭔가 나사가 하나 빠졌을 때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 나이 대나 20대 후반, 30대 초반이.”(현장전문가 D3)

3) 짧은 근로기간과 니트 상태의 반복

현재 니트청소년이라고 하여 이들이 일 경험이 없거나 사회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V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니트청소년의 69.4%는 고교 졸업 후 근로경험이 있으며, 평균 28개의 일자리를 경험하였다. 또한 VII장에서 분석한 월소비지출 금액의 조달방법을 살펴보면, 부모님의 지원과 저축해두었던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니트청소년들이 근로의 지속성은 낮을지라도 일정 수준 근로활동을 하고,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을 저축하며 부족할 경우 다시 근로활동을 하는 생활패턴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현장전문가 심층면접에서는 이와 같은 추측이 현실적으로 니트청소년의 생활패턴임을 확인하였다.

“니트를 만나거나 니트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니트청소년을)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월 40에서 80만원에 준하는 알바를 해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돈을 벌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현장전문가D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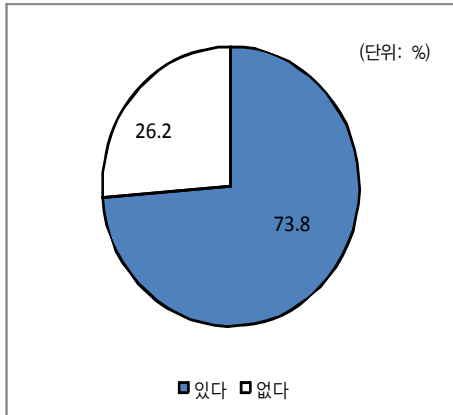
목적이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지출을 위한 근로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니트청소년의 근로활동은 지속성을 갖기가 어려운 단기 근로에 집중된다. 니트청소년의 근로활동이 짧은 기간의 일로 한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응력의 문제도 있지만, 내일에 대해 계획이 없는 이들에게는 취업가능성이나 일의 계속 가능성 또는 경력 형성보다는 당장의 시급 또는 일급을 기준으로 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을 Ⅶ장의 청소년대상 심층면접에서 확인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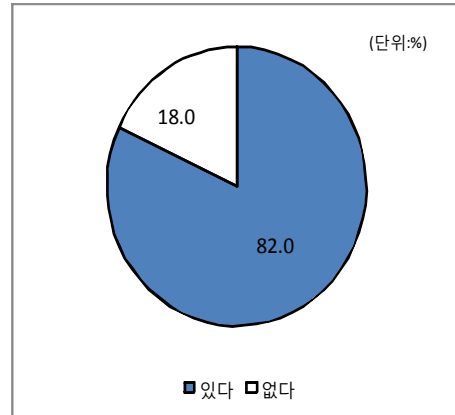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경향성은 삶의 가치와 목표설정이 부재한 니트청소년들이 현재의 험값 시급에 자신의 미래 가치를 쉽게 팔아버리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현장전문가들은 소비지출을 위한 짧은 근로와 니트 상태의 반복이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취업가능성을 낮추고,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을 차단해 버릴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짧은 니트를 반복 하거든요. 경력이 추천 되는 거를 알고, 자기 성장하고 개발 되는 거를 아는 친구들은 지금 일자리가 힘이 들고 수입이 적더라도 내가 이걸 여기에서 배워서 나중에 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가치나 비전을 갖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꿈 가치 비전이 없다 보니까 당장 이번 달에 100원, 천원 더 주는 데가 더 좋은 거예요. 10만원 더 주는 데로 계속 메뚜기처럼 뛰어 다니고 이동해 다니는 모습을 갖게 되고, 이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경력이 쌓이지 않고 짧은 이직 경력만 쌓이게 되다 보니까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을 못 해 버리는... 본인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직업에서 추구해야 하는 돈 이외의 가치, 행복의 원리를 얼마나 발란스 있게 추구 하느냐, 아니냐가 저 친구들한테도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더라고요.”(현장전문가D4)

시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짧은 기간의 근로활동일지라도 니트청소년들이 집 밖의 활동을 한다면 사회와의 단절과 고립을 피하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목표로 하는 일자리가 짧은 기간의 일자리인지, 어떠한 성격을 갖는 일자리 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청소년대상 실태조사에 포함된 111명의 니트청소년의 73.8%는 구직활동의 의향이 있으며, 니트청소년의 82.0%는 구직활동 이외 다른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보면, 니트청소년이 집 밖으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림 VIII-4】 니트청소년의 구직활동 의향



【그림 VIII-5】 니트청소년의 구직 외 활동 의향

그러나 미래를 그리지 않는 부정적인 미래 가치관과 계획이 없는 니트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들을 사회 속으로 끌어들이는지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니트청소년의 구직활동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은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있으나, 이와 같은 지원서비스는 니트청소년의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이기 보다는 정책대상의 범위에 니트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한계를 갖는다. 그나마 취업지원서비스 이외에 니트청소년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니트청소년에게 활동 욕구가 없을 것이라는 일차적 선입견을 배제하고 니트청소년의 활동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창구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 9 장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1.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
2. 정책 추진 과제

제 9 장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1.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관련 정책 현황(제3장)과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의 결과(제6장~7장), 그리고 여기에 현장전문가와 30대 고졸 성인의 경험을 더하여 도출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그 문제 속에서 드러난 정책욕구(제8장)에 기초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정부의 정책들과 연계하여 앞서 분석된 결과들을 간략하게 요약 및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Ⅲ장의 정책 현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대상이 되는 연령층에 포함시켜 다루는 수준이며, 고졸 비진학 청소년집단을 정책의 목표(target)로 하거나 이들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지난정부와 현 정부는 청년층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고졸 청년층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정책적 접근 방식도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고졸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 노력은 학력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용상의 학력차별, 과도한 학벌추구로 빚어지는 사회적 낭비와 노동시장의 일자리 불일치(miss-matching)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광호(경기대교수)가 집필하였음.

심화, 특성화(전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침체 및 직업교육 기피 등의 문제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선취업-후진학 정책’을 근간으로 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전략,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등의 직업교육정책과 함께 고졸자 채용을 촉진하는 ‘열린 고용’ 정책 등이 추진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 등을 비롯한 5대 국정목표 하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포함하는 청년층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140개 국정과제 속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직·간접적으로 고려한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맞춤형 취업 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등 정책과제에서 실질적으로 정책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간접적인 대응과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와 특성별 추이, 그리고 현재 생활과 의식 실태를 통해 이들이 가진 문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와 정책욕구를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정책의 목표 집단으로 하는 보다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일반계 고교 졸업 후 무직상태에 놓여 있는 청소년이 지난 10년 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전문계와 특성화 고교 졸업자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동안 정부의 20대 청년정책과 후기청소년정책에서 대학생이 정책대상이 되어왔고, 그 과정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배제되어 왔다면, 이제는 증가하고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정책대상의 중심으로 놓거나 이들을 20대 청년층의 구성원으로 고려하는 선제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졸업 후 취업자, 구직자, 진학·취업·창업준비자, 니트 등 다양한 하위집단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니트청소년의 경우 낮은 자존감 등 사회·정서적 요인이 현재 이들의 삶의 형태에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들의 1/4 정도만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 40% 정도는 취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집단이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집단 내 이질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으며, 각 하위집단 내에서도 니트청소년과 같은 하위집단은

더욱 이질성이 높아 정책적 접근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니트청소년과 같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에 대한 정책은 존재 상태별 또는 욕구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준비하지 않은 청소년은 다른 집단에 비해 20대 초반에 니트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자의 경우 창업준비자나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보다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취업상태에 있으며, 대학진학 후 중퇴한 자들보다 순수 고졸학력 청소년이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한 시점에서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생애경험의 누적과 시간의 연장선상이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아울러 순수 고졸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대학진학 후 중퇴하는 등의 다양한 경로의 고졸자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넷째, 고등학교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가 많을수록 취업준비자나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이는 현재 취업준비자나 니트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일 경험이 적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고교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취업 후 단기퇴사로 일자리 이동이 빈번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경력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현재 취업준비자와 니트청소년이 사회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사회와 단절되거나 일 경험의 시도 자체가 다른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 비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울러 장기 취업준비자들의 경우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의 취업준비로 낮은 적응력과 자존감 등 니트청소년이 갖는 문제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는 취업준비자 중의 일부는 잠재적 니트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하위집단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하위집단 간 경계의 불명확성을 고려되어야 하며, 단기 퇴사나 잦은 이직 경험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채용에 있어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진로탐색과 결정과정이라고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물론 단기퇴사 및 잦은 이직을 완화하기 위한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직업능력개발과 적절한 취업지원서비스는 중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섯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자존감, 미래관, 사회적 지지 등 사회적·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존감은 5점 척도에서 전체 평균 2.8점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보통 이하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는 취업자와 창업과 진학준비자에 비해 구직자(2.7점), 취업준비자(2.7점), 니트(2.5점) 집단이 평균보다 낮으며, 그중에서도 니트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존감은 하위집단에 관계없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공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의 출발점은 자존감의 생성과 회복에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직업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정책성고가 체감되지 않는 것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20대 청년들의 다수가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직업교육과 고용정책의 정책지원서비스를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생성되어 있지 않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책 추진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실은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는 고졸 비진학자의 현재 삶의 질에 긍정적인 자존감과 미래관, 사회적 지지 및 가족응집력과 같은 사회·정서적 요인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강제된 자기결정 상태’에 놓여 있다. 즉,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현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문제나 욕구가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누적되어온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문제는 대학진학자가 절대 다수를 이루는 우리사회를 살아가면서 세대를 넘어 공통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도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실들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에 반영되어 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공통적으로 강제된 자기 결정자로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종 기회로부터 제한되어 있으며, 낮은 자신감과 자존감 및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하위집단별로 보면 우선 취업청소년은 단기퇴사와 잦은 이직, 학력에 따른 직장 내 차별문화와 업무비전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구직 및 진학·취업·창업준비 청소년의 경우 기업의 군미필자에 대한 기피 현상, 현실인식과 직무개념의 부재, 각종 준비기간 내의 경제적·심리적 압박감, 창업준비 청소년에 대한 진입장벽 및 기초생활수급권 유지를 위한 준비상태의 지속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니트청소년의 경우에는 단기간의 근로와 니트 상태의 반복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낮은 자존감과 학습된 무기력과 사회생활 적응력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니트 상태 탈출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정책의 세 가지 기본 방향

앞서 기술한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이들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전제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통합적 정책의 추진

정책기본방향 1	통합적 정책(Integrated Policy)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중심의 고용정책 틀에서 벗어나 직업교육 등 직업능력개발정책과 취업지원 등 고용정책과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다양한 활동 기회를 포함하는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정책 등 3분야의 정책이 상호 어우러져 융합된 ‘통합적 정책(integrated policy)’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난 정부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책들은 주로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등을 통한 고용정책 등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취업자, 니트를 비롯한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우리사회에 존재하며, 다른 청소년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회적·심리적·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당장 취업에 필요한 지원과 직업훈련이나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신감과 자존감을 바탕으로 미래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 갈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개발 차원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취업지원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고용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44개주에 걸쳐 약 28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청(소)년 고용정책과 고용 개선 및 청(소)년개발 실천(youth development practices)의 발달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고용연합(National Youth Employment Coalition: 이하 NYEC)’은 청소년개발,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 등 세 분야의 혼합 내지는 융합을 강조한다. 특히 14-24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개발과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이 혼합(blending)된 발달적 학습기회, 지원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이들이 온전한 성인으로 이행해 갈 수 있다는 사실(National Youth Employment Coalition, 2004, p. 3)에 주목한다.

첫째, 청소년개발 분야는 청소년과 돌볼 수 있는 성인과의 연계, 긍정적인 친구관계의 중요성,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힘, 그리고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창출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 발달 원리를 중시 여긴다.

둘째, 직업능력개발(workforce development) 분야는 경제적 발전, 진로 준비, 초기 일 경험의 발달적 가치 인식 및 고용가능성 고양 등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교육(education) 분야는 모든 청소년에게 엄격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성, 핵심 역량 획득에 필요한 방법과 도구 등을 포함하여 어떤 맥락 속에서 교육자가 청소년의 학습 스타일에 반응적일 때 모든 청소년이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처럼 NYEC는 청소년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교육과 청소년개발과 직업능력개발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합의 원리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자신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극복하며 진로를 개척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중심의 고용정책만으로는 효과를 온전히 달성하기 어렵다. 더욱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형성되어가는 사회의 취약한 계층으로서 낮은 자존감과 미래 비전의 부재 등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개발 차원의 지원과 고용정책에 어우러질 때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직업교육 등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취업지원 등 ‘고용’정책과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다양한 활동 기회를 포함하는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 정책 등 3분야 정책이 상호 혼합된 ‘통합적 정책(integrated policy)’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2) 권리기반 접근

정책기본방향 2	권리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이들을 문제(youth as problem)집단이나 수혜집단으로만 전제하기보다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자원(youth as resource)인 동시에 주요한 이슈에 대한 이해당사자(youth as stakeholder)이며, 문제해결자(youth as problem-solver)이고 변화의 주도자(youth as change agent)로서 인식하는 ‘권리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내용면에서 직업훈련과 고용지원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고졸자의 대다수가 대학으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문제 집단이거나 사회적 약자로서, 또는 정부 지원의 수혜집단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직업훈련이나 각종 사회적·교육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평판 등을 고려하며 각종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기회를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즉,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구조적으로 누적된 자신감과 자존감의 부족으로 자신의 진로를 떳떳하게 개척하지 못하는 일종의 심리적·정서적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고, 결국에는 니트 등 사회참여 의욕을 상실하는 위기에 노출되는 것이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소기의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각과 접근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개인적으로 선택하거나 구조적으로 형성된 문제집단이나 단순한 서비스 수혜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많은 이슈에 대한 이해당사자이자 의사결정자(youth as stakeholder)이며, 문제해결자(youth as problem-solver)인 동시에 변화의 주도자(youth as change agent)로 이해하고 인정(Movement Strategy Center, 2012)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각종 기회나 서비스의 단순한 수혜자로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모색해가는 권리를 가진 인간 권리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즉,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이들의 인간 권리적 기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권리기반 접근은 청소년을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사회적 지위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다. 권리기반 접근에서 핵심 정책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는 등 청소년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권리기반 접근에 의한 청소년 관련정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적을 중요시한다. 첫째,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의 참여 둘째, 기본 서비스와 발달을 위한 기회의 접근 셋째, 친화적이고 보호적이며 안전한 생활환경 넷째, 능력과 재능의 충분한 개발 등이다(이광호, 2012, pp. 97-98).

(3) 하위집단별 맞춤 정책

정책기본방향 3	하위집단별 맞춤형 정책(Subgroup-specific Policy)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우리사회에 취업자, 구직자, 진학·취업·창업준비자, 니트(NEET)등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된 문제와 더불어 서로 다른 문제와 정책 욕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공통의 일반적 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하위집단별 문제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여 논의하는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고졸자의 대부분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 진학 여부를 기준으로 대학생과 대응되는 하나의 소수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각기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의 집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대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오류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여 구직활동을 하거나, 진학 또는 취업 및 창업 등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준비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아울러 당장의 진학이나 구직 준비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 상태에 놓인 니트 집단 등 주변집단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갖는 다양한 사회적 존재 형태만큼이나 이들은 각기 다른 정책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여러 하위집단들의 공통된 동일 욕구에 부응하는 일반적 정책 수립과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개별적 사회·심리적 특성과 정책욕구에 기초한 차별적 정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발달상의 복잡성이

정책 추진전략의 주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책 사항을 전제로, 이들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상정(Pittman, 1996; 이광호, 2000, p. 122에서 재인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양질의 서비스(service)이다. 서비스는 교육, 건강, 고용, 비행예방과 같은 서비스로서 적절한 교육과 정보, 자신을 표현하고 기여하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도전적인 기회에 대한 서비스 및 존중, 모범, 기대, 지도와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성인과 친구 등의 제공을 포함한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성공을 위한 동기적, 정서적, 전략적 지원(support)이다.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긍정적이고 존중하며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은 부모, 교사, 고용주, 친구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 상에서 다양한 기관이나 사람들에 의해 제공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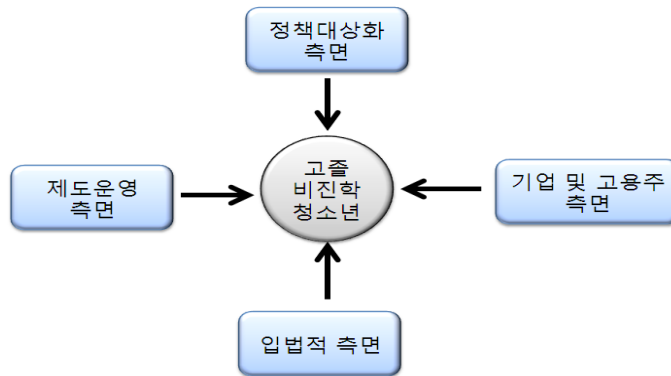
셋째, 기회(opportunities)이다. 기회는 청소년에게 행동하고 탐구하고 표현하고, 노동하며 벌고, 소속되고 영향을 주는 방법을 학습하는 기회를 의미한다. 기회는 청소년에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점점하고 다른 역할을 시도하는 또 다른 기회를 준다.

2. 정책 추진 과제

여기에서는 앞서 설정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기본 추진과제와 하위집단별 세부 추진과제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기본 추진과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과제로서 입법적인 과제와 기존 정책추진체계 또는 인프라를 정비하는 과제들이 주로 해당되며, 고졸 비진학 청소년 공통의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에 대응하는 과제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위집단별 세부 추진과제는 기본 추진과제와 중복되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 구분한 각 하위집단의 주요 문제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제안한 과제이다.

기본과제와 하위집단별 세부과제는 접근하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앞선 장들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책대상자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위치와 이들과 관련된 정책현황,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이들의 주요문제와 정책욕구를 모두 고려하여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분하고 도식화하여 제안하였다.



【그림 IX-1】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 추진과제 제안의 네 가지 축

네 가지로 구분된 축 중 정책대상화 측면 축에는 기존 정책에서 정책대상으로서 또는 정책집단으로서 주요 목표 집단이 되지 못하였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주요 정책대상이나 집단으로 설정되는 제안 정책들이 포함된다. 제도운영측면 축에는 기존 제도 및 정책사업 운영의 확대나 개선 또는 새롭게 제안되는 신규 정책 사업들, 입법적 측면 축에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정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개정이나 고졸 학력차별을 억제하는 법률의 제정, 기업 및 고용주 측면 축에는 기업과 고용주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근로 여건 및 환경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거나 학력에 따라 차별 받지 않도록 인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해당된다.

1) 기본 추진과제

(1) 통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과제 1	통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개발 차원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pre> graph TD A[정책대상화 측면] --> E((고졸 비진학 청소년)) B[제도운영 측면] --> E C[기업 및 고용주 측면] --> E D[입법적 측면] --> E </pre>	
정책제안유형	-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V) - 신규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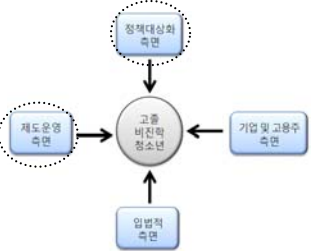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도 제8조의 4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애로 청년의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을 포함(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2호)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에서 그 대상을 일반 위기청소년 이외에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을 특별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비롯하여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 등 고용 관련 법령은 현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1호에는 취업애로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책 추진과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표 IX-1 청소년복지지원법: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 근거 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7조의 2(고졸 이하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발달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실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실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추진과제 2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 현행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정책사업 전달체계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포함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정책제안유형 •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사업 전달체계에서 고졸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진로와 직업지도 등의 사업을 포함하는 전달체계를 확대하여야 한다. 즉,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의한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심리적·정서적 상담지원은 물론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 참여 등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최근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지도 등이 주요한 사회적·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진로와 직업지도의 범위와 내용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관·단체 등에서 청소년의 진로, 직업지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고려가 요구된다. 특히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부모의 무관심과 진로상담이나 멘토 부재 등에 따른 어려움은 물론 청소년활동 등 다양한 기회와 관련한 정책욕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과 청소년수련관 등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복지 등 청소년사업 전달체계를 보완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응하는 정책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유스센터(가칭 Youth Center) 설치 근거 마련

청소년활동과 복지사업 전달체계 상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체계를 포함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을 전담 지원하는 ‘유스센터(가칭 Youth Center)’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유스센터의 기능을 현행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X-2 청소년복지지원법: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 유스센터 설치 근거 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7조의 2(고졸 이하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②여성가족부장관은 고졸 이하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유스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유스센터의 기능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유스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② 추진체계 정비안

<제1안>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분리형

-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현재와 같은 상담지원, 위기지원, 자활연수 등의 기능이나 조직 이외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비롯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팀 단위의 조직 신설
- 조직구성: 팀장 1명, 팀원 2명
- 기능 및 기대효과: 지역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자신감 및 자존감 회복과 관련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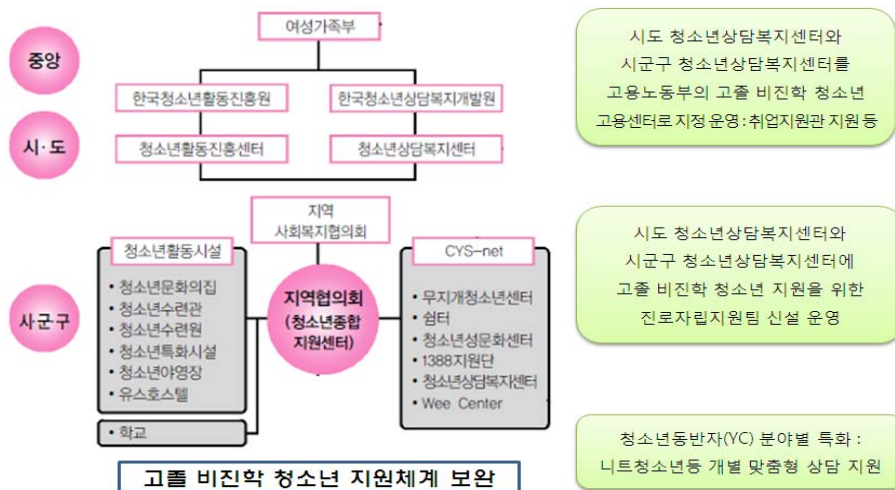
<제2안>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형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역의 청소년활동과 상담복지 기능을 통합한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청소년활동지원과 청소년상담복지 기능과 별도 조직으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비롯한 취업이나 진로모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진로지원팀을 신설

- 조직: 팀장 1명, 팀원 2명
- 기능 및 기대효과: 진로지원팀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지역의 노동행정기관이나 직업안정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 구축

기초자치단체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센터 중심의 지원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광역자치단체의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부터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차원의 지역 센터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진로, 취업 및 청소년개발 차원의 다양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현재 대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학청년고용센터’와 유사한 형태의 ‘고졸 비진학 고용지원센터’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⁴²⁾.



【그림 IX-2】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 추진체계 정비 방안

42) 현재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교 내에서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청년고용센터에서는 취업, 진로상담을 통해 적성 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고용 동향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및 1:1 맞춤형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2012년 현재 대학청년고용센터는 전국 47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며, 취업지원관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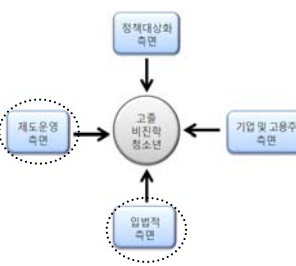
③ 추진체계 정비 로드맵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정비는 2014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장기 계획 하에 추진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은 2015년에 6개 광역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담당하는 진로자활팀(가칭)을 신설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실시 지역을 확대하여 2018년에는 17개 시·도와 120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담당하는 팀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IX-3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지원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중기 로드맵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단계별 계획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법적근거 마련	• 시범사업 1단계 - 6개 광역 수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진로자활지원팀 신설 운영 (인원 각 3명)	• 시범사업 2단계 - 11개 시도 수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진로자활지원팀 신설 운영 (인원 각 3명)	• 시범사업 3단계 - 16개 시도 전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진로자활지원팀 신설 운영 (인원 각 3명)	• 본격 사업 단계 - 16개 시도 전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진로자활지원팀 신설 운영 (인원 각 3명)
	• 고용노동부와 협의	- 20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진로자활지원팀 운영 (인원 각 1명)	- 40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진로자활지원팀 운영 (인원 각 1명)	- 80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진로자활지원팀 운영 (인원 각 1명)	- 120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진로자활지원팀 운영 (인원 각 1명)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없음	• 광역단위 센터 당 3명 인건비: - 팀장급: 4,000만원 X 1명 = 4,000만원, - 팀 원: 3,000만원 X 2명 = 6,000만원 - 계 1억원 • 사업비: 3,000만원 • 소 계: 1억 3천만원			
		• 기초단위 센터 당 1명 인건비: 3,000만원 X 1명 = 3,000만원, • 사업비: 3,000만원 • 소 계: 6,000만원			
		• 광역단위센터 예산 - 1억 3천만원 X 6개소 = 7억 8천만원	• 광역단위센터 예산 - 1억 3천만원 X 11개소 = 14억 3천만원	• 광역단위센터 예산 - 1억 3천만원 X 16개소 = 20억 8천만원	• 광역단위센터 예산 - 1억 3천만원 X 16개소 = 20억 8천만원
		• 기초단위 센터 예산 - 6천만원 X 20개소 =12억원	• 기초단위 센터 예산 - 6천만원 X 40개소 =24억원	• 기초단위 센터 예산 - 6천만원 X 80개소 =48억원	• 기초단위 센터 예산 - 6천만원 X 120개소 =72억원
		• 총계 : 19억 8천만원	• 총계 : 38억 3천만원	• 총계 : 68억 8천만원	• 총계 : 92억 8천만원

(3) 청년고용촉진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칙에 청소년기관 및 단체 포함

추진과제 3	청년고용촉진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칙에 청소년기관 및 단체 포함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직업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청소년 개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제공(제8조의 3) 관련 기관에 청소년기관·단체를 포함하고,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제9조)에 반영한다.	
정책제안유형	-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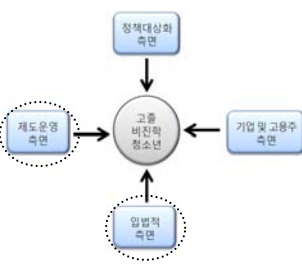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8조의 3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인정기관을 통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등에서도 이러한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마련해놓고 있다.

또한 제3장 제9조에는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용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되도록 할 것을 비롯하여 근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또는 취약분야 출신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정부, 기업 등 및 대학 등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되,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성화 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개발,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 등이 혼합될 수 있도록 현행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제공에 청소년개발 요소를 반영하고, 청소년기관·단체 등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이러한 취지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에 특성화 고등학교와 직업훈련기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정안
제8조의 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생략) ②정부는 대학 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 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대학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의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정부, 기업 등 및 대학 등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되,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신 설〉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정부, 기업 등, 대학 및 청소년기관·단체 등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되,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수련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수요자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청년 발달상의 복잡성을 고려할 것

(4) 청년고용촉진법위원회에 청소년정책 관련자 포함

추진과제 4	청년고용촉진법위원회에 청소년정책 관련자 포함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개발,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등 세 분야의 통합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구성에 청소년개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관련 중앙부서와 청소년기관·단체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정책제안유형	-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청년은 시행령 제2조에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의 청년은 현행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청년과 청소년은 15세부터 24세까지는 겹치는 셈이다. 그리고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주로 18세부터 24세 정도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법 제4조에는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5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소관)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운영규정에는 제3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소기업청장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8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사업주 단체, 교육단체 소속 실무책임자로 위촉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관련 실무위원회 등에 청소년개발과 관련된 청소년정책 관할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대표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운영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IX-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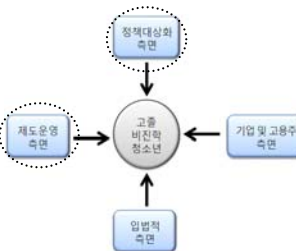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생략)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사업주단체의 대표 3. 학교협의회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현행과 같음)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사업주단체의 대표 3. 학교와 청소년협의회 등 교육과 청소년기관·단체의 대표 4. 청년고용과 청소년개발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표 IX-6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관련 조항 개정 사항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구성)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소기업청장 2. 사업주단체: 생략 3. 교육단체: 전국특성화 고등학교 대표(전국공업계 고등학교장회 회장), 전국마이스터고교장단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 인원을 위촉	제3조(위원회구성)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소기업청장 2. 사업주단체: 생략 3. 교육 및 청소년기관·단체: 전국특성화고등 학교 대표(전국공업계고등학교장회회장), 전국마이스터고교장단협의회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처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4. 청년고용 및 청소년개발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 인원을 위촉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생략) ②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인력수급 정책국장으로 임명하고, 실무위원회위원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사업주단체, 교육단체 소속 실무책임자로 위촉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생략) ②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인력수급 정책국장으로 임명하고, 실무위원회위원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사업주단체, 교육 및 청소년기관·단체 소속 실무책임자로 위촉한다.

(5) 고졸 비진학 청소년 근로보호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추진과제 5	고졸 비진학 청소년 근로보호정책 대상의 확대와 추진체계의 이원화
• 현행 10대 청소년(15세~19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중심의 청소년근로보호 정책은 20~24세 후기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의 낮은 부당행위 대처방법의 인지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근로보호 정책 대상을 24세 까지 확대하고 현행 고용노동부 중심의 근로보호정책 추진 체계를 사업장 대응 감독 및 규제체계와 청소년 대응 교육·상담 및 지원 체계로 이원화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정책제안유형	•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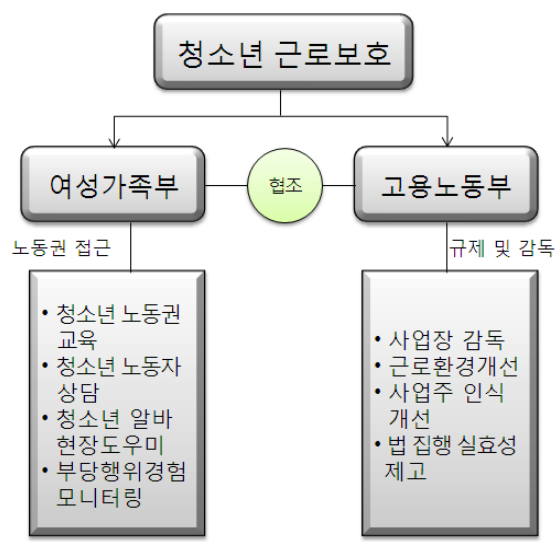
현행 청소년근로보호정책은 세 개 관계부처 합동의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대책은 크게 4가지 영역의 세부 추진과제(①사업장 감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②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 신고체계 구축, ③근로환경 자율개선을 통한 인식제고, ④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인프라 보강)를 담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교 졸업 후 시간제 일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비중은 적지 않으며, 이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의 부당행위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나, 피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대처방법은 참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등 매우 소극적이다. 청소년들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노동권 인지 수준이 낮고 노동권 침해 피해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처방법에 대해 얻는 정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른 청소년의 경험과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에서 배너로 제공되는 수준의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낮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근로보호 정책의 접근 방식은 앞서 기술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 대책」의 세부과제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장 단속 및 노동시장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청소년의 부족한 노동권 인지 수준의 향상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근로보호정책은 10대 청소년(15세~19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교를 졸업하고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20대 초반 후기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근로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근로보호 주 대상 연령을 24세까지 확대하고, 정책의 추진체계를 사업장에 대응하는 체계와 청소년에 대응하는 체계로 이원화 하여,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청소년의 노동권 교육과 상담 등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IX-3】 고졸 비진학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 추진체계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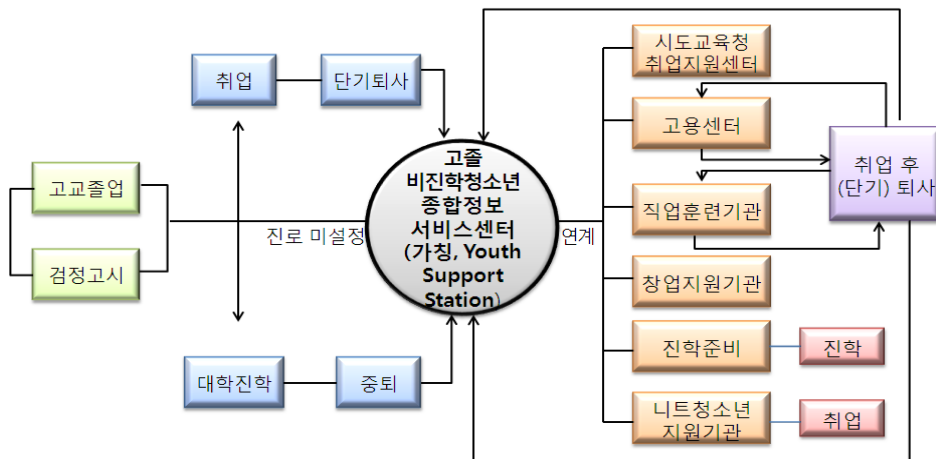
(6) 고졸 비진학 청소년 종합정보서비스센터 운영

추진과제 6	고졸 비진학 청소년 종합정보서비스센터 운영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보 및 각종 사회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으며 전문 지원기관을 연계해주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종합정보서비스센터(가칭 Youth Support Station)를 운영한다.	
정책제안유형	-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자신들을 위한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이 공공과 민간에서 적지 않게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와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원이나 정보 접근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종합적인 정보의 부재에도 기인하지만, 그 보다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특성상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기 꺼리는 사회적·심리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시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범부처의 각종 진로·직업교육서비스나, 직업훈련 정보, 창업정보,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각 서비스 기관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였다가 이직 또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들, 대학에 진학하였다가 중퇴한 후 새로운 진로설계를 희망하는 청소년들, 군복무 완료 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청소년 등 고졸 비진학 청소년 모두에게 진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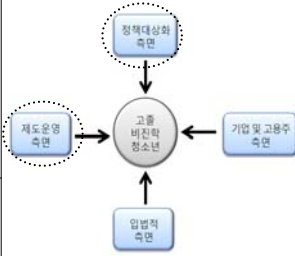


【그림 IX-4】 고졸 비진학 청소년 종합정보서비스센터 제안(안)

이와 같은 종합정보서비스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보제공에 있지 않고, 청소년의 상태에 대한 진단, 즉 심리 및 진로상담까지

받을 수 있으며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니트 집단 등 오랜 기간의 무직이나 정서적 불안 상태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동반자(YC)’와 같은 지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1:1로 상담과 병행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 특화된 ‘3업(3業, 3-up) 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추진과제 7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 특화된 ‘3업[(3業, 3-up): 취업-전업(轉業 혹은 재취업)-창업] 성공패키지’사업 운영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일환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 특화된 ‘3업[(3業, 3-up): 취업-전업(轉業 혹은 재취업)-창업] 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	 <pre> graph TD A[정책대상화 측면] --> C((고졸 비진학 청소년)) B[제도운영 측면] --> C D[기업 및 고용주 측면] --> C E[입법적 측면] --> C </pre>
정책제안유형	• 기존정책의 확대 (√) • 기존정책의 개선 () • 신규정책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복지 연계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차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내실화는 근로빈곤층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우선 제공하여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불성실 참여 시 관련 복지급여 지급 중지 및 재참여 제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진단경로설정, 2단계에서는 직업능력 증진, 3단계에서는 일반 노동시장 취업(고용촉진지원금 활용) 등 취업알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1단계 직업진로지도 강화, 2단계 유망직종 채용예정형 훈련 확대 및 훈련지시권 발동, 3단계에서는 취업알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6.4, p. 31).

이와 같은 취업성공패키지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3업[(3業, 3-up): 취업-전업(轉業 혹은 재취업)-창업] 성공패키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3업 성공패키지 사업은 대상별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3업 성공패키지(A형)’와 일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3업 성공패키지(B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우선 저소득층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과 재취업(轉業) 및 창업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활용하여 3단계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고용촉진지원금을 활용하여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고졸 비진학 청소년 중에서도 니트 집단 등 구조적으로 형성된 실업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특별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일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에도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모델을 활용하되 재정지원은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진단 경로 설정	〈2단계〉 직업능력증진	〈3단계〉 취업알선
기본원칙	개인별 프로파일링 정교화 → 맞춤형 취업지원계획 수립	대상별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일 경험 프로그램 확대	일반 노동시장 취업(고용촉진 지원금 활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재정비 → 대안적 일자리 제공
청년	직업진로지도 강화	유망직종 채용예정형 훈련 확대 훈련지시권 발동	
복지급여 수급자	롤모델링 멘토링 등 복지수급자 특화 상담프로그램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기본 직업능력향상 강화	
고졸 비진학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강화 자존감 회복 등 사회적 정서적 지원 강화	유망직종 채용예정형 훈련 확대 훈련지시권 발동 전업(재취업) 위한 지속 지원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3.6.4. p. 31)의 취업성공패키지 부분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 부분을 첨가하여 재구성

【그림 IX-5】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3업 취업성공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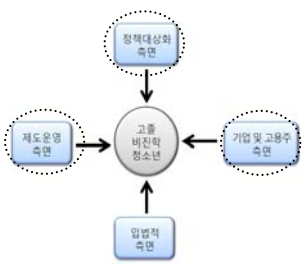
2) 하위집단 맞춤형 세부 추진과제

일곱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집단 전체 구성원을 위한 기본 추진과제의 내용 이외에, 하위집단별로 그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추진과제 또한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앞서 8장에서 논의된 하위집단별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세부 정책 추진과제 제안에 앞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과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별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를 대응시켜 보았으며, 그 결과 Ⅲ장에서 살펴본 현 정부의 추진과제들이 하위집단별 정책욕구에 상당부분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서 제안한 기본과제들에서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집단 중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정책들이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취업 및 구직청소년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추진정책과 연계하여 간략하게 논의하고, 진학·취업·창업 등 준비청소년과 니트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앞서 제안한 기본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1) 취업 및 구직청소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1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과제에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 욕구 반영 모니터링
• 단기퇴사 및 잦은 이직, 열악한 근로조건, 직장 내 학력차별 및 업무비전의 부재 등 취업 및 구직청소년이 갖는 주요 문제와 정책욕구는 기존 정책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과제들(예: 국가직무능력표준화, 일·학습듀얼시스템, 대·중소 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등)을 통해 상당부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정책 유형	• 추진 중인 정책 (√) • 추진 예정 정책 (√) • 신규 제안 정책 ()

앞선 장들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직업교육 및 고용정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취업 및 구직청소년의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 즉 ①단기퇴사 및 이직과 ②열악한 근로조건 문제 그리고 ③직장 내 학력차별 및 업무비전의 부재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과 현 정부의 추진정책에서 해소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정책방안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 되는가이다.

한 가지 예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기본계획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5호), 동법 제18조에서는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 규정이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이상희, 2012, p.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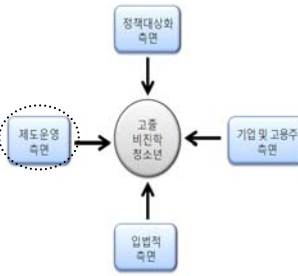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대졸자와의 임금격차는 단순히 학력의 차이라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에 기인하는 영향이 더 큰데,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이 주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다 보니 임금격차에 대한 차별의 체감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현실화하는가에 따라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단기퇴사와 이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화(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면, 기초학력이나 직무능력이 부족하여 단기퇴사 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문제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업무를 통해 능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전문적인 능력을 획득해 나가고자 하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정책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서 업무에서 비전을 찾을 수 없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근속했던 직장을 퇴사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두 가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면, 기업측면에서도 학력이 아닌 직무능력에 기반하여 승진과 같은 인사체계 및 운영체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에 따른 단기퇴사와 관련해서도 병무청에서는 2012년 관련법을 개정하여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의 2에 근거하여 산업체 취업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24세까지 연기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편입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채용한 근로자를 군복무완료 후 1년 이내에 복직시킬 경우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 공제를 하는 방안을 2013년에 신설하였다.

따라서 이들 제도가 추진·운영되는데 있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정책욕구가 배제되지 않는지 등을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2) 진학·취업·창업 준비청소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2	직업훈련 쇼핑 예방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통합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유지 방법의 하나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쇼핑하듯이 참가한다거나 공공기관 취업지원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를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직업훈련 및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참가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정책제안 유형	- 추진 중인 정책 () - 추진 예정 정책 () - 신규 제안 정책 (√)

하위집단으로서 준비청소년집단이 갖는 주요 문제 및 정책욕구는 ①자기주도성의 상실, ②현실 인식과 직무개념의 부재, ③장기화되는 준비 상태로 나누어 앞선 장에서 논의하였다. 자기주도성의 상실 문제는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을 함에 있어 진학준비자에게서 드러났던 문제이기도 하나, 단지 진학준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현실 감각이 부족하고 직무개념이 부족하여 막연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 준비상태에 있는 문제도 발견되었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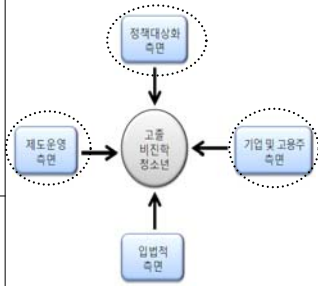
장기간 준비상태에 있는 이들 중 취약계층에게서 발견되는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참가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층면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의 부모가 수급권유지를 위해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막고 있음이 드러나기는 하였으나, 다양하게 제공되는 직업훈련 과정을 쇼핑한다거나 공공 취업지원서비스에 참가가 반복된다는 것은 제도 운영의 허점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는 부모가 사회제도적으로는 제도의 허점이 빈곤가정 청년들의

43) 이들 문제에 대한 대응은 재학 중 학교에서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대학입시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문계고교 졸업자들의 경우 특성화고교 졸업자에 비해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낮고,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도 적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에서는 '직업교육기회 확대 방안(교육부, 2013.7.26)'을 발표하였는데, 이 방안은 일반계고에 진학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진로를 변경하여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에게 직업교육기관 위탁, 방과 후 직업교육프로그램, 일반고 내 직업소양 중점과정 등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9,000명인 직업교육 참여 일반계고 학생 수를 2017년까지 15,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립기회를 줄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서비스에 참가한 것을 전혀 기록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의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록 관리가 각 부처 안에서만 이루어질 뿐,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사업들과는 연계되어 관리되지 못하는데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직업훈련 쇼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제거하고, 중복 수혜를 방지할 수 있는 이력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동시에 이들에게 성취감의 획득과 자발적 자립의지를 동기화 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유인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니트청소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3	NPO 및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니트청소년의 체험과 공감의 터전 마련
• 사회적응력과 자존감의 수준이 낮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놓인 니트청소년이 사회와 단절되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진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간과정으로서의 직업체험과 취업, 그리고 생활 공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NPO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정책제안 유형	• 추진 중인 정책 () • 추진 예정 정책 () • 신규 제안 정책 ()

무엇을 하든 적응력이 낮고, 자존감은 생성되기 어려우며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놓인 니트청소년들은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낮은 사회적응력으로 인하여 근로활동과 사회적 관계형성에 실패를 경험하며, 그러한 경험의 누적으로 낮아진 자존감은 회복되지 못한 채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 이러한 상태의 지속은 결과적으로 생애 전반에 자립능력의 상실 상태를 가져와 사회적 부담을 야기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니트 청소년의 상당수는 취업 또는 취업이외 활동을 희망하는 등 니트상태 탈출의 욕구를 갖고 있다.

반복 및 지속되는 니트기간의 누적 상태에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니트청년과는 달리, 20대 초반의 니트청소년들은 이들의 니트상태 탈출 욕구에 부합하면서 갑작스러운 사회생활 적응이 아닌, 사회생활 및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과 더불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서의 생활학습이 된다면 자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니트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지원은 그다지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Ⅱ’의 대상으로서 니트청소년을 포함하기는 하나, 적응력이 낮아 무엇을 하던 지속성이 떨어지고, 쉽게 포기하며 타인과의 교류나 관계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공공의 취업서비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고용센터의 입장에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니트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⁴⁴⁾. 니트청소년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단순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상자 확대로서 포함된 것은 정책 확대 시, 정책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니트청소년의 특성에 기반하여 이들의 자립을 돕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공공서비스 기관보다는 민간단체 또는 사회적기업들이 대상자 접근성과 이해 측면에서 우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 NPO법인이나 사회적기업에 위탁방식으로 니트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돕는 중간과정으로서의 직업교육과 생활학습 지원 정책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니트청소년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돕는 정책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의 하나로 1997년에 시작된 NPO법인 ‘와타케’를 들 수 있다⁴⁵⁾. ‘와타케’는 틀에 짜여진 계획이나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교육하지 않는다. 참여하는 이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Free Space로 지칭)을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니트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인큐베이팅 기능을 목적으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니트청소년 당사자와 이들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을 하며,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과 학부모 워크숍을 통해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원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와타케’에는 공감터전의 기능을 하는 3개의 공간과 기숙사(50명이용 가능), 그리고 학습지원(진학, 복학, 각종 시험 준비 등) 하우스가 있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출근형과 숙박형(단기입소 포함)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공간을 갖는 것은 ‘와타케’가 니트청소년의 개별 맞춤형 자립지원과 기숙사 생활을 통한 다양한 생활체험 및 학습, 또래집단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형태로서는 공동생활 시설이며 그룹 홈의 성격과 유사하다. ‘Free Space’라 지칭되는 공간에서는 짜여진 일정 없이 취미활동과 또래와 어울리면서

44) 현장전문가 심층면접에서도 고용센터에서 니트청소년들의 발굴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보된 바 있다.

45) 일본 NPO법인 와타케의 사례는 일본 동북(東北)대학교 박현숙교수에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기숙사의 주말 식사를 니트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면서 생활자립을 익힌다. 또한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직업훈련(공예, 제과/제빵, 도시락만들기, 지역사회 지원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니트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사례: 일본 와타케센터			
○ 시설 - 정원: 출근형 20명, 숙박형 10명			
			
○ 사업내용 - 학습지원 및 자립생활 지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지원 - 니트청소년 및 가족 대상 상담지원			
○ 활동내용 ① 일일활동 • 스포츠: 풋살, 배드민턴, 배구, 근육트레이닝 • 체험활동: 쇼핑, 사이클링, 가라오케, 낚시, 요리 등 • 자원봉사활동: 노인시설, 아동센터 ② 연중행사 • 겨울스포츠, 여행, 운동회, 크리스마스 파티 등 ③ 학습지원 • 대학진학 지원, 기초학력 학습 지원 ④ 취업지원 • 지역사회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직업체험 및 훈련 지원 ⑤ 가족지원 • 어머니모임: 격주로 개최(화요일) • 아버지모임(뿌리모임):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			

【그림 IX-6】 니트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사례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일곱 가지의 기본 추진과제와 하위집단 맞춤형의 세 가지 추진과제를 합하여 총 열 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들 과제를 <표 IX-7>에 추진 일정과 관계부처를 명시하여 제시하였다.

표 IX-7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추진 일정(안)

① 기본 추진 과제

추진과제	제안 유형	추진일정*		관계부처
	①기존정책확대 ②기존정책개선 ③신규제안정책	단기	중·장기	
1. 통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	○		여성가족부
2.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① & ②	○		여성가족부
3. 청년고용촉진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원칙에 청소년 기관 및 단체 포함	②		○	고용노동부 교육부
4. 청년고용촉진법위원회에 청소년정책 관련자 포함	②		○	고용노동부
5. 청소년근로보호정책 대상의 확대와 추진체계의 이원화	① & ②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6. 고졸 비진학 청소년 종합정보서비스센터 운영	③		○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7.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게 특화된 '3업(3業, 3-up)성 공패키지'사업 운영	①		○	고용노동부

② 하위집단 맞춤형 세부 추진과제

추진과제	제안 유형	추진일정*		관계부처
	①추진중인정책 ②추진예정정책 ③신규제안정책	단기	중·장기	
1.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과제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 욕구 반영모니터링	① & ②	○		여성가족부
2. 직업훈련 쇼핑 예방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통합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③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시도자치단체
3. NPO 및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니트청소년의 자립지원 센터 운영	③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단기 정책 추진과제는 기존 정책의 개선 또는 확대로 2014년~2015년 내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이며, 중·장기 추진과는 세부 정책연구, 신규정책 계획 또는 정책 조정 등이 요구되거나 단계적으로 2016년 이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임.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영배 (2009).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 및 정책에 관한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11(4), 101-127.
- 고용노동부 (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 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3.3.29). 일자리 늘리기 지키기, 질 올(오)리기를 통해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13년 업무보고- 보도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0.5.12).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 관계부처합동 (2012.11). **청소년근로환경 개선 종합 대책**.
- 관계부처합동 (2012.12).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 관계부처합동 (2013.5.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관계부처합동 (2013.6.4).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 고용률 70% 로드맵**.
- 고려대학교부설행동과학연구소 (1999). **심리척도 핸드북 I**. 서울: 학지사.
- 고려대학교부설행동과학연구소 (2000). **심리척도 핸드북 II**. 서울: 학지사.
-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노동부 (2008.7.8). **한국형 마이스터고 올9월에 20개교 이내 선정**.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3.20).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건설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 업무보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12.14). **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일류국가 실현**.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7.12). **고졸 취업시대에 계약학과로 학업 계속**.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역량제고 사업 기본계획(안)**.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a). **2012 간추린교육통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b).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2013.5.15).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13년 졸업생 취업률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 (2013.7.26).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를 갖춘 학생의 직업교육기회 확대방안 발표.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2010.9.16). 2011년 예산,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 3대 핵심과제: 보육, 전문계고교생, 다문화가족 -. 보도자료.
- 김기현 (2005). 니트(NEET): 일본 청년무업자(若年無業者)의 특징과 실태. **국제노동브리프**, 3(5), 55-63.
- 김대연, 강경찬 (1995). 고교생의 진로성숙, 진로포부, 결정요인 탐색. **교육연구논집**, 12, 5-42.
- 김문주 (1988). *Prüfungsanst und andere Psychosozialer merkmale*. Duesseldorf.
- 김미란 (2005). 청소년 이행의 관점에서 본 직업교육정책의 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란 (2012). 청소년 이행(transition)과 ‘위기 청소년’ 담론에 대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1), 51-76.
- 김민찬 (2013). 시민입법-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 필요. **국회보** 2013년 2월호 (2013.02.08).
- 김성식 (2013). 고졸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방식: 교육사회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1차 콜로키움. 2013.3.28. (내부자료).
- 김성환, 전용석 (2005). 청소년 진로선택 결정요인: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35-246.
-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양수경, 이병식, 임후남, 최정윤 (2011).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V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연희, 신황용, 이희선 (2012). 사회적 배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3(3), 99-123.
- 김정명, 이광호, 노혁, 이혜정 (1989).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이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인 (1997). 부정적 정동과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와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준기, 김호정 (2008). 네스티드로짓모형(Nested Logit Model): 개인의 선택에 관한 형태 이해하기. 국토연구, 통권323호, 132-139.
- 김현주, 김준영 (2008).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수준과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5(3), 1-27.
- 김환식 (2012).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향한 중등직업교육정책. 교육정책포럼, 223, 14-17.
- 남재량 (2006). 청년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논문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 (2012). 고졸 NEET 대졸 NEET. 노동리뷰 4월호 (통권 제 85호), 39-54.
- 노공은 (1975). 비진학청소년과 진학청소년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대통령실 (2012.10.11). 신(新)고졸시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청와대 정책소식, vol.133.
- 문수영 (2011). 청년창업가의 창업기회원천 분석 및 기회탐색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참가자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승태, 김연희 (2002).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지, 34(2), 49-60.
- 문승태, 이상래 (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성, 계열,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계. 한국농업교육학회, 34(4), 83-95.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제9권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민인식, 최필선 (2012a).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주)지필미디어.
- 민인식, 최필선 (2012b). 고급패널데이터분석. 서울: (주)지필미디어.
- 박기현 (2013). 청년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현안보고서 제187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박동, 김안국, 황규희, 이종선, 이봉주 (2010). 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병영 (2012).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 개편 방향. 교육정책포럼, 223, 18-20.
- 박상현 (2012). 미진학 고졸 청년층을 위한 정책과제 :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고용이슈, 5(2), 6-27.
- 박상현, 조동진 (2011).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박진희 (2012).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황과 시사점. **고용이슈**, 5(2), 28-41.
- 방하남, 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지위 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서울특별시 (2013.4.24). 열린고용 확산을 위한 고졸자 고용촉진 강화. 보도자료.
-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2012). 비진학 청소년 영킨 실태에 대한 이야기.
- 2012 서울시 비진학 청소년 진로 모색 세미나 자료.**
- 서정화 (1986).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대책의 방향 모색. 서울: 홍익대 교육연구소.
- 송민경 (2009). 청소년기 진로성숙과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고교 계열선택 및 고졸 이후 진로선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0), 51-81.
- 신명호 (2004). 한국사회의 새로운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도시와 빈곤**, 3/4(67), 160-170.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신세호, 강무섭, 민무순, 송혜순 (1992). 고졸 비진학자의 진로실태 조사연구 (RR91-0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신희경, 김우영 (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직업능력개발연구**, 8(2), 47-83.
- 신희정 (2010). 여성 가구주의 빈곤화 구조에 관한 연구 :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선영, 장원섭 (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VII: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민홍 (2007). 니트의 결정요인 분석. **청년패널 심포지엄**.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오석영 (2012).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요인 분석: 서울지역 진로결정 집단별 비교. **직업교육연구**, 31(3), 135-151.
- 오영훈, 강일규, 윤형한, 유태균, 김진욱 (2010). **취약계층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사회통합 효과 분석(I 편)**.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현석, 배진현, 이상은, 정현진 (201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비교 연구. **직업교육연구**, 29(2), 245-265.
- 우석진 (2013). **경제분석을 위한 STATA**. 서울: (주)지필미디어.
- 윤성호 (2012). 한국형 사회배제성 척도 개발 연구. **사회보장연구**, 28(1), 53-95.

- 윤유경 (1996). 주관적 연력의 예측요인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희한, 신동준 (2012). 고졸 청년 취업 실태 분석. **THE HRD REVIEW**, 15(1), 36-63.
- 이경은 (2006).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요인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광호 (2000). 국가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청소년육성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2), 107-128.
- 이광호 (2012). 새로운 청소년육성제도 및 정책론. 서울: 창지사.
- 이명신 (1998).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그 영향 요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병석 (1992).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병훈, 윤정향 (2006). 사회계층 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70, 111-140.
- 이상희 (2012). 청년일자리찾기 전략 연구. 서울: 화산미디어.
- 이성균 (2009).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청년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논문집**. 569-581.
- 이성우, 민성희, 박지영, 윤성도 (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서울: 박영사.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은정 (2007).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고등교육직업교육으로의 진입 및 근로이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훈 (1993). 산업인력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의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평가. 서울: 한국생산성본부.
- 이종재, 강상조, 공은배 (1978). 비진학자의 사회·경제·심리적 특성 (RR-6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중섭, 이용교 (2009).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7), 1-27.
- 임윤옥 (2005).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차별과 배제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사회적 배제이론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천순, 정태화, 이광호 (1992). **고등학교 직업, 기술 교육 효율화 방안 연구** (RR92-3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성균관대 인적자원개발(HRD)센터 (2009). **청년 니트 해부, 청년 니트족 현황과 과제**.
- 전병유, 이상일 (2003).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고용실태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연구 2003-03).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전상진 (2012).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 (콜로키움자료집 12-S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1차 콜로키움. 2012.2.10.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정연순, 박가열, 오민홍, 이로미, 장지은, 김은영 (2008). **한국형 니트 취업지원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정인수, 남재량, 이승후 (2006).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정책자료 2006-05c).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 연구**, 38(4), 43-62.
- 조민수 (2009).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실증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혜영, 김지경, 전상진 (2012).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연구보고 12-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차재권 (1998).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창균 (2009).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직업과 인력개발**, 12(1), 55-74.
- 채창균, 오호영, 윤형한, 정재호, 신동준, 이인재 (2012). **주요 청년고용 정책 이슈 분석** (기본연구 2012-38).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종희 (1985). **한국 무직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준호 (2007). **한국 고졸 청년층의 사회자본과 직업성취: 개인적 연결망과 제도적 연결망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최태산, 홍경자 (1997).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심리적 변인분석. *교육심리연구*, 11(2), 291-322.

통계청 (2012.12.21).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2012.12.26). 2012년 3/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잠정결과(맞벌이가구, 경력단절여성, 사회보험가입현황 포함). 보도자료.

통계청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0).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연보 90010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준상 (1985). *교육사회학이론과 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2). *박근혜정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Barnes, M. (2005). *Social Exclusion in Great Britain: An Empirical Investigation and Comparison with the EU*. Farnham: Ashgate Press.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61-865.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Cohen, P. & P. Ainley (2000). In the Country of the Blind?: Youth Studies and Cultural Studies in Britain. *Journal of Youth Studies*, 3(1), 79-96.

Eurostat (2000). *European Social Statistics: Incom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Fend, Helmut (1994). The historical context of transition to work and youth unemployment in Petersen & Jeylan. T.(eds). *Youth Unemployment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nzeboom, H. B. G, Paul M. De Graaf & Donald J. Treiman (1992). A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Social Science Research*, 21, 1-56.

Hills, J. (1999). *Social exclusion in the UK: The state of current research*. Mimeo. Cited in Philipps S. & Curtis L.(2001). *The Social Exclusion of Children in North America*. Department of Economics and Community Health and Epidemiology, Dalhousie University.

- House, J. S., & Wells (1978). Occupatio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health in A. Mclean, G. Black, & M. Colligan(eds.) *Reducing Occupational Stress: Proceeding of a Conference*. DHEW(NIOSH) Publication. 78~140.
- Jones, G. (1997). *Youth homelessness and the 'underclass', Youth, and Social Exclusion*. Robert MacDonald ed. London: Routledge.
- Jordan, B. (1997). *A Theory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Cambridge: Polity Press.
- Lee, C. (1984). Predicting the career choice attitudes of rural black, white, and native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2(3), 177-184.
- MacDonald, R., Mason, P., Shildrick, T., Webster, C., Johnston, L., & Ridley, L. (2001). Snakes & Ladders: in defence of studies of youth transition.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5(4). <http://www.socresonline.org.uk/5/4/macdonald.html>.
- Merkens, H. (2002). Jugendforschung im Spannungsfeld von Bilnzen ueber das Normale in einer Generation und der Besonderheit einzelner Gruppen in H. Merkens & J. Zinnecker(eds). *Jahrbuch Jugendforschung* 2.
- Mortimer Jeylan T. (1994). Individual difference as precursors of youth unemployment in Petersen & Jeylan. T.(eds). *Youth Unemployment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vement Strategy Center (2012). *The Power of Transformative Youth Leadership: A Field Analysis of Youth Organizing Pittsburg*. <http://www.heinz.org/UserFiles/File/PghYouthLeadership.pdf>.
- National Youth Employment Coalition (2004). *Organizational Framework*. http://www.calweb.com/~hatter/tier_3_pages/YSPN/tier3_pages/docs/NationalYouthEmploymentCoalition--OrganizationalFramework.pdf.
- Ostrom, T. M. (1969).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ive, behavioral, and cognitive components of attitud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5, 12~30.
- Pittman, K. J. (1996). What is Youth Development?: Preventing Problems of Promoting Develop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arable Goals?.
- Ridge, T. (2002). *Childhood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from a child's perspective*. The Policy, Bristol.

- Room, G. (1995).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he new European agenda for policy and research. In G. Room (Ed.),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The Policy Press.
- Rosenberg, M. (1965). *Conceiving the self*. Malabar, FL: Krieger.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531~578.
- 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경향신문 (1998.6.10). 10, 20대 실업자 전체 42%.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61000329119003&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8-06-10&officeId=00032&pageNo=19&printNo=16455&publishType=00010>.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DB <http://laborstat.molab.go.kr/>.
-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설문지 및 원자료. <https://www.kli.re.kr/klips/ko/main/main.jsp>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설문지 및 데이터. http://survey-yeis.or.kr/survey_yeis/.
- 동아일보 (1995.3.4). 대학 못간 청소년대책.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30400209103005&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03-04&officeId=00020&pageNo=3&printNo=22787&publishType=00010>.
- 동아일보 (1997.5.27). 떳떳한 고졸 당당한 프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52700209117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5-27&officeId=00020&pageNo=17&printNo=23548&publishType=00010>.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13). 서울교육중단연구 설문지. <http://www.serii.re.kr/board/viw.do?method=boardview&mcode=S021&seq=23143>.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설문지. http://www.skku.edu/e-home-s/New_Page/aeas_board/aeas/New_kgss/main.jsp.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2011). 천안시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설문조사.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print?grpid=1Nk88&mgrpId=&fId=Epu9&dataid=3.

통계청 (2013a).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청년층 부가조사 조사표. <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4&inputYear=2013#iem201366>.

통계청 (2013b). 사회조사 조사표. <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18&inputYear=2013#iem201347>.

한겨레신문 (1998.6.10). 고졸이하 취업난 심각.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61000289126004&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8-06-10&officeId=00028&pageNo=26&printNo=3215&publishType=000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종단연구 원자료 및 설문지. <http://kels.kedi.re.kr/index.do>.

[참고법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부 록

1. 설문조사지

[유형1] 취업자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유형1]	ID	
---	-----------------------------	----	----------------------

안녕하십니까? (주)입소스코리아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만19세~만24세 후기 청소년의 생활 및 현안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후기 청소년 세대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해주신 세부 조사결과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주)입소스 코리아 담당연구원 정나리 과장 (T) 02-6464-5132 서울 김희정 연구원 (T) 02-6464-5438

※ 본 조사대상은 만19세~만24세, 1988년 1월 1일 ~ 1994년 12월 31일 출생자만 해당됩니다.

면접 기록표 (조사원 기입사항)				
응답자 성명			전화	
이메일		주소	____시(도) ____시군구 ____읍·면·동 _____	
조사 일시	2013년 ____월 ____일	조사원 성명		

판별 문1) 귀하의 연령은 만19세 - 만 24세에 해당하십니까?

- ① 예 → 판별 문2. ② 아니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판별 문2)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포함) 이십니까?

- ① 예 → 판별 문2-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판별 문2-1) 귀하의 고등학교 졸업년도(또는 학력인증 획득 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판별 문3)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십니까?

- ① 대학에 진학하여 현재 재학 중이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②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현재 휴학상태이고 복학할 계획이 있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③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현재 장기 휴학상태이며 복학할 계획이 없다. → 문1.로
④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중퇴하였다. → 문1.로
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 판별 문3-1.로

판별 문3-1) (판별 문3의 ⑤응답자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④ 딱히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②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③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경제활동 및 취업 상태 판별>

문1) 귀하는 지난 한 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① 예 → 문1-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2)로 가십시오.

문1-1) 다음의 항목에 대해 지난 한 주간 귀하의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응답해주시고,

해당하는 상태 중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항목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문 1-1) 해당여부		문 1-1-1) 주된 상태	해당 유형
	해당	비해당		
①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진학을 위한 공부시간보다 많았다.	1	0	1	→ 유형1 으로
②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취업을 위한 공부시간보다 많았다.	1	0	2	
③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일하는 시간이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간 보다 많았다.	1	0	3	
④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내 사업(일, 창업)을 준비하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내사업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많았다.	1	0	4	
⑤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할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며, 일하는 시간이 취업할 일자리 찾는 시간보다 많았다.	1	0	5	→ 유형2 으로
⑥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나, (일하는 시간보다는) 진학을 위한 공부시간이 더 많았다.	1	0	6	→ 유형3 으로
⑦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나, (일하는 시간보다는) 취업을 위한 공부시간이 더 많았다.	1	0	7	
⑧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으나, (일하는 시간보다는)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간이 더 많았다.	1	0	8	
⑨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내 사업(일, 창업)을 준비하였으며, (일하는 시간보다는) 내 사업을 위해 준비 또는 교육받는 시간이 더 많았다.	1	0	9	

문1-2) 다음의 항목에 대해 지난 한 주간 귀하의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응답해주시고,

해당하는 상태 중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항목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문 1-2) 해당여부		문 1-2-1) 주된 상태	해당 유형
	해당	비해당		
① 나는 지난 한 주간 가족이 하는 사업(일)을 도와 18시간 이상 일하였다.	1	0	1	→ 유형1 으로
② 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일시적인 병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상태였다.	1	0	2	
③ 나는 지난 한 주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못하였으며, 취업 할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1	0	3	→ 유형2 으로
④ 나는 지난 4주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못하였으며, 취업 할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1	0	4	
⑤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였다.	1	0	5	→ 유형3 으로
⑥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였다.	1	0	6	
⑦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다.	1	0	7	
⑧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내 사업을 찾기 위한 준비 또는 교육을 받았다.	1	0	8	
⑨ 나는 지난 한 주간 어떠한 것(일, 구직, 공부, 취업, 내 사업 준비 등)도 하지 않고 지냈다	1	0	9	→ 유형4 으로

1. 일반현황

문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문2-1)로 가십시오
 ② 여성 → 문3)로 가십시오

문2-1) (문2)의 ①응답자만) 귀하의 군복무를 완료하셨습니다가?

- ① 예 → 문2-2)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2-3)으로 가십시오

문2-2) (문2-1)의 ①응답자만) 군복무경험이 현재 사회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습니까?

문항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있는 편	보통	영향 있는 편	매우 영향 큼
1) 진로 및 목표설정	1	2	3	4	5
2) 직업선택 및 결정	1	2	3	4	5
3) 군필로 인한 취업 가능성	1	2	3	4	5
4) 사회관계 및 사회생활적응	1	2	3	4	5

문2-3) (문2-1)의 ②응답자만) 귀하는 언제부터 군복무를 할 예정이십니까?

- ① 1년 이내 ② 1년~2년 이내
 ③ 2년~3년 이내 ④ 3년 후
 ⑤ 아직 계획 없음 ⑥ 해당사항 없음

문3)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년

문4) 귀하와 부모님(보호자)의 현재주거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 보기1)과 보기2)를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4-1) 소재지(보기1)	4-2) 세부지역(보기2)
1) 본인		
2) 부모(보호자)		

구분	보기1) 소재지	보기2) 세부 지역
서울	① 서울	* 비해당
광역시	② 부산 ④ 인천 ⑥ 대전 ③ 대구 ⑤ 광주 ⑦ 울산 ⑧ 세종	
도지역	⑨ 경기 ⑫ 충남 ⑮ 경북 ⑩ 강원 ⑬ 전북 ⑯ 경남 ⑪ 충북 ⑭ 전남 ⑰ 제주	① 중소도시 ② 읍, 면지역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5)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 → 문6)으로 가십시오

- ② 결혼하여 배우자 있음
 ③ 결혼한 적은 있으나 이혼하여 배우자 없음 → 문5-1)로
 ④ 결혼한 적은 있으나 사별하여 배우자 없음 가십시오
 ⑤ 결혼하였으나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

문5-1) (문5)의 ②-⑤응답자만)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① 있다 (_____ 명) ② 없다

2. 출신교교 및 학교 생활

문6) 귀하의 출신교교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인문계고/종합고
 ②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③ 농생명산업고/해양수산고/공업고
 ④ 정보고/상업고/디자인고/관광고
 ⑤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체육고
 ⑥ 마이스터고
 ⑦ 대안학교
 ⑧ 검정고시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7) 귀하의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 보기1)과 보기2)를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7-1) 소재지(보기1)	7-2) 세부지역(보기2)
1) 출신 교교 소재지		

구분	보기1) 소재지	보기2) 세부 지역
서울	① 서울	* 비해당
광역시	② 부산 ④ 인천 ⑥ 대전 ③ 대구 ⑤ 광주 ⑦ 울산 ⑧ 세종	
도지역	⑨ 경기 ⑫ 충남 ⑮ 경북 ⑩ 강원 ⑬ 전북 ⑯ 경남 ⑪ 충북 ⑭ 전남 ⑰ 제주	① 중소도시 ② 읍, 면지역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8) 귀하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중학교 성적에 맞추어서 ② 경제적 여건 때문에
 ③ 원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④ 친한 친구가 선택하여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9) 귀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시절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피해 여부	
	있다	없다
1) 심한 놀림이나 조롱	1	2
2) 집단따돌림(왕따)	1	2
3) 심한 폭행	1	2
4) 심한 욕설	1	2
5) 협박	1	2
6) 돈이나 물건 뺏김	1	2
7) 성희롱이나 성폭행	1	2

문10) 귀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시절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10-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1)으로 가십시오

문10-1) (문10)의 ①응답자만) 학업을 중단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④ 고등학교 1학년
 ⑤ 고등학교 2학년
 ⑥ 고등학교 3학년

문10-2) (문10)의 ①응답자란) 학업을 중단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사유 중 가장 주된 사유 하나만 선택해주십시오.

- ① 장애, 사고, 질병으로
 ② 집안 경제사정, 부모/가정 불화, 주거불안정, 부모 간병, 가족 부양 등으로
 ③ 학습부진, 학업에 대한 동기나 의욕이 없어서
 ④ 학교 폭력(따돌림, 갈취, 협박, 폭행 등), 교우관계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으로
 ⑤ 학교 생활규칙(지각 및 결석에 대한 징책, 두발 및 복장 단속, 흡연 및 음주 금지 등)에 대한 부적응으로
 ⑥ 유학, 어학연수, 이민, 부모 해외 파견 동행 등으로
 ⑦ 조기진학, 종교, 방종활동 등으로
 ⑧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외 학칙위반에 따른 징계로
 ⑩ 전반적인 학교시스템과 문화가 싫어서
 ⑪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 나의 길을 찾고 싶어서
 ⑫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고교 재학 중 일자리 경험

문11)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1-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12)로 가십시오

문11-1) (문11)의 ①응답자란) 고등학교 재학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했던 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일의 종류: 업·직종분류 코드 ※<업·직종분류> 참조(p.17)

문11-2) (문11)의 ①응답자란)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때 당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아래 <보기>를 보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11-3) 가장 주된 대처 방법 보기									
①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했다	②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 참고 일했다	③ 고용주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 했다	④ 부모,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았다	⑦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⑧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항	11-2) 경험 여부		11-3) 가장 주된 대처방법									
	있다	없다	1	2	3	4	5	6	7	8	9	
1)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3)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	1	2	1	2	3	4	5	6	7	8	9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5)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6) 일을 그만두고 싶는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1	2	1	2	3	4	5	6	7	8	9	
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8)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9)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0)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1)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2)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틈새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	2	1	2	3	4	5	6	7	8	9	

문11-4) (문11)의 ①응답자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② 영향을 미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미친 편이다. 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문15-4) (문15-2)의 ①응답자만) 대학을 중퇴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항목 중 가장 주된 사유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등록금 부담
② 가족 부양 등 집안 경제적 사정 때문에
③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④ 전공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
⑤ 친구, 선후배 관계가 어려워
⑥ 대학생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⑦ 대학 진학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여도 취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⑧ 일을 하면서 대학생활하기가 힘들어서
⑨ 내 사업(창업)을 하기 위해서
⑩ 기타(구체적으로:)

문16) 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0점~10점 중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에 표기 해주세요.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17) 귀하는 고등학교 생활이 현재 귀하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②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좀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4. 고교 졸업 후 일자리 경험

문18)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18-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9)로 가십시오

문18-1) (문18의 ① 응답자만) 고등학교를 졸업 후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는 총 몇 개입니까? 개

문18-2) ~ 문18-14) (문18의 ① 응답자만) 고등학교를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중 가장 오래 일했던 일자리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항	응답															
문18-2) 업·직종	업·직종분류 코드 ※<업·직종분류> 참조 (p.17)															
문18-3) 근무기간	총 개월															
문18-4) 구직기간	일을 찾은 지 개월 만에 취업															
문18-5) 가장 주된 취업경로	①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②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③ 부모, 친척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④ 친구, 선후배 등을 통해서 ⑤ 신문, TV, 생활정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⑥ 공공 및 사설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고용센터, 취업센터, 직업소개서 등) ⑦ 인터넷을 통해서(워크넷, 잡코리아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 ⑧ 현장실습, 인턴십 등 ⑨ 기타(구체적으로:)															
문18-6)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해당사항 없음															
문18-7) 종사상지위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단독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문18-8) 근무 사업장 종사자수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99명 ⑥ 100명~299명 ⑦ 300명~499명 ⑧ 500명~999명 ⑨ 1,000명 이상 ⑩ 해당사항없음															
문18-9) 근로시간 형태	① 전일제 ② 시간제															
문18-10) 주당 근무시간	주당 시간															
문18-11) 소득(파세전)	월평균 만원															
문18-12) 4대 보험 가입유무	<table border="1"> <thead> <tr> <th>4대보험</th><th>가입</th><th>비가입</th></tr> </thead> <tbody> <tr> <td>국민연금</td><td>1</td><td>2</td></tr> <tr> <td>고용보험</td><td>1</td><td>2</td></tr> <tr> <td>건강보험</td><td>1</td><td>2</td></tr> <tr> <td>산재보험</td><td>1</td><td>2</td></tr> </tbody> </table>	4대보험	가입	비가입	국민연금	1	2	고용보험	1	2	건강보험	1	2	산재보험	1	2
4대보험	가입	비가입														
국민연금	1	2														
고용보험	1	2														
건강보험	1	2														
산재보험	1	2														
문18-13) 퇴직 사유	<table border="1"> <tbody> <tr> <td>① 본인의 의사로</td> <td>②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td> <td>→ 문18-13-1)로 가십시오</td> </tr> <tr> <td>③ 현재 근무중이다</td> <td></td> <td>→ 문18-13-2)로 가십시오</td> </tr> </tbody> </table>	① 본인의 의사로	②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 문18-13-1)로 가십시오	③ 현재 근무중이다		→ 문18-13-2)로 가십시오									
① 본인의 의사로	②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 문18-13-1)로 가십시오														
③ 현재 근무중이다		→ 문18-13-2)로 가십시오														
문18-13-1) (문18-13의 ①②응답자만) 퇴직금 수령여부	① 받았다 ② 못 받았다 → 응답 후 문 19로															
문18-13-2) (문18-13의 ③응답자만) 퇴직금 수령가능성	① 받는다 ② 못 받는다															

문19) 귀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까지 자기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9-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20)로 가십시오

문19-1) (문19)의 ① 응답자만 그 사업은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 ① 커피숍·식당 등 요식업 관련 분야
② 쇼핑몰, 도소매 등 유통업 관련 분야
③ IT관련 분야(앱, 소프트웨어개발 포함)
④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관련 분야
⑤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분야
⑥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
⑦ 미디어, 콘텐츠 관련 분야
⑧ 전기전자 관련 분야
⑨ 건설, 토목, 기계 관련 분야
⑩ 제조 관련 분야(악세서리, 각종 용품 개발 포함)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9-2) (문19)의 ① 응답자만 그 사업 운영 당시 **귀하를 제외하고, 귀하가 임금을 주는 종업원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총 _____ 명

문19-3) (문19)의 ① 응답자만 그 사업 운영 당시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월평균 _____ 만원

문19-4) (문19)의 ① 응답자만 그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현재 운영하고 있다 → 문20)로 가십시오
② 그만 두었다 → 문19-4-1)로 가십시오

문19-4-1) (문19-4)의 ② 응답자만 그 사업은 왜 그만두었습니까?

- ① 전망이 없어서
②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③ 수입이 적어서
④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⑤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⑥ 사업관련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있어서
⑦ 기술 또는 기능수준이 맞지 않아서
⑧ 안정적이지 않아서
⑨ 근무시간이 불만족스러워서
⑩ 일이 너무 힘들어서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생활시간

문20) 귀하가 보통 **평일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래 항목에 따라 기입해 주십시오.

생활 항목	활애 시간
1) 수면	시간 분
2) 출퇴근 시간	시간 분
3) 근무 시간	시간 분
4) 학원수강/교육훈련/ 개인공부	시간 분
5) 여가	시간 분
6) 그 외(구체적으로: _____)	시간 분
총 합계	24시간

6. 현재 일자리 경험

* 귀하의 **현재 일자리**에 대해서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21) 귀하는 **현재 문18-2) ~ 문18-14)에서 응답한 고등학교를 졸업 후 가장 오래 일했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까?
① 예 → 문21-13)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21-1)로 가십시오

문21-1) ~ 문21-12) (문21)의 ② 응답자만 귀하의 **현재 일자리**에 대해서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응답
문21-1) 업·직종	업·직종분류 코드 ※<업·직종분류> 참조 (p.17)
문21-2) 근무기간	일을 시작한 지 개월
문21-3) 구직기간	일을 찾은 지 개월 만에 취업
문21-4) 가장 주된 취업경로	①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②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③ 부모, 친척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④ 친구, 선후배 등을 통해서 ⑤ 신문, TV, 생활정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⑥ 공공 및 사설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고용센터, 취업센터, 직업소개서 등) ⑦ 인터넷을 통해서(워크넷, 잡코리아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 ⑧ 현장실습, 인턴십 등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1-5)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해당사항 없음
문21-6) 종사상지위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단독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문항	응답															
문21-7) 근무 사업장 종사자수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99명 ⑥ 100명~299명 ⑦ 300명~499명 ⑧ 500명~999명 ⑨ 1,000명 이상 ⑩ 해당사항 없음															
문21-8) 근로시간 형태	① 전일제 ② 시간제															
문21-9) 주당 근무시간	주당 시간															
문21-10) 소득(과세전)	월평균 만원															
문21-11) 4대 보험 가입유무	<table border="1"> <thead> <tr> <th>4대보험</th><th>가입</th><th>비가입</th></tr> </thead> <tbody> <tr> <td>국민연금</td><td>1</td><td>2</td></tr> <tr> <td>고용보험</td><td>1</td><td>2</td></tr> <tr> <td>건강보험</td><td>1</td><td>2</td></tr> <tr> <td>산재보험</td><td>1</td><td>2</td></tr> </tbody> </table>	4대보험	가입	비가입	국민연금	1	2	고용보험	1	2	건강보험	1	2	산재보험	1	2
4대보험	가입	비가입														
국민연금	1	2														
고용보험	1	2														
건강보험	1	2														
산재보험	1	2														
문21-12) 퇴직금 수령가능성	① 받는다 ② 못 받는다															

문21-13)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귀하의 능력 및 교육수준을 고려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 능력과 교육 수준에 비해) 현재 일의 수준이 매우 낮다.
② (내 능력과 교육 수준에 비해) 현재 일의 수준이 낮다.
③ (내 능력과 교육 수준에 비해) 현재 일의 수준이 알맞다.
④ (내 능력과 교육 수준에 비해) 현재 일의 수준이 높다.
⑤ (내 능력과 교육 수준에 비해) 현재 일의 수준이 매우 높다.

문21-14)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현재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문21-14-1)로 이동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문21-15)으로 이동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문21-14-1) (문21-14)의 ① ② 응답자만)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배운 내용이 현재 트렌드와 맞지 않아서
② 배운 내용이 너무 이론적이어서
③ 배운 내용이 업무에서 필요한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④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⑤ 현재 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잘 기억나지 않아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1-15) 현재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고등학교 수업내용
② 자격증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내용
③ 고등학교 재학 중의 아르바이트
④ 고등학교 재학 중의 현장 실습
⑤ 취업 후 회사에서 시행한 직무교육(OJT)
⑥ 산학협력 프로그램
⑦ 방과 후 학습활동
⑧ 창업교육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1-16) 현재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① 작성하였다.	→ 문21-16-1)로 가십시오
② 작성할 때도, 안 할때도 있었다	
③ 작성하지 않았다	→ 문22)으로 가십시오

문21-16-1) (문21-16의 ①과 ② 응답자만)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 또는 사본을 지급받으셨습니까?

① 지급받았다.
② 지급받지 못했다.

문22) 현재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아래 <보기>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2-1) 가장 주된 대처 방법 보기	
①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했다	②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 참고 일했다
③ 고용주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 했다	④ 부모,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았다
⑦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⑧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항	22) 경험 여부		22-1) 가장 주된 대처방법									
	있다	없다	1	2	3	4	5	6	7	8	9	
1)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3)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사적인 부탁이나 심부름 포함).	1	2	1	2	3	4	5	6	7	8	9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5)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6)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1	2	1	2	3	4	5	6	7	8	9	
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8)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9)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0)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1)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2) 직장동료들이 뒷새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	2	1	2	3	4	5	6	7	8	9	

문23) 현재 일자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아래 항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급여	1	2	3	4	5
2) 고용 안정성	1	2	3	4	5
3) 복리후생	1	2	3	4	5
4) 근무 내용	1	2	3	4	5
5) 근무시간 및 업무량	1	2	3	4	5
6) 근무환경	1	2	3	4	5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1	2	3	4	5
8) 개인의 발전 가능성	1	2	3	4	5
9) 전반적인 만족도	1	2	3	4	5

문24) 아래 각 문항을 보고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알고 있었다	몰랐다
1) 아르바이트 직원도 정규 직원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	1	2
2) 정부에서 정한 2013년도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1	2
3) 1주일간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일 개근 시, 주1회 무급 주 휴일을 사용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1	2
4) 전체 직원 수가 5명 이상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 시, 시간당 5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	2

7. 거주환경

문25)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고 계십니까?

① 예 → 문28)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26)로 가십시오

문26) (문25)의 ②응답자만) 그럼 아래 항목 중 귀하의 주거 형태를 선택해 주시고, 그에 따른 총 주거 비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총 주거 비용은 거주 공간이 요구하는 모든 비용으로, 월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이 포함되며,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본인과 동거인이 함께 지불하는 비용을 합해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귀하의 가장 주된 주거비 조달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26) 주거 형태	문26-1) 총 주거비용	문26-2) 가장 주된 주거비 조달방법
① 월세 자취	※ 총비용(한 달 기준) ⇨ 보증금: 만원 ※ 응답표 1 (p.18) 월세 포함 모든 비용: 만원	① 부모님 지원 ② 본인의 근로 ③ 은행 대출 ④ 현금서비스 이용 ⑤ 친척에 빌림 ⇨ ⑥ 친구에게 빌림 ⑦ 사금융 또는 대부업체 대출 ⑧ 장학금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27)로 가십시오
② 기숙사(회사 등)		
③ 하숙		
④ 고시원		
⑤ 전세 자취	※ 총 비용(한 달 기준) ⇨ 보 증 금 : 억 만 원 ※ 응답표 1 (p.18) 보증금 외 모든 비용: 만원	
⑥ 친인척 등 아는 사람 (선배, 친구) 집	⇨ 지불 비용(한 달 기준) : 만원	
⑦ 자가(본인, 부모님 명의)		
⑧ 정해진 거주 없음	→ 문27)로 가십시오.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7) (문25)의 ②응답자만) 귀하는 거주하는 공간에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이 있습니까? 기숙사 거주자의 경우는 방(호실)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 문27-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28)으로 가십시오

문27-1) (문27)의 ①응답자만) 그럼,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은 총 몇 명입니까?

총 명

문27-2) (문27)의 ①응답자만)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 ,

① 형제/자매

④ 이성 친구

② 친/인척

⑤ 배우자

③ 동성 친구(선후배 포함)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28) 귀하는 현재의 주거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주거형태, 비용, 동거인, 조달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한 주거생활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8. 생활비 지출 현황

문29) 최근 3개월 귀하의 월별 생활비 지출 현황을 아래의 각 소비항목별로 지출 여부 및 지출 빈도, 월평균 지출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본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소비 항목	문29) 지출 여부	문29-1) 월평균 지출 금액 ※문29)의 ① 응답자만
1) 식비(집에서의 주식비와 부식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2) 외식비(집 밖에서의 식사비와 간식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3) 주류(술) 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4) 담배 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5) 대중 교통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6) 주거비(월세, 전기수도 요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7) 보건의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8) 교양오락비(영화공연 관람, 당구 등 스포츠 활동비, PC방, 노래방 등)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9)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0) 학원비 및 교재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1) 피복비(옷, 신발 등 구입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2) 현금 및 각종 기부금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3) 이·미용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4) 기타 잡비(구체적으로: _____)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문29-2) 귀하의 월평균 총 소비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29)의 1)~14) 소비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총 소비지출 금액 □□□□ 만원

※ 응답표 2 □□□ (p.18)

문30) 귀하의 월 소비지출 금액을 주로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아래 보기 항목을 참조하여,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두 가지만 해당 번호와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항목	금액
1순위		□□□ 만원
2순위		□□□ 만원

보기) 월 소비지출 금액 조달방법

- | | |
|-------------------|--------------------|
| ① 부모님 지원 | ⑥ 친척에게 빌림 |
| ② 본인의 근로(아르바이트 등) | ⑦ 친구나 지인에게 빌림 |
| ③ 저축해 두었던 돈 사용 | ⑧ 사금융 또는 대부업체 대출 |
| ④ 은행 대출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⑤ 현금서비스 이용 | |

문31) 귀하의 생활비가 부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줄이는 소비 항목은 무엇입니까? 문 29의 1)~14) 소비 항목 중 가장 우선적으로 줄이는 순서대로 두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문32) 귀하의 현재 부채(빚)가 있습니까? 부채가 있다면 갚아야 할 총 잔액은 얼마입니까? 대출기관별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부채 항목	문32) 부채 유무	문32-1) 갚아야 할 총 잔액 (※문32) ① 응답자만)
합 계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1)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2) 신용카드 대금 연체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3) 사금융 및 대부업체 대출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4) 국가 대출 (장학재단 등)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5) 가족/친인척/친구/지인에게 빌린돈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 문32) 1)~6) 항목이 모두 '없음'인 경우 문33)으로 가십시오.

문32-2) (문32)의 ① 응답자만) 그럼, 귀하가 부채를 지게 된 가장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 교육비 마련 ② 내 교육비 이외 취업준비금 마련
③ 내 거주비용 마련 ④ 내 생활비 마련
⑤ 내 유흥비 마련
⑥ 가족(나 이외의) 생활비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33) 귀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33-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34)로 가십시오

문33-1) (문33)의 ①응답자만) 귀하는 저축한 돈을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할 순서대로 두가지만 응답해주시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① 진학 시 필요한 등록금 마련 ⑦ 단약을 대비한 자금 준비
② 생활비(용돈) 충당 ⑧ 내 사업 자금 마련
③ 원하는 상품/서비스 구매 ⑨ 여행/어학연수 경비 충당
④ 취업 준비 ⑩ 별다른 목적 없음
⑤ 결혼 준비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⑥ 주거지 마련

문33-2) (문33)의 ①응답자만) 귀하는 저축액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 만원 ※ 응답표 2 □□□ (p.18)

9. 소득 현황

문34) 귀하는 지난 한달 동안 소득이 있었습니까? 소득이 있었다면 정기적인 소득입니까?

지난 한달 간 소득액을 소득원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소득원	문34) 소득 유무	문34-1) 소득의 정기성	문34-2) 월평균 소득액
		※문34) ①응답자만	
합 계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 만원
1) 근로 소득 (일을 해서 번 돈)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 만원
2) 부모 이전 소득 (부모님에게 받은 돈)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 만원
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 만원

☞ 문34) 1)~3) 항목의 소득을 모두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문35)으로 가십시오.

10. 여가 활동

문35) 현재 귀하는 가장 주된 여가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순으로 3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선택한 여가의 일주일 평균 해당 여가활동 시간, 1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본인 지출 비용만)을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을 경우 '0'원으로 기입해주시십시오).

※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35) 주된 여가활동	문35-1) 주평균 여가활동 시간	문35-2) 1회 평균 소요비용(본인 지출비용)
1순위 □□□	□□□□ 시간	□□□□ 만 □□□□ 천원
2순위 □□□	□□□□ 시간	□□□□ 만 □□□□ 천원
3순위 □□□	□□□□ 시간	□□□□ 만 □□□□ 천원

<보기 : 여가활동 유형>

A. 문화예술 관람활동	B. 문화예술 참여활동	C. 스포츠 관람활동	D. 스포츠 참여활동
(1) 전시회/박물관 관람, 음악 연주회, 예술공연, 연극, 무용, 연예공연 관람 (2) 영화보기	(3) 문학, 서예, 문예, 미술활동,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 무용/춤 배우기 참여 (4) 사진촬영	(5) 스포츠경기관람	(6) 스포츠경기/운동(구기운동, 생활체육 운동 등) 참여
E. 관광활동	F. 취미 오락활동	G. 휴식활동	H. 사회 및 기타활동
(7) 국내여행 (문화 유적, 자연풍경 관람, 삼림욕, 국내 캠핑) (8) 해외여행 (9) 테마파크/놀이공원 식물원, 동물원가기	(10) 요리/생활공예/애완동물 돌보기 (11) 노래방가기 (12) 인터넷(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13)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및 SNS (14) 쇼핑/외식 (15) 음주 (16) 독서/만화책보기 (17) 미용(파부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형 등)	(18) 목욕/사우나/찜질방 (19) 낮잠 (20) TV시청/라디오 청취/음악감상 (21) 산책	(22) 사회봉사활동 (23) 종교활동 (24) 클럽/나이트 (25) 동호회 모임/활동 (2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1. 향후 계획 및 진로성숙도

문36) 앞으로 1년 후 귀하의 가장 주된 계획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일함	→ 문 37)로 가시오
② 다른 일자리로 이직하여 일함	
③ 대학 진학	
④ 내 사업을 시작	→ 문 36-1)로 가시오
⑤ 결혼	
⑥ 군입대	→ 문 37)로 가시오
⑦ 해외연수/유학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⑨ 별다른 계획 없음	

문36-1) (문36)의 ④ 응답자만) 개인 사업을 시작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분야와 업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커피숍·식당 등 요식업 관련 분야
 ② 쇼핑물, 도소매 등 유통업 관련 분야
 ③ IT관련 분야(앱, 소프트웨어개발 포함)
 ④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관련 분야
 ⑤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분야
 ⑥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
 ⑦ 미디어, 콘텐츠 관련 분야
 ⑧ 전기전자 관련 분야
 ⑨ 건설, 토목, 기계 관련 분야
 ⑩ 제조 관련 분야(악세서리, 각종 용품 개발 포함)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37) 1년 후의 계획은 아니지만, 미래의 자신의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7-1)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38)로 가십시오

문37-1) (문37)의 ① 응답자만) 미래의 귀하의 가장 주된 계획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일함	→ 문 38)로 가시오
② 다른 일자리로 이직하여 일함	
③ 대학 진학	
④ 내 사업을 시작	→ 문 37-2)로 가시오
⑤ 결혼	
⑥ 군입대	→ 문 38)로 가시오
⑦ 해외연수/유학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⑨ 별다른 계획 없음	

문37-2) (문37-1)의 ④ 응답자만) 개인 사업을 시작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분야와 업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커피숍·식당 등 요식업 관련 분야
 ② 쇼핑물, 도소매 등 유통업 관련 분야
 ③ IT관련 분야(앱, 소프트웨어개발 포함)
 ④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관련 분야
 ⑤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분야
 ⑥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
 ⑦ 미디어, 콘텐츠 관련 분야
 ⑧ 전기전자 관련 분야
 ⑨ 건설, 토목, 기계 관련 분야
 ⑩ 제조 관련 분야(악세서리, 각종 용품 개발 포함)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38) 다음은 귀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태도,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있는 글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내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나의 진로(직업)를 스스로 결정 한다	1	2	3	4	5
6) 나는 내 직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최고전문가가 되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내 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1	2	3	4	5
8) 나는 희망하는 직업을 갖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이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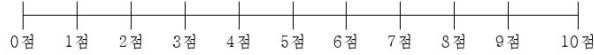
12. 사회·정서적 특성

문39)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래에 있는 글들을 잘 읽고 평소에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2)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3) 가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4)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5) 나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6) 내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	1	2	3	4	5
7) 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8) 내 자신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1	2	3	4	5
9) 전반적으로 나는 실패적인 것 같다	1	2	3	4	5
10) 가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1)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문40) 귀하는 자신의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13. 사회생활 적응

문41) 다음은 **사회생활 및 직무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면 '예'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에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1)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요구받으면서 존중받지는 못한다.	1	0
2)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트집을 잡는다.	1	0
3) 직장동료들이 나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1	0
4)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고마워하지 않는다.	1	0
5) 직장 내에 갈등이 있으며, 사람들이 싸우고, 말다툼을 한다.	1	0
6) 직장 일을 하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1	0
7) 직장 일이 나 스스로를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한다.	1	0
8) 직장에서 배울 것이 있고 자신을 개발시킬 수 있다.	1	0
9) 일을 통해 발전할 기회를 갖는다.	1	0
10) 때때로 일을 하면 재밌고 즐겁다.	1	0
11) 일을 하면 만족과 자부심을 느낀다.	1	0
12)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한다고 느낀다.	1	0

14. 미래관

문42) 다음의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문항은 '예'에 그렇지 않은 문항은 '아니오'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1	0
2)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1	0
3)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1	0
4) 정래에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0
5)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 보통사람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0
6) 나에게 있어서 과거의 경험이 정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고 있다.	1	0
7) 나는 미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	0
8) 나는 미래에 대해 큰 신념을 가지고 있다.	1	0
9) 나는 미래에 나쁜 일 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한다.	1	0

15. 부모 및 가족 특성

문43) 귀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 ☐ ① 두 분 모두 계심
☐ ② 아버지만 계심
☐ ③ 어머니만 계심
☐ ④ 두 분 모두 안 계심

→ 문44)로 가십시오

→ 문53)로 가십시오

문44) (문43)의 ①, ②, ③ 응답자만)

귀하의 부모님은 **올해 만으로 몇 세** 이십니까?

- ☐ 아버지 만 세 ☐ 어머니 만 세

문45) 귀하는 부모님의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문46) 귀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되거나 수료는 바로 아래 학력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기입 예: 고등학교 중퇴 → '중학교 졸업'으로 응답)

☐ 아버지 ☐ 어머니

- ☐ ① 초등학교 졸업 ☐ ④ 전문대학 졸업
☐ ② 중학교 졸업 ☐ ⑤ 대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⑥ 대학원 재학 이상

문47) 귀하 부모님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 중 어떠한 형태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47) 경제활동 여부	문47-1) 종사상 지위	문47-2) 직업 ※<부모 표준 직업분류표> 참조 (p.17)
아버지	① 예 ② 아니오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⑤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⑥ 무급가족종사자	① 관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⑧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⑨ 단순 노동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⑩ 군인
어머니	① 예 ② 아니오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⑤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⑥ 무급가족종사자	① 관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⑧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⑨ 단순 노동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⑩ 군인

문48) 지난 한 달 귀하 부모님의 총소득은 얼마 입니까?

※ 지난 한 달(2013년 6월) 동안 부모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만원 ※ 응답표 3 (p.18)

문49)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귀하가 속한 가정의 소득은 평균보다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균보다 훨씬 높다 ② 평균보다 약간 높다 ③ 평균수준이다
④ 평균보다 약간 낮다 ⑤ 평균보다 훨씬 낮다

16. 가족관계

문50) 부모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어느 정도 관여하십니까?

문항	거의 관여 하지 않음	관여하지 않는 편	보통	관여하는 편	매우 관여함
1) 거주형태(부모와 동거 여부 및 주거 형태 등) 선택	1	2	3	4	5
2) 사생활(이성교제, 친구관계 등)	1	2	3	4	5
3) 진로(진학 및 취업) 선택	1	2	3	4	5
4) 직업(직장/일)선택	1	2	3	4	5
5) 수입 및 지출 등 금전 관리	1	2	3	4	5

문51) 귀하가 현재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십니까?

- ①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 일체 ② 진학취업·창업 등 비용만 ③ 용돈만
④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음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52) 귀하의 부모님은 현재 귀하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원하십니까?

- ①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 일체 ② 진학취업·창업 등 준비 비용만 ③ 용돈만
④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음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53) 귀하의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남 녀

문54)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우리 형제자매는 우애가 좋은 편이다. (※외동아들·딸의 경우 ①해당사항 없음에 표기)	1	2	3	4	5	0
2) 우리집 식구들은 자주 모여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때가 많다.	1	2	3	4	5	
3) 우리집 식구보다는 친구들이 훨씬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준다.	1	2	3	4	5	
4)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다.	1	2	3	4	5	
5) 우리 가족은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	1	2	3	4	5	

17. 사회적지지

문55) 다음 각 문항을 보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님	아님	보통	많이	매우 많이	비해 당
1)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귀하는 다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지할 수 있습니까?						
가) 회사 상사/동료	1	2	3	4	5	9
나) 부모님(보호자)	1	2	3	4	5	9
다) 형제·자매	1	2	3	4	5	9
라) 친구/선후배	1	2	3	4	5	9
마)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1	2	3	4	5	9
2) 다음 사람들은 귀하의 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경청해 줍니까?						
가) 회사 상사/동료	1	2	3	4	5	9
나) 부모님(보호자)	1	2	3	4	5	9
다) 형제·자매	1	2	3	4	5	9
라) 친구/선후배	1	2	3	4	5	9
마)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1	2	3	4	5	9
3) 귀하는 다음의 사람들과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가) 회사 상사/동료	1	2	3	4	5	9
나) 부모님(보호자)	1	2	3	4	5	9
다) 형제·자매	1	2	3	4	5	9
라) 친구/선후배	1	2	3	4	5	9
마)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1	2	3	4	5	9

18. 사회 보호 대상

문56) 귀하 또는 귀하가 속한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57) 귀하는 만19세 이전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9. 기타

문5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응답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후기 청소년 세대의 보다 구체적인 생활실태와 사회적 관심,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불만 이유 등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심층 인터뷰는 7월 중 실시되며, 응답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귀하는 심층인터뷰에 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심층인터뷰에 응할 의향이 있으신 분께는 본 조사기관(입소스코리아)에서 7월에 연락드리겠으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 귀한 시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기 : 업·직종 분류응답표 - 문11-1) 고등학교 재학 중 일자리의 종류, 문18-2) 고교 졸업 후 최장기간 근무 일자리의 종류, 문21-1) 현재 일자리의 종류>

1. 매장관리	2. 서빙주방	3. 서비스	4. 생산·기능
(11) 편의점 (12) 대형마트/쇼핑몰/아울렛/백화점 (13) PC방/DVD방/노래방/만화방 (14) 당구장/오락실/게임장 (15) 의류잡화/가전·휴대폰/ 화장품 뷰티 /사무·문구용품/가구·침구소품 매장 (16) 청과축산수산물수산판매장 (17) 찜질방사우나 (18) 독서실/고시원 (19) 도서DVD대여점 (20) 기타 매장	(21) 음식점/ 레스토랑 (22) 패밀리레스토랑 (23) 뷔페연회장 (24) 커피전문점 (25) 패스트푸드 (26) 베이커리/아이스크림 (27) 일반주점·호프 (28) 카페 (29) 푸드코트/급식 (30) 조리주방보조	(31) 영화공연·전시 (32) 테마파크·레포츠 (33) 숙박·호텔·리조트 (34) 안내데스크·매표 (35) 나레이터 모델/ 피팅 모델 (36) 보조출연자/사건·촬영보조 (37) 보안경호·경비 (38) 여행가이드 (39) 헤어·피부·미용 (40) 기타 서비스	(41) 공사현장 (42) 전단배포 (43) 주유·세차 (44) 청소·미화 (45) 배달/ 운전 (46) 운반이사/픽서비스 택배 (47) 제조가공/ 포장조립 (48) 전기공사·설치/ 기계정비·수리 (49) 물류·창고관리 (50) 기타 생산·기능
5. 사무·회계	6. IT·디자인	7. 상담·영업	8. 강사·교육
(51) 사무보조 (52) 자료입력·문서작성 (53) 경리·회계총무 (54) 비서·전화응대 (55) 번역·통역 (56) 편집·교정·교열 (57) 복사·출력·제본 (58) 실험·연구보조 (59) 공공기관 (60) 기타 사무	(61) 사이트운영·관리 (62) 쇼핑몰·오픈 마켓 (63) 프로그래머 (64) 컴퓨터 A/S (65) 웹디자인 (66) 그래픽·일러스트 (67) 편집·산업디자인 (68) CAD/CAM (69) 기타 IT·디자인	(71) 고객상담 (72) 전화주문·접수 (73) 아웃바운드 TM (74) 설문조사·리서치 (75) 영업·마케팅 (76) 기타 상담·영업	(81) 입사·보습학원 (82) 외국어·어학원 (83) 방문·학습지 (84) 개인지도·과외 (85) 컴퓨터·IT (86) 자격증·기술 (87) 예체능·레포츠 (88) 유아·유치원 (89) 기타 강사·교육
9. 기타			
(90) 유흥업소 및 유흥업소/성인오락실 호객행위			
(91)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분야			

<보기: 부모 표준직업분류 - 문 47-2) 부모님의 직업>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2) 이미지·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1) 영업직 (52) 매장 판매직 (53)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61) 농축산 숙련직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71)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72)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73) 목재·가구·가구 및 건물관련 기능직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76)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78)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8) 상하수도 및 재 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10. 군인		
(101) 군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 ::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 17

< 응답표 1: 문26-1) 전세, 월세 보증금 >

응답 구분		
① 300만원 미만	⑦ 1,500-1,700만원 미만	⑬ 6,000-7,000만원 미만
② 300-500만원 미만	⑧ 1,700-2,000만원 미만	⑭ 7,000-8,000만원 미만
③ 500-700만원 미만	⑨ 2,000-3,000만원 미만	⑮ 8,000-9,000만원 미만
④ 700-1,000만원 미만	⑩ 3,000-4,000만원 미만	⑯ 9,000만원-1억원 미만
⑤ 1,000-1,200만원 미만	⑪ 4,000-5,000만원 미만	⑰ 1억원 이상
⑥ 1,200-1,500만원 미만	⑫ 5,000-6,000만원 미만	

< 응답표 2: 문29-2) 월평균 소비 지출비, 문33-2) 월평균 저축액 >

응답 구분		
① 10만원 미만	⑥ 50-70만원 미만	⑪ 170-200만원 미만
② 10-20만원 미만	⑦ 70-100만원 미만	⑫ 200-220만원 미만
③ 20-30만원 미만	⑧ 100-120만원 미만	⑬ 220-250만원 미만
④ 30-40만원 미만	⑨ 120-150만원 미만	⑭ 250만원 이상
⑤ 40-50만원 미만	⑩ 150-170만원 미만	

< 응답표 3: 문48) 부모의 월소득 >

응답 구분		
① 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⑪ 500-5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⑦ 300-350만원 미만	⑫ 550-6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⑧ 350-400만원 미만	⑬ 600-700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⑨ 400-450만원 미만	⑭ 700-8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⑩ 450-500만원 미만	⑮ 800만원 이상

[유형2] 구직자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유형2]	ID	
---	--------------------------------------	----	---

안녕하십니까? (주)입소스코리아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만19세~만24세 후기 청소년의 생활 및 현안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후기 청소년 세대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해주신 세부 조사결과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주)입소스 코리아 담당연구원 정나리 과장 (T) 02-6464-5132 서울 김희정 연구원 (T) 02-6464-5438

※ 본 조사대상은 만19세~만24세, 1988년 1월 1일 ~ 1994년 12월 31일 출생자만 해당됩니다.

면접 기록표 (조사원 기입사항)					
응답자 성명				전화	
이메일		주소	____시(도) ____시군구 _____읍·면·동 _____		
조사 일시	2013년	월	일	조사원 성명	

판별 문1) 귀하의 연령은 만19세 - 만 24세에 해당합니까?
 ① 예 → 판별 문2. ② 아니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판별 문2)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포함) 이십니까?
 ① 예 → 판별 문2-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판별 문2-1) 귀하의 고등학교 졸업년도(또는 학력인증 획득 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판별 문3)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셨습니다?
 ① 대학에 진학하여 현재 재학 중이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②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현재 휴학상태이고 복학할 계획이 있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③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현재 장기 휴학상태이며 복학할 계획이 없다. → 문1.로
 ④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중퇴하였다. → 문1.로
 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 판별 문3-1.로

판별 문3-1) (판별 문3의 ⑤응답자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④ 딱히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②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③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경제활동 및 취업 상태 판별>

문1) 귀하는 지난 한 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① 예 → 문1-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2)로 가십시오.

문1-1) 다음의 항목에 대해 지난 한 주간 귀하의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응답해주시고,

해당하는 상태 중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항목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문 1-1) 해당여부		문 1-1-1) 주된 상태	해당 유형
	해당	비해당		
①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진학을 위한 공부시간보다 많았다.	1	0	1	→ 유형1 으로
②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취업을 위한 공부시간보다 많았다.	1	0	2	
③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일하는 시간이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간 보다 많았다.	1	0	3	
④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내 사업(일, 창업)을 준비하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내사업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많았다.	1	0	4	
⑤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할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며, 일하는 시간이 취업할 일자리 찾는 시간보다 많았다.	1	0	5	→ 유형2 으로
⑥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나, (일하는 시간보다는) 진학을 위한 공부시간이 더 많았다.	1	0	6	→ 유형3 으로
⑦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나, (일하는 시간보다는) 취업을 위한 공부시간이 더 많았다.	1	0	7	
⑧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으나, (일하는 시간보다는)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간이 더 많았다.	1	0	8	
⑨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내 사업(일, 창업)을 준비하였으며, (일하는 시간보다는) 내 사업을 위해 준비 또는 교육받는 시간이 더 많았다.	1	0	9	

문1-2) 다음의 항목에 대해 지난 한 주간 귀하의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응답해주시고,

해당하는 상태 중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항목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문 1-2) 해당여부		문 1-2-1) 주된 상태	해당 유형
	해당	비해당		
① 나는 지난 한 주간 가족이 하는 사업(일)을 도와 18시간 이상 일하였다.	1	0	1	→ 유형1 으로
② 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일시적인 병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상태였다.	1	0	2	
③ 나는 지난 한 주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못하였으며, 취업 할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1	0	3	→ 유형2 으로
④ 나는 지난 4주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못하였으며, 취업 할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1	0	4	
⑤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였다.	1	0	5	→ 유형3 으로
⑥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였다.	1	0	6	
⑦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다.	1	0	7	
⑧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내 사업을 찾기 위한 준비 또는 교육을 받았다.	1	0	8	
⑨ 나는 지난 한 주간 어떠한 것(일, 구직, 공부, 취업, 내 사업 준비 등)도 하지 않고 지냈다	1	0	9	→ 유형4 으로

1. 일반현황

문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문2-1)로 가십시오
 ② 여성 → 문3)로 가십시오

문2-1) (문2)의 ①응답자만 귀하의 군복무를 완료하셨습니까?

- ① 예 → 문2-2)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2-3)으로 가십시오

문2-2) (문2-1)의 ①응답자만 군복무경험이 현재 사회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습니까?

문항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있는 편	보통	영향 있는 편	대우 영향 큼
1) 진로 및 목표설정	1	2	3	4	5
2) 직업선택 및 결정	1	2	3	4	5
3) 군필로 인한 취업 가능성	1	2	3	4	5
4) 사회관계 및 사회생활적응	1	2	3	4	5

문2-3) (문2-1)의 ②응답자만 귀하는 언제부터 군복무를 할 예정이십니까?

- ① 1년 이내 ② 1년~2년 이내
 ③ 2년~3년 이내 ④ 3년 후
 ⑤ 아직 계획 없음 ⑥ 해당사항 없음

문3) 귀하의 출생년도 언제입니까?

 년

문4) 귀하와 부모님(보호자)의 현재주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 보기1)과 보기2)를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4-1) 소재지(보기1)	4-2) 세부지역(보기2)
1) 본인		
2) 부모(보호자)		

구분	보기1) 소재지	보기2) 세부 지역
서울	① 서울	* 비해당
광역시	② 부산 ④ 인천 ⑥ 대전 ③ 대구 ⑤ 광주 ⑦ 울산 ⑧ 세종	
도지역	⑨ 경기 ⑫ 충남 ⑮ 경북 ⑩ 강원 ⑬ 전북 ⑯ 경남 ⑪ 충북 ⑭ 전남 ⑰ 제주	① 중소도시 ② 읍, 면지역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5)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 문6)으로 가십시오
② 결혼하여 배우자 있음	→ 문5-1)로 가십시오
③ 결혼한 적은 있으나 이혼하여 배우자 없음	
④ 결혼한 적은 있으나 사별하여 배우자 없음	
⑤ 결혼하였으나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	

문5-1) (문5)의 ②~⑤응답자만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① 있다 (_____ 명) ② 없다

2. 출신교 및 학교 생활

문6) 귀하의 출신교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인문계고/종합고
 ②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③ 농생명산업고/해양수산고/공업고
 ④ 정보고/상업고/디자인고/관광고
 ⑤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체육고
 ⑥ 마이스터고
 ⑦ 대안학교
 ⑧ 검정고시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7) 귀하의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 보기1)과 보기2)를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7-1) 소재지(보기1)	7-2) 세부지역(보기2)
1) 출신 교고 소재지		
구분	보기1) 소재지	보기2) 세부 지역
서울	① 서울	* 비해당
광역시	② 부산 ④ 인천 ⑥ 대전 ③ 대구 ⑤ 광주 ⑦ 울산 ⑧ 세종	
도지역	⑨ 경기 ⑫ 충남 ⑮ 경북 ⑩ 강원 ⑬ 전북 ⑯ 경남 ⑪ 충북 ⑭ 전남 ⑰ 제주	① 중소도시 ② 읍, 면지역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8) 귀하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중학교 성적이 맞추어서 ② 경제적 여건 때문에
 ③ 원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④ 친한 친구가 선택하여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9) 귀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시절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피해 여부	
	있다	없다
1) 심한 놀림이나 조롱	1	2
2) 집단따돌림(왕따)	1	2
3) 심한 폭행	1	2
4) 심한 욕설	1	2
5) 협박	1	2
6) 돈이나 물건 뺏김	1	2
7) 성희롱이나 성폭행	1	2

문10) 귀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시절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10-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1)으로 가십시오

문10-1) (문10)의 ①응답자만 학업을 중단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④ 고등학교 1학년
 ⑤ 고등학교 2학년
 ⑥ 고등학교 3학년

문10-2) (문10)의 ①응답자란) 학업을 중단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사유 중 가장 주된 사유 하나만 선택해주십시오.

- ① 장애, 사고, 질병으로
 ② 집안 경제사정, 부모/가정 불화, 주거불안정, 부모 간병, 가족 부양 등으로
 ③ 학습부진, 학업에 대한 동기나 의욕이 없어서
 ④ 학교 폭력(따돌림, 갈취, 협박, 폭행 등), 교우관계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으로
 ⑤ 학교 생활규칙(지각 및 결석에 대한 징책, 두발 및 복장 단속, 흡연 및 음주 금지 등)에 대한 부적응으로
 ⑥ 유학, 어학연수, 이민, 부모 해외 파견 동행 등으로
 ⑦ 조기진학, 종교, 방종활동 등으로
 ⑧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외 학칙위반에 따른 징계로
 ⑩ 전반적인 학교시스템과 문화가 싫어서
 ⑪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 나의 길을 찾고 싶어서
 ⑫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고교 재학 중 일자리 경험

문11)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1-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12)로 가십시오

문11-1) (문11)의 ①응답자란) 고등학교 재학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했던 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일의 종류: 업·직종분류 코드 ※<업·직종분류> 참조(p.16)

문11-2) (문11)의 ①응답자란)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때 당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아래 <보기>를 보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11-3) 가장 주된 대처 방법 보기									
①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했다	②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 참고 일했다	③ 고용주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 했다	④ 부모,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았다	⑦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⑧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항	11-2) 경험 여부		11-3) 가장 주된 대처방법									
	있다	없다	1	2	3	4	5	6	7	8	9	
1)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3)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	1	2	1	2	3	4	5	6	7	8	9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5)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6) 일을 그만두고 싶는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1	2	1	2	3	4	5	6	7	8	9	
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8)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9)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0)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1)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2)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	2	1	2	3	4	5	6	7	8	9	

문11-4) (문11)의 ①응답자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② 영향을 미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미친 편이다. 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문12)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2-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13)로 가십시오

문12-1) (문12)의 ①응답자만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때 당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아래 <보기>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시오.

12-2) 가장 주된 대처 방법 보기	
①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했다	②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 참고 일했다
③ 고용주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 했다	④ 부모,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았다
⑦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⑧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항	12-1) 경험 여부		12-2) 가장 주된 대처방법									
	있다	없다										
1)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3)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	1	2	1	2	3	4	5	6	7	8	9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5)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6) 일을 그만두고 싶는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1	2	1	2	3	4	5	6	7	8	9	
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8)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9)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0)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1)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2)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	2	1	2	3	4	5	6	7	8	9	

문12-3) (문12)의 ①응답자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현장실습 경험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② 영향을 미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미친 편이다.

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문13)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졸업 후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문14)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상담 및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문14-1)로 가십시오

② 없었다 → 문15)로 가십시오

문14-1) (문14)의 ①응답자만 **주로 귀하의 진로를 상담하고 지원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래 항목 중 진로 상담과 진로 지원에 도움을 준 사람을 다음 중 우선순위로 두 사람만 선택해주시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① 담임선생님

② 진로상담선생님

③ 부모(또는 보호자)

④ 형제·자매

⑤ 친구나 선배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5)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15-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6)로 가십시오

문15-1) (문15)의 ①응답자만 **대학진학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본인 스스로

② 부모(또는 보호자)

③ 학교선생님

④ 학원선생님

⑤ 형제·자매

⑥ 친구 및 선후배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5-2) (문15)의 ①응답자만 **대학 진학 후 중퇴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15-3)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6)로 가십시오

문15-3) (문15-2)의 ①응답자만 **대학 중퇴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학년 1학기

④ 2학년 2학기

⑦ 4학년 1학기

② 1학년 2학기

⑤ 3학년 1학기

⑧ 4학년 2학기

③ 2학년 1학기

⑥ 3학년 2학기

문15-4) (문15-2)의 ①응답자단) 대학을 중퇴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항목 중 가장 주된 사유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등록금 부담 ② 가족 부양 등 집안 경제적 사정 때문에 ③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④ 전공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 ⑤ 친구, 선후배 관계가 어려워져서 ⑥ 대학생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⑦ 대학 진학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여도 취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⑧ 일을 하면서 대학생활하기가 힘들어서 ⑨ 내 사업(창업)을 하기 위해서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6) 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0점~10점 중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에 표기 해주세요.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17) 귀하는 고등학교 생활이 현재 귀하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②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좀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

4. 고교 졸업 후 일자리 경험

문18)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문18-1)로 가십시오 ② 아니요 → 문19)로 가십시오

문18-1) (문18의 ① 응답자단) **고등학교를 졸업 후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는 총 몇 개**입니까? □□
 개

문18-2) ~ 문18-14) (문18의 ① 응답자단) **고등학교를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중 가장 오래 일했던 일자리**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항	응답															
문18-2) 업·직종	업·직종분류 코드 □□ □□ ※<업·직종분류> 참조 (p.16)															
문18-3) 근무기간	총 □□ 개월															
문18-4) 구직기간	일을 찾은 지 □□ 개월 만에 취업															
문18-5) 가장 주된 취업경로	①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②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③ 부모, 친척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④ 친구, 선후배 등을 통해서 ⑤ 신문, TV, 생활정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⑥ 공공 및 사설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고용센터, 취업센터, 직업소개서 등) ⑦ 인터넷을 통해서(워크넷, 잡코리아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 ⑧ 현장실습, 인턴십 등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8-6)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해당사항 없음															
문18-7) 종사상지위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단독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문18-8) 근무 사업장 종사자수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99명 ⑥ 100명~299명 ⑦ 300명~499명 ⑧ 500명~999명															
문18-9) 근로시간 형태	① 전일제 ② 시간제															
문18-10) 주당 근무시간	주당 □□ □□ □□ 시간															
문18-11) 소득(과세전)	월평균 □□ □□ □□ 만원															
문18-12) 4대 보험 가입유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4대보험</th> <th>가입</th> <th>비가입</th> </tr> </thead> <tbody> <tr> <td>국민연금</td> <td>1</td> <td>2</td> </tr> <tr> <td>고용보험</td> <td>1</td> <td>2</td> </tr> <tr> <td>건강보험</td> <td>1</td> <td>2</td> </tr> <tr> <td>산재보험</td> <td>1</td> <td>2</td> </tr> </tbody> </table>	4대보험	가입	비가입	국민연금	1	2	고용보험	1	2	건강보험	1	2	산재보험	1	2
4대보험	가입	비가입														
국민연금	1	2														
고용보험	1	2														
건강보험	1	2														
산재보험	1	2														
문18-13) 퇴직 사유	① 본인의 의사로 ②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18-14) 퇴직금 수령여부	① 받았다 ② 못 받았다															

문23) 현재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아래 <보기>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3-1) 가장 주된 대처 방법 보기	
①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했다	②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 참고 일했다
③ 고용주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 했다	④ 부모,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았다
⑦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⑧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항	23) 경험 여부		23-1) 가장 주된 대처방법									
	있다	없다	1	2	3	4	5	6	7	8	9	
1)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3)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사적인 부탁이나 심부름 포함).	1	2	1	2	3	4	5	6	7	8	9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5)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6) 일을 그만두고 싶는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1	2	1	2	3	4	5	6	7	8	9	
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8)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9)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0)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1)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2) 직장동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	2	1	2	3	4	5	6	7	8	9	

문24) 아래 각 문항을 보고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알고 있었다	몰랐다
1) 아르바이트 직원도 정규 직원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	1	2
2) 정부에서 정한 2013년도 최저임금은 4,860 원이다(*2011년 4,320 원, 2012년 4,580 원)	1	2
3) 1주일간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일 개근 시, 주1회 무급 주 휴일을 사용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1	2
4) 전체 직원 수가 5명 이상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시간당 5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	2

7. 구직 경험

문25) 귀하가 구직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구직활동 시작한 지 개월

문26) 귀하는 현 구직기간 동안 몇 개의 업체에 이력서를 지원했습니까?

구직기간 동안 개 업체 지원

문27) 귀하가 구직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주된 방법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① 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선생님을 통해서
 ② 부모, 친척, 친구, 선후배 등 아는사람을 통해서
 ③ 신문, TV, 생활정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④ 공공 및 사설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
 (고용센터, 취업센터, 직업소개사 등)
 ⑤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워크넷, 잡코리아 등)
 ⑥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현장실습, 인턴십 포함)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8) 귀하의 구직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① 취업정보의 부족
 ②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일이 내게 맞는지 잘 모르는 것
 ③ 경력 부족 또는 낮은 연령
 ④ 요구수준과 맞지 않은 학력, 기능, 자격
 ⑤ 자신감이 부족
 ⑥ 내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보수(급여)
 ⑦ 내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근무환경(근무시간 등)
 ⑧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⑨ 구직기간 동안 가족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부담감
 ⑩ 구직기간 동안 가족 이외 주변사람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부담감
 ⑪ 구직기간 동안 생활비 또는 용돈
 ⑫ 구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원서비, 교통비, 증명사진비 등)
 ⑬ 외모
 ⑭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9) 귀하가 취업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졸 학력 때문에
 ② 군미필이기 때문에
 ③ 실무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④ 업무 지식 및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⑤ 원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⑥ 외모 때문에
 ⑦ 일자리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30) 귀하가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은 무엇입니까? ※<업·직종분류> 참조 (p.16) 업종코드 , 직종코드 문30-1) 귀하가 문30)에서 응답한 업종과 직종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②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③ 복리후생의 혜택이 많기 때문에 ④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⑤ 내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31) 귀하는 현재의 구직활동을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개월 문32) 귀하는 현재 자신의 취업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① 매우 어렵다 ② 다소 어렵다 ③ 다소 쉽다 ④ 매우 쉽다	
8. 거주 환경		
문33)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고 계십니까? ① 예 → 문36)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34)로 가십시오		
문34) (문33)의 ②응답자만) 그럼 아래 항목 중 귀하의 주거 형태를 선택해 주시고, 그에 따른 총 주거 비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총 주거 비용은 거주 공간이 요구하는 모든 비용으로, 월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이 포함되며,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본인과 동거인이 함께 지불하는 비용을 합해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귀하의 가장 주된 주거비 조달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34 주거 형태 ① 월세 자취 ② 기숙사(회사 등) ③ 하숙 ④ 고시원 ⑤ 전세 자취 ⑥ 친인척 등 아는 사람 (선배, 친구) 집 ⑦ 자가(본인, 부모님 명의) ⑧ 정해진 거처 없음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34-1) 총 주거비용 ※ 총비용(한 달 기준) 보증금: 만원 ⇒ ※ 응답표 1 (P.17) 월세 포함 모든 비용: 만원 ※ 총 비용(한 달 기준) 보 증 금 : 억 만 원 ⇒ ※ 응답표 1 (P.17) 보증금 외 모든 비용: 만원 ⇒ 지불 비용(한 달 기준): 만원 → 문35)으로 가십시오	문34-2) 가장 주된 주거비 조달방법 ① 부모님 지원 ② 본인의 근로 ③ 은행 대출 ④ 현금서비스 이용 ⑤ 친척에 빌림 ⑥ 친구에게 빌림 ⑦ 사금융 또는 대부업체 대출 ⑧ 장학금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35)으로 가십시오
문35) 귀하는 거주하는 공간에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이 있습니까? 기숙사 거주자의 경우는 방(호실)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 문35-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36)으로 가십시오		
문35-1) (문35)의 ①응답자만) 그럼,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은 총 몇 명입니까? 총 명 문35-2) (문35)의 ①응답자만)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형제/자매 ④ 이성 친구 ② 친/인척 ⑤ 배우자 ③ 동성 친구(선후배 포함)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36) 귀하는 현재의 주거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거주형태, 비용, 동거인, 조달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한 주거생활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9. 생활비 지출 현황

문37) 최근 3개월 귀하의 월별 생활비 지출 현황을 아래의 각 소비항목별로 지출 여부 및 지출 빈도, 월평균 지출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본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소비 항목	문37) 지출 여부	문37-1) 월평균 지출 금액
		※문37)의 ① 응답자만
1) 식비(집에서의 주식비와 부식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2) 외식비(집 밖에서의 식사비와 간식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3) 주류(술) 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4) 담배 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5) 대중 교통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6) 주거비(월세, 전기수도 요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7) 보건의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8) 교양오락비(영화공연 관람, 당구 등 스포츠 활동비, PC방, 노래방 등)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9)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0) 학원비 및 교재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1) 피복비(옷, 신발 등 구입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2) 현금 및 각종 기부금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3) 이·미용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4) 기타 잡비(구체적으로: _____)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문37-2) 귀하의 월평균 총 소비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38)의 1)~14) 소비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총 소비지출 금액 □□□□ 만원

※ 응답표 2 □□□ (p.17)

문38) 귀하의 월 소비지출 금액을 주로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아래 보기 항목을 참조하여,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두 가지만 해당 번호와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항목	금액
1순위		□□□ 만원
2순위		□□□ 만원

보기) 월 소비지출 금액 조달방법

- | | |
|-------------------|--------------------|
| ① 부모님 지원 | ⑥ 친척에게 빌림 |
| ② 본인의 근로(아르바이트 등) | ⑦ 친구나 지인에게 빌림 |
| ③ 저축해 두었던 돈 사용 | ⑧ 사금융 또는 대부업체 대출 |
| ④ 은행 대출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⑤ 현금서비스 이용 | |

문39) 귀하의 생활비가 부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줄이는 소비항목은 무엇입니까? 문 37의 1)~14) 소비 항목 중 가장 우선적으로 줄이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1순위 소비지출 항목 번호 _____
- 2순위 소비지출 항목 번호 _____

문40) 귀하의 현재 부채(빚)가 있습니까? 부채가 있다면 갚아야 할 총 잔액은 얼마입니까? 대출기관별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부채 항목	문40) 부채 유무	문40-1) 갚아야 할 총 잔액
		(※문40) ① 응답자만
합 계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1)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2) 신용카드 대금 연체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3) 사금융 및 대부업체 대출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4) 국가 대출 (정확재단 등)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5) 가족/친인척/친구/지인에게 빌린 돈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 문40) 1)~6) 항목이 모두 '없음'인 경우 문41)로 가십시오.

문40-2) (문40)의 ① 응답자만) 그럼, 귀하가 부채를 지게 된 가장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 교육비 마련 ② 내 교육비 이외 취업준비금 마련
- ③ 내 거주비용 마련 ④ 내 생활비 마련
- ⑤ 내 유흥비 마련
- ⑥ 가족(나 이외의) 생활비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해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41) 귀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 문41-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42)로 가십시오

문41-1) (문41)의 ①응답자만) 귀하가 저축한 돈을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① 진학 시 필요한 등록금 마련

⑦ 단약을 대비한 자금 준비

② 생활비(용돈) 충당

⑧ 내 사업 자금 마련

③ 원하는 상품/서비스 구매

⑨ 여행/어학연수 경비 충당

④ 취업 준비

⑩ 별다른 목적 없음

⑤ 결혼 준비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⑥ 주거지 마련

문41-2) 귀하의 저축액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만원

※ 응답표 2 (P.17)

10. 소득현황

문42) 귀하는 지난 한달 동안 소득이 있었습니까? 소득이 있었다면 정기적인 소득입니까?

지난 한달 간 소득액을 소득원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소득원	문42) 소득 유무	문42-1) 소득의 정기성	문42-2) 월평균 소득액
※문42) ①응답자만			
합 계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1) 근로 소득 (일을 해서 번 돈)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2) 부모 이전 소득 (부모님에게 받은 돈)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 문42) 1)~3) 항목의 소득을 모두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문43)으로 가십시오.

11. 여가 활동

문43)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여가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순으로 3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선택한 여가의 일주일 평균 해당 여가활동 시간, 1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본인 지출비용만)을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을 경우 '0'원으로 기입해주십시오).

※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43) 주된 여가활동	문43-1) 주당 평균 해당 여가활동 시간	문43-2) 1회 평균 소요비용(본인 지출비용)
1순위	시간	만 천원
2순위	시간	만 천원
3순위	시간	만 천원

<보기 : 여가활동 유형>

A. 문화예술 관람활동	B. 문화예술 참여활동	C. 스포츠 관람활동	D. 스포츠 참여활동
(1) 전시회/박물관 관람, 음악 연주회, 예술공연, 연극, 무용, 연예공연 관람 (2) 영화보기	(3) 문학, 서예, 문예, 미술활동,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 무용/춤 배우기 참여 (4) 사진촬영	(5) 스포츠경기관람	(6) 스포츠경기/운동 (구기운동, 생활체육 운동 등) 참여
E. 관광활동	F. 취미 오락활동	G. 휴식활동	H. 사회 및 기타활동
(7) 국내여행 (문화 유적, 자연풍경 관람, 삼림욕, 국내 캠핑) (8) 해외여행 (9) 테마파크/놀이공원 식물원, 동물원가기	(10) 요리/생활공예/애완동물 돌보기 (11) 노래방가기 (12) 인터넷(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13)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및 SNS (14) 쇼핑/외식 (15) 음주 (16) 독서/만화책보기 (17) 미용(피부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형 등)	(18) 목욕/사우나/ 찜질방 (19) 낮잠 (20) TV시청/라디오 청취 /음악감상 (21) 산책	(22) 사회봉사활동 (23) 종교활동 (24) 클럽/나이트 (25) 동호회 모임/활동 (2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2. 향후 계획 및 진로성숙도

문44) 앞으로 1년 후 귀하의 가장 주된 계획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취업 ② 대학 진학	→ 문 45)로 가십시오
③ 내 사업을 시작	→ 문 44-1)로 가십시오
④ 결혼 ⑤ 군입대 ⑥ 해외연수/유학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⑧ 별다른 계획 없음	→ 문 45)로 가십시오

문44-1) (문44)의 ③ 응답자만 개인 사업을 시작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분야와 업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커피숍, 식당 등 요식업 관련 분야
- ② 쇼핑물, 도소매 등 유통업 관련 분야
- ③ IT관련 분야(앱, 소프트웨어개발 포함)
- ④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관련 분야
- ⑤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분야
- ⑥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
- ⑦ 미디어, 콘텐츠 관련 분야
- ⑧ 전기전자 관련 분야
- ⑨ 건설, 토목, 기계 관련 분야
- ⑩ 제조 관련 분야(악세서리, 각종 용품 개발 포함)
-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45) 1년 후의 계획은 아니지만, 미래의 자신의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45-1)으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문46)로 가십시오

문45-1) (문45)의 ① 응답자만 미래의 귀하의 가장 주된 계획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취업 ② 대학 진학	→ 문 46)로 가십시오
③ 내 사업을 시작	→ 문 45-2)로 가십시오
④ 결혼 ⑤ 군입대 ⑥ 해외연수/유학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⑧ 별다른 계획 없음	→ 문 46)로 가십시오

문45-2) (문45-1)의 ③ 응답자만 개인 사업을 시작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분야와 업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커피숍, 식당 등 요식업 관련 분야
- ② 쇼핑물, 도소매 등 유통업 관련 분야
- ③ IT관련 분야(앱, 소프트웨어개발 포함)
- ④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관련 분야
- ⑤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분야
- ⑥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
- ⑦ 미디어, 콘텐츠 관련 분야
- ⑧ 전기전자 관련 분야
- ⑨ 건설, 토목, 기계 관련 분야
- ⑩ 제조 관련 분야(악세서리, 각종 용품 개발 포함)
-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46) 다음은 귀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태도,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있는 글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내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나의 진로(직업)를 스스로 결정 한다	1	2	3	4	5
6) 나는 내 직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최고전문가가 되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내 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1	2	3	4	5
8) 나는 희망하는 직업을 갖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이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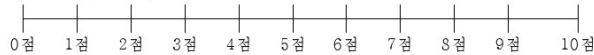
13. 사회·정서적 특성

문47)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래에 있는 글들을 잘 읽고 평소에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2)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3) 가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4)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5) 나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6) 내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	1	2	3	4	5
7) 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8) 내 자신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1	2	3	4	5
9) 전반적으로 나는 실패적인 것 같다.	1	2	3	4	5
10) 가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1)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문48) 귀하는 자신의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14. 미래관

문49) 다음의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문항은 '예'에 그렇지 않은 문항은 '아니오'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1	0
2)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1	0
3)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1	0
4) 장래에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0
5)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 보통사람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0
6) 나에게 있어서 과거의 경험이 장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고 있다.	1	0
7) 나는 미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0
8) 나는 미래에 대해 큰 신념을 가지고 있다.	1	0
9) 나는 미래에 나쁜 일 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한다.	1	0

15. 부모 및 가족 특성

문50) 귀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 ☐ ① 두 분 모두 계심
☐ ② 아버지만 계심
☐ ③ 어머니만 계심
☐ ④ 두 분 모두 안 계심

→ 문51)로 가십시오

→ 문60)로 가십시오

문51) (문50)의 ①, ②, ③ 응답자만)

귀하의 부모님은 올해 만으로 몇 세 이십니까?

■ 아버지 만 세 ■ 어머니 만 세

문52) 귀하는 부모님의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문53) 귀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나 수료는 바로 아래 학력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기입 예: 고등학교 중퇴 → '중학교 졸업'으로 응답)

■ 아버지 ■ 어머니

- ① 초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학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⑥ 대학원 재학 이상

문 54) 귀하 부모님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 중 어떠한 형태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54) 경제활동 여부	문54-1) 종사상 지위	문54-2) 직업(※표준직업 구분표표 보기 참조(p.16))
아버지	① 예 ② 아니요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⑤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⑥ 무급가족종사자
어머니	① 예 ② 아니요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④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⑤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⑥ 무급가족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제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군인

문55) 지난 한 달 귀하 부모님의 총소득은 얼마 입니까?

※ 지난 한 달(2013년 6월) 동안 부모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월명군 만원 ※ 응답표 3 (P.17)

문56)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귀하가 속한 가정의 소득은 평균보다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균보다 훨씬 높다 ② 평균보다 약간 높다 ③ 평균수준이다
④ 평균보다 약간 낮다 ⑤ 평균보다 훨씬 낮다

16. 가족관계

문57) 부모님께서서는 다음 사항에 어느 정도 관여하십니까?

분항	거의 하지 않음	완전히 하지 않음	보통	완전히 함	무척 함
1) 거주형태(부모와 동거 여부 및 주거 형태 등) 선택	1	2	3	4	5
2) 사생활(이성교제, 친구관계 등)	1	2	3	4	5
3) 진로(진학 및 취업) 선택	1	2	3	4	5
4) 직업(직장/일)선택	1	2	3	4	5
5) 수입 및 지출 등 금전 관리	1	2	3	4	5

문58) 귀하가 현재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십니까?

- ①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 일체 ② 진학취업·창업 등 비용만 ③ 용돈만
④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음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59) 귀하의 부모님은 현재 귀하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원하십니까?

- ①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 일체 ② 진학·취업·창업 등 준비 비용만 ③ 용돈만
④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음 ⑤ 기타(구체적으로:)

문60) 귀하의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남 ☐ 여

문61)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도 않다 아닌지도 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우리 형제자매는 우애가 좋은 편이다. (※외동아들딸의 경우 ①태당사항 없음에 표기)	1	2	3	4	5	0
2) 우리집 식구들은 자주 모여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때가 많다.	1	2	3	4	5	
3) 우리집 식구보다는 친구들이 훨씬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준다.	1	2	3	4	5	
4)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다.	1	2	3	4	5	
5) 우리 가족은 서로 대화를 잘 통한다.	1	2	3	4	5	

17. 사회 적지지

문62) 다음 각 문항을 보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님	아님	보통	많이	매우 많이	비해 당
1)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귀하는 다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지할 수 있습니까?						
가) 회사 상사/동료	1	2	3	4	5	9
나) 부모님(보호자)	1	2	3	4	5	9
다) 형제·자매	1	2	3	4	5	9
라) 친구/선후배	1	2	3	4	5	9
마)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1	2	3	4	5	9
2) 다음 사람들은 귀하의 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경청해 주니까?						
가) 회사 상사/동료	1	2	3	4	5	9
나) 부모님(보호자)	1	2	3	4	5	9
다) 형제·자매	1	2	3	4	5	9
라) 친구/선후배	1	2	3	4	5	9
마)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1	2	3	4	5	9
3) 귀하는 다음의 사람들과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가) 회사 상사/동료	1	2	3	4	5	9
나) 부모님(보호자)	1	2	3	4	5	9
다) 형제·자매	1	2	3	4	5	9
라) 친구/선후배	1	2	3	4	5	9
마)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1	2	3	4	5	9

18. 사회 보호대상

문63) 귀하 또는 귀하가 속한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이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64) 귀하는 만19세 이전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9. 기타

문6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응답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후기 청소년 세대의 보다 구체적인 생활실태와 사회적 관심,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불만 이유 등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심층 인터뷰는 7월 중 실시되며, 응답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귀하는 심층인터뷰에 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심층인터뷰에 응할 의향이 있으신 분께는 본 조사기관(입소스코리아)에서 7월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보기 : 업·직종 분류응답표 - 문11-1) 고등학교 재학 중 일자리의 종류, 문18-2) 고교 졸업 후 최장기간 근무 일자리, 문21-1 현재 일자리 종류, 문31) 희망 업종 및 직종>

1. 매장관리	2. 서빙주방	3. 서비스	4. 생산·기능
(11) 편의점 (12) 대형마트/소형몰/아울렛/백화점 (13) PC방/DVD방/노래방/안화방 (14) 당구장/오락실/게임장 (15) 의류·잡화/가전·휴대폰/ 화장품 뷰티 /사무용품/가구·침구소품 매장 (16) 청과축산수산물농산판매장 (17) 찜질방사우나 (18) 독서실/고시원 (19) 도서DVD대여점 (20) 기타 매장	(21) 음식점/ 레스토랑 (22) 패밀리 레스토랑 (23) 뷔페연회장 (24) 커피전문점 (25) 패스트푸드 (26) 베이커리/아이스크림 (27) 일반주점·호프 (28) 카페 (29) 푸드코트/급식 (30) 조리주방보조	(31) 영화공연전시 (32) 테마파크·레포츠 (33) 숙박·호텔·리조트 (34) 안내데스크·매표 (35) 나레이터 모델/ 피팅 모델 (36) 보조출연자/사간촬영보조 (37) 보안경호·경비 (38) 여행가이드 (39) 헤어·피부미용 (40) 기타 서비스	(41) 공사현장 (42) 전단배포 (43) 주유·세차 (44) 청소미화 (45) 배달/ 운전 (46) 운반이사/퀵서비스 택배 (47) 제조가공/ 포장조립 (48) 전기공사설치/ 기계정비수리 (49) 물류창고관리 (50) 기타 생산기능
5. 사무·회계	6. IT·디자인	7. 상담·영업	8. 강사·교육
(51) 사무보조 (52) 자료입력·문서작성 (53) 경리회계총무 (54) 비서·전화응대 (55) 번역·통역 (56) 편집교정교열 (57) 복사출력·제본 (58) 실험연구보조 (59) 공공기관 (60) 기타 사무	(61) 사이트운영·관리 (62) 쇼핑몰·오픈마켓 (63) 프로그래머 (64) 컴퓨터 A/S (65) 웹디자인 (66) 그래픽·일러스트 (67) 편집·산업디자인 (68) CAD/CAM (69) 기타 IT·디자인	(71) 고객상담 (72) 전화주문·접수 (73) 아웃바운드 TM (74) 설문조사리서치 (75) 영업·마케팅 (76) 기타 상담영업	(81) 입사·보습학원 (82) 외국어·어학원 (83) 방문·학습지 (84) 개인지도·과외 (85) 컴퓨터·IT (86) 자격증·기술 (87) 예체능·레포츠 (88) 유아·유치원 (89) 기타 강사·교육
9. 기타			
(90) 유흥업소 및 유흥업소/성인오락실 호객행위			
(91)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분야			

<보기: 부모 표준직업분류- 문 54-2) 부모님의 직업>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9) 상담·인사·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1) 영업직 (52) 매장 판매직 (53)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61) 농축산 숙련직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2)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76)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78)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10. 군인		
(101) 군인		

< 응답표 1: 문34-1) 전세, 월세 보증금 >

응답 구분		
① 300만원 미만	⑦ 1,500-1,700만원 미만	⑬ 6,000-7,000만원 미만
② 300-500만원 미만	⑧ 1,700-2,000만원 미만	⑭ 7,000-8,000만원 미만
③ 500-700만원 미만	⑨ 2,000-3,000만원 미만	⑮ 8,000-9,000만원 미만
④ 700-1,000만원 미만	⑩ 3,000-4,000만원 미만	⑯ 9,000만원-1억원 미만
⑤ 1,000-1,200만원 미만	⑪ 4,000-5,000만원 미만	⑰ 1억원 이상
⑥ 1,200-1,500만원 미만	⑫ 5,000-6,000만원 미만	

< 응답표 2: 문37-2) 월평균 소비 지출비, 문41-2) 월평균 저축액 >

응답 구분		
① 10만원 미만	⑥ 50-70만원 미만	⑪ 170-200만원 미만
② 10-20만원 미만	⑦ 70-100만원 미만	⑫ 200-220만원 미만
③ 20-30만원 미만	⑧ 100-120만원 미만	⑬ 220-250만원 미만
④ 30-40만원 미만	⑨ 120-150만원 미만	⑭ 250만원 이상
⑤ 40-50만원 미만	⑩ 150-170만원 미만	

< 응답표 3: 문55) 부모의 월소득 >

응답 구분		
① 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⑪ 500-5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⑦ 300-350만원 미만	⑫ 550-6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⑧ 350-400만원 미만	⑬ 600-700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⑨ 400-450만원 미만	⑭ 700-8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⑩ 450-500만원 미만	⑮ 800만원 이상

[유형3] 준비자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유형3]	ID	
---	-----------------------------	----	----------------------

안녕하십니까? (주)입소스코리아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만19세~만24세 후기 청소년의 생활 및 현안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후기 청소년 세대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해주신 세부 조사결과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주)입소스 코리아 담당연구원 정나리 과장 (T) 02-6464-5132 서울 김희정 연구원 (T) 02-6464-5438

※ 본 조사대상은 만19세~만24세, 1988년 1월 1일 ~ 1994년 12월 31일 출생자만 해당됩니다.

면접 기록표 (조사원 기입사항)			
응답자 성명			전화
이메일	주소	____시(도) ____시군구 ____읍·면·동	
조사 일시	2013년 ____월 ____일	조사원 성명	

판별 문1) 귀하의 연령은 만19세 - 만 24세에 해당합니까?

- ① 예 → 판별 문2. ② 아니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판별 문2)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포함) 이십니까?

- ① 예 → 판별 문2-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판별 문2-1) 귀하의 고등학교 졸업년도(또는 학력인증 획득 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판별 문3)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셨습니다?

- ① 대학에 진학하여 현재 재학 중이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②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현재 휴학상태이고 복학할 계획이 있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③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현재 장기 휴학상태이며 복학할 계획이 없다. → 문1.로
④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중퇴하였다. → 문1.로
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 판별 문3-1.로

판별 문3-1) (판별 문3의 ⑤응답자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④ 딱히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②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③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경제활동 및 취업 상태 판별>

문1) 귀하는 지난 한 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① 예 → 문1-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2)로 가십시오.

문1-1) 다음의 항목에 대해 지난 한 주간 귀하의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응답해주시고,

해당하는 상태 중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항목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문 1-1) 해당여부		문 1-1-1) 주된 상태	해당 유형
	해당	비해당		
①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진학을 위한 공부시간보다 많았다.	1	0	1	→ 유형1 으로
②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취업을 위한 공부시간보다 많았다.	1	0	2	
③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일하는 시간이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간 보다 많았다.	1	0	3	
④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내 사업(일, 창업)을 준비하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내사업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많았다.	1	0	4	
⑤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할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며, 일하는 시간이 취업할 일자리 찾는 시간보다 많았다.	1	0	5	→ 유형2 으로
⑥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나, (일하는 시간보다는) 진학을 위한 공부시간이 더 많았다.	1	0	6	→ 유형3 으로
⑦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나, (일하는 시간보다는) 취업을 위한 공부시간이 더 많았다.	1	0	7	
⑧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으나, (일하는 시간보다는)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간이 더 많았다.	1	0	8	
⑨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내 사업(일, 창업)을 준비하였으며, (일하는 시간보다는) 내 사업을 위해 준비 또는 교육받는 시간이 더 많았다.	1	0	9	

문1-2) 다음의 항목에 대해 지난 한 주간 귀하의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응답해주시고,

해당하는 상태 중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항목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문 1-2) 해당여부		문 1-2-1) 주된 상태	해당 유형
	해당	비해당		
① 나는 지난 한 주간 가족이 하는 사업(일)을 도와 18시간 이상 일하였다.	1	0	1	→ 유형1 으로
② 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일시적인 병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상태였다.	1	0	2	
③ 나는 지난 한 주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못하였으며, 취업 할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1	0	3	→ 유형2 으로
④ 나는 지난 4주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못하였으며, 취업 할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1	0	4	
⑤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였다.	1	0	5	→ 유형3 으로
⑥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였다.	1	0	6	
⑦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다.	1	0	7	
⑧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내 사업을 찾기 위한 준비 또는 교육을 받았다.	1	0	8	
⑨ 나는 지난 한 주간 어떠한 것(일, 구직, 공부, 취업, 내 사업 준비 등)도 하지 않고 지냈다	1	0	9	→ 유형4 으로

1. 일반현황

문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문2-1)로 가십시오
② 여성 → 문3)로 가십시오

문2-1) (문2)의 ①응답자만) 귀하의 군복무를 완료하셨습니까?

- ① 예 → 문2-2)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2-3)으로 가십시오

문2-2) (문2-1)의 ①응답자만) 군복무경험이 현재 사회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습니까?

문항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있는 편	보통	영향 있는 편	매우 영향 큼
1) 진로 및 목표설정	1	2	3	4	5
2) 직업선택 및 결정	1	2	3	4	5
3) 군필로 인한 취업 가능성	1	2	3	4	5
4) 사회관계 및 사회생활적응	1	2	3	4	5

문2-3) (문2-1)의 ②응답자만) 귀하는 언제부터 군복무를 할 예정이십니까?

- ① 1년 이내 ② 1년~2년 이내
③ 2년~3년 이내 ④ 3년 후
⑤ 아직 계획 없음 ⑥ 해당사항 없음

문3)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년

문4) 귀하와 부모님(보호자)의 현재주거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 보기1)과 보기2)를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4-1) 소재지(보기1)	4-2) 세부지역(보기2)
1) 본인		
2) 부모(보호자)		

구분	보기1) 소재지	보기2) 세부 지역
서울	① 서울	* 비해당
광역시	② 부산 ④ 인천 ⑥ 대전 ③ 대구 ⑤ 광주 ⑦ 울산 ⑧ 세종	
도지역	⑨ 경기 ⑫ 충남 ⑮ 경북 ⑩ 강원 ⑬ 전북 ⑯ 경남 ⑪ 충북 ⑭ 전남 ⑰ 제주	① 중소도시 ② 읍, 면지역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5)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 → 문6)으로 가십시오

- ② 결혼하여 배우자 있음
③ 결혼한 적은 있으나 이혼하여 배우자 없음 → 문5-1)로
④ 결혼한 적은 있으나 사별하여 배우자 없음 가십시오
⑤ 결혼하였으나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

문5-1) (문5)의 ②-⑤응답자만)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① 있다 (_____ 명) ② 없다

2. 출신교 및 학교 생활

문6) 귀하의 출신교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인문계고/종합고
②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③ 농생명산업고/해양수산고/공업고
④ 정보고/상업고/디자인고/관광고
⑤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체육고
⑥ 마이스터고
⑦ 대안학교
⑧ 검정고시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7) 귀하의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 보기1)과 보기2)를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7-1) 소재지(보기1)	7-2) 세부지역(보기2)
1) 출신 교고 소재지		

구분	보기1) 소재지	보기2) 세부 지역
서울	① 서울	* 비해당
광역시	② 부산 ④ 인천 ⑥ 대전 ③ 대구 ⑤ 광주 ⑦ 울산 ⑧ 세종	
도지역	⑨ 경기 ⑫ 충남 ⑮ 경북 ⑩ 강원 ⑬ 전북 ⑯ 경남 ⑪ 충북 ⑭ 전남 ⑰ 제주	① 중소도시 ② 읍, 면지역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8) 귀하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중학교 성적이 맞추어서 ② 경제적 여건 때문에
③ 원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④ 친한 친구가 선택하여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9) 귀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시절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피해 여부	
	있다	없다
1) 심한 놀림이나 조롱	1	2
2) 집단따돌림(왕따)	1	2
3) 심한 폭행	1	2
4) 심한 욕설	1	2
5) 협박	1	2
6) 돈이나 물건 뺏김	1	2
7) 성희롱이나 성폭행	1	2

문10) 귀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시절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10-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1)으로 가십시오

문10-1) (문10)의 ①응답자만) 학업을 중단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④ 고등학교 1학년
⑤ 고등학교 2학년
⑥ 고등학교 3학년

문10-2) (문10)의 ①응답자란) 학업을 중단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사유 중 가장 주된 사유 하나만 선택해주십시오.

- ① 장애, 사고, 질병으로
 ② 집안 경제사정, 부모/가정 불화, 주거불안정, 부모 간병, 가족 부양 등으로
 ③ 학습부진, 학업에 대한 동기나 의욕이 없어서
 ④ 학교 폭력(따돌림, 갈취, 협박, 폭행 등), 교우관계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으로
 ⑤ 학교 생활규칙(지각 및 결석에 대한 징책, 두발 및 복장 단속, 흡연 및 음주 금지 등)에 대한 부적응으로
 ⑥ 유학, 어학연수, 이민, 부모 해외 파견 동행 등으로
 ⑦ 조기진학, 종교, 방생활동 등으로
 ⑧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외 학칙위반에 따른 징계로
 ⑩ 전반적인 학교시스템과 문화가 싫어서
 ⑪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 나의 길을 찾고 싶어서
 ⑫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고교 재학 중 일자리 경험

문11)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1-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12)로 가십시오

문11-1) (문11)의 ①응답자란) 고등학교 재학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했던 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일의 종류: 업·직종분류 코드 ※<업·직종분류> 참조(p.17)

문11-2) (문11)의 ①응답자란)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때 당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아래 <보기>를 보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11-3) 가장 주된 대처 방법 보기									
①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했다	②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 참고 일했다	③ 고용주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 했다	④ 부모,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았다	⑦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⑧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항	11-2) 경험 여부		11-3) 가장 주된 대처방법									
	있다	없다	1	2	3	4	5	6	7	8	9	
1)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3)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	1	2	1	2	3	4	5	6	7	8	9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5)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6) 일을 그만두고 싶는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1	2	1	2	3	4	5	6	7	8	9	
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8)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9)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0)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1)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2)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림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	2	1	2	3	4	5	6	7	8	9	

문11-4) (문11)의 ①응답자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② 영향을 미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미친 편이다. 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문12)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2-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13)로 가십시오

문12-1) (문12)의 ①응답자만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때 당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아래 <보기>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시오.

12-2) 가장 주된 대처 방법 보기	
①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했다	②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 참고 일했다
③ 고용주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 했다	④ 부모,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았다
⑦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⑧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항	12-1) 경험 여부		12-2) 가장 주된 대처방법									
	있다	없다										
1)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3)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	1	2	1	2	3	4	5	6	7	8	9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5)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6) 일을 그만두고 싶는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1	2	1	2	3	4	5	6	7	8	9	
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8)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9)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0)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1)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2)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	2	1	2	3	4	5	6	7	8	9	

문12-3) (문12)의 ①응답자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현장실습 경험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② 영향을 미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미친 편이다.

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문13)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졸업 후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문14)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상담 및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문14-1)로 가십시오

② 없었다 → 문15)로 가십시오

문14-1) (문14)의 ①응답자만 **주로 귀하의 진로를 상담하고 지원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래 항목 중 진로 상담과 진로 지원에 도움을 준 사람을 다음 중 우선순위로 두 사람만 선택해주시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① 담임선생님

② 진로상담선생님

③ 부모(또는 보호자)

④ 형제·자매

⑤ 친구나 선배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5)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15-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6)로 가십시오

문15-1) (문15)의 ①응답자만 **대학진학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본인 스스로

② 부모(또는 보호자)

③ 학교선생님

④ 학원선생님

⑤ 형제·자매

⑥ 친구 및 선후배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5-2) (문15)의 ①응답자만 **대학 진학 후 중퇴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15-3)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6)로 가십시오

문15-3) (문15-2)의 ①응답자만 **대학 중퇴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학년 1학기

④ 2학년 2학기

⑦ 4학년 1학기

② 1학년 2학기

⑤ 3학년 1학기

⑧ 4학년 2학기

③ 2학년 1학기

⑥ 3학년 2학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 ::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 6

문19) 귀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까지 자기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9-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20)로 가십시오

문19-1) (문19)의 ① 응답자만) 그 사업은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 ① 커피숍·식당 등 요식업 관련 분야
② 소꿉물, 도소매 등 유통업 관련 분야
③ IT 관련 분야(웹, 소프트웨어개발 포함)
④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관련 분야
⑤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분야
⑥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
⑦ 미디어, 콘텐츠 관련 분야
⑧ 전기전자 관련 분야
⑨ 건설, 토목, 기계 관련 분야
⑩ 제조 관련 분야(악세서리, 각종 용품 개발 포함)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9-2) (문19)의 ① 응답자만) 그 사업 운영 당시 **귀하를 제외하고, 귀하가 임금을 주는 종업원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총 _____ 명

문19-3) (문19)의 ① 응답자만) 그 사업 운영 당시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월평균 _____ 만원

문19-4) (문19)의 ① 응답자만) 그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현재 운영하고 있다 → 문20)로 가십시오
② 그만 두었다 → 문19-4-1)로 가십시오

문19-4-1) (문19-4)의 ② 응답자만) 그 사업은 왜 **그만두었습니까?**

- ① 전망이 없어서
②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③ 수입이 적어서
④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⑤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⑥ 사업관련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있어서
⑦ 기술 또는 기능수준이 맞지 않아서
⑧ 안정적이지 않아서
⑨ 근무시간이 불만족스러워서
⑩ 일이 너무 힘들어서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생활시간

문20) 귀하가 보통 **평일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래 항목에 따라 기입해 주십시오.

생활 항목	합계 시간
1) 수면	□□ 시간 □□ 분
2) 집 밖에서 이동 시간	□□ 시간 □□ 분
3) 학원수강/교육훈련/개인공부	□□ 시간 □□ 분
4) 취업/진학/창업을 위한 정보(자료) 검색 및 수집	□□ 시간 □□ 분
5) 일(아르바이트) 하는 시간	□□ 시간 □□ 분
6) 여가	□□ 시간 □□ 분
7) 그 외(구체적으로: _____)	□□ 시간 □□ 분
총 합계	24시간

6. 현재 일자리 경험

문21) 귀하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21-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24)로 가십시오

문21-1) (문21)의 ① 응답자만)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업·직종분류 코드 □□ □□ ※<업·직종분류> 참조 (p.18)

문21-2) (문21)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교육(훈련)비 마련을 위해
② 내 생활비(용돈) 충당을 위해
③ 가족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
④ 실무경력/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1-3) (문21)의 ① 응답자만) 귀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주당 평균 □□ □□ 시간

문21-4) (문21)의 ① 응답자만)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 □□ □□ 만원

문21-5) (문21)의 ① 응답자만) **진학(또는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어렵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려운 편이다
⑤ 매우 어렵다

문22) **현재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① 작성하였다.	→ 문22-1)로 가십시오
② 작성할 때도, 안 할 때도 있었다	→ 문23)으로 가십시오
③ 작성하지 않았다	

문22-1) (문22)의 ①, ② 응답자만)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 또는 사본**을 지급받으셨습니까?

- ① 지급받았다. ② 지급받지 못했다.

⇒ 다음페이지로

문23) 현재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아래 <보기>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3-1) 가장 주된 대처 방법 보기	
①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했다	②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 참고 일했다
③ 고용주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 했다	④ 부모,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았다
⑦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⑧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항	23) 경험 여부		23-1) 가장 주된 대처방법									
	있다	없다										
1)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3)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사적인 부탁이나 심부름 포함).	1	2	1	2	3	4	5	6	7	8	9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5)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6)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1	2	1	2	3	4	5	6	7	8	9	
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실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8)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9)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0)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1) 알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2) 직장동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	2	1	2	3	4	5	6	7	8	9	

문24) 아래 각 문항을 보고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알고 있었다	몰랐다
1) 아르바이트 직원도 정규 직원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	1	2
2) 정부에서 정한 2013년도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1	2
3) 1주일간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일 개근 시, 주1회 무급 주 휴일을 사용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1	2
4) 전체 직원 수가 5명 이상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 시, 시간당 5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	2

7-1. 진학 준비: 진학준비자만 응답

문25) 귀하의 진학준비 결정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다음 중 영향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두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① 본인 스스로 원해서 ② 부모(보호자)의 권유
③ 형제·자매의 권유 ④ 선생님의 권유
⑤ 친구·선후배의 권유 ⑥ 직장상사 등의 권유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6) 귀하가 진학준비를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② 고교졸업 하자마자 바로 ③ 고교 졸업 한 지 1년 이내 시점	→ 문 27)로
④ 고교 졸업 한 지 1년~2년 이내 시점 ⑤ 고교 졸업 한 지 3년 이후 시점 ⑥ 군복무 중에 ⑦ 군복무 이후 시점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 28-1)로

문26-1) (문26의 ④~⑦ 응답자만) 고등학교 졸업 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진학을 준비하게 된 가장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고졸학력에 따른 직장에서의 차별
② 대중자 중심의 사회 분위기
③ 고교 재학시절부터 진학을 희망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늦어짐
④ 가족 및 주변 친구들의 권유
⑤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
⑥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진학이 필요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7) 귀하가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준비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개월

문28) 귀하는 진학준비와 관련하여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28-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29)로 가십시오

문28-1) (문28의 ① 응답자만) 진학준비와 관련하여 귀하는 다음 중 어느 형태의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대입종합반 ② 기숙학원 ③ 단과학원
④ 개인교습 ⑤ 인터넷강의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8-2) (문28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올해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만원

문29) 귀하가 진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두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및 압박감
②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감
③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④ 스스로 낮아지는 자신감
⑤ 약해지는 신체건강 ⑥ 약해지는 정신건강
⑦ 약해지는 교우관계 ⑧ 단조로운 생활
⑨ 이성교제 및 관계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30) 귀하가 진학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가장 지원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응답을 마치고 8. 거주환경으로 가십시오.

7-2. 취업준비: 취업준비자만 응답

문31) 귀하의 취업준비 결정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다음 중 영향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두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① 본인 스스로 원해서 ② 부모(보호자)의 권유
③ 형제·자매의 권유 ④ 선생님의 권유
⑤ 친구·선후배의 권유 ⑥ 직장상사 등의 권유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32) 귀하가 현재의 취업준비를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② 고교졸업 하자마자 바로
③ 고교 졸업 한 지 1년 이내 시점
④ 고교 졸업 한 지 1년~2년 이내 시점
⑤ 고교 졸업 한 지 3년 이후 시점
⑥ 군복무 중에 ⑦ 군복무 이후 시점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33) 귀하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준비를 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개월

문34) 귀하는 취업준비와 관련하여 직업 교육 혹은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34-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35)로 가십시오

문34-1) (문34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직업 교육 또는 훈련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받은 직업 교육 또는 훈련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 향상훈련
② 정부지원훈련
③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비로 선택한 교육훈련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34-2) (문34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직업교육 또는 훈련을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받은 직업 교육 또는 훈련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공공훈련기관(인력개발원 등)
② 민간직업전문학교(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시설, 사설학원 등)
③ 근무장소나 사업체의 생산시설 등 현장
④ 사업체 훈련기관 또는 사업체 부설연수원
⑤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34-3) (문34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올해 지출한 월평균 총 직업 교육 또는 훈련비는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만원

문34-4) (문34의 ① 응답자만) 귀하는 직업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동안 직업훈련지원금(수당)을 받았습니까?

- ① 예 → 문34-4-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35)로 가십시오

문34-4-1) (문34-4의 ①응답자만)귀하가 받은 **직업훈련지원금(수당)**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만원

문34-4-2) (문34-4의 ①응답자만)귀하가 어디에서 **직업훈련지원금(수당)**을 받았습니까?

문34-4-3) 귀하가 받은 **직업훈련지원금(수당)**은 귀하의 **취업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문35) 귀하가 **취업준비**를 하는 동안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두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 1순위 ■ 2순위
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및 압박감
②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감
③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④ 스스로 낮아지는 자신감
⑤ 약해지는 신체건강
⑥ 약해지는 정신건강
⑦ 약해지는 교우관계
⑧ 단조로운 생활
⑨ 기타(구체적으로)

문36) 귀하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가장 지원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응답을 마치고 8. 거주환경으로 가십시오.

7-3. 창업준비: 창업준비자만 응답

문37) 귀하의 **창업준비 결정**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다음 중 **영향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두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 1순위 ■ 2순위
① 본인 스스로 원해서
② 부모(보호자)의 권유
③ 형제·자매의 권유
④ 선생님의 권유
⑤ 친구·선호배의 권유
⑥ 직장상사 등의 권유
⑦ 기타(구체적으로)

문38) 귀하가 **창업 준비**를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② 고교졸업 하자마자 바로
③ 고교 졸업 한 지 1년 이내 시점
④ 고교 졸업 한 지 1년~2년 이내 시점
⑤ 고교 졸업 한 지 3년 이후 시점
⑥ 군복무 중에
⑦ 군복무 이후 시점
⑧ 기타(구체적으로)

문39) 귀하의 **창업준비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개월

문40) 귀하가 **창업을 준비**하게 된 **가장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에 취업하기 어려워서
②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③ 누군가의 간섭이 싫어서
④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⑤ 더 많은 수입(소득)을 위해서
⑥ 가업을 이으려고
⑦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⑧ 소질 계발과 이상 실현을 위해
⑨ 기타(구체적으로)

문41) 귀하가 **창업을 준비**하게 된 **경제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 ① 일(아르바이트) 경험
② 교육을 통해 익힌 분야에서의 아이디어
③ 취미/여가 생활에서의 아이디어 발견
④ 기타(구체적으로)

문42) **창업의향**을 갖고 있는 **분야와 업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해당 번호를 써주시시오.

- ① 커피숍·식당 등 음식점 관련 분야
② 쇼핑몰, 도소매 등 유통업 관련 분야
③ IT관련 분야(앱, 소프트웨어개발 포함)
④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관련 분야
⑤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분야
⑥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
⑦ 미디어, 콘텐츠 관련 분야
⑧ 전기전자 관련 분야
⑨ 건설, 토목, 기계 관련 분야
⑩ 제조 관련 분야(약세서리, 각종 용품 개발 포함)
⑪ 기타(구체적으로)

문43) 귀하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전혀 아니다 | ② 아니다 | → 문 44)로 |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 문 43-1)로 |

문43-1) (문43의 ③④응답자만)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아래 항목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스마트폰 어플스토어
② 디자인
③ 게임 및 오락
④ 인터넷쇼핑몰
⑤ 통신판매
⑥ 공예
⑦ 기타(구체적으로)

문44) 귀하는 **창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만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마케팅
② 혁신적 기술아이템
③ 인적 네트워크
④ 창업자금
⑤ 창업교육
⑥ 성공한 창업자의 역할 모델
⑦ 기타(구체적으로)

문45) 귀하는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다음 중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① 방송·신문 등 미디어
② 인터넷
③ 창업교육센터
④ 창업동아리(온라인/오프라인)활동
⑤ 창업관련 이벤트(창업박람회 등)
⑥ 창업유형험자 및 창업 성공자
⑦ 공공 창업지원 기관
⑧ 민간 창업지원 기관
⑨ 기타(구체적으로)

문46) 귀하의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교육**을 받으셨습니까?
 ① 예 → 문46-1)로 ② 아니오 → 문47)로

문46-1) (문46)의 ① 응답자만) 귀하는 어디에서 **창업 교육**을 받았습니까?
 다음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곳 하나만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고등학교
 ② 대학 및 전문대학
 ③ 정부기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비영리기관(공공창업교육센터)
 ④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비로 선택한 민간 창업교육기관(민간창업교육센터)
 ⑤ 민간 사업체 현장
 ⑥ 온라인 창업교육지원 사이트(공공기관 및 지자체운영)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46-2) (문46)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올해 지출한 **월평균 창업교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 [] [] 만원

문47) 귀하가 생각하는 **창업 초기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 억 [] [] [] [] 만원

문48) 귀하는 **창업 초기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십니까? 다음 중 **초기자금 조달방법**을 우선순위로 두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① 개인자금 ② 부모로부터의 지원
 ③ 공공기관의 융자 및 보증 ④ 일반은행 대출
 ⑤ 친척/친구 자금 및 개인 투자자 자금
 ⑥ 벤처캐피탈
 ⑦ 민간기관 지원(재단, 공익법인) 및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49)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환경**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열악하다 ② 다소 열악하다
 ③ 다소 좋다 ④ 매우 좋다

문50) 귀하가 **창업준비(혹은 창업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두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① 자금부족 및 자금 조달 ② 인력부족
 ③ 창업 정보의 부족(행정절차, 경영기법, 교육 및 컨설팅)
 ④ 창업 관련 규제(구체적으로: _____)
 ⑤ 지원 제도의 미비(구체적으로: _____)
 ⑥ 창업 아이템의 부족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51) 귀하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가장 지원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문52) 현재 준비하고 있는 **창업에 실패**한다면, **향후**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① 창업에 재도전한다.
 ②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다.
 ③ 진학 준비를 한다.
 ④ 진학취업-창업을 포기하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8. 거주 환경

문53)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고 계십니까?
 ① 예 → 문56)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54)로 가십시오

문54) (문53)의 ② 응답자만) 그림 아래 항목 중 귀하의 **주거 형태**를 선택해 주시고, 그에 따른 **총 주거 비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총 주거 비용**은 거주 공간이 요구하는 모든 비용으로, 월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이 포함되며,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본인과 동거인이 함께 지불하는 비용을 합해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귀하의 **가장 주된 주거비 조달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54) 주거 형태	문54-1) 총 주거비용	문54-2) 가장 주된 주거비 조달방법
① 월세 자취	※ 총비용(한 달 기준) 보증금: [] [] [] 만원	① 부모님 지원 ② 본인의 근로 ③ 은행 대출 ④ 현금서비스 이용 ⑤ 친척에 빌림 ⑥ 친구에게 빌림 ⑦ 사금융 또는 대부업체 대출 ⑧ 장학금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55)로 가십시오
② 기숙사(회사 등)	⇒ ※ 응답표 1 [] [] (P.19)	
③ 하숙	월세 포함 모든 비용: [] [] [] 만원	
④ 고시원	※ 총 비용(한 달 기준) 보 증 금 : [] 억 [] [] [] 만 원	
⑤ 전세 자취	⇒ ※ 응답표 1 [] [] (p.19) 보증금 외 모든 비용: [] [] [] 만원	
⑥ 친인척 등 아는 사람(선배, 친구) 집	⇒ 지불 비용(한 달 기준): [] [] [] 만원	
⑦ 자가(본인, 부모님 명의)		
⑧ 정해진 거쳐 없음	→ 문55)로 가십시오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55) 귀하는 **거주하는 공간**에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이 있습니까? **기숙사 거주자의 경우는 방(호실)**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 문55-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56)으로 가십시오

문55-1) (문55)의 ①응답자만) 그런,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은 총 몇 명입니까? 총 명

문55-2)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 ,

① 형제/자매 ② 친/인척 동성 친구(선후배 포함) ③ 이성 친구 ④ 배우자 ⑤ 기타(구체적으로 :)

문56) 귀하는 현재의 주거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거주형태, 비용, 동거인, 조달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한 주거생활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9. 생활비 지출 현황

문57) 최근 3개월 귀하의 월별 생활비 지출 현황을 아래의 각 소비항목별로 지출 여부 및 지출 빈도, 월평균 지출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본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소비 항목	문57) 지출 여부	문57-1) 월평균 지출 금액 ※문57)의 ① 응답자만
1) 식비(집에서의 주식비와 부식비)	① 지출 ② 비지출	만원
2) 외식비(집 밖에서의 식사비와 간식비)	① 지출 ② 비지출	만원
3) 주류(술) 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만원
4) 담배 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만원
5) 대중 교통비	① 지출 ② 비지출	만원
6) 주거비(월세, 전기수도 요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① 지출 ② 비지출	만원
7) 보건의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만원
8) 교양오락비(영화공연 관람, 당구 등 스포츠 활동비, PC방, 노래방 등)	① 지출 ② 비지출	만원
9)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① 지출 ② 비지출	만원
10) 학원비 및 교재비	① 지출 ② 비지출	만원
11) 피복비(옷, 신발 등 구입비)	① 지출 ② 비지출	만원
12) 현금 및 각종 기부금	① 지출 ② 비지출	만원
13) 이·미용비	① 지출 ② 비지출	만원
14) 기타 잡비(구체적으로 :)	① 지출 ② 비지출	만원

문57-2) 귀하의 월평균 총 소비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57)의 1)~14) 소비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총 소비지출 금액 만원

※ 응답표 2 (P.19)

문58) 귀하는 월 소비지출 금액을 주로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아래 보기 항목을 참조하여,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두 가지만 해당 번호와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항목	금액
1순위		만원
2순위		만원

보기) 월 소비지출 금액 조달방법

① 부모님 지원	⑥ 친척에게 빌림
② 본인의 근로(아르바이트 등)	⑦ 친구나 지인에게 빌림
③ 저축해 두었던 돈 사용	⑧ 사금융 또는 대부업체 대출
④ 은행 대출	⑨ 기타(구체적으로 :)
⑤ 현금서비스 이용	

문59) 귀하는 생활비가 부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줄이는 소비항목은 무엇입니까? 문 57)의 1)~14) 소비 항목 중 가장 우선적으로 줄이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문60) 귀하는 현재 부채(빚)가 있습니까? 부채가 있다면 갚아야 할 총 잔액은 얼마입니까? 대출기관별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부채 항목	문60) 부채 유무	문60-1) 갚아야 할 총 잔액 (※문60) ① 응답자만)
합 계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1)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2) 신용카드 대금 연체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3) 사금융 및 대부업체 대출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4) 국가 대출 (장학재단 등)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5) 가족/친인척/친구/지인에게 빌린 돈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6) 기타(구체적으로 :)	① 있음 ② 없음	만원

☞ 문60) 1)~6) 항목 모두 '없음'인 경우 문61)로 가십시오.

문60-2) (문60)의 ①응답자만) 그림, 귀하가 부채를 지게 된 가장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 교육비 마련 ② 내 교육비 이외 취업준비금 마련
 ③ 내 거주비용 마련 ④ 내 생활비 마련
 ⑤ 내 유흥비 마련
 ⑥ 가족(나 이외의) 생활비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61) 귀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61-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62)로 가십시오

문61-1) (문61)의 ①응답자만) 귀하는 저축한 돈을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할 순서대로 두가지만 응답해주시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① 진학 시 필요한 등록금 마련 ⑦ 단약을 대비한 자금 준비
 ② 생활비(용돈) 충당 ⑧ 내 사업 자금 마련
 ③ 원하는 상품/서비스 구매 ⑨ 여행/여행연수 경비 충당
 ④ 취업 준비 ⑩ 별다른 목적 없음
 ⑤ 결혼 준비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⑥ 주거지 마련

문61-2) (문61)의 ①응답자만) 귀하의 저축액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만원

※ 응답표 2 (P.19)

10. 소득 현황

문62) 귀하는 지난 한달 동안 소득이 있었습니까? 소득이 있었다면 정기적인 소득입니까?

지난 한달 간 소득액을 소득원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소득원	문62) 소득 유무	문62-1) 소득의 정기성	문62-2) 월평균 소득액
		※문62) ①응답자만	
합 계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1) 근로 소득 (일을 해서 번 돈)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2) 부모 이전 소득 (부모님에게 받은 돈)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 문62) 1)~3) 항목의 소득을 모두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문63)으로 가십시오.

11. 여가 활동

문63)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여가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순으로 3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선택한 여가의 일주일 평균 해당 여가활동 시간, 1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본인 지출 비용만)을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을 경우 '0'원으로 기입해주시시오).

※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63) 주된 여가활동	문63-1) 주평균 여가활동 시간	문63-2) 1회 평균 소요비용(본인 지출비용)
1순위	시간	만 천원
2순위	시간	만 천원
3순위	시간	만 천원

<보기 : 여가활동 유형>

A. 문화예술 관람활동	B. 문화예술 참여활동	C. 스포츠 관람활동	D. 스포츠 참여활동
(1) 전시회/박물관 관람, 음악 연주회, 예술공연, 연극, 무용, 연예공연 관람 (2) 영화보기	(3) 문학, 서예, 문예, 미술활동,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 무용/춤 배우기 참여 (4) 사진촬영	(5) 스포츠경기관람	(6) 스포츠경기/운동(구기운동, 생활체육 운동 등) 참여
E. 관광활동	F. 취미 오락활동	G. 휴식활동	H. 사회 및 기타활동
(7) 국내여행(문화 유적, 자연풍경 관람, 산림욕, 국내 캠핑) (8) 해외여행 (9) 테마파크/놀이공원 식물원, 동물원가기	(10) 요리/생활공예/애완동물 돌보기 (11) 노래방가기 (12) 인터넷(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13)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및 SNS (14) 쇼핑/외식 (15) 음주 (16) 독서/만화책보기 (17) 미용(피부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형 등)	(18) 독욕/사우나/찜질방 (19) 낮잠 (20) TV시청/라디오 청취/음악감상 (21) 산책	(22) 사회봉사활동 (23) 종교활동 (24) 클럽/나이트 (25) 동호회 모임/활동 (2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2. 향후 계획 및 진로성숙도

문64) 앞으로 1년 후 귀하의 가장 주된 계획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취업	→ 문 65)로 가시오
② 대학 진학	→ 문64-1)로 가시오
③ 내 사업을 시작함	→ 문 65)로 가시오
④ 결혼	
⑤ 군입대	
⑥ 해외연수/유학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⑧ 별다른 계획 없음	

문65) 1년 후의 계획은 아니지만, 미래의 자신의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65-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66)으로 가십시오

문65-1) (문65)의 ①응답자만) 귀하의 가장 주된 계획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취업	→ 문 66)으로 가시오
② 대학 진학	→ 문65-2)로 가시오
③ 내 사업을 시작함	→ 문 66)으로 가시오
④ 결혼	
⑤ 군입대	
⑥ 해외연수/유학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⑧ 별다른 계획 없음	

문64-1) (문64)의 ③ 응답자만) 개인 사업을 시작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분야와 업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① 커피숍·식당 등 요식업 관련 분야
② 쇼핑몰,도소매 등 유통업 관련 분야
③ IT관련 분야(앱, 소프트웨어개발 포함)
④ 문화,예술,스포츠,레저,공연 관련 분야
⑤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분야
⑥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
⑦ 미디어,콘텐츠 관련 분야
⑧ 전기전자 관련 분야
⑨ 건설,토목,기계 관련 분야
⑩ 제조 관련 분야(악세서리, 각종 용품 개발 포함)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65-2) (문65-1)의 ③응답자만) 개인 사업을 시작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분야와 업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① 커피숍·식당 등 요식업 관련 분야
② 쇼핑몰,도소매 등 유통업 관련 분야
③ IT관련 분야(앱, 소프트웨어개발 포함)
④ 문화,예술,스포츠,레저,공연 관련 분야
⑤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분야
⑥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
⑦ 미디어,콘텐츠 관련 분야
⑧ 전기전자 관련 분야
⑨ 건설,토목,기계 관련 분야
⑩ 제조 관련 분야(악세서리, 각종 용품 개발 포함)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66) 다음은 귀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태도,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있는 글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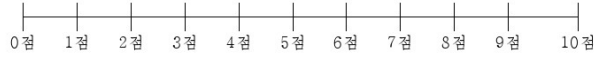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내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나의 진로(직업)를 스스로 결정 한다	1	2	3	4	5
6) 나는 내 직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최고전문가가 되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내 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1	2	3	4	5
8) 나는 희망하는 직업을 갖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이다	1	2	3	4	5

13. 사회·정서적 특성

문67)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래에 있는 글들을 잘 읽고 평소에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2)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3) 가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4)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5) 나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6) 내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	1	2	3	4	5
7) 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8) 내 자신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1	2	3	4	5
9) 전반적으로 나는 실패적인 것 같다	1	2	3	4	5
10) 가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1)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문68) 귀하는 자신의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14. 미래관

문69) 다음의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문항은 '예'에 그렇지 않은 문항은 '아니오'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1	0
2)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1	0
3)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1	0
4) 장래에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0
5)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 보통사람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0
6) 나에게 있어서 과거의 경험이 장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고 있다.	1	0
7) 나는 미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0
8) 나는 미래에 대해 큰 신념을 가지고 있다.	1	0
9) 나는 미래에 나쁜 일 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한다.	1	0

15. 부모 및 가족 특성

문70) 귀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 ☐ ① 두 분 모두 계심
☐ ② 아버지만 계심
☐ ③ 어머니만 계심
☐ ④ 두 분 모두 안 계심

→ 문71)로 가십시오

→ 문80)로 가십시오

문71) (문70)의 ①②③ 응답자만)

귀하의 부모님은 올해 만으로 몇 세 이십니까?

☐ 아버지 만 세 ☐ 어머니 만 세

문72) 귀하는 부모님의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문73) 귀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나 수료는 바로 아래 학력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기입 예: 고등학교 중퇴 → '중학교 졸업'으로 응답)

☐ 아버지 ☐ 어머니

- ☐ ① 초등학교 졸업 ☐ ④ 전문대학 졸업
☐ ② 중학교 졸업 ☐ ⑤ 대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⑥ 대학원 재학 이상

문74) 귀하 부모님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 중 어떠한 형태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74) 경제활동 여부	문74-1) 종사상 지위	문74-2) 직업(※표준직업 중분류표 보기 참조(p.18))
아버지	① 예 ② 아니오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⑤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⑥ 무급가족종사자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제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동 종사자 ⑩ 군인
어머니	① 예 ② 아니오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⑤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⑥ 무급가족종사자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제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동 종사자 ⑩ 군인

문75) 지난 한 달 귀하 부모님의 총소득은 얼마 인니까?

※ 지난 한 달(2013년 6월) 동안 부모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만원 ※ 응답표 3 (P.19)

문76)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귀하가 속한 가정의 소득은 평균보다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균보다 훨씬 높다 ② 평균보다 약간 높다 ③ 평균수준이다
④ 평균보다 약간 낮다 ⑤ 평균보다 훨씬 낮다

16. 가족관계

문77) 부모님께서서는 다음 사항에 어느 정도 관여하십니까?

문항	거의 관여하지 않음	관여하지 않는 편	보통	관여하는 편	매우 관여함
1) 거주형태(부모와 동거 여부 및 주거 형태 등) 선택	1	2	3	4	5
2) 사생활(이성교제, 친구관계 등)	1	2	3	4	5
3) 진로(진학 및 취업) 선택	1	2	3	4	5
4) 직업(직장/일)선택	1	2	3	4	5
5) 수입 및 지출 등 금전 관리	1	2	3	4	5

문78) 귀하가 현재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십니까?

- ①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 일체 ② 진학취업·창업 등 비용만 ③ 용돈만
④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음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79) 귀하의 부모님은 현재 귀하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원하십니까?

- ①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 일체 ② 진학취업·창업 등 준비 비용만 ③ 용돈만
④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음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80) 귀하의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남 녀

문81)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더라도 아닐때도 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우리 형제자매는 우애가 좋은 편이다. (※외동아들딸의 경우 ①해당사항 없음에 표기)	1	2	3	4	5	0
2) 우리집 식구들은 자주 모여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때가 많다.	1	2	3	4	5	
3) 우리집 식구보다는 친구들이 훨씬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준다.	1	2	3	4	5	
4)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다.	1	2	3	4	5	
5) 우리 가족은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	1	2	3	4	5	

17. 사회적지지

문82) 다음 각 문항을 보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아님	아님	보통	많이	매우 많이	비해당
1)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귀하는 다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지할 수 있습니까?						
가) 회사 상사/동료	1	2	3	4	5	9
나) 부모님(보호자)	1	2	3	4	5	9
다) 형제·자매	1	2	3	4	5	9
라) 친구/선후배	1	2	3	4	5	9
마)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1	2	3	4	5	9
2) 다음 사람들은 귀하의 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경청해 주니까?						
가) 회사 상사/동료	1	2	3	4	5	9
나) 부모님(보호자)	1	2	3	4	5	9
다) 형제·자매	1	2	3	4	5	9
라) 친구/선후배	1	2	3	4	5	9
마)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1	2	3	4	5	9
3) 귀하는 다음의 사람들과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가) 회사 상사/동료	1	2	3	4	5	9
나) 부모님(보호자)	1	2	3	4	5	9
다) 형제·자매	1	2	3	4	5	9
라) 친구/선후배	1	2	3	4	5	9
마)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1	2	3	4	5	9

18. 사회 보호대상자

문83) 귀하 또는 귀하가 속한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이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84) 귀하는 만19세 이전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9. 기타

문8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응답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후기 청소년 세대의 보다 구체적인 생활실태와 사회적 관심,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불만 이유 등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심층 인터뷰는 7월 중 실시되며, 응답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사예비가 지급됩니다. 귀하는 심층인터뷰에 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심층인터뷰에 응할 의향이 있으신 분께는 본 조사기관(입소스코리아)에서 7월에 연락드리겠으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 귀한 시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 ::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 17

<보기 : 업·직종 분류응답표 - 문11-1) 고등학교 재학 중 일자리, 문 18-2) 고교 졸업 후 가장 오랜기간 일자리, 문21-1) 현재 일자리의 종류>

1. 매장관리	2. 서빙주방	3. 서비스	4. 생산·기능
(11) 편의점 (12) 대형마트/소형몰/아울렛/백화점 (13) PC방/DVD방/노래방/단화방 (14) 당구장/오락실/게임장 (15) 의류 잡화/가전·휴대폰/ 화장품·뷰티 /사무·문구용품/가구·침구소품 매장 (16) 청탁·축산·수산물·산판매장 (17) 찜질방·사우나 (18) 독서실·고시원 (19) 도서·DVD대여점 (20) 기타 매장	(21) 음식점/ 레스토랑 (22) 패밀리 레스토랑 (23) 뷔페·연회장 (24) 커피전문점 (25) 패스트푸드 (26) 베이커리/아이스크림 (27) 일반주점·호프 (28) 카페 (29) 푸드코트/급식 (30) 조리·주방보조	(31) 영화공연·전시 (32) 테마파크·레포츠 (33) 숙박·호텔·리조트 (34) 안내데스크·매표 (35) 나레이터 모델/ 피팅 모델 (36) 보조출연자/사진·촬영보조 (37) 보안·경호·경비 (38) 여행가이드 (39) 헤어·피부·미용 (40) 기타 서비스	(41) 공사현장 (42) 전단·배포 (43) 주유·세차 (44) 청소·미화 (45) 배달/ 운전 (46) 운반·이사/택서비스 택배 (47) 제조·가공/ 포장·조립 (48) 전기·공사·설치/ 기계·정비·수리 (49) 물류·창고관리 (50) 기타 생산·기능
5. 사무·회계	6. IT·디자인	7. 상담·영업	8. 강사·교육
(51) 사무보조 (52) 자료입력·문서작성 (53) 경리·회계·총무 (54) 비서·전화응대 (55) 번역·통역 (56) 편찬·교정·교열 (57) 복사·출력·제본 (58) 실험·연구보조 (59) 공공기관 (60) 기타 사무	(61) 사이트운영 ·관리 (62) 쇼핑몰·오픈 마켓 (63) 프로그래머 (64) 컴퓨터 A/S (65) 웹디자인 (66) 그래픽·일러스트 (67) 편집·산업디자인 (68) CAD/CAM (69) 기타IT·디자인	(71) 고객상담 (72) 전화주문·접수 (73) 아웃바운드 TM (74) 설문조사·리서치 (75) 영업·마케팅 (76) 기타 상담·영업	(81) 입사·보습학원 (82) 외국어·어학원 (83) 방문·학습지 (84) 개인지도·과외 (85) 컴퓨터·IT (86) 자격증·기술 (87) 예체능·레포츠 (88) 유아·유치원 (89) 기타 강사·교육
9. 기타			
(90) 유흥업소 및 유흥업소/성인오락실 호객행위			
(91)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분야			

<보기: 부모 표준직업분류- 문 74-2) 부모님의 직업>

1.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2) 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1) 영업직 (52) 매장 판매직 (53)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61) 농·축·산 숙련직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2)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76)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78) 영상 및 통신·장비·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101) 군인		

< 응답표 1: 문54-1) 전세, 월세 보증금 >

응답 구분		
① 300만원 미만	⑦ 1,500-1,700만원 미만	⑬ 6,000-7,000만원 미만
② 300-500만원 미만	⑧ 1,700-2,000만원 미만	⑭ 7,000-8,000만원 미만
③ 500-700만원 미만	⑨ 2,000-3,000만원 미만	⑮ 8,000-9,000만원 미만
④ 700-1,000만원 미만	⑩ 3,000-4,000만원 미만	⑯ 9,000만원-1억원 미만
⑤ 1,000-1,200만원 미만	⑪ 4,000-5,000만원 미만	⑰ 1억원 이상
⑥ 1,200-1,500만원 미만	⑫ 5,000-6,000만원 미만	

< 응답표 2: 문57-2) 월평균 소비 지출비, 문61-2) 월평균 저축액>

응답 구분		
① 10만원 미만	⑥ 50-70만원 미만	⑪ 170-200만원 미만
② 10-20만원 미만	⑦ 70-100만원 미만	⑫ 200-220만원 미만
③ 20-30만원 미만	⑧ 100-120만원 미만	⑬ 220-250만원 미만
④ 30-40만원 미만	⑨ 120-150만원 미만	⑭ 250만원 이상
⑤ 40-50만원 미만	⑩ 150-170만원 미만	

< 응답표 3: 문75) 부모의 월소득 >

응답 구분		
① 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⑪ 500-5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⑦ 300-350만원 미만	⑫ 550-6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⑧ 350-400만원 미만	⑬ 600-700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⑨ 400-450만원 미만	⑭ 700-8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⑩ 450-500만원 미만	⑮ 800만원 이상

[유형4] 니트(NEET)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유형4]	ID				
---	------------------------------------	----	----------------------	----------------------	----------------------	----------------------

안녕하십니까? (주)입소스코리아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원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만19세~만24세 후기 청소년의 생활 및 현안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후기 청소년 세대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해주신 세부 조사결과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주)입소스 코리아 담당연구원 정나리 과장 (T) 02-6464-5132 서울 김희정 연구원 (T) 02-6464-5438

※ 본 조사대상은 만19세~만24세, 1988년 1월 1일 ~ 1994년 12월 31일 출생자만 해당됩니다.

면접 기록표 (조사원 기입사항)					
응답자 성명			전화		
이메일		주소	____시(도) ____시군구 ____읍·면·동 _____		
조사 일시	2013년 ____월 ____일	조사원 성명			

판별 문1) 귀하의 연령은 만19세 - 만 24세에 해당합니까?

- ① 예 → 판별 문2. ② 아니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판별 문2)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포함) 이십니까?

- ① 예 → 판별 문2-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판별 문2-1) 귀하의 고등학교 졸업년도(또는 학력인증 획득 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판별 문3)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셨습니다?

- ① 대학에 진학하여 현재 재학 중이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②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현재 휴학상태이고 복학할 계획이 있다. → 응답 대상자가 아닙니다.
③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현재 장기 휴학상태이며 복학할 계획이 없다. → 문1.로
④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중퇴하였다. → 문1.로
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 판별 문3-1.로

판별 문3-1) (판별 문3의 ⑤응답자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④ 딱히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②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③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격이 부족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경제활동 및 취업 상태 판별>

문1) 귀하는 지난 한 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① 예 → 문1-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2)로 가십시오.

문1-1) 다음의 항목에 대해 지난 한 주간 귀하의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응답해주시고,

해당하는 상태 중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항목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문 1-1) 해당여부		문 1-1-1) 주된 상태	해당 유형
	해당	비해당		
①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진학을 위한 공부시간보다 많았다.	1	0	1	→ 유형1 으로
②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취업을 위한 공부시간보다 많았다.	1	0	2	
③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일하는 시간이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간 보다 많았다.	1	0	3	
④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내 사업(일, 창업)을 준비하였으며, 일하는 시간이 내사업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많았다.	1	0	4	
⑤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할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며, 일하는 시간이 취업할 일자리 찾는 시간보다 많았다.	1	0	5	→ 유형2 으로
⑥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나, (일하는 시간보다는) 진학을 위한 공부시간이 더 많았다.	1	0	6	→ 유형3 으로
⑦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였으나, (일하는 시간보다는) 취업을 위한 공부시간이 더 많았다.	1	0	7	
⑧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으나, (일하는 시간보다는)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간이 더 많았다.	1	0	8	
⑨ 나는 지난 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내 사업(일, 창업)을 준비하였으며, (일하는 시간보다는) 내 사업을 위해 준비 또는 교육받는 시간이 더 많았다.	1	0	9	

문1-2) 다음의 항목에 대해 지난 한 주간 귀하의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응답해주시고,

해당하는 상태 중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항목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문 1-2) 해당여부		문 1-2-1) 주된 상태	해당 유형
	해당	비해당		
① 나는 지난 한 주간 가족이 하는 사업(일)을 도와 18시간 이상 일하였다.	1	0	1	→ 유형1 으로
② 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일시적인 병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상태였다.	1	0	2	
③ 나는 지난 한 주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못하였으며, 취업 할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1	0	3	→ 유형2 으로
④ 나는 지난 4주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못하였으며, 취업 할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1	0	4	
⑤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진학을 목적으로 공부하였다.	1	0	5	→ 유형3 으로
⑥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였다.	1	0	6	
⑦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다.	1	0	7	
⑧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로 내 사업을 찾기 위한 준비 또는 교육을 받았다.	1	0	8	
⑨ 나는 지난 한 주간 어떠한 것(일, 구직, 공부, 취업, 내 사업 준비 등)도 하지 않고 지냈다	1	0	9	→ 유형4 으로

429

문10-2) (문10)의 ①응답자(단) 학업을 중단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사유 중 가장 주된 사유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 ① 장애, 사고, 질병으로
 ② 집안 경제사정, 부모/가정 불화, 주거불안정, 부모 간병, 가족 부양 등으로
 ③ 학습부진, 학업에 대한 동기나 의욕이 없어서
 ④ 학교 폭력(따돌림, 갈취, 협박, 폭행 등), 교우관계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으로
 ⑤ 학교 생활규칙(지각 및 결석에 대한 징책, 두발 및 복장 단속, 흡연 및 음주 금지 등)에 대한 부적응으로
 ⑥ 유학, 어학연수, 이민, 부모 해외 파견 동행 등으로
 ⑦ 조기진학, 종교, 방종활동 등으로
 ⑧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외 학칙위반에 따른 징계로
 ⑩ 전반적인 학교시스템과 문화가 싫어서
 ⑪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 나의 길을 찾고 싶어서
 ⑫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고교 재학 중 일자리 경험

문11)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1-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12)로 가십시오

문11-1) (문11)의 ①응답자(단) 고등학교 재학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했던 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일의 종류: 업·직종분류 코드 ※<업·직종분류> 참조(p.15)

문11-2) (문11)의 ①응답자(단)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때 당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아래 <보기>를 보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시요.

11-3) 가장 주된 대처 방법 보기	
①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했다	②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 참고 일했다
③ 고용주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 했다	④ 부모,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았다
⑦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⑧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항	11-2) 경험 여부		11-3) 가장 주된 대처방법									
	있다	없다	1	2	3	4	5	6	7	8	9	
1)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7	8	9	
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7	8	9	
3)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			1	2	3	4	5	6	7	8	9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7	8	9	
5)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7	8	9	
6) 일을 그만두고 싶는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1	2	3	4	5	6	7	8	9	
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	2	3	4	5	6	7	8	9	
8)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1	2	3	4	5	6	7	8	9	
9)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7	8	9	
10)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7	8	9	
11)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7	8	9	
12)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틈새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	2	3	4	5	6	7	8	9	
1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	2	3	4	5	6	7	8	9	

문11-4) (문11)의 ①응답자(단)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② 영향을 미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미친 편이다. 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문12)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2-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13)로 가십시오

문12-1) (문12)의 ①응답자만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때 당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아래 <보기>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시오.

12-2) 가장 주된 대처 방법 보기	
①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았지만 참고 일했다	②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 참고 일했다
③ 고용주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 했다	④ 부모,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⑥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았다
⑦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⑧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봤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항	12-1) 경험 여부		12-2) 가장 주된 대처방법									
	있다	없다										
1)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3)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	1	2	1	2	3	4	5	6	7	8	9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5)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6) 일을 그만두고 싶는데 고용주가 못 그만 두게 했다.	1	2	1	2	3	4	5	6	7	8	9	
7)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8)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9)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0)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1) 일하다 다쳤는데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2)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	2	1	2	3	4	5	6	7	8	9	
1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	2	1	2	3	4	5	6	7	8	9	

문12-3) (문12)의 ①응답자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현장실습 경험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② 영향을 미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미친 편이다.

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문13)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졸업 후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문14)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상담 및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문14-1)로 가십시오

② 없었다 → 문15)로 가십시오

문14-1) (문14)의 ①응답자만 **주로 귀하의 진로를 상담하고 지원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래 항목 중 진로 상담과 진로 지원에 도움을 준 사람을 다음 중 우선순위로 두 사람만 선택해주시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① 담임선생님

② 진로상담선생님

③ 부모(또는 보호자)

④ 형제·자매

⑤ 친구나 선배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5)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15-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6)로 가십시오

문15-1) (문15)의 ①응답자만 **대학진학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본인 스스로

② 부모(또는 보호자)

③ 학교선생님

④ 학원선생님

⑤ 형제·자매

⑥ 친구 및 선후배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5-2) (문15)의 ①응답자만 **대학 진학 후 중퇴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15-3)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6)로 가십시오

문15-3) (문15-2)의 ①응답자만 **대학 중퇴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학년 1학기

④ 2학년 2학기

⑦ 4학년 1학기

② 1학년 2학기

⑤ 3학년 1학기

⑧ 4학년 2학기

③ 2학년 1학기

⑥ 3학년 2학기

문15-4) (문15-2)의 ①응답자만) 대학을 중퇴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항목 중 가장 주된 사유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등록금 부담
 ② 가족 부양 등 집안 경제적 사정 때문에
 ③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④ 전공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
 ⑤ 친구, 선후배 관계가 어려워서
 ⑥ 대학생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⑦ 대학 진학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여도 취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⑧ 일을 하면서 대학생활하기가 힘들어서
 ⑨ 내 사업(창업)을 하기 위해서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6) 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0점~10점 중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에 표기 해주세요.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문17) 귀하는 고등학교 생활이 현재 귀하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것이 없다
 ②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좀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4. 고교 졸업 후 일자리 경험

문18)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18-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19)로 가십시오

문18-1) (문18의 ① 응답자만) 고등학교를 졸업 후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는 총 몇 개입니까?

문18-2) ~ 문18-14) (문18의 ① 응답자만) 고등학교를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중 가장 오래 일했던 일자리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항	응답															
문18-2) 업·직종	업·직종분류 코드 ※<업·직종분류> 참조 (p.15)															
문18-3) 근무기간	총 개월															
문18-4) 구직기간	일을 찾은 지 개월 만에 취업															
문18-5) 가장 주된 취업경로	①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②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③ 부모, 친척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④ 친구, 선후배 등을 통해서 ⑤ 신문, TV, 생활정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⑥ 공공 및 사설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고용센터, 취업센터, 직업소개서 등) ⑦ 인터넷을 통해서(워크넷, 잡코리아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 ⑧ 현장실습, 인턴십 등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8-6)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해당사항 없음															
문18-7) 종사상지위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단독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문18-8) 근무 사업장 종사자수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99명 ⑥ 100명~299명 ⑦ 300명~499명 ⑧ 500명~999명 ⑨ 1,000명 이상 ⑩ 해당사항없음															
문18-9) 근로시간 형태	① 전일제 ② 시간제															
문18-10) 주당 근무시간	주당 시간															
문18-11) 소득(과세전)	월평균 만원															
문18-12) 4대 보험 가입유무	<table border="1"> <thead> <tr> <th>4대보험</th><th>가입</th><th>비가입</th></tr> </thead> <tbody> <tr> <td>국민연금</td><td>1</td><td>2</td></tr> <tr> <td>고용보험</td><td>1</td><td>2</td></tr> <tr> <td>건강보험</td><td>1</td><td>2</td></tr> <tr> <td>산재보험</td><td>1</td><td>2</td></tr> </tbody> </table>	4대보험	가입	비가입	국민연금	1	2	고용보험	1	2	건강보험	1	2	산재보험	1	2
4대보험	가입	비가입														
국민연금	1	2														
고용보험	1	2														
건강보험	1	2														
산재보험	1	2														
문18-13) 퇴직 사유	① 본인의 의사로 ②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18-14) 퇴직금 수령여부	① 받았다 ② 못 받았다															

문19) 귀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까지 자기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9-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20)로 가십시오

문19-1) (문19)의 ① 응답자만) 그 사업은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 ① 커피숍·식당 등 요식업 관련 분야
② 쇼핑몰, 도소매 등 유통업 관련 분야
③ IT관련 분야(웹, 소프트웨어개발 포함)
④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관련 분야
⑤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분야
⑥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
⑦ 미디어, 콘텐츠 관련 분야
⑧ 전기전자 관련 분야
⑨ 건설, 토목, 기계 관련 분야
⑩ 제조 관련 분야(악세서리, 각종 용품 개발 포함)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9-2) (문19)의 ① 응답자만) 그 사업 운영 당시 귀하를 제외하고, 귀하가 임금을 주는 종업원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총 _____ 명

문19-3) (문19)의 ① 응답자만) 그 사업 운영 당시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월평균 _____ 만원

문19-4) (문19)의 ① 응답자만) 그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현재 운영하고 있다 → 문20)로 가십시오
② 그만 두었다 → 문19-4-1)로 가십시오

문19-4-1) (문19-4)의 ② 응답자만) 그 사업은 왜 그만두었습니까?

- ① 전망이 없어서
②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③ 수입이 적어서
④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⑤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⑥ 사업관련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있어서
⑦ 기술 또는 기능수준이 맞지 않아서
⑧ 안정적이지 않아서
⑨ 근무시간이 불만족스러워서
⑩ 일이 너무 힘들어서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생활시간

문20) 귀하가 보통 평일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래 항목에 따라 기입해 주십시오.

생활 항목	활애 시간
1) 수면	□□ 시간 □□ 분
2) 집 밖에서 이동 시간	□□ 시간 □□ 분
3) 집 밖에서 보내는 활동 시간	□□ 시간 □□ 분
4)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	□□ 시간 □□ 분
5) 그 외(구체적으로: _____)	□□ 시간 □□ 분
총 합계	24시간

문21) 귀하는 지난 한 주 동안 집에 있지 않고 외출한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_____ 일

문22) 귀하는 지난 한달 동안 가족 이외 친구나 선후배, 지인 등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2-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22-2)로 가십시오

문22-1) (문22)의 ① 응답자만) 지난 한달 간 친구나 선후배, 지인 등을 만난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_____ 일

문22-2) (문22)의 ② 응답자만) 친구나 선후배, 지인 등을 만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딱히 만날 친구나 선후배, 지인이 없어서
② 그냥 귀찮아서
③ 경제적 부담 때문에(돈이 없어서)
④ 만나서 할 게 없어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3) 귀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_____ 일

6. 구직 경험

문24) 귀하는 구직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4-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27)으로 가십시오

문24-1) (문24)의 ① 응답자만) 가장 최근의 구직활동은 지금부터 몇 개월 전입니까? 지금부터 □□ 개월 전

문24-2) (문24)의 ① 응답자만) 얼마동안 구직활동을 했습니까? □□ 개월

문25) (문24)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구직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주된 방법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선생님들 통해서
② 부모, 친척, 친구, 선후배 등 아는사람들 통해서
③ 신문, TV, 생활정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④ 공공 및 사설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 (고용센터, 취업센터, 직업소개서 등)
⑤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워크넷, 잡코리아 등)
⑥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현장실습, 인턴십 포함)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6) (문24)의 ① 응답자만) 귀하의 구직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① 취업정보의 부족
②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일이 내게 맞는지 잘 모르는 것
③ 경력 부족 또는 낮은 연령
④ 요구수준과 맞지 않은 학력, 기능, 자격
⑤ 자신감이 부족
⑥ 내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보수(급여)
⑦ 내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근무환경(근무시간 등)
⑧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⑨ 구직기간 동안 가족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부담감
⑩ 구직기간 동안 가족 이외 주변사람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부담감
⑪ 구직기간 동안 생활비 또는 용돈
⑫ 구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원서비, 교통비, 증명사진비 등)
⑬ 외모
⑭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7) 귀하는 **구직활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27-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27-2)로 가십시오.

문27-1) (문27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원하는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귀하가 **원하는 근로형태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시오.

① 일주일에 2~3일 하루 8시간 정도의 일
 ② 일주일에 2~3일 하루 6시간 정도의 일
 ③ 일주일에 2~3일 하루 4시간 이하 정도의 일
 ④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정도의 일
 ⑤ 일주일에 5일 하루 6시간 정도의 일
 ⑥ 일주일에 5일 하루 4시간 이하 정도의 일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7-2) (문27의 ② 응답자만) **구직할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내 학력, 기술, 경험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 내가 원하는 임금수준의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③ 임금 이외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④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모두 실패해서
 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⑥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 귀찮아서
 ⑦ 현재의 생활에 만족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8) 귀하는 현재와 같이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생활을 앞으로 어느 정도 지속하실 생각이십니까?
 ① 기한없이 계속
 ②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까지
 ③ 지속하고 싶지 않다

문29) 귀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활동**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30)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31)으로 가십시오

문30) (문29의 ① 응답자만)
 귀하가 **일 외에 하고싶은 활동**은 어떤 활동입니까?

문31) 귀하의 **현재생활**에서 **정부로부터 가장 지원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7. 거주환경

문32)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고 계십니까?
 ① 예 → 문35)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33)로 가십시오

문33) (문32의 ② 응답자만) 그림 아래 항목 중 귀하의 **주거 형태**를 선택해 주시고, 그에 따른 **총 주거 비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총 주거 비용**은 **거주 공간이 요구하는 모든 비용**으로, 월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이 포함되며,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본인과 동거인이 함께 지불하는 비용을 합해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귀하의 가장 주된 주거비 조달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33) 주거 형태	문33-1) 총 주거비용	문33-2) 가장 주된 주거비 조달방법
① 월세 자취	※ 총비용(한 달 기준) ⇨ 보증금: □□□□만원 ※ 응답표 1 □□□□(P.16) 월세 포함 모든 비용: □□□□만원	① 부모님 지원 ② 본인의 근로 ③ 은행 대출 ④ 현금서비스 이용 ⑤ 친척에 빌림 ⇨ ⑥ 친구에게 빌림 ⑦ 사금융 또는 대부업체 대출 ⑧ 장학금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34)로 가십시오
② 기숙사(회사 등)		
③ 하숙		
④ 고시원		
⑤ 전세 자취	※ 총 비용(한 달 기준) ⇨ 보 증 금 : □억 □□□□만 원 ※ 응답표 1 □□□□(P.16) 보증금 외 모든 비용: □□□□만원	
⑥ 친인척 등 아는 사람 (선배, 친구) 집	⇨ 지불 비용(한 달 기준): □□□□만원	
⑦ 자가(본인, 부모님 명의)	→ 문34)로 가십시오	
⑧ 정해진 거처 없음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34) 귀하는 **거주하는 공간**에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이 있습니까? 기숙사 거주자의 경우는 **방(호실)**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 문34-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35)로 가십시오

문34-1) (문34의 ① 응답자만) 그런,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은 총 몇 명입니까? 총 □□ 명

문34-2) (문34의 ① 응답자만)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형제/자매 ③ 동성 친구(선후배 포함) ⑤ 배우자
 ② 친/인척 ④ 이성 친구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35) 귀하는 현재의 주거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거주형태, 비용, 동거인, 조달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한 주거생활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8. 생활비 지출 현황

문36) 최근 3개월 귀하의 월별 생활비 지출 현황을 아래의 각 소비항목별로 지출 여부 및 지출 빈도, 월평균 지출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본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소비 항목	문36) 지출 여부	문36-1) 월평균 지출 금액
		※문36)의 ① 응답자만
1) 식비(집에서의 주식비와 부식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2) 외식비(집 밖에서의 식사비와 간식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3) 주류(술) 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4) 담배 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5) 대중 교통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6) 주거비(월세, 전기수도 요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7) 보건의료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8) 교양오락비(영화공연 관람, 당구 등 스포츠 활동비, PC방, 노래방 등)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9)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0) 학원비 및 교재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1) 파복비(옷, 신발 등 구입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2) 현금 및 각종 기부금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3) 이·미용비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14) 기타 잡비(구체적으로: _____)	① 지출 ② 비지출	□□□ 만원

문36-2) 귀하의 월평균 총 소비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36)의 1)~14) 소비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총 소비지출 금액 □□□□ 만원

※ 응답표 2 □□□ (p.16)

문36-3) 귀하의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은 어느정도입니까? 월평균 □□□□ 만원

※ 응답표 2 □□□ (p.16)

문37) 귀하는 월 소비지출 금액을 주로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아래 보기 항목을 참조하여,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두 가지만 해당 번호와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항목	금액
1순위		□□□ 만원
2순위		□□□ 만원

보기) 월 소비지출 금액 조달방법

- ① 부모님 지원 ⑥ 친척에게 빌림
 ② 본인의 근로(아르바이트 등) ⑦ 친구나 지인에게 빌림
 ③ 저축해 두었던 돈 사용 ⑧ 사금융 또는 대부업체 대출
 ④ 은행 대출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⑤ 현금서비스 이용

문38) 귀하는 생활비가 부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줄이는 소비항목은 무엇입니까? 문 36의 1)~14) 소비 항목 중 가장 우선적으로 줄이는 순서대로 두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문39) 귀하는 현재 부채(빚)가 있습니까? 부채가 있다면 갚아야 할 총 잔액은 얼마입니까? 대출기관별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부채 항목	문39) 부채 유무	문39-1) 갚아야 할 총 잔액 (※문39) 응답자만)
합 계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1)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2) 신용카드 대금 연체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3) 사금융 및 대부업체 대출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4) 국가 대출 (정확재단 등)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5) 가족/친인척/친구/지인에게 빌린돈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있음 ② 없음	□□□ 만원

☞ 문39) 1)~6) 항목이 모두 '없음'인 경우 문40)로 가십시오.

문39-2) (문39)의 ①응답자만) 그럼, 귀하가 부채를 지게 된 가장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 교육비 마련 ② 내 교육비 이외 취업준비금 마련
 ③ 내 거주비용 마련 ④ 내 생활비 마련
 ⑤ 내 유흥비 마련
 ⑥ 가족(나 이외의) 생활비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40) 귀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40-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문41)로 가십시오

문40-1) (문40)의 ① 응답자만) 귀하는 저축한 돈을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할 순서대로 두가지만 응답해주시시오 ■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① 진학 시 필요한 등록금 마련 ⑦ 단약을 대비한 자금 준비
 ② 생활비(용돈) 충당 ⑧ 내 사업 자금 마련
 ③ 원하는 상품/서비스 구매 ⑨ 여행/어학연수 경비 충당
 ④ 취업 준비 ⑩ 별다른 목적 없음
 ⑤ 결혼 준비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⑥ 주거지 마련

문40-2) (문40)의 ① 응답자만) 귀하의 저축액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만원

※ 응답표 2 (P.16)

9. 소득 현황

문41) 귀하는 지난 한달 동안 소득이 있었습니까? 소득이 있다면 정기적인 소득입니까?

지난 한달 간 소득액을 소득원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소득원	문41) 소득 유무	문41-1) 소득의 정기성	문41-2) 월평균 소득액
		※문41) ① 응답자만	
합 계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1) 근로 소득 (일을 해서 번 돈)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2) 부모 이전 소득 (부모님에게 받은 돈)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기적 ② 비정기적	만원

☞ 문41) 1)~3) 항목이 모두 '없음'인 경우 문42)로 가십시오.

10. 여가 활동

문42)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여가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순으로 3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선택한 여가의 일주일 평균 해당 여가활동 시간, 1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본인 지출 비용만)을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을 경우 '0'원으로 기입해주시시오).

※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42) 주된 여가활동	문42-1) 주평균 여가활동 시간	문42-2) 1회 평균 소요비용(본인 지출비용)
1순위	시간	만 천원
2순위	시간	만 천원
3순위	시간	만 천원

<보기 : 여가활동 유형>

A. 문화예술 관람활동	B. 문화예술 참여활동	C. 스포츠 관람활동	D. 스포츠 참여활동
(1) 전시회/박물관 관람, 음악 연주회, 예술공연, 연극, 무용, 연예공연 관람 (2) 영화보기	(3) 문학, 서예, 문예, 미술활동,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 무용/춤 배우기 참여 (4) 사진촬영	(5) 스포츠경기관람	(6) 스포츠경기/운동(구기운동, 생활체육 운동 등) 참여
E. 관광활동	F. 취미 오락활동	G. 휴식활동	H. 사회 및 기타활동
(7) 국내여행(문화 유적, 자연풍경 관람, 삼림욕, 국내 캠핑) (8) 해외여행 (9) 테마파크/놀이공원 식물원, 동물원가기	(10) 요리/생활공예/애완동물 돌보기 (11) 노래방가기 (12) 인터넷(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13)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및 SNS (14) 쇼핑/외식 (15) 음주 (16) 독서/만화책보기 (17) 미용(피부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형 등)	(18) 독욕/사우나/찜질방 (19) 낮잠 (20) TV시청/라디오 청취/음악감상 (21) 산책	(22) 사회봉사활동 (23) 종교활동 (24) 클럽/나이트 (25) 동호회 모임/활동 (2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1. 향후 계획 및 진로성숙도

문43) 앞으로 1년 후 귀하의 가장 주된 계획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취업	→ 문 44)으로 가시오
② 대학 진학	
③ 내 사업을 시작	→ 문 43-1)로 가시오
④ 결혼	→ 문 44)으로 가시오
⑤ 군입대	
⑥ 해외연수/유학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⑧ 별다른 계획 없음	

문43-1) (문43)의 ③응답자만 개인 사업을 시작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분야와 업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커피숍·식당 등 요식업 관련 분야
- ② 쇼핑몰, 도소매 등 유통업 관련 분야
- ③ IT관련 분야(앱, 소프트웨어개발 포함)
- ④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관련 분야
- ⑤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분야
- ⑥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
- ⑦ 미디어, 콘텐츠 관련 분야
- ⑧ 전기전자 관련 분야
- ⑨ 건설, 토목, 기계 관련 분야
- ⑩ 제조 관련 분야(악세서리, 각종 용품 개발 포함)
-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44) 1년 후의 계획은 아니지만, 미래의 자신의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44-1)으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문45)로 가십시오

문44-1) (문44)의 ①응답자만 미래의 귀하의 가장 주된 계획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취업	→ 문 45)로 가시오
② 대학 진학	
③ 내 사업을 시작	→ 문 44-1)로 가시오
④ 결혼	→ 문 45)로 가시오
⑤ 군입대	
⑥ 해외연수/유학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⑧ 별다른 계획 없음	

문44-2) (문44-1)의 ③응답자만 개인 사업을 시작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분야와 업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커피숍·식당 등 요식업 관련 분야
- ② 쇼핑몰, 도소매 등 유통업 관련 분야
- ③ IT관련 분야(앱, 소프트웨어개발 포함)
- ④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관련 분야
- ⑤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분야
- ⑥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
- ⑦ 미디어, 콘텐츠 관련 분야
- ⑧ 전기전자 관련 분야
- ⑨ 건설, 토목, 기계 관련 분야
- ⑩ 제조 관련 분야(악세서리, 각종 용품 개발 포함)
-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45) 다음은 귀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태도,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있는 글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내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나의 진로(직업)를 스스로 결정 한다	1	2	3	4	5
6) 나는 내 직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최고전문가가 되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내 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1	2	3	4	5
8) 나는 희망하는 직업을 갖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이다	1	2	3	4	5

12. 사회·정서적 특성

문46)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래에 있는 글들을 잘 읽고 평소에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2)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3) 가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4)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5) 나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6) 내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	1	2	3	4	5
7) 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8) 내 자신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1	2	3	4	5
9) 전반적으로 나는 실패적인 것 같다	1	2	3	4	5
10) 가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1)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문47) 귀하는 자신의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15. 가족관계

문56) 부모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어느 정도 관여하십니까?

문항	거의 관여하지 않음	관여하지 않는 편	보통	관여하는 편	매우 관여함
1) 거주형태(부모와 동거 여부 및 주거 형태 등) 선택	1	2	3	4	5
2) 사생활(이성교제, 친구관계 등)	1	2	3	4	5
3) 진로(진학 및 취업) 선택	1	2	3	4	5
4) 직업(직장/일)선택	1	2	3	4	5
5) 수입 및 지출 등 금전 관리	1	2	3	4	5

문57) 귀하가 현재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십니까?

- ①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 일체 ② 진학·취업·창업 등 비용만 ③ 용돈만
 ④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음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58) 귀하의 부모님은 현재 귀하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원하십니까?

- ①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 일체 ② 진학·취업·창업 등 준비 비용만 ③ 용돈만
 ④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않음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59) 귀하의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남 ☐ 녀

문60)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더라도 아닐때도 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없음
1) 우리 형제자매는 우애가 좋은 편이다(※외동아들딸의 경우 ①해당사항없음)	1	2	3	4	5	0
2) 우리집 식구들은 자주 모여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때가 많다.	1	2	3	4	5	
3) 우리집 식구보다는 친구들이 훨씬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준다.	1	2	3	4	5	
4)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다.	1	2	3	4	5	
5) 우리 가족은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	1	2	3	4	5	

16. 사회적지지

문61) 다음 각 문항을 보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님	아님	보통	많이	매우 많이	비해당
1)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귀하는 다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지할 수 있습니까?						
가) 회사 상사/동료	1	2	3	4	5	9
나) 부모님(보호자)	1	2	3	4	5	9
다) 형제·자매	1	2	3	4	5	9
라) 친구/선후배	1	2	3	4	5	9
마)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1	2	3	4	5	9
2) 다음 사람들은 귀하의 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경청해 주니까?						
가) 회사 상사/동료	1	2	3	4	5	9
나) 부모님(보호자)	1	2	3	4	5	9
다) 형제·자매	1	2	3	4	5	9
라) 친구/선후배	1	2	3	4	5	9
마)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1	2	3	4	5	9
3) 귀하는 다음의 사람들과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가) 회사 상사/동료	1	2	3	4	5	9
나) 부모님(보호자)	1	2	3	4	5	9
다) 형제·자매	1	2	3	4	5	9
라) 친구/선후배	1	2	3	4	5	9
마) SNS/온라인 동호회(카페) 친구	1	2	3	4	5	9

17. 사회 보호대상자

문62) 귀하 또는 귀하가 속한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이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63) 귀하는 만19세 이전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8. 기타

문6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응답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후기 청소년 세대의 보다 구체적인 생활실태와 사회적 관심,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불만 이유 등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심층 인터뷰는 7월 중 실시되며, 응답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귀하는 심층인터뷰에 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심층인터뷰에 응할 의향이 있으신 분께는 본 조사기관(입소스코리아)에서 7월에 연락드리겠으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 귀한 시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기 : 업·직종 분류응답표 - 문11-1) 고등학교 재학 중 일자리의 종류, 문18-2) 고교 졸업 후 일자리 종류>

1. 매장관리	2. 서빙주방	3. 서비스	4. 생산·기능
(11) 편의점 (12) 대형마트/쇼핑몰/아울렛/백화점 (13) PC방/DVD방/노래방/만화방 (14) 당구장/오락실/게임장 (15) 의류·잡화/가전·휴대폰/ 화장품뷰티/사무·문구용품/가구·침구용품 매장 (16) 청과축산수산물산판매장 (17) 점결방사우나 (18) 독서실/고시원 (19) 도서DVD대여점 (20) 기타 매장	(21) 음식점/ 레스토랑 (22) 패밀리레스토랑 (23) 뷔페연회장 (24) 커피전문점 (25) 패스트푸드 (26) 베이커리/아이스크림 (27) 일반주점·호프 (28) 카페 (29) 푸드코트/급식 (30) 조리·주방보조	(31) 영화·공연·전시 (32) 테마파크·레포츠 (33) 숙박·호텔·리조트 (34) 안내데스크·매표 (35) 나레이터 모델/ 피팅 모델 (36) 보조출연자/사진·촬영보조 (37) 보안·경호·경비 (38) 여행가이드 (39) 헤어·피부미용 (40) 기타 서비스	(41) 공사현장 (42) 전단배포 (43) 주유·세차 (44) 청소·미화 (45) 배달/ 운전 (46) 운반이사/택서비스 택배 (47) 제조·가공/ 포장·조립 (48) 전기·공사·설치/ 기계·정비·수리 (49) 물류·창고관리 (50) 기타 생산·기능
5. 사무·회계	6. IT·디자인	7. 상담·영업	8. 강사·교육
(51) 사무보조 (52) 자료입력·문서작성 (53) 경리·회계총무 (54) 비서관·총무 (55) 번역·통역 (56) 편각교정·교열 (57) 복사·출력·제본 (58) 실험·연구보조 (59) 공공기관 (60) 기타 사무	(61) 사이트운영·관리 (62) 쇼핑몰·오픈마켓 (63) 프로그래머 (64) 컴퓨터 A/S (65) 웹디자인 (66) 그래픽·일러스트 (67) 편집·산업디자인 (68) CAD/CAM (69) 기타 IT·디자인	(71) 고객상담 (72) 전화·주문·접수 (73) 아웃바운드 TM (74) 설문조사·리서치 (75) 영업·마케팅 (76) 기타 상담·영업	(81) 입사·보습학원 (82) 외국어·어학원 (83) 방문·학습지 (84) 개인지도·과외 (85) 컴퓨터·IT (86) 자격·증기출 (87) 예체능·레포츠 (88) 유아·유치원 (89) 기타 강사·교육
9. 기타			
(90) 유통업소 및 유통업소/성인오락실 호객행위			
(91)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분야			

<보기: 부모 표준직업분류- 문 53-2) 부모님의 직업>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2) 이미지·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1) 영업직 (52) 매장 판매직 (53)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61) 농·축·산 숙련직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2)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76)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78)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10. 군인		
(101) 군인		

< 응답표 1: 문33-1) 전세, 월세 보증금 >

응답 구분		
① 300만원 미만	⑦ 1,500-1,700만원 미만	⑬ 6,000-7,000만원 미만
② 300-500만원 미만	⑧ 1,700-2,000만원 미만	⑭ 7,000-8,000만원 미만
③ 500-700만원 미만	⑨ 2,000-3,000만원 미만	⑮ 8,000-9,000만원 미만
④ 700-1,000만원 미만	⑩ 3,000-4,000만원 미만	⑯ 9,000만원-1억원 미만
⑤ 1,000-1,200만원 미만	⑪ 4,000-5,000만원 미만	⑰ 1억원 이상
⑥ 1,200-1,500만원 미만	⑫ 5,000-6,000만원 미만	

< 응답표 2: 문36-2) 월평균 소비 지출비, 문36-3) 현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 생활비, 문40-2) 월평균 저축액 >

응답 구분		
① 10만원 미만	⑥ 50-70만원 미만	⑪ 170-200만원 미만
② 10-20만원 미만	⑦ 70-100만원 미만	⑫ 200-220만원 미만
③ 20-30만원 미만	⑧ 100-120만원 미만	⑬ 220-250만원 미만
④ 30-40만원 미만	⑨ 120-150만원 미만	⑭ 250만원 이상
⑤ 40-50만원 미만	⑩ 150-170만원 미만	

< 응답표 3: 문54) 부모의 월소득 >

응답 구분		
① 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⑪ 500-5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⑦ 300-350만원 미만	⑫ 550-6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⑧ 350-400만원 미만	⑬ 600-700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⑨ 400-450만원 미만	⑭ 700-8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⑩ 450-500만원 미만	⑮ 800만원 이상

Abstract

A Study on the Situation of Life and Consciousness of Post-adolescents and Policy Measures II: Focusing on High School Graduates Who didn't Go to College

This study is aimed to make people pay attention to high school graduates who didn't go to college among late adolescents (age 19-24) who have been isolated from various youth policies even though they are the target of these policies under Framework Act on Juveniles and come up with policy goals for them.

To figure out the reality that high school graduates who didn't go to college have faced and their policy needs, this study has performed literature review and secondary data analysis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status. In addition, the problems that they have encountered and their policy needs have been deriv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on their daily life and conscious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n, a basic policy direction and policy goals for them have been developed. In terms of analysis on the problems of high school graduates who didn't go to college and their policy needs,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obtained:

First, because of 'high-school graduate' background, they haven't been able to get a fair opportunity in their daily life. In addition, those from low-education, double-income household have been under the pressure of 'self decision' in their career decision. In terms of self-esteem, in addition, they were below the average. They have experienced self-contraction and unfair treatment at work through violation of labor rights.

Second, those who are seeking employment have gone through early retirement and frequency turnover due to non-fulfillment of military duties yet, poor job competence and lack of social adaptability. In addition, they have worked in poor labor conditions

and experienced discrimination because of poor educational background. Third, they have lost self-directedness in setting their career goal and had an unclear goal for their future because of poor awareness of reality and duties. In addition, those from disadvantaged households have long been unemployed to stay qualified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Fourth, Not Employed in Education or Training (NEET) adolescents have been poor in adapting themselves to new environment and lost confidence in themselves because of experience of continuous failure. Even though they engage in labor activities for consumption, but 'short employment and NEET' pattern is repeated. However, a great portion of them is willing to get a decent job and engage in social activities.

To properly respond to these problems above, this study has proposed three basic policy directions for the high school graduates who didn't go to school; integrated policy, right-based approach and customized policy by sub group. In addition, seven sub-goals were set under these three policy directions, and specific plans by sub group have been proposed.

Keywords: High School Graduates, Adolescents who didn't Go to College, NEET, Late Adolescents, Daily Life and Current Consciousness, Policy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조아미·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전명기
-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윤옥경·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김균화·이용교·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오현석·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경준
- 13-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 이종원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가지 종단분석 - / 황진구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 체계 구축 / 홍영란·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김형주·이선영 (자체번호 13-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지표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김미숙·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강석영·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 (자체번호 13-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 (자체번호 13-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 시 과 제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김희진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서정아·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김형주·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유성렬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이유진·한상철·추승연·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이창호·최금해·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황진구·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황진구·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이주석
- 13-R49 2013년 토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김지연·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배상률·강영배·김정주·김혁진·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김경준·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오해섭·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김경준·모상현·이혜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김경준·모상현·이혜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이지혜·박형근·이수경·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이지혜·박형근·이수경·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김인숙·정병수·황소영·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김인숙·정병수·황소영·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김현철·김희진·김인아·김재근·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김영지·김희진·송인숙·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김영지·김현철·박정수·박지만·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Ⅰ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리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보고 13-R02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범신사 전화 02)503-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666-9 (93330)